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6

- 지도읍 편 -

---

2006.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연구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에 걸쳐 수행한 『島嶼 文化遺蹟 地表調査 및 資源化 學術用役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의 최종 성과품 중 지도읍 편이다.

지금까지 신안군 도서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민속학 관련 현지조사를 정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 편)』(1969)가 있고, 1970년대에는 도서지역의 인문사회 관련 통계를 정리한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73) 등을 통해 부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비로소 신안군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新安郡의 文化遺蹟』(목포대학 박물관·신안군)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신안군의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나, 19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근현대의 문화자원이 누락되어 다소 제한적인 연구였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본 작업은 신안군의 모든 읍면과 부속도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연대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 아래 본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를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 넘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주목한 까닭은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 즉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자원 역시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무엇이 의미 있는 문화자원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관과 포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존을 쉽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투자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이른바 <보존과 활용>의 상승효과를 올리는 데 주목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신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섬만으로 이루어진新安군이 해양의 시대에 각광 받는 문화관광지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풍부한 섬의 문화자원이 있다 해도 그저 흩어져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꿰어 그 상품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은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다.

지표조사는 먼저 자연 및 생태자원,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민속생활문화자원, 사회문화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자원을 선별하고 각 분야 나름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 이런 지표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번 작업은 주로 인문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이번 작업은 지도읍, 중도면, 임자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섬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자원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이新安군 전체의 문화관광 계획을 새로운 차원에서 일신하는 토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신안군 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책임을 맡은 김경옥 교수를 위시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공동연구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06년 9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장 강봉룡

---



#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개요 ——— 9

I. 자연자원 ..... 13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 13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목록 ——— 13

2)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현황 ——— 13

2. 생태문화자원 ——— 25

1) 생태문화자원의 목록 ——— 25

2) 생태문화자원의 현황 ——— 25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 32

1. 선사문화자원 ——— 32

1) 선사문화자원 목록 ——— 32

2) 선사문화자원 현황 ——— 32

3) 선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34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 36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목록 ——— 36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현황 ——— 37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활용방안 ——— 42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 44

1)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목록 ——— 44

2)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현황 ——— 46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활용방안 ——— 76

III. 민속생활문화자원 ..... 93

1. 어로문화 —— 93
  - 1) 어선어업과 어로활동 —— 93
  - 2) 갯벌 어로활동 —— 94
  - 3) 어로신앙 —— 100
2. 설화와 민요 —— 103
  - 1) 설화와 민요의 목록 —— 103
  -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 106
  - 3)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 162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 165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 165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 167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활용방안 —— 255

IV. 사회문화자원-갯벌- ..... 262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262
2. 사회문화자원 현황 —— 262
3. 사회문화자원 활용방안 —— 276

V. 지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 277

1. 지도의 개요 —— 277
2. 관광자원 현황 —— 278
3. 관광자원화 방안 —— 283

□ 전체 문화자원 분포도 —— 291

# 연구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한다.

###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 2. 연구의 기본방향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파악한 자료를 D/B화한다.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연자원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수집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대상지역은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이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유·무형문화재 구전기록 및 현장 영상기록(사진, 영상 디지털화) 보전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승 및 보전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승·보전 계획 수립한다.
- 관련 자료의 매뉴얼화 및 CD-ROM, 스크랩 제작을 시도한다.
- 유형문화, 구비전승, 굿, 당제,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디지털 자료화한다.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집된 문화자원의 위치도를 지도에 표기한다.

####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 국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하여 상품화한다.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한다.

#### 4. 연구의 의의

#####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는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한다.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한다.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한다.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해 왔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을 제안한다.

## ○ 지표조사의 집중화 · 체계화 · 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히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히 수행한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한다.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로 구축한다.

## 5.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 ·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한다.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를 제공한다.

## 6.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 공동연구원 문병채(전남대 지리학전공 겸임교수, GIS전공)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생태학전공)  
이현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고고학전공)  
최성환(신안문화원 사무국장, 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구비문학전공)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민속학전공)  
이윤선(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콘텐츠전공)  
김 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전공)  
김형서(대불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경영학전공)
- 연구보조원 이은정(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전공)

최미영(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기록관리학전공)  
박정원(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생물학전공)  
이혜연(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고고학 전공)  
조원중(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사회교육전공)  
정홍일(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역사학 전공)  
이수미(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송장선(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양나영(목포대 국어국문학과 4, 국문학 전공)  
이혜숙(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해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최유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찬희(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조인경(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 문화인류학 전공)  
최영민(대불대 관광경영학과 3, 관광경영학 전공)

# I. 자연자원

##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목록

구 분	번호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지형과 지질	1	지도의 원지형	지도 전역	면적 55.03km <sup>2</sup>
	2	지도의 간척지 모습	"	면적 24.36km <sup>2</sup>
	3	지도의 변형	"	
	4	지도의 명산 '두류산'	감정리 백련마을	높이 170m
	5	기암괴석 '호랑이바위'	내양리 가정마을	
경관자원	6	보호수 '신목'	읍내리, 태천리 등	수고 17m
	7	이름다운 길	해제~점암	
	8	붉은 박쥐 서식지	고사마을 폐광 동굴	
	9	신안 조선소	태천리 신안중공업	
	10	관광휴양타운	송도 연도교 주변	
	11	지도읍 오일장	지도읍내	
		태양광발전소	태천리 간척지내	20만평, 17MW경관자원
		송도어판장	송도 지도대교 밑	

### 2)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의 현황

#### ① “삶의 터전”의 시대별 원형

지도는 다른 어느 섬보다도 자연경관이 많이 변해왔다. 현재 원래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섬의 지리적 위치상 북서쪽 광활한 황해를 향해서 특트여 있어 원해에서 실려 온 모래가 북서해안을 따라 두껍게 퇴적되어 온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간척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는 동남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간척활동이 또한 크게 작용했다.

특히, 주민이 이곳 지도에 거주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간척활동에 의한 변화 섬의 문화사적으로도 훨씬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간척사업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과거 토목기술(제방축조 형태 및 기술)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섬면적, 해안선모습, 해류와 조류 흐름, 해로, 어장형성 및 변화를 짚어볼 수 있으며, 시대별 거주지(마을형성) 위치와 포구(선착장) 위치 및 변화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 지도의 원래 모습

지도 역시 여타 서해안 섬들과 마찬가지로 약 15,000년 전에는 전남 내륙과 연속(連陸)되어 있었고, 그 후 해수면 상승과 함께 약 2,000년 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섬으로 되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육지와 연속되었던 지도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섬으로 변한 후 북서부 지역에 파도의 작용 등에 의해 모래 등이 두껍게 퇴적되어 초기 모양이 형성되어졌다. GIS에 의해 당시 초기 모습(간척사업이 행해지기 이전)을 시물레이션 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지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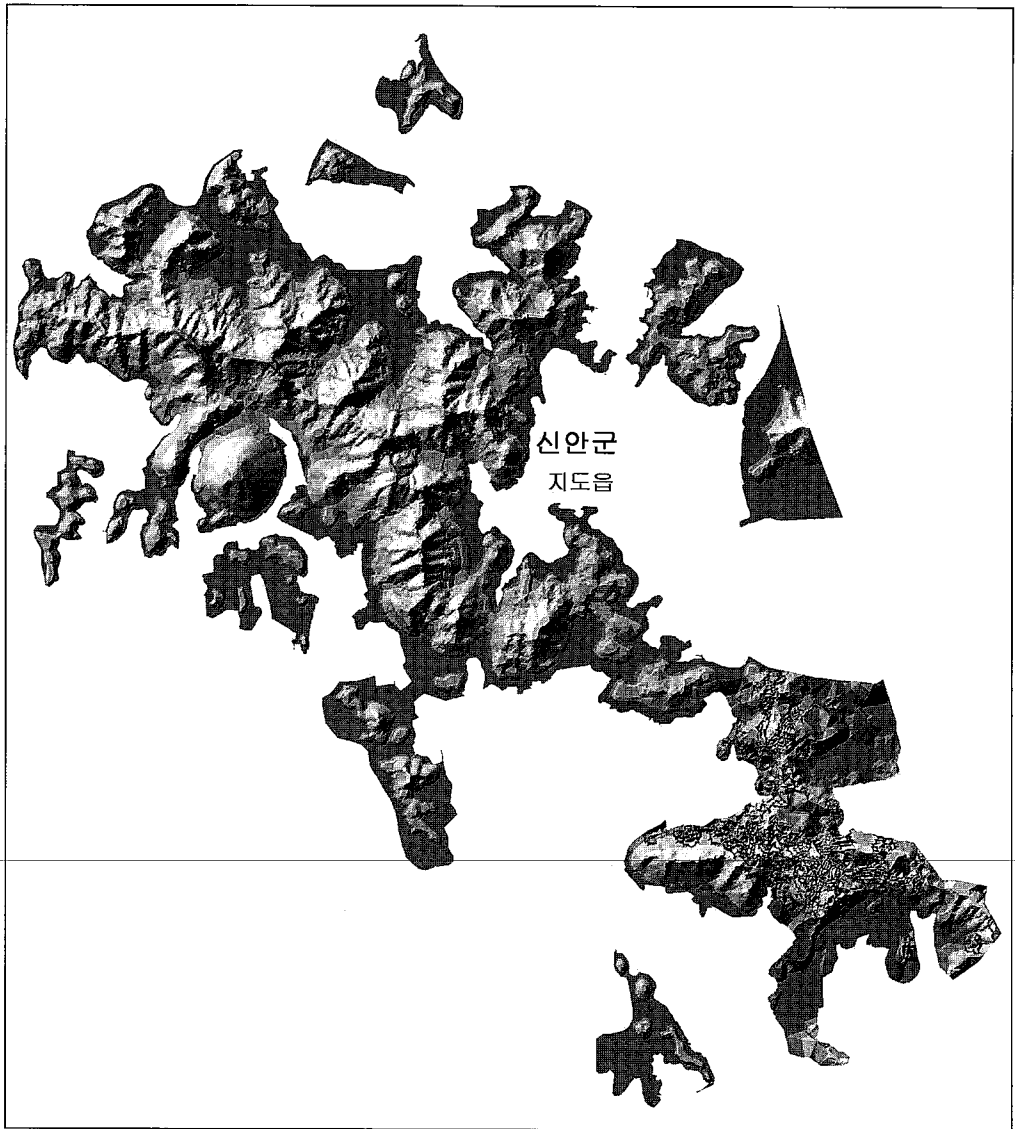
현재의 지형과 대비시켜 볼 때, 동쪽의 광정리 앞들 간척된 논경지 일대, 남쪽의 두류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 그리고 북쪽의 호남염전 일대의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 등이 바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임자도는 총면적이 55.03km<sup>2</sup>로 현재(79.39km<sup>2</sup>)보다 24.36km<sup>2</sup>가 작은 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현재의 대략 2/3규모). 그러나 당시 해안선은 매우 구불구불해 현재보다 훨씬 길었다. 당시의 해안선 길이는 123.23km로 현재의 106.45km보다 약 17km가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내용	총 면적(m <sup>2</sup> )	전체둘레(km)
	원래 모습(간척 전)	55.03	12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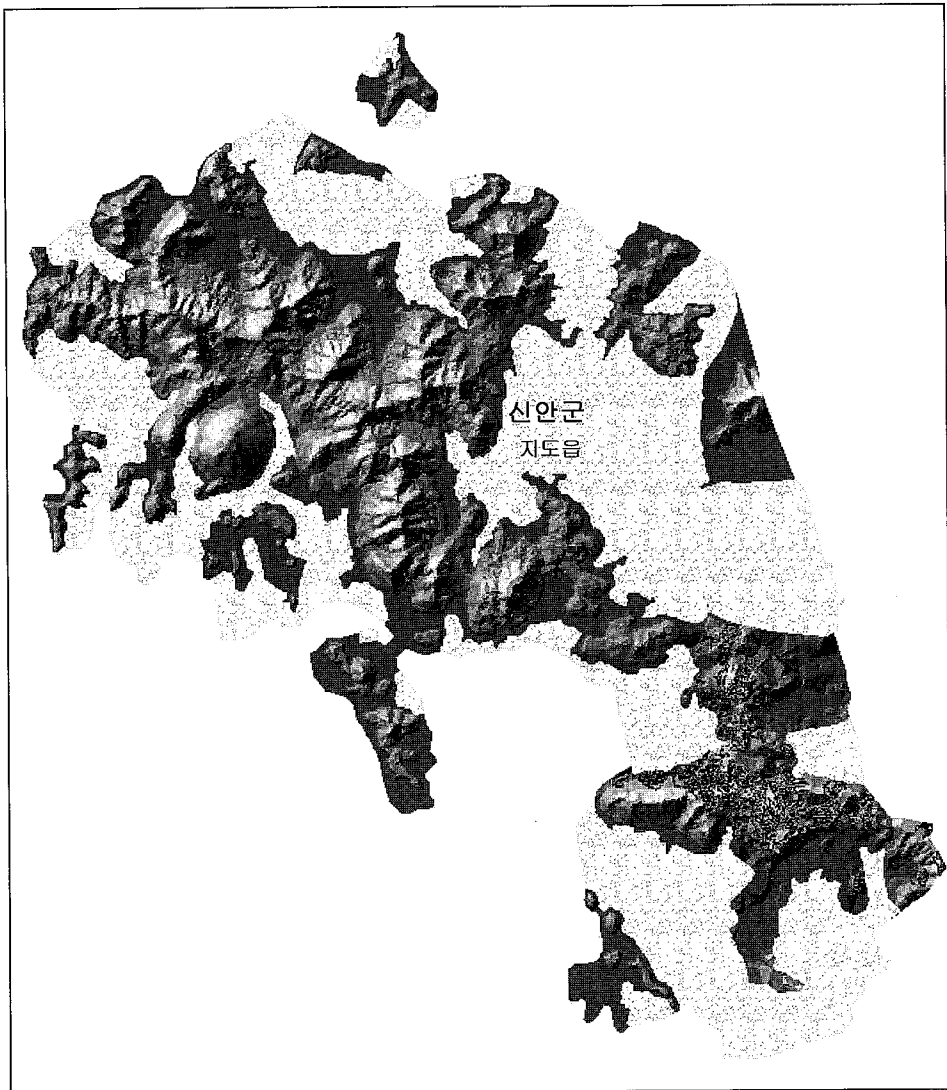
○ 간척활동으로 변한 모습

지도 지역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다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깝게는 서남해의 인근 도서들의 출발점이자 멀게는 대중국과 일본 항로의 기착지로서의 지리 및 지정학적 위치특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거주민의 증가는 많은 토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중앙정부 또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경작지를 늘리는 정책 강구로 활발한 해안매립 즉 간척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세기의 활발한 치수사업정책, 일제 시대의 현대적 토목기술, 해방 후의 제도적 체계적 정책 추진 등 일련의 과정들은 간척지(갯벌)을 대상으로 활발한 매립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도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놨다. 그 결과는 섬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놨으며 지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 특히 현재의 지형과 대비시켜 볼 때, 크게 3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동쪽의 광정리 앞들 간척된 논경지 일대, 남쪽의 두류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 그리고 북쪽의 호남염전 일대의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 등이 바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임자도는 총면적이 55.03km<sup>2</sup>로 현재(79.39km<sup>2</sup>)보다 24.36km<sup>2</sup>가 작은 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현재의 대략 2/3규모). 그러나 당시 해안선은 매우 구불구불해 현재보다 훨씬 길었다. 당시의 해안선 길이는 123.23km로 현재의 106.45km보다 약 17km가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 내용	총 면적(m <sup>2</sup> )	전체둘레(km)	간척면적(km <sup>2</sup> )
현재 모습(간척 후)	79.39	106.45	24.36



② 한 동안 행정중심지로 번창했던 섬

1975년 2월 무안군 해제면과 연륙됨으로써 신안군에서 유일하게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곳이 되었고, 임자, 증도 등과 철부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원활하며, 또한 교육의 중심지이기도하다.

무안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 지도는 무안군 해제면과 연륙이 되어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이 되었다.

1896년 지도군의 설립으로 군청이 들어서면서 한때 번창했던 지도군은 현재의 신안군 각 도서는 물론 영광의 안마도, 전북 위도, 목포의 울도, 영암의 나불도까지 관할했다. 1914년 한일합방으로 지

도군이 폐지되고 지도면이 되면서 무안군에 예속되기까지 17년 동안 군세를 떨쳤는데 현재는 신안군에 속하며 지난 1980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지도·사육도·어의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1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이다. 쌀·보리·맥주보리·참깨 등과 특용작물로 잎담배·땅콩·작약·유채 등이 재배된다. 김과 소금이 많이 나며, 고령토가 많다. 그리고 또한 지도-무안을 잇는 도로가 나 있다. 지도의 현재 면적은 79.51km<sup>2</sup>이고 인구는 6,053(2002)이다.

### ③ 유교적 기풍이 서린 ‘두류산’

감정리 백련마을에는 유명한 두류산이 있다. 이 산 정상에서 바라본 다도해 풍광은 일품이다.

두류단 뒤의 바위에는 우측면에 “大明日月 小華江山” (가로 23cm, 세로 24cm) 이라고 새겨져 있고, 좌측 아래면에 “崔益鉉書” (가로 15cm, 세로 9cm) 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1720년경 주자, 정여창, 김평필 세분을 모시는 정자를 짓고 제향을 지낸 것이 최초의 두류단이었으며, 그 후 1914년 호남지방의 선비들이 전라도지방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항로, 기정진, 김평목 3분을 단비(가로 33cm, 세로 68cm)로 모시고 3현단이라 칭하고 있다. 최익현의 글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智齊餘韻” (가로 21cm, 세로 17cm) 이라는 네자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고 하단에는 이 글씨를 새긴 김평목의 제자 9명의 이름이 있다.

### ④ 지도의 ‘기암괴석’

지도의 해안에는 기암괴석이 많다. 특히 북서쪽 망망대해르 바라보는 쪽에는 해수에 의한 파도작용이 활발한 관계로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이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 호랑이바위(지도읍 내양리 가정마을)와 영감바위(지도읍 봉리 황금마을), 할멈바위(지도읍 봉리 황금마을) 등이다.

이들 외에도 다리머리, 산두개, 고래미, 닭머리, 고동바위 등이 사방에 걸쳐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관광적 가치가 높다. 이들은 감정리 나루터 등 유명포구와 더불어, 지역의 명산인 두류산(감정리), 산봉산(지도), 삼암봉, 수도산(수도), 양달치봉 등과 함께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것들이다.

### ⑤ 신격화된 ‘수목’

지도읍 읍서리(智島邑 邑西里) 전나무는 풍년을 비는 신목으로 통한다. 수령이 256년 되었다는 이 나무는 높이가 6m밖에 안되지만 매년 정월 초사흘날을 택해 제사를 지내고 풍년들기를 기원하고 있다. 제주는 1개월 전부터 음식을 가려 먹고 상가나 부정이 탈만한 곳은 가지 않는 등 온갖 정성을 쏟는다. 또 옛날 아들이 없는 부인이 이 전나무 앞에서 1개월을 꿇어앉아 정성껏 치성을 들였더니 신통하게도 득남하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아들 없는 여인들이 득남을 비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비금면 지당리 고서리의 고목나무(약 700년)는 옛날 늙은 부부가 무남독녀의 외동딸을 기르면서 사이좋게 살았는데, 딸이 7살 되던 어느날, 병명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몇 일 후 숨을 거두어 버렸다. 이에 딸의 시신을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는데 5년이 지나자 딸의 무덤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고 한다. 그래서 불임증을 다스리는 신통한 나무로 여인들로부터 신앙이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같은 곳의 300여년 된 팽나무는 아들이 없거나 어린애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나무에 공을 드리면 숙원을 이룩한다고 전해져 지금도 치성 드리는 것이 목격된다. 이 같은 전설을 뒷받침하듯 나무 중간쯤에는 오목하게 패인 구멍이 있고 이 구멍에 고인 물은 부인병에 특효약이라 해서 물을 찾는 여인이 있는데 효험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격화된 보호수는 서남해역에 많다. 그중 지도읍에 분포하고 있는 보호수들은 아래 표와 같다.

지도읍의 보호수

번호(군지정)	수종(樹種)	수령(년)	수고(m)	둘레(m)	소재지
10-27-1	팽나무	306	17	3.7	지도읍 읍내리 산140
10-27-2	팽나무	200	17	3.5	지도읍 태천리 잡종1175
10-27-3	느티나무	310	17	3.4	지도읍 내양리 전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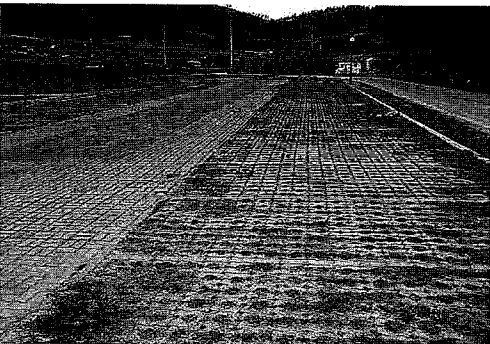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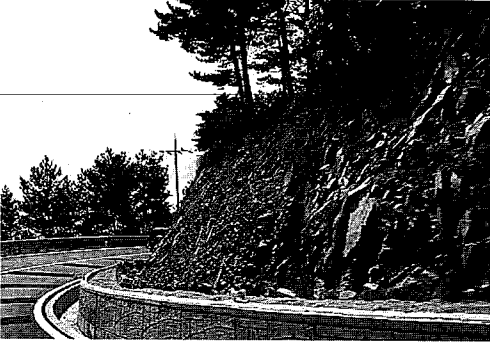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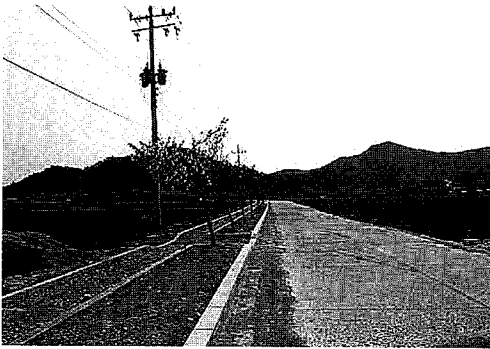
### ⑥ 향토성과 생태성이 확보된 “중심가로(해제~점암)”

해제-점암로는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미관성 및 지역의 상징적(landmark)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변이 향토성, 생태성 등이 확보되어 있어 가로경관 정비와 자연성 회복으로 개성 있는 경관 연출이 가능한 곳이다.

이를 가꾸기 위해, 건축물 시설의 노후화, 진부한 디자인, 관리 소홀, 옥외광고물 돌출과 자극적인

원색의 과다사용의 개선하고, 가로수의 경우 식재되지 않은 구간의 식재와 수목의 종류나 식재패턴을 개선해 경관적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 가로변에 가로화단, 공원, 광장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쾌적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심가로 주변에 과수원 등 독특한 전원풍경을 연출하고 구릉지대의 계단식 경작지에는 경관작물(자운영, 유채 등) 재배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또한, 해안과 산림 등이 빼어난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구간에는 조망공간, 휴게공간, 포토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드라이브객,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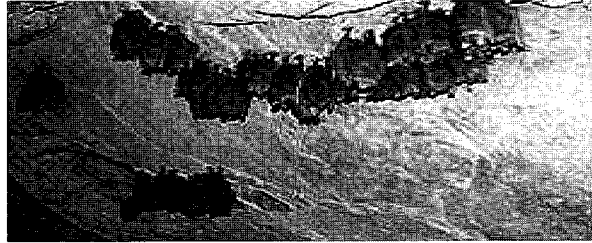
해제에서 지도로 가는 연륙교 방죽에서는 송어낚시가 잘 되기로 유명하기도 하다.

또한 고동섬에서도 농어와 송어가 잘 잡힌다. 민물 낚시로는 봉리지가 유명한데 봉어와 민물장어가 잘 잡힌다.

지도의 특산물로는 미질이 좋은 간척지 쌀이 유명하다.

### ⑦ 붉은 박쥐 서식지 ‘고사마을 폐광’

지도읍 감정리 고사 마을 폐광에서 멸종위기 동물1호로 지정된 붉은 박쥐(일명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다. 애기박쥐과 박쥐목인 붉은 박쥐는 야행성으로 동굴생활을 하며 11월에서 다음해 3월



까지는 겨울잠을 잔다. 몸털은 양털과 비슷하지만 광택이 없고 날개, 귓바퀴의 골격부분은 오렌지색이고 귓바퀴는 가늘고 길며 약간 굽어있고 날개막은 다리의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 나와 있다.

### ⑧ 신안중공업에서 건립 중인 ‘중형조선소’

신안군 지도읍에 중형조선소가 들어서고 있다. 신안중공업은 우선 1단계로 3만7천평 부지에 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1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신안중공업은 이미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절차를 끝내고 착공식을 가졌다.

중형조선소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1년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안중공업은 이와 함께 추가로 26만평 규모(투자금액 1천650억원)의 2·3차 단지 개발계획도 검토 중이다.

신안중공업은 1만~5만t급 탱커 및 컨테이너 위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 3년 후부터는 연간 12척 이상의 선박 건조를 목표(4억2천만달러)로 하고 있다.

### ⑨ 송도 ‘관광휴양타운’

지도읍 송도에 ‘농어촌 관광휴양타운’이 들어선다. 신안군은 24일 2008년까지 민자 760억원을 들여 지도읍 연륙교 주변 15만평에 농수산관광 쇼펄몰, 해수 스파랜드, 고급호텔, 콘도, 음식점타운, 낚시 체험공원, 1,0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춘 휴양타운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휴양타운 개

발 업체인 (유)지도개발공사는 1단계로 휴양타운내 옛 신안수협 위판장을 허물고 인근 청정해역에서 잡힌 각종 수산물을 판매와 가공시설을 갖춘 최신 위판장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또 어선 출입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오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신 오·폐수 처리 시설도 설치한다.

2단계 사업으로 6월에는 해수 스파랜드와 호텔, 대형 농수산관광 쇼핑몰을 착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 휴양타운이 조성되면 ㈜한백이 250억원을 들여 4월에 완공할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와 갯벌휴양타운과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 ⑩ 태천리 ‘태양광발전소’

지도읍 태천리에는 신생에너지인 대규모 태양열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어 앞으로 산업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규모를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총 20만평의 부지에 17MW(3MW급 5개, 2MW급 1개) 규모로 총 1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발전규모 3MW급을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어 연계개발로 체험적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로서 가치증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⑪ 해산물의 보고 지도읍 오일장

신안의 각 면단위 다도해로 들어가는 길목은 두 곳이 있다. 목포와 지도읍이 그 두 곳이다. 그래서 이 두 곳은 예부터 큰 시장이 들어섰었다.

지도읍 5일장은 임자도, 사육도, 증도 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있는 시장이다. 지도읍 5일장은 인근 증도와 임자도 해역에서 잡히는 송어, 병어, 민어, 농어, 조기, 새우, 낙지 등 갖잡아 온 싱싱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시장에 비해 수산물 값은 20~30% 가량 싼값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변의 식당주들과 섬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 중의 하나이다. 증도나 임자도에 비해 드넓은 지도의 황토밭에서 재배되는 각종 농산물과, 어민들이 직접 잡거나 기른 수산물들을 가지고 나와 직판을 벌입니다.

지도읍 5일장은 대략 500여 명이 이용하며, 목포와 광주에서 약 1시간 거리로 비교적 가깝고, 증도와 임자도에 오고 가면서 들리는 곳이다.

#### ⑫ 활기에 넘치는 ‘송도 어판장’

증도에 오시다 보면 송도(지도대교 아래)에 섬 특유의 수산물 시장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어촌포구가 있다. 신안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위판장도 있어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게 보이지만 이곳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양은 엄청나다.



송도어판장의 새우젓

지도대교 아래로 내려서면, 인근 해역에서 갓 잡아 온 싱싱한 갯가지 종류들의 생선들에서 나는 갯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최근 들어 쌀 가격에 더욱 알려져 인근 광주는 물론이고 서울 상인들까지 왕래가 잦다. 또한, 도회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 위판장을 다녀들 간다.

부록 1

지도읍의 간척현황(대장자료)

연번	시 도	관리구분	위치	지구명	면 적		방조제 연장	준공연도
					구역	몽리		
1	신안군	국가관리	지도	태천	188	118	3,575	1920
2	신안군	국가관리	지도	호화	222	117	1,945	1938
3	신안군	도관리	지도	가정	52	45	1,030	1935
4	신안군	도관리	지도	대촌	28	20	252	1900
5	신안군	도관리	지도	주동	38	30	143	1900
6	신안군	도관리	지도	후촌	78	44	320	1910
7	신안군	도관리	지도	당촌앞	42	25	1,100	1954
8	신안군	도관리	지도	광두	67	27	1,911	1912
9	신안군	도관리	지도	일광사	189	77	2,715	1954
10	신안군	도관리	지도	효지	43	41	1,030	1932
11	신안군	도관리	지도	어의	36	16	1,255	1962
12	신안군	도관리	지도	서동촌	22	20	240	1930
13	신안군	도관리	지도	오룡	85	70	1,250	1963
14	신안군	도관리	지도	묘동	62	50	852	1952
15	신안군	도관리	지도	감정	52	20	930	1952
16	신안군	도관리	지도	일출	36	29	520	1954
17	신안군	도관리	지도	금출	55	43	893	1964
18	신안군	도관리	지도	연화	57	42	780	1919
19	신안군	도관리	지도	고사	69	10	1,120	1950
20	신안군	도관리	지도	탄동2	66	20	939	1948
21	신안군	군관리	지도	범덕	2	2	270	1900
22	신안군	군관리	지도	석산	2	2	680	1900
23	신안군	군관리	지도	포작신원	4	4	510	1900
24	신안군	군관리	지도	북촌3	4	3	146	1900
25	신안군	군관리	지도	발넘	3	3	250	1900
26	신안군	군관리	지도	버던	3	2	417	1900
27	신안군	군관리	지도	안산	1	1	170	1905
28	신안군	군관리	지도	읍내	13	12	900	1932
29	신안군	군관리	지도	당넘	7	7	505	1910
30	신안군	군관리	지도	성남	1	1	259	1940
31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송도1	15	12	918	1916
32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송도3	9	6	1,443	1918
33	신안군	군관리	지도	탄동1	11	8	873	1919
34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소나리어망평	0	0	170	1948

연번	시 도	관리구분	위치	지구명	면 적		방조제 연장	준공연도
					구역	몽리		
35	신안군	군관리	지도	적동	5	4	735	1964
36	신안군	군관리	지도	회산	2	2	300	1920
37	신안군	군관리	지도	일정섬	3	3	382	1920
38	신안군	군관리	지도	북촌1	30	20	236	1924
39	신안군	군관리	지도	묘동뒀	34	31	1,053	1924
40	신안군	군관리	지도	하담	7	7	250	1924
41	신안군	군관리	지도	세정골	1	1	90	1925
42	신안군	군관리	지도	산두계	8	8	580	1925
43	신안군	군관리	지도	태이1	1	1	197	1925
44	신안군	군관리	지도	중매	20	16	490	1930
45	신안군	군관리	지도	외양	38	31	234	1963
46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소금앞	14	12	700	1931
47	신안군	군관리	지도	유동	27	19	1,260	1963
48	신안군	군관리	지도	태이2	1	1	202	1932
49	신안군	군관리	지도	율도	3	2	146	1963
50	신안군	군관리	지도	안안섬	3	3	270	1961
51	신안군	군관리	지도	해광중학	15	10	550	1962
52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송도2	5	2	286	1940
53	신안군	군관리	지도	소포작	2	2	305	1940
54	신안군	군관리	지도	중산동	8	6	530	1966
55	신안군	군관리	지도	안마	8	7	632	1954
56	신안군	군관리	지도	매개2	19	14	1,105	1964
57	신안군	군관리	지도	북촌2	6	3	296	1959
58	신안군	군관리	지도	매개1	17	15	392	1950
59	신안군	군관리	지도	취동앞	6	5	193	1958
60	신안군	군관리	지도	가정뒀	5	4	340	1955
61	신안군	군관리	지도	당촌신원	28	13	820	1954

## 2. 생태문화자원

### 1) 생태자원의 목록

구분	자원명	주소(위치)	규모 및 사양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신안군 북쪽	E126°19' N35°2'	
	모양과 형태	간척하여 하나의 섬으로됨	군청과의 거리 58.4km <sup>2</sup> 면적 60.27km <sup>2</sup>	
지형과 기후	유명산	삼암봉(196m)	지도읍 감정리 일대 해발 196.2m	
	해안지형	해식애	지도읍 해안지대	
	유명섬	사옥도(沙玉島)	지도읍 부속도서	면적 10.95km <sup>2</sup>
		어의도(於義島)	지도읍 어의리	면적 1.6km <sup>2</sup> . 해식애가 발달함.
		송도(松島)	지도읍 부속도서	면적 2.4km <sup>2</sup>
		대포작도(大包作島)	지도읍 대포작도리	면적 0.76km <sup>2</sup>
		선도(蟬島)	지도읍 선도리	면적 5.26km <sup>2</sup> ,매미모양의 섬
		율도(栗島)	지도읍 태천리	면적 0.52km <sup>2</sup> , 밤모양의 섬
	토양	적색 토양층, 게르마늄 토질	지도 전지역	
	기후	서안해양성기후	지도 전지역	
산림	소나무(곰솔), 참나무혼합림	삼암봉 일대	곰솔군락이 뛰어난	
지역산물	특산물	농산물: 참깨, 대파, 쌀, 보리, 유채, 작약, 입담배, 수산물:농어,민어,병어, 김, 천일염	지도내륙지역 지도해안지역 간척지를 개간하여 염전이 있음	
보호수	마을보호수	느티나무	지도읍내양리1122번지 수령321년 수관이 좋음	
	당산나무	팽나무	지도읍 읍내리 산140번지 수령 317년	
	마을보호수	팽나무	지도읍 태천리리 58.4km <sup>2</sup> 수령 211년	

### 2) 생태자원의 현황

#### (1) 신안 북부의 해상교통의 요충지 “지도”

지도읍은 목포와의 육로 거리로 66km의 지점이다. 동쪽은 무안군 해제면, 서쪽은 임자면, 남쪽은 자은면과 압해면과 이웃하고 북쪽은 바다 건너 영광군 낙월면과 이웃한다. 무안반도 최남단 해안지방으로 유인도5, 무인도 41개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선 총연장 96km이다. 또한 이웃한 임자면, 증도면 등과 철부도선(여객선)이 운항되어 교통이 원활하다. 신안군 북쪽 섬들의 교통의 요지로서, 어의도, 참도, 송도 등 많은 고깃배들이 머물러 수산물 상권이기도하다. 특히 지도읍 송도에 있는 어판장은 주중이

나 주말이면 목포,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어판장이다. 계절에 따라서 병어, 민어, 게 등 다양한 수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어 싱싱한 생선 향기가 가득한 "지도"이다.

### (2) 지도의 우뚝 솟은 삼암봉

지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삼암봉(196.2m)은 해안성기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많은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털개불나무, 음나무(엄나무), 사스레피나무, 줄사철나무, 호랑가시나무, 이삭귀개, 꽃창포 등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귀신을 쫓는다는 음나무(엄나무)는 산 정상에 흉고직경 40cm 정도의 큰 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번한 산불과 임도 개설,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전체 지역의 산림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산불에 의한 피해지가 방치되고 있어서 자연경관을 해칠 뿐더러 대규모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다. 삼암봉의 경우 삼암봉의 주위를 질러서 임도가 개설되고 있어서 그나마 남은 자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임도에 의해 특이식생에 접근하기 쉬워지게 되는데, 자칫 자생지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산림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 (3) 지도 주위의 섬 선도와 사옥도

#### 1)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는 섬 "선도(禪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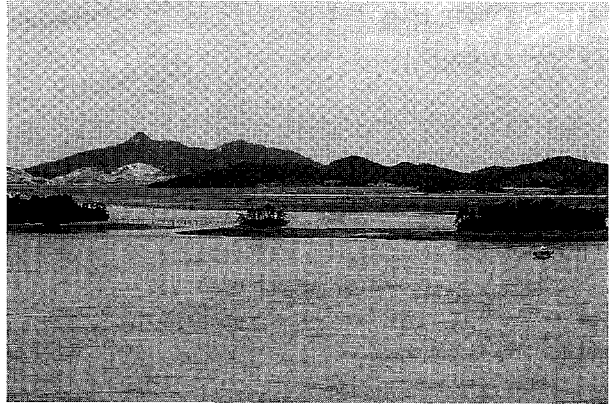
섬 전체 모양을 매미 닮았다고 매미섬(蟬島)이라고 부르지만, 부두가에서 내려 선도에 다달으면 조용하고 깨끗하며 정갈한 섬의 향기가 맴돈다. 특히 매개마을을 들어서면 보이는 도선암(가칭)은 선도 매개마을에 있는 한 덩어리로 된 큰 바위로서 넓은 경작지에 돌출되어 있는 암반이다. 옛날에 도인이 올라가 기도를 하여 득도하였다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웅장하고 비범한 암반이다. 바위 주변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육상 하천수변에서 볼 수 있는 하천식물이 분포하고 있어서 운치가 한층 더한다.



<사진 1> 선도의 바위. 설에 의하면 도인이 정진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였다고 함

## 2) 사옥도

면적 10.95km<sup>2</sup>, 해안선길이 약 36.5km이다. 목포에서 61.4km 떨어져 있으며, 주위에 지도·증도·임자도 등이 있다. 모래가 많고 옥(玉)이 나왔다 하여 사옥도라 불렀으나, 현재는 서쪽 바닷가에 약간의 모래가 있을 뿐이고 옥은 없다. 사옥도는 현재 지도와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섬은 아니다.



〈사진 2〉 지도와 사옥도를 연결하는 연육교에서 본 작은 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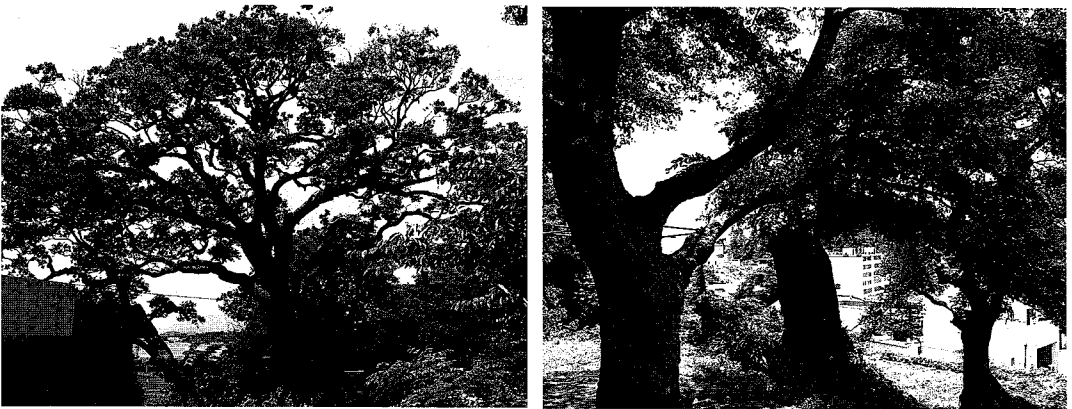
그러나 석양에 일몰에 의하여 매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어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일몰 photo zone으로 각광 받을만하다. 갯벌과 섬, 그리고 염습지를 골고루 관찰하고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 (4) 지도의 숲과 나무

### ① 지도의 노거수

#### 가) 지도의 읍내리 보호수

지도읍 읍내리 140번지 소재에 있어 지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노거수이다. 수령 320년 추정이고, 둘레 410cm, 수고 17m의 거대한 나무이고, 현재 신안군 보호수(지정번호15-22-1-1)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좌). 이 수목을 중심으로 7~8수의 팽나무가 있으며 교회와 다른 기타이유로 사라져 가는



〈사진 3〉 지도 읍내리 보호수 (좌, 우)

전통 마을림 복원사업에 수점 수목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다(사진 우).

나) 지도읍 감정2리 금출마을 노거수  
지도 감정2리 금출마을 경로당앞에 있는 팽나무로서 직경 60cm 의 노거수이다. 제주사람들이 물에 나와서 많은 나무를 베어 갔으나 이 마을의 나무를 베어가면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 모두 사망하였다고한다. 그래서 이 마을 앞의 갯벌을 제주갯가(갯)이라고 전해지며, 정면에서 봐서 왼편에 목밭이 있는데



〈사진 4〉 금출마을 노거수(팽나무)

그 밭은 원래 농사를 짓던 곳이었으나 이 나무가 밭을 가린다하여 밭주인이 가지치기를 하다 당신이 노하여 밭주인의 집안에 큰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이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에 노거수 등록이 필요한 나무이다.

#### 다) 지도읍 태천리 보호수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1175번지 주위에 논과 밭밖에 없는 벌판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 그 운치가 더한 당목(팽나무) 6주가 웅장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신안군 지정보호수(지정번호15-22-1-2)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령은 320년이다. 수고 22m, 흉고둘레 3.6m로 상당히 큰 나무로서, 마을



〈사진 5〉 지도 태천리 당숲(좌, 우)

의 당으로 마을에 큰 혜택을 주는 백소동이라고 하며 200년전 이 당산목을 벌채하려다가 돌풍으로 배가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다. 특히 이 숲에는 조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을 전통림으로서 생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전통 마을림 복원의 중점 수목으로 지정가치가 있고 문화재청에 노거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당제를 지내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 라) 사육도 당촌리의 당숲

당촌리 산정에 있는 당숲은 1980년대 초까지 당제를 모셨던 곳으로 현재 마을에 교회가 들어 온 이후, 당제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당제를 지내지 않다 보니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마을 어른신께 여쭙보니 접근로는 물론이고 숲도 많이 훼손되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마을 전통림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사진 6〉 사육도 당촌리 당숲

#### (5) 야생동물 “너구리”로 본 지도읍의 환경실태

지도의 가장 큰 산은 삼암봉인데 삼암봉을 비롯한 지도전역에서 야생동물을 찾아보기 쉽지않았다. 산들이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심하며 도로의 확장, 저수지 축조, 임도개설 등으로 인하여 서식지의 자연환경이 인간의 간섭에 의해 급변해 가는 실정이다. 지금도 간혹 무안-지도의 도로변에 차에 치어 죽어 있는 (Road-kill) 너구리를 볼 수 있다. 전 지역에서 너구리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밀도도 낮았으며 천연기념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땃, 올가미 등에 의한 겨울철의 밀렵 방지 등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지방화에 따른 개발의 압력에 대비한 종합적인 보호관리와 주민들의 밀렵방지를 위한 계몽이 절실히 요구된다.

#### (6) 싱싱한 생선의 향기가 나는 “지도”

##### ① 지도의 대표 수산물

가) 담백하고 비린내가 없는 생선 “병치”

전라도 사투리로 병치라고 불리는 병어는, 우리나라 서남해, 일본 중부 이남, 동중국해, 인도양에 분포하는 병어는 납작하고 몸 전체에 은색을 띤다. 몸은 긴 계란형으로 매우 측편되어 있으며, 후두부에 파상의 줄무늬가 있으나 그것은 옆줄을 따라 가슴지느러미 기부보다 약간 뒷쪽까지 달하며, 낮모양으로 퍼지며 체고가 높다. 담백하고 비



〈사진 7〉 송도 어판장의 병어

린내가 없어 회로 먹기도 하며, 병어찜이나 병어탕, 구이 등으로 먹기도 한다. 효능은 위장의 기능을 왕성케하는 효력이 있어 허약 체질에 유효하고 신체에서 독이 빠지면서 성격도 원만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성인병예방 및 뇌 학습 발달 등의 건강기능 생리효과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EPA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신안군의 년 생산량은 500여톤 정도이며, 주로 5~6월에 많이 잡는다. 신안군에서 잡히는 병어는 거의 모두 지도읍 송도 어판장에 모여 판매하며 5~6월달에는 외지 사람들이 몰려 불야성을 이룬다.

#### 나) 백성의 생선 “民魚”

어목 민어과의 바닷물고기인 민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던 어류 중 하나로 지방에 따라 개우치, 흥치 또는 어스래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민어는 주로 깊이가 15~100 m 정도인 진흙질의 연안에서 산다. 낮에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물 위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 살고 있는 민어의 무리는 가을에 제주도 근해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생활한다. 여름이 찾아오면 인천의 근해에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연중 100만~200만 개 가량의 알을 낳으며 암컷의 경우 3년생이 되어야 성숙하여 산란을 할 수 있다. 12~13년 정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 밑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무척추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새우류, 게류, 작은 어류 등이 주요한 먹이가 된다.

초여름부터 잡히는 민어가 가장 맛이 좋으며 대부분 저층 트롤어업으로 포획한다. 일반 생선들과 같이 매운탕을 끓이거나 소금에 절여서 굽고 튀겨서 먹기도 한다. 해방 전에는 성숙한 민어가 연평도 앞바다까지 올라와서 어린아이 키만한 민어를 지게에 지고 들어오는 어민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큰 민어는 별로 식량이 많지 않았던 일제시대에 육고기 대신하여 민중의 영양을 보충해 주었던 여름 보양식이었다. 큰 민어 한 마리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내장은 나중에 뼈와 함께 탕을 끓였고, 뱃살은 회, 등살은 포를 떠서 전을 부치고, 머리뼈는 잘게 쪼아서 회로 먹기도 하고, 나머지는 젓을 담갔다. 서민들에게 민어는 ‘바다의 육고기’와 같았을 것이다.

### (7) 지도의 농산물

황토에서 자라는 마늘

황토라 함은 일반적으로 누르고 거무스럼한 흙, 황양(黃壤)을 말하며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퇴적된 담황색의 미세한 모래와 점토로서 중국북부, 유럽중부,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지표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땅에는 호황토가 약 15%, 황토질이 약 20%에 이른다. 주로 실트(Silt, 微砂)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탄산칼슘에 의해 느슨하게 교결되어 있다. 황토의 입자 크기는 주로 0.02~0.05mm이며 조립질과 중립질의 입자들도 포함한다. 점토 크기(0.005mm이하)의 입자들은 5~10%를 구성한다. 일부 황토지역에서 입자크기의 분포는 공급지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세립질 입자들로 전이해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황토도 층리를 이루고 있는 곳도 있지만 북부에서 남서부지역으로 오면 점차 세립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마늘은 살균작용, 항균작용, 결합능력, 침투성 외에도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 기전을 강화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종양을 소실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모든 암에는 공통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살균 항균작용을 하며 암의 예방이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대단히 높다. 마늘은 강판에 갈아서 즉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맵고 아린 맛이 있으므로 먹기에 불편해 하는 사람은 발 마늘은 구워서 먹기도 한다. 또한 녹즙을 만들 때 마늘 몇 쪽을 넣으면 마늘의 유효성분 섭취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식사때 마다 각종 반찬에 첨가된 마늘은 물론 마늘 초절임 등을 많이 먹게 된다. 단지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적혈구 막이 파괴될 수 있다고는 하나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늘은 가급적 조금씩 자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 1. 선사문화자원

#### 1) 선사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사진번호	비고
1	어의리패총	지도읍 어의리	1	
2	어의리고분	지도읍 어의리	-	
3	소포작고분	지도읍 어의리 소포작도	-	
4	신창목 지석묘	지도읍 봉리 봉리마을	2	
5	적거리지석묘	지도읍 광정리 적거리마을	3.4	
6	장동지석묘	지도읍 내양리 장동마을	5.6	
7	자동리 입석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7.8	
8	자서리입석	지도읍 자서리 자서마을	9~12	
9	태천리유물산포지	지도읍 태천리	-	
10	탄동리입석	지도읍 탄동리 탄동마을	13~16	
11	선도 유물산포지	지도읍 선도	17~19	지표수습

#### 2) 선사문화자원 현황

##### ① 어의리패총(사진 1·2)

먼저 어의리 패총은 크게 3지역으로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지역은 어의리 뒷산에 위치하는데 강성래씨 밭 8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 2지역은 1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2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3지역은 2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300m지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의리패총은 조사 당시 이미 주민들에 의해 마늘밭으로 경작이 이루어져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이런 농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유적 훼손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 ② 어의리 고분

어의리고분은 동북쪽 야산 정상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분군의 규격은 폭 8m, 높이 7m, 두께 3.5m이며, 출토품은 마형철제품이 출토되었다.

### ③ 소포작고분군

소포작고분군은 어의리 뒷산에서 북쪽으로 200m지점에 1호 고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1호분에서 동쪽으로 5m거리에 2호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1호분의 규격은 장축 4m, 단축 3.3m, 높이 1.2m이며,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2호분의 규격은 장축 3.4m, 단축 2.5m 높이 1.1m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 ④ 신창목 지석묘(사진 3)

신창목 지석묘는 봉동마을 신창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박행기씨 집으로부터 동쪽 5m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는 이곳의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⑤ 적거지석묘군(사진 4·5)

지도읍 광정리 적거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정미소에서 북쪽으로 9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재는 정미소자리가 마을회관으로 바뀌었으며,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도 주민의 말에 의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주민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를 하였다. 총 9기가 있으며, 지석묘의 상태는 많은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

### ⑥ 장동지석묘군(사진6·7)

지도읍에서 내양리로 가는 길을 따라 2.5km가면 장동마을이 있으며 마을 정류장 앞에 서서 바라보았을 때 동남쪽으로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총 3기가 있으며, 이곳 역시 풀과 폐비닐들이 널려 있어서 보존상태로는 좋지 않았다.

### ⑦ 자동리 입석(사진8·9)

자동리 입석은 자동마을 안에 마을회관 좌측 옆에 자리하고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27cm, 폭 6cm, 두께 6cm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자동리 입석은 현재까지 신앙의 대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였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 ⑧ 할아버지·할머니바위(사진10~13)

자서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할아버지바위는 마을주민인 윤정순 할머니 댁 앞 논둑에 위치하고 있으

며, 입석의 크기는 높이 106cm, 폭 47cm, 두께 32cm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할머니바위는 할아버지 바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72cm, 폭55cm, 두께 24cm 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 ⑨ 탄동리 입석(사진14~17)

탄동리에서는 3기의 입석이 보고되고 있다. 작계는 60cm이며, 큰 것은 1m가 넘는 것들이다. 첫 번째 입석은 마을 남쪽 농로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65cm, 폭 30cm, 두께 20cm 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 입석은 마을 앞 논둑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10cm, 폭 40cm, 두께 50cm 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세 번째 입석은 마을 동쪽 어귀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105cm, 폭 50cm, 두께 15cm 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 ⑩ 선도유물산포지(사진18~20)

선도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북경 34° 59', 동경 126° 16' 에 위치한 지도의 부속 섬이다. 이곳은 지표조사를 통해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3) 선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매장문화재는 그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여 보존하고 복원하는가에 따라 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입자면과 중도면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매장문화재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도읍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유적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확인된 곳으로서 이 지역의 최초의 주민의 이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주민의 이동으로부터 신안군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현재의 경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유적들에 대해 자원화 모색에 앞서 철저한 유적 보존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창목 지석묘의 경우는 도로공사로 인해 매장되었으며, 적거지석묘 경우는 원 상태로 보존되지 않고 주민들의 임의의 작업에 의해 공원화되었다. 또한 어의리에서 확인되는 어의리 패총은 조사 당시 밭 경작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이 되었고 일부만 고랑과 둑 부분에서 유적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한 발굴이 이루어져 그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 보존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것은 유적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훼손 방지를 위한 경고문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물론 체계적인 기획발굴은 이러한 보존이 있는 후에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기획 발굴은 상

황에 따라 선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안군의 문화유산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굴기관과 발굴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여 섬에 찾아드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발굴이라는 문화체험과 그 발굴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그 유적의 성격을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우리 섬에 들어온 최초의 주민은 누구인가?

현재 지도읍 어의리에 있는 패총유적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는 유적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이 유적은 또한 현재 그 파괴정도가 심하여 신속히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적어도 지도읍의 최초의 인류가 신석기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거석문화

전라남도는 거석문화의 보고이다. 그러나 이 거석문화가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나아갔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신안군에서 위의 패총이나 지석묘가 흑산도에 까지 이르는 것은 이미 신석기시대 이래 바다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먼 섬까지 자원확보 영역으로 확대해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중간 기착지들인 신안군의 여러 섬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임자도, 지도, 증도의 거석문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그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의 자동리, 자서리, 탄동리에서 확인되고 있는 입석은 거석문화에서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지석묘나 입석들은 민속자료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자서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바위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석은 단순히 청동기시대의 산물만이 아니다. 돌로 세워진 입석은 민속신앙과 불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선사시대와 현대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남겨져 있을 입석들에 대한 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하여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③ 철기시대의 해상루트

조사지역에서는 철기시대의 패총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인근지역에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전라남도에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해남 군곡리유적이다.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와 같은 선사시대로부터 기원 후 3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주민이 살았던 대단위 유적이다. 이 유적은 삼천포의 늑도패총과 연관이 있으며, 최근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발견으로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제지세력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의 유적과 비교 검토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유적은 중국-우리나라-일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 즉 바닷길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다.

연구지역에서는 어의리 패총과 어의리 고분과 인근의 소포작고분군 등 철기시대와 연관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어의리고분에서는 마형철제품도 출토되어 당시 주요 제사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포함되는 등 철기시대의 해상활동과 연관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유적들에 대한 계획 발굴의 결과는 신안군을 통과하는 다양한 해상루트와 당시 주민들이 섬 지역에 살면서 남겨놓은 다양한 문화적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즉 이러한 자료들은 이 지역 역사의 한 단면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안군에 남아있는 매장문화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특히 그 자원들이 내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수려한 경관과 웰빙에 걸 맞는 음식, 쉼의 공간들이 풍부한 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이 문화자원이 앞으로 무한한 ‘교육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유적들의 파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보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매장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각 섬의 최초의 인류에 대한 증거 뿐 아니라 숨겨진 많은 기층문화의 역동적인 문화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자료와 역사자료 뿐일 것이다. 이 자료들은 인류가 신안군의 부속 섬들에 머물며 남겨놓은 수많은 시공간적 사건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래서 계획발굴이 시급하다. 이 발굴은 상황에 따라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지역의 매장문화자원은 크게 최초 인류의 입도, 거석문화의 확장, 해상 실크로드 등이다. 이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자원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안군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지역의 매장문화재와 그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목록

번호	유적명	소재지	비고
1	지도진(지)	지도읍 읍내리	
2	일심사	지도읍 읍내리 139	
3	두류단	지도읍 감정리 산 216-9	신안군향토자료7호
4	최익현 “大明日月 小華江山” 글씨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5	김평묵 “智齊餘韻” 바위글씨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6	김평묵 “重菴遺蹟” 바위글씨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7	“周幾張預程一朱直” 바위글씨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현황

### (1) 智島鎭(址)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 유적현황 : 지도진은 1682년 지도읍 읍내리에 설치된 水軍萬戶鎭이다. 지도진의 설치논의는 1681년에 知事 閔維重이 위도(嵎島)와 지도(智島)에 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1682년 지도에 만호진이 설치되었으나, 鎭城은 축조되지 않았다. 한말까지 간행된 문헌 기록 어디에도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도진에 대해서는 『여지도서』에

(지도진은) 나주의 남쪽 바다 건너에 위치한다. 수군만호 1명, 軍官 17명, 吏 13명, 知印 5명, 使令 14명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 지도진의 조직구성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

19세기에 작성된 2종의 『지도진지(智島鎭誌)』에 의하면 지도진의 규모와 인원, 부속건물 등 수군진의 조직과 구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1871년의 『지도진지』에

(전략) 武官 중4품의 水軍萬戶가 司僕寺別將을 겸한다. 官舍 8칸, 軍餉庫 4칸, 還米租庫 4칸반, 屯庫 6칸, 鎭撫廳 8칸, 使令廳 8칸, 軍器庫 4칸, 화약고 1칸, 禦邊亭 3칸, 戰船留物庫 5칸 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지도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후 24년이 지난 1895년의 『지도진지』에

(전략) 건물은 모두 18칸이나 內衙의 경우 1840년에 폭풍으로 전복되어 추가 4칸으로 증건하였고, 중문 3칸, 屯稅庫 4칸, 三門 3칸, 使令守廳房 1칸, 사령청 4칸, 장교창 4칸, 吏廳 4칸, 화약고 1칸, 유물고 3칸, 환곡고 4칸이 있으나, 이미 퇴락하였다. 전선은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다. 군기 역시 모두 훼손되었고, 砲와 槍은 모두 사용

이 불가능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중엽 이후 지도진의 실상을 상세히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시설면에 있어서 수군진으로서의 기능이 낙후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이는 조선후기 수군진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으며, 그 결과 1896년 지도진은 폐진되었다.

읍내리 舊읍사무소터가 수군만호의 주재소라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도읍 자동리 비석군에는 萬戶 李技와 御使 朴泰輔의 선정비를 비롯하여 역대 만호들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 (2) 일심사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내리 139

· 유적현황 : 한국불교태고종 종단인 지도 일심사는 압해면 금산사, 비금면 서산사와 함께 신안군에 소재한 사찰 중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곳이다. 전통사찰 제83호로 지도읍 읍내리 139에 자리하고 있다. 일심사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곳이라기보다는 그 내력에서 지도가 지닌 해양문화적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 유적이다.

일심사가 300여 년 전부터 관운장의 초상을 모시는 사당이었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운장은 중국의 군신으로 민간에서 추앙받는 대상이다. 섬 지역인 지도에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원정을 왔던 명나라 군대의 이동경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중국의 병사들이 지도에도 잠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인연으로 지도에 관운장을 모신 사당이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도에는 관황묘가 있었고, 매년 지도군수가 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한 사연을 뒷받침한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이 머물렀던 완도 고금도에는 지금도 관운장의 사당이 남아 있다.

이러한 내력을 지닌 일심사는 이후 1919년에 현재 법당 및 요사채가 증창되어 전통사찰의 형태를 갖추었다. 대웅전 1동(34.7㎡, 목조, 토기와, 단층)과 요사채 1동(37.4㎡, 목조, 토기와, 단층)이 있고, 소장유물로는 우석대, 좌석대가 있다. 현재 한국전쟁 중에 전몰한 군인, 경찰을 포함한 호국영령들의 540여 위패를 모시고 있는 여각이 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의 외형은 특별한 볼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관운장을 모셨던 사당에서 출발했다는 독특한 이력

을 살린다면 나름대로 특색을 강조할 수 있다. 2003년 2월 25일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 (3) 두류단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 216-9

· 유적현황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 정상부에는 두류단이라 불리는 오선비가 세워져 있다. 최초의 두류단은 1720년경에 주자, 정여창, 김굉필 세분을 모시는 정자를 짓고, 제향을 지내왔던 곳이라고 전한다. 그 후 1914년 호남지방의 선비들이 전라도지방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항로(李恒老), 기정진(奇正鎭), 김평묵(金平默) 3분을 단비(가로 33cm, 세로 68cm)로 모시고 3현단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5년 뒤에 최익현(崔益鉉) 선생도 함께 모시면서 4현단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에 광복 이후인 1948년 중암 김평묵의 제자였던 지도출신의 나유영(羅有英) 선생을 단비로 모시고 오선생단 또는 오선비(五善碑)라 불리지고 있다. 현재 두류단에는 다섯 명의 선현을 추모하는 오선비가 세워져 있고, 그 앞쪽으로 두류산과 두류단의 유래를 기록한 두 개의 비석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9월 15일 인근 유림들이 모여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지도 뿐만 아니라 무안, 중도, 임자 등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두류단의 제사는 지도 향교를 출입하는 인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두류단에 모셔진 오선비의 인물 중 한 분인 나유영 선생의 후손 집안에서 제물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두류단은 지도읍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적지이다. 구한말 지도에 유배왔던 중암 김평묵과 관련된 유적지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사상가의 명맥이 섬마을 지도에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유학자들의 성지이다. 일대에 김평묵, 최익현 등과 관련 된 바위 글씨들이 남아 있어 많은 볼거리를 갖추고 있고, 주변의 풍광도 매우 뛰어나다. 천주교나 기독교 순교지처럼 이 곳을 구한말 위정척사사상을 주장했던 마지막 유학자들의 혼이 담겨 있는 일종의 유학성지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 2000년 1월 31일 신안군 향토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 (4) 최익현 “大明日月 小華江山” 글씨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 유적현황 : 지도 두류단의 바로 뒤편으로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듯 평평한 바위에 세로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측부터 “大明日月 小華江山(글자크기 가로 23cm, 세로 24

cm)”이라고 새겨져 있고, 좌측아래에 “崔益鉉書(글자크기 세로 9cm, 가로 15cm)” 라고 적혀져 있다. 이는 최익현이 흑산도 유배시절 천촌마을 지장암에 새긴 “箕封江山 洪武日月”과 같은 맥락의 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강조한 말이다. ‘대명(大明)’은 문명을 상징하고, ‘소화(小華)’는 이민족에 대한 조선의 우월함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흑산도 유적의 경우 최익현의 문집인 면암집을 통해 글씨를 새긴 시기와 목적 등이 분명히 알려져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다. 하지만 지도 두류산에 새긴 글씨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익현이 지도에 머물렀던 시기도 조금 불분명하다. 다만 면암집에 1906년 의병을 일으켰다가 사로잡혀 지도로 유배 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에 새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최익현의 나이가 74세였고, 일본 쓰시마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직전의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최익현이 유배와서 새긴 것 보다는 김평묵의 영향을 받았던 지도의 학자들이 관련 계열의 유학자인 최익현 선생에게 글씨를 받아서 두류단 인근에 새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실제 김평묵의 제자였던 나유영 같은 인물은 최익현의 문인록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 있기도 하다.

흑산도 지장암에 새겨진 내용과 유사한 바위글씨가 지도 두류단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특히 바위에 최익현이라는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어 주목을 끈다. 두류단을 성지화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5) 김평묵 “智齊餘韻” 바위글씨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 유적현황 : 김평묵은 위정척사 사상을 펼쳐 1881년 지도에 유배 왔고, 유배시절 『해상필어』 등을 집필하였다. 이 바위는 김평묵이 지도 백련동에 유배 와서 후학을 양성했던 사실을 반영하는 유적이다. 중암 김평묵의 제자이름과 함께 ‘智齊餘韻(지제여운)’이라는 글씨가 두류단 윗 쪽에 최익현의 글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바위의 상부 중앙에 세로로 ‘智齊餘韻(글자크기 세로 17cm, 가로 21cm)’이라는 네 자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지도에 유배 온 중암에게 학문을 익힌 제자들로 추정되는 9명의 이름(金秉濂, 朴琳相, 羅有英, 任行宰, 朴淇龍, 金陽運, 朴顯章, 金似玉, 金鳳來) 새겨져 있다. 이 중에는 두류단에 모셔진 ‘나유영’의 이름도 보인다. 우측에 ‘丁酉 五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씨는 1897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제(智齊)는 지도의 서당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김평묵이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 학문적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당시 김평묵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명맥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도향교가 유사한 시기에 건립되었고 지금 까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인명이 등장하여 지역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두류단 유적지를 성지화하는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 (6) 김평묵 “重菴遺躅” 바위글씨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 유적현황 : “重菴遺躅”이라는 글씨는 두류단으로부터 뒤쪽으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산정상 부분에 조성되어 있다. 위치상으로는 두류단 오선비의 위쪽에 가장 먼저 최익현의 글씨 “大明日月 小華江山”이 발견되고, 그 위쪽에 “智齊餘韻”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重菴遺躅” 글씨는 그 위로 더 올라가서, 현재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는 인근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바위의 구조가 비를 피할 수 있는 형태여서, 글씨는 매우 선명하게 남다. 하단 우편에 “羅有英 刻”이라 새겨져 있고, 그 좌측에 “崔益鉉, 楡基一 書”라는 글씨도 있다.

이 바위 글씨는 김평묵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글씨를 새기도록 지시한 사람은 면암 최익현이다. 중암 김평묵의 제자였던 나유영 선생이 중암이 세상을 떠난 일년 후에 다시 최익현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는데, 최익현은 이 때 중암의 유배지였던 지도에서 중암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제자였던 나유영에게 명해서 조성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지도군지(1908)에 남아 있다. 보존상태가 좋아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다.

#### (7) 두류산 “周幾張預程—朱直” 바위글씨

· 소 재 지 :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두류산정

· 유적현황 : “重菴遺躅”이라는 글씨와 같은 바위 좌측에 새겨져 있다. “周幾張預程—朱直”가 새겨져 있다. 이중 네 번째 글자는 마모가 심해 현재 판독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도군지나 전라남도지의 기록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여덟 글자 외에 주변에 다른 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유학의 적통을 상징하는 글자로 최익현, 김평묵의 스승격인 화서 이항로 선생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문구였다고 한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뜻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글 역시 김평묵의 제자였던 나유영이 김평묵 사후 면암 최익현의 지도를 받아 조성한 것이다.

###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① 한국 유학의 마지막 성지 두류단 성지화 사업, 섬 마을 최초 유학공원을 조성하자.

지도 두류단은 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교 유적이 남아 있고, 구한말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최익현과 김평묵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두류단 일대를 한국 유학의 마지막 성지이자, 섬마을 최초의 유학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종교적인 성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관광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유학과 관련하여 명소화 되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두류단 일대를 유학 공원으로 가꾼다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향교, 서원, 사우 등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방문해야 하는 성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곳은 지도에서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점암 선착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접근성면에서도 매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가. 스토리텔링 대상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의 대가 김평묵, 최익현과 지도 사람들과의 교우를 소재로 한다. 백련동 서당과 그 제자들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 홍보하고, 그에 얽힌 내용을 토대로 테마공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 나. 두류단 유적 탐방로 개설

두류단 오선비, 두류단 연혁비(2기), 최익현의 '대명일월 소화강산' 유적, 김평묵의 '지체여운' 유적, 김평묵의 '중암유축', 이항로의 '周幾張預程—朱直'를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한다. 등산로를 겸한 두류단 유적 탐방로 동선을 만들어 낸다. 이들 유적들이 모두 100미터 내외의 가까운 위치에 등산로를 따라 현존하고 있어 탐방로 개설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 다. 최초 두류단의 정자 복원(다도해 전망대)

최초의 두류단은 1720년경에 주자, 정여창, 김평필 세분을 모시는 정자를 짓고, 제향을 지내왔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이를 상징하는 정자를 건립하여 명소화하고, 방문객의 쉼터로 활용한다. 두류단의 연혁을 기록한 비나 자료에는 이미 이곳에 1720년에 정자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도서지역에 유학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원이 될 것이다. 두류단을 성지화하는데, 복원할

수 있는 대상물 중 하나이다. 두류단 일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다도해 전망대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도, 임자, 중도 일대의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 라. 활용방안

두류단 일대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공원화하고, 성지화 하면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유적 탐방코스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섬마을 문화유적 탐방을 주제로 홍보하여 지도와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김평목과 섬마을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섬지역 유학전통)
- 전국 향교, 서원 등 유생들 대상 전문탐방코스(성역화)
- 경기도 포천과 자매결연 가능(최익현, 김평목 고향)
- 한말 유배문화 관련 유적지

#### ② 관운장을 모시는 유적지와 설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지도 인근에는 외딴 섬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유적과 설화가 남아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관운장,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 조선왕조 비운의 사도세자(임자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이채로운 흥미꺼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관운장과 관련된 유적과 설화가 지도에 남아 있음은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여 진다. 지도에는 관황묘가 있었다. 이 관황묘에서는 매년 지도군수가 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 현재 남아있는 일심사라는 전통사찰은 원래 300여 년 전부터 관운장의 초상을 모신 사당이였다는 내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지도에 관운장 관련 내력이 전해지게 된 것은 임진왜란 시기 중국 명나라 군대에 이곳을 거쳐 갔던 인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 명나라 군대의 조선에서의 이동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한다면 외부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자원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관황묘의 복원이나 사당의 건립 등이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 1)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의 목록

도서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智島	1	비석군	두류단 내 비석군	감정리 백련마을	1914년	향토자료 제7호
	2	자선비	羅俊煥慈善碑	감정리 백련마을	辛未年	신규
	3	시혜비	密陽朴氏施惠碑	감정리 백련마을	壬申年	"
	4	실적비	李載珍實蹟碑	봉 리 대실마을	2001년	"
	5	열녀각	昌寧曹氏實蹟碑閣	봉 리 대실마을	1966년	"
	6	송덕비	金智庵頌德碑	봉 리 참도 선착장	2003년	"
	7	효열각	昌寧曹氏孝烈碑閣	내양리 가정마을	1973년	"
	8	유허비	朴孝奎遺墟碑	내양리 외양마을	丁巳年	"
	9	공적비	김상수공적비	내양리 둔곡마을	1965년	"
	10	향 교	지도향교	읍내리	1897년	지방문화재 자료 제111호
	11	송덕비	趙邦元頌德碑	읍내리 지명중학교	1989년	기존
	12	공적비	朱炯來功績碑	읍내리 지명중학교	1999년	"
	13	비석군	자동마을 비석군	자동리 자동마을	1702년 ~1990년	"
	14	열녀비	長水黃氏烈女碑	자동리 자동마을	丁酉年	"
	15	유적비	李光載遺蹟碑	자동리 자동마을	년대미상	"
	16	열녀각	天安全氏實蹟碑閣	자동리 자동마을	1994년	"
	17	유적비	李東英遺蹟碑	자동리 자동마을	己丑年	"
	18	효열비	金海金氏孝烈碑	자동리 자동마을	戊辰年	"
	19	도덕비	崔炳翊道德碑	자동리 적거마을	戊辰年	"
	20	열녀각	金海金氏紀行碑閣	자동리 자서마을	1998년	신규
	21	실적비	崔芝澈實蹟碑	자동리 오룡동	1978년	"
	22	비석군	전주최씨 비석군	자동리 오룡동	1978년 ~1991년	기존
	23	삼강비	南原梁氏三綱碑	자동리 효지마을	년대미상	신규
	24	송덕비	朴鍾大頌德碑	자동리 효지마을	년대미상	"
	25	공적비	朴貞奎功績碑	자동리 효지마을	1976년	"
	26	공적비	金容學功績碑	자동리 효지마을	1976년	"
	27	유적비	金彦斗遺蹟碑	자동리 안마동	丙申年	"
	28	실적비	驪興閔氏實蹟碑	자동리 안마동	丙申年	"
	29	실적비	光山金氏實蹟碑	태천리 누동	1976년	"
	30	齋 閣	永慕齋	태천리 누동	년대미상	"

도서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智島	31	旌閣	姜永稷·姜鳳秀旌閣閣	태천리 누동	2001년	신규
	32	祠宇	蓮溪祠	태천리 연화동	1896년	"
	33	齋閣	康堅祠	태천리 태천마을	강수사(1982년) 유허비(1970년) 정여각(辛丑年)	"
沙玉島	34	공로비	申逸東功勞碑	탄동리 하탑마을	1986년	"
	35	비석군	지도대교 비석군	탄동리 하탑마을	1865년 ~2004년	"
	36	공적비	金龍聖功績碑	탄동리 원달동마을	1989년	"
	37	공적비	이장호공적비	탄동리 원달동마을	1980년	"
	38	비석군	묘동마을 비석군	당촌리 묘동마을	丙申年	"
	39	기적비	金基玉紀蹟碑	당촌리 당촌	丙戌年	"
	40	비석군	당촌마을 비석군	당촌리 당촌	1983년	"
	41	열녀각	金海金氏孝烈碑閣	선도리 석산마을	1966년	"
	42	효자비	密陽朴氏三世四孝碑	선도리 석산마을	丙戌年	"
	43	유지비	朴世泰遺址碑	선도리 석산마을	丙戌年	"
	44	선덕비	金仁肖善德碑	선도리 대촌	2005년	"
	45	송덕비	朴貞奎頌德碑	선도리 대촌	1993년	"
	46	기행비	原州李氏紀行碑	선도리 대촌	2005년	"
	47	효행비	朴炳玫孝行碑	선도리 대촌	1991년	"
	48	사적비	朴榮來事蹟碑	선도리 대촌	1991년	"
	蟬島	49	선행비	朴準化善行碑	선도리 대촌	1991년
50		열행비	密陽朴氏烈行碑	선도리 대촌	1978년	"
51		선행비	朴炳尹善行碑	선도리 대촌	戊午年	"
52		기념비	朴學來紀念碑	선도리 대촌	1975년	"
53		기념비	朴萬用紀念碑	선도리 주동	1965년	"
54		기념비	朴彩福紀念碑	선도리 주동	1956년	"
55		공적비	朴東佑功績碑	선도리 주동	1985년	"
56		열녀각	金海金氏紀行碑閣	선도리 주동	1980년	"
57		효열각	密城朴氏孝烈閣	선도리 매계마을	정려포상(1905년) 효열각(2005년) 효자각(甲戌年)	기존
58		유지비	朴良煥·朴啓煥遺址碑	선도리 매계마을	己未~癸酉年	신규
59	열녀각	全州李氏紀行碑閣	선도리 매계마을	1993년	"	
於義島	60	齋閣	英思齋	어의리 어의마을	중수(1986년)	"
	61	유혜비	曹康煥遺惠碑	어의리 어의마을	1915년	"

## 2)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의 현황

### (1) 두류단 내 비석군(사진 28)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마을

· 유적현황 : 지도읍에서 점암선착장으로 향하다 보면 백련마을이 위치하고, 백련마을 끝자락 도로변에 <五善碑遺跡地>라 새겨진 표지판이 보인다. 이 표지판 왼편으로 두류산이 입지하고, 두류산 꼭대기에 두류단이 위치한다. 두류단은 신안군 향토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두류단은 華西 李恒老, 盧沙 奇正鎮, 重菴 金平默, 勉菴 崔益鉉, 本窩 羅有英 등 선생을 봉안한 곳이다. 두류단은 설단 초기에 華西, 盧沙, 重菴, 勉菴 등 4선생을 배향하였다가, 후에 本窩선생이 추배되었다. 두류단에서는 매년 가을에 5위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은 本窩선생의 후손들이 준비한다. 두류단 맨 안쪽에 5위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에 <頭流山李先生壇碑> 와 <頭流四賢壇碑> 가 양 옆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낮은 석축 담장이 둘러져 있다. 두류단 초입에 <義捐芳名錄>(1997년, 朴漢喆 立碑)이 있다. <頭流山李先生壇碑> 와 <頭流四賢壇碑> 의 비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頭流山李先生壇碑> : 智島 海上에 頭流가 있다. 이곳을 세상 사람들은 西頭流라 칭하였다. 또 東頭流가 있다고 하는데, 동두류는 岳陽亭에 있다. 동두류에는 朱子·鄭一蠹·金宏弼 선생이 배향된 곳이다. 西頭流은 1914년에 지도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3cm, 너비 57cm, 두께 24cm이다. 비문은 17행 24자이며, 松沙 奇宇萬이 쓰고, 錦城 吳駿善이 휘하였으며, 月城 崔永祚가 새겼다. 비석의 뒷면에는 道內 都有司 魯淵白, 郡 都有司 朴湧柱, 儒林 執綱 崔鳳錫 의 문인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② <頭流四賢壇碑> : 丙子年에 崔勉庵·金重菴·金華西 선생이 지도의 진산에서 斥和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重菴의 문인이었던 羅有英이 두류산 石面에 새기고, 문인들과 뜻을 모아 壇을 세우고 매년 봄과 가을에 스승의 제사를 모신다. 壇의 서쪽에 華西선생의 위패를 모시었고, 그 다음에 盧沙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3선생의 설단 비석은 松沙 奇宇萬이 撰하였다. 유림 魯淵白·崔鳳錫 등 여러 선비들이 비석을 세웠다. 비문 말미에 도유사 羅正煥 외 2인과 집강 梁相翊, 총무 黃西原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7cm, 너비 55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29행 37자이며, 戊午年에 면암 최익현의 嗣子 崔永祚가 기록하고, 문인 長興 高石鎮이 書했다.

(2) 羅俊煥慈善碑(사진 29)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마을
- 유적현황 : 지도읍에서 점암선착장으로 향하는 24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마을이 감정리 백련마을이다. 이 비석은 백련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密陽朴氏施惠碑> 와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나준환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크고 언행이 준수하였다. 공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100포의 곡식을 균등히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의 덕행을 보고 사람들은 “부처가 환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송하였다. 공의 부인 密陽朴氏 또한 지아버의 뜻을 받들어 선행을 베풀었다. 이러한 나씨부부의 행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辛未年에 주민들이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錦城羅公俊煥 慈善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碑文은 13행 38자이며, 崇祿大夫 禮曹判書 原任 奎章閣提學 安東 金宗漢이 撰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5cm, 너비 55cm, 두께 18cm이다.

(3) 密陽朴氏施惠碑(사진 30)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백련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백련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羅俊煥 慈善碑> 와 나란히 서 있다. 밀양박씨는 선천적으로 어질고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토지세를 거둬들일 때도 경작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씨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壬申年에 소작인들이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淑人密陽朴氏 施惠碑> 라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天賦仁慈 重義好施 肖胤雖短 有光厥先 有田收租 減於人例 碑碑齊屹 名壽百世”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0cm, 너비 61cm, 두께 20cm이다.

(4) 李載珍實蹟碑(사진 31)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봉리 대실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봉동저수지 앞 도로변에 위치한다. 대실마을 초입에 <昌寧曹氏實蹟碑閣> 과 함께 있다. 이재진은 1908년에 아버지 李相益과 어머니 朴花富 사이에서 태어났다. 봉리 대실마을은 그의 텃자리이다. 공은 성장하여서 金寧 金在玉의 딸 金抱德과 혼인했다. 공은 항상 부모님의 뜻에 따르고, 병환 중에는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다. 또 형제들과 우애가 돈독하고 종친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1968년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70년에 향촌 사람들이

공을 성균관에 천거하니, 효자로 표창 받았다. 이 비석은 후손들에 의해 2001년에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 竹菴 全州李公 載珍 實蹟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18행 32자이며, 비석의 규모는 높이 54cm, 너비 91.5cm, 두께 18.5cm이다.

(5) 昌寧曹氏實蹟碑閣(사진 32)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봉리 대실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봉동저수지와 마을의 갈림길 옆에 위치한다. 비각 바로 옆에 <李載珍實蹟碑> 가 서 있다. 이 비각은 창령조씨부인의 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창령 조씨는 丁卯년에 태어났다. 창령 조씨는 신라 太師公 曹繼龍의 후예이고, 병조판서 曹煜의 13세손인 學生 曹錫玄의 딸이다. 조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성장하여서는 全州 李重奉과 결혼하였다. 혼인 후에 남편이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부인은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러나 끝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조씨부인은 남편의 3년 喪을 지냈다. 그 후 조씨부인은 재혼하지 않고 자식을 양육하며 살다가 4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조씨부인의 행실을 보고 향리 사람들이 열부라 칭하였다. 1966년에 유림총회에서 부인의 행적을 『鄕道及五倫行實』에 수록하고 비석을 세웠다. 비석 뒷면에 새겨진 碑文은 18행 32자이며, 金益會이撰写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9cm, 너비 44.5cm, 두께 18cm이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6) 金智庵頌德碑(사진 33)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봉리 참도 선착장

· 유적현황 : 지도에서 어의도로 가는 길은 지도읍 봉리 참도에 위치한 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한다. 이 비석은 봉리 참도선착장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金智庵이다. 공의 字는 學珍이고, 본관은 金海이다. 공은 지도읍 내양리 적동마을에서 金順培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성품이 순수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데 노력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였다. 공은 일제강점기에 무안에서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일제에 항거하다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공은 해방 후에 무안군 棉作組合 서기로 다시 공직생활을 하였고, 퇴직 후 향리에 돌아와 지도 향교 전교와 장의를 역임하였다. 이러한 공의 이력이 『大觀付錄』(전라남도, 1977년)에 기록되어 있다. 자손들이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3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金海金公 智庵頌德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 비석 건립에 참여한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54cm, 두께 25cm이며, 비문은 14행 37자이다. 비석 뒷편에 공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7) 昌寧曹氏孝烈碑閣(사진 34)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가정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1명의 효자와 2명의 열녀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시멘트 담장이 둘러진 비각으로 들어서면, 앞에 舊碑의 흔적으로 보이는 지대석이 있고, 그 뒤에 <昌寧曹氏孝烈碑> 가 서 있다. 이 비각에 봉안된 사람은 曹在承·延日鄭氏·羅州林氏이다.

효자 曹在承의 字는 云彬, 號는 松村이고 본관은 昌寧이다. 忠貞公 曹尙治의 후예이고, 通政 曹錫斗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심성이 착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다. 공은 가세가 기울어 몹시 궁핍하였지만, 병든 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부모님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조재승의 부인 연일정씨는 鄭洛中의 딸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혼례를 올린 정씨부인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더불어 효성이 지극하다.”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연일정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재승은 후세를 보기 위해 나주임씨와 재혼하였다. 그런데 나주임씨 또한 효성이 지극하고 남편과 화목하게 생활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부인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다. 이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수혈을 하였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때 임씨부인에게는 아들 曹秉燮과 복중에 태아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후 임씨부인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문의 대를 이으니, 마을 사람들이 “열행 중의 진짜 열행”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부부의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3년에 성균관에서 비석을 세웠다. 비석 앞면에는 <孝子 松村 昌寧 曹公 孝烈婦 孺人 延日鄭氏 孝烈婦 孺人 羅州林氏 實蹟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5cm, 너비 42.5cm, 두께 18cm이다. 비문은 18행 35자이며, 南陽 洪大杓이 撰하고 全州 李學庸이 書하였다. 비각은 석축으로 조성되었으며,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8) 朴孝奎遺墟碑(사진 35)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외양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朴孝奎의 유허비이다. 공의 號는 海窩이며, 文景公의 후예로, 본관은 密城이다. 공은 重菴 金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평생 동안 후진을 양성하는데 전념하였다. 이에 공의 문인들이 선생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계를 조직하고 이 비석을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丁巳年에 洪大杓 등 문학생들이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海窩 朴先生 遺墟碑> 라고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측면에 都有司 李永信을 비롯하여 문학생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4cm, 너비 45cm, 두께 21cm이다. 비문은 20행 31자이며, 延安 李炳觀이 撰하고, 金海 金容植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와 좌대가 있고, 비석 주변에 벽돌 담장이 둘러져 있다.

#### (9) 김상수공적비(사진 36)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둔곡마을 초입 언덕

· 유적현황 : 지도읍 내양리 둔곡마을로 들어가는 길목 왼쪽 언덕에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였던 김상수 선생의 공적비와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김상수 선생은 1894년에 지도읍 둔곡마을에서 태어났다. 공은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앞장섰으나, 해방이 되던 1945년에 미처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해 5월에 세상을 떠났다. 김상수의 활약은 청년수양학교와 야학운영, 1919년에 지도지역 독립만세운동 주도, 1924년 지도 소작쟁의 지도자로 활약, 1920년대 청년회 간부로 노동자와 농민운동을 주도, 그리고 1930년대 중반부터 동아일보와 호남평론의 언론사 기자생활 등이다.

김상수 선생은 지도보통학교(1909년 6월 22일 개교) 1회 졸업생이다. 이후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우리나라의 왕권이 무너지자 망국의 한을 품고 중국 상해와 만주 북간도 등으로 망명해 조국 광복의 기회를 모색했다. 이 때 선생은 새로운 사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고향에 돌아와 동헌터(지금 읍사무소 자리)에 '청년수양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김상수 선생과 뜻을 같이 하였던 나만성·주명식 등과 합심하여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청년수양학교 학생 수 백 명을 보통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한 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태극기 두 가마니를 풀어 헤쳐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교문으로 나가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들의 갑작스런 만세운동에 놀란 일본 경찰들은 참가학생들의 옷에 잉크를 뿌려서,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여 잉크 묻은 옷을 입은 학생들을 색출해서 모두 체포해 갔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후 김상수 선생은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고 소작쟁의 운동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상수 선생은 소작인이 아니었지만, 농민들의 이익 옹호를 위해 소작인 공조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으면서 지주측인 繁榮會와 맞서 투쟁하였다. 이후에도 청년회의 간부로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활동가로서 활약했다. 이러한 공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65년에 선생의 공적비가 지도읍민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10) 智島鄉校(사진 37)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 유적현황 : 향교는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국가교육기관이다. 지도향교는 1896년에 지도군이 設郡되면서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1897년에 창설되었다. 지도향교는 지도읍의 鎭山인 鳳頂山의 남쪽산록에 위치한다.

지도향교는 창설이후, 1904년·1914년·1924년에 부분적인 중수와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내용이나 주체인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향교 앞에 세워진 <掌議 朴鍾燮 紀念碑>(1927년)와 <參奉 羅正煥 明倫堂 重建碑>(1928년)을 통해서 박종섭에 의해 내삼문이 건립되었고, 나정환이 명륜당을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7년~1948년에 金鍾烈·姜鳳秀·黃西源 등 유림들의 협조로 명륜당이 중건되었다(<明倫堂重修記>, 1948년). 1966년에는 퇴락해 있던 大聖殿이 중수되었고, 1968년에 명륜당이 중수되어 현전하고 있다.

향교의 건물은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양사재, 내삼문, 외삼문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 양사재 뒤편 담장 밖에 삼강비각이 있다. 관련 자료로 3개의 현판과 비석이 남아있다. 현판은 ①「明倫堂重建記」(1948년), ②「大成殿重修記」(李永信 記), ③「明倫堂重修記」(趙權衡 記) 등이며, 비석은 지도향교의 외삼문 밖에 下馬碑(높이 82cm)를 비롯하여, ①<前參奉朴鍾燮紀念碑>(1927년), ②<智島三綱碑>(1927년), ③<前參奉羅正煥明倫堂重建碑>(1928년), ④<前監察金文斗紀念碑>(1930년) 등이다. 지도향교는 전라남도 지방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11) 趙邦元頌德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지명중학교 정문

· 유적현황 : 지도읍 지명중학교 앞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하나는 <趙邦元 頌德碑> 이고, 다른 하나는 <朱炯來 功績碑> 이다. 조방원 선생은 1926년에 광정리에서 출생하였다. 성장하여 남농 허건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국전에서 4회 특선하여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선생은 후진 교육에 뜻을 세워 1977년에 지명중학교에 아산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지도읍 주민들이 선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989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54cm, 두께 23cm, 높이 148cm이다. 비문은 12행 40자이며, 金正財와

金淳祥이 書하고, 金大均이 撰하였다. 비석은 2마리의 용이 그려져 있는 이수와 비신, 2단으로 조성된 좌대가 있다.

(12) 朱炯來功績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지명중학교 정문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읍 지명중학교 앞에 있다. 바로 옆에 <趙邦元 頌德碑> 가 나란히 서 있다. 주형래는 6·25 때 경감을 역임하였다. 공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1955년에 중학교를 설립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양회갑 외 40명의 제자들이 선생의 뜻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1999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크기는 너비 54.5cm, 두께 22cm, 높이 144cm이다. 비문은 14행 38자가 새겨져 있다.

(13) 자동마을 비석군(사진 38)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무안군 해제면 - 신안군 지도읍을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너면 도로 초입에 나루터장 어룻집이 있고, 이 횃집에서 약 50m 떨어진 잔디밭에 28기의 비석이 일렬로 서 있다. 원래 지도읍 읍내리 지도향교 앞 비석거리에 있었던 비석(19기)과 지도읍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7기)을 한데 모아 놓기 위해 현 장소로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重菴 金先生 비석 등이 추가되어 현재 28기 가 서 있다. 이들 비석은 주로 수군만호의 선정비와 군수의 공적비이다. 다음은 자동마을 비석의 년대와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고
			높이	너비	두께	
1	萬戶李公技撫恤士卒清德善政碑	1702년	98.5	50	21	
2	御使朴公泰輔恤民善政碑	1702년	115	54	18	
3	行萬戶李公尙賢撫恤士卒清德善政碑	1705년	81	43	17	
4	萬戶南公聖重○○○○	1715년	101	46.5	17	
5	行萬戶申公寺岳恤民善政碑	1782년	115.5	51.7	16	호패형
6	行萬戶金公潤久恤民善政碑	1788년	125	55.7	18	호패형
7	行萬戶林公兼周恤民不忘碑	1842년	139.5	62	22.5	호패형
8	觀察使李公裕元永世不忘碑	1851년	106.5	46	19	가침석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 고
			높이	너비	두께	
9	萬戶池公得源恤民善政碑	1853년	100	43	21	
10	行萬戶車公益文善政碑	1860년	91	50	18	호패형
11	行萬戶朴公應祥永世不忘碑	1865년	111	40	19	호패형
12	御使李公教相永世不忘碑	1868년	146	52	19	
13	觀察使李公鎬俊善政碑	1872년	135	49	18	가침석
14	行觀察使趙公性教永世不忘碑	1876년	145	54.5	18	
15	行勅使沈公覆澤永世不忘碑	1880년	111	46	17	가침석
16	御使魯公允中永世不忘碑	1880년	126.5	45	19.5	가침석
17	行郡守金侯漢鼎永世不忘碑	1898년	134	58	19.5	가침석
18	觀察使尹公雄烈愛民善政碑	1998년	147	57	17.5	가침석
19	行郡守洪公永世不忘碑	1906년	155	52.5	21	가침석
20	樵山曹成煥先生教育功勞碑	1965년	115	39	14.5	7行 30字
21	新安郡守朴瑄柱善政碑	1972년	141	45	18	
22	碩泉崔秉用所長功績碑	1983년	108	77	24.5	17行 41字
23	重菴金先生智島謫廬遺墟碑	1990년	177	60	30	25行 50字
24	朝鮮國處士重菴金先生衛正斥邪碑	辛未年	153	68	22.5	15行 19字
25	萬戶梁侯相勳球履恤民永世不忘碑	년대미상	138	45	15.5	가침석
26	萬戶姜侯元準恤民善政碑	년대미상	126	46	13	호패형

#### (14) 長水黃氏烈女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무안 해제와 신안 지도를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너 직진하면 맨 처음 만나는 마을이 자동마을이다. 이 비석은 자동마을 초입 받자락에 서 있다. 장수황씨는 翼成公의 후예이자, 士人 黃良顯의 딸로 태어났다. 황씨의 성품은 온후하고 정숙하였다. 황씨는 17세에 김창하와 혼인하였다. 혼례를 올린 황씨부인은 시어머니 봉양을 정성으로 하고 자녀양육에 힘쓰면서 아내자의 도리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황씨부인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다. 옛말에 “열부는 하늘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황씨부인의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비석은 정유년에 황씨부인의 행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故士人 金昌河妻 長水黃氏 烈女碑>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11행 44자이며, 李炳觀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48cm, 두께 19cm, 높이 150cm이다.

#### (15) 李光載遺蹟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자동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다. 선생의諱는 文準이고, 字는 光載이며 鳳崗은 號이다. 봉강선생은 전주이씨 양도공 이천우의 후예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文學과 義를 중시하였다. 선생은 향리에 머물면서 四書三經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문인 70명이 스승의 3년 상을 지냈다. 또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사우를 건립하여 춘추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 비석은 문하생들이 선생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54cm, 두께 21cm, 높이 146cm이다. 비문은 22행 38자이며, 李龍信이 書하고, 趙炳麒가 撰하였다.

#### (16) 天安全氏實蹟碑閣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무안 해제에서 지도로 연결되는 연육교를 건너면 도로 우측에 자동마을이 있고, 자동마을 표지석 바로 옆에 <장수황씨 열녀비>가 위치한다. <장수황씨의 열녀비>에서 마을로 접어드는 골목길로 들어서면 우측 발자락에 비각이 서 있다. 천안전씨는 지도읍 당촌리에서 全文正의 딸로 태어났다. 21세 때 전주이씨 완풍대군의 19세손인 李文贊과 혼인하였다. 이후 천안전씨는 가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禮와 德을 갖추었다. 이에 유림이 천안전씨의 행실을 널리 알려 癸酉年에 성균관에서 열부로 표창하였다(제2102호). 이 비각은 1994년에 건립되었다. 내부에서 있는 비석의 규모는 너비 13cm, 두께 18cm, 높이 119cm이다. 碑文은 15행 30字이며, 방패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 (17) 李東英遺蹟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진입로 건너편에 신안수정교회가 있고, 교회 입구 좌측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하나는 상양재 이동영의 유적비이고, 다른 하나는 김해김씨 효열비이다. 이동영은 아버지 李文台와 어머니 창령성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생의諱는 云白, 字는 東英, 號는 尙陽齋이다. 이동영은 鄉先生으로, 향리 자제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戊子年에 뜻을 모으고, 이듬해 己丑年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尙陽齋 李先生 遺蹟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45.5cm, 두께 18.5cm, 높이 112cm이다. 비문은 18행 28자이며, 姜崔秀가 撰하고, 丁斗七이 書하였다.

(18) 金海金氏孝烈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자동마을 초입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다. 비석의 우측에 신안수정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尙陽齋 李先生 遺蹟碑> 가 있다. 김해김씨는 金以彦의 딸로 태어나 16세에 전주이씨 李潤馥과 혼인하였다. 김씨부인은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어머니에게 수혈하였으나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또 남편이 중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김씨부인은 3년 상을 모셨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행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후손들이 무진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李公潤馥 妻 金海金氏 孝烈碑>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47cm, 두께 16cm, 높이 128cm이다. 비문은 11행 37자로, 송사 기우만이 썼다.

(19) 崔炳翊道德碑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적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적거마을 버스정류장 옆에 위치한다. 최병익은 평소에 忠孝를 중시하여 자손만대에 恭敬과 仁義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최병익의 德을 칭송하기 위해 戊辰年 2월에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 <贈 嘉善大夫 童蒙教官 全州 崔炳翊 遺德碑>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너비 57cm, 두께 26cm, 높이 145cm이며, 벽돌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20) 金海金氏紀行碑閣(사진 39)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서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자동리 자서마을 자서경로당 오른쪽에 있다. 김해김씨는 文敬公 金琢의 후예이며, 土人 金瑩奎의 딸이다. 김씨는 어려서부터 정숙하고, 효를 행하고 성품이 유순하였다. 18세에 崔士威의 후예이자, 崔碩奎의 아들인 崔鍾元과 혼인하였다. 김씨부인은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또 형제와 우애가 돈독하여 사람마다 모두 칭찬하였다. 또 남편이 서울에서 교직에 있다가 병석에 있었으나, 백약이 무효하였다. 이에 부인은 집 뒤뜰에 단을 쌓아 놓고 하늘에 기도하였으나, 끝내 남편이 사망하였다. 그 때 부인의 나이 28세였다. 부인은 음식을 먹지 않고 남편을 따라 목숨을 버리려 하였으나, 늙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단념하였다고 한다. 훗날 불행하게도 시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루니, 향리 사람들이 부인의 절개와 효행을 칭송하였다. 이에 1988년에 후손들이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6cm, 너비 20cm, 두께 15cm

이다. 비문은 20행 36자로 국한문 혼용이며, 全州 李正日 撰·書했다. 비각은 4면이 석축으로 둘러져 있다.

(21) 崔芝澈實蹟碑(사진 40)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오룡동

· 유적현황 : 崔芝澈의 본관은 全州이다. 平度公 최유경의 후예이며, 나주목사 崔玉筍의 13세손이다. 공은 1823년에 아버지 崔漢斗와 어머니 順興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의 텃자리가 바로 오룡동이다. 공은 부모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공은 부친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壇을 세워 놓고 축원하였다. 이러한 공의 효성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무안과 호남을 대표하는 효자라 칭송하였다. 이 비석은 1978년에 세워졌다. 비석 앞면에 <孝子 崔公 實蹟碑> 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비문은 10행 34자이며,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8cm, 너비 49cm, 두께 21cm이다. 이 비석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주최씨 문중 사람들의 비석군이 있다(본고 <전주최씨 비석군> 참조).

(22) 전주최씨 비석군(사진 41)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오룡동

· 유적현황 : 이 비석군은 오룡동 마을 공터에서 있다. 이 비석군은 全州崔氏門中의 崔芝澈·崔英植·崔炳柱의 기념비이다. 비석은 벽돌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비석군은 후손 崔孟福, 朴壽雄, 金正勳 등이 세웠다. 비석의 종류와 년대, 규모는 다음과 같다.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고
			높이	너비	두께	
1	慕林隱崔先生	1978년	75	32	35	26행 24자
2	林隱崔先生追慕碑	1978년	135	47	22	18행 33자
3	全州崔氏三世孝子碑	1991년	136	46	22	14행 40자
4	全州崔東原世系碑	연대미상	235	85	34	18행 62자

이 가운데 <林隱崔先生追慕碑> 와 <全州崔氏三世孝子碑> 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林隱 崔先生 追慕碑> : 林隱先生의諱는 炳柱, 字는 鳳元이다. 본관은 全州이며, 平度公 崔有慶의 후예이다. 공은 1899년에 崔英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천성이 자애롭고 온화하였다. 8세에 공

부를 시작하였고, 10세에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공의 부인 全州李氏도 효성이 지극하였다. 시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등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향리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효자라 칭송하였다. 또 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덕을 베풀니, 향리 사람들이 공을 “淸德君子”라 칭하였다. 공은 1951년에 세상을 떠났다. 1978년에 향리 사람들과 문인들이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비석 앞면에는 <林隱 崔先生 追慕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선생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18행 33자이며, 金海 金大洪이 撰하고, 全州 李學庸이 書했다.

② <全州崔氏三世孝子碑> : 오룡동 전주최씨는 平度公 崔有慶의 후예들이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崔芝澈과 그의 아들 崔英植, 손자 崔炳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최지철은 1823년에 태어났다. 공은 천성이 자애로웠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였다. 공은 타고난 효자로,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보살폈다. 아버지가 병이 들자, 약을 구하여 드리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결국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최지철의 아들 최영식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9세에 부친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수일동안 아버지 병상을 지켰다고 한다. 아버지의 목숨이 위독해지자, 어린 손가락을 단지하여 수혈하니 여러 시간 동안 목숨을 연명하였다. 9세의 어린 아이의 효성을 보고 향리사람들이 탄식하였다고 전한다. 최지철의 손자 최병주 또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성현의 가르침을 배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효행을 본받아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였고, 훗날 부모님의 상을 당하여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3대 효자의 효성을 널리 기리기 위해 지도향교 유림들의 천거를 받아 1991년에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문은 14행 40자이며, 성균관장 金敬洙가 撰하고 成均館 典禮委員長 姜正熙가 書했다. 崔芝澈의 행적에 대해서는 <崔芝澈 實蹟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3) 南原梁氏三綱碑(사진 42)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효지마을

• 유적현황 : 효지마을 초입에 벽돌담장으로 둘러싸인 비석이 있다. 비석 앞에 조성된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있고, 계단 오른쪽에 <南原梁氏三綱碑>가 서 있고, 그 왼쪽에 삼강비문을 국역한 비석이 있다. <南原梁氏三綱碑>는 남원양씨기문의 양운수, 양발환, 밀양박씨(양재율의 처) 등 3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양운수의 號는 竹軒이며, 본관은 南原이다. 공은 성품이 강직하고 의연하였다. 1619년에 김응하의 휘하에서 戰功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이에 戊午年에 副護軍 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양발환의 字는

창희, 號는 수은제이며, 본관은 남원이다. 문양공 양성지의 후손으로 성품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뜻을 따랐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정성으로 간호하고 넓적다리를 잘라 수혈하였다고 전해온다.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예를 다하여 장례를 모셨다. 또 아버지가 병이 들자 자신의 손가락을 단지하여 수혈하니 3일 동안 목숨을 연명하였고 한다. 이러한 공의 효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공의 아들 양장섭이 아버지의 비석을 세웠다. 밀양박씨는 박학순의 딸로, 성장하여서 양재울과 혼인하였다. 박씨는 어려서부터 예의가 바르고 덕행이 뛰어났다. 결혼 후에도 효와 예로써 시부모님을 봉양하였다.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하늘에 기도하였다.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고, 끝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지냈다. 이러한 박씨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4cm, 너비 63cm, 두께 31cm이다. 비문은 20행 40자이며, 李相天이 書하고 沈廷燮이 撰했다. 비문을 국역한 비석은 1982년에 한영호가 쓰고, 梁庚錫·梁續錫·梁日錫이 세웠다.

(24) 朴鍾大頌德碑(사진 43)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효지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동천분교장 교문 왼편에 있다. 이 비석 바로 옆에는 <朴貞奎功績碑>가 있고, 그 반대편에 <金容學 功績碑>가 서 있다. 박종대 선생은 1928년 지도읍 선도리에 태어났다. 1952년 지도중앙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여 무안·목포·신안지역 16개 학교에서 42년 동안 교편생활을 하였다. 선생은 예절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향토애의 일념을 갖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생은 1967년에 국민교육헌장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1990년에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으며, 1994년에 국민훈장 종백장을 수여받았다. 이 비석은 지역 학구민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梅坡 朴鍾大 校長 頌德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선생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선생의 훈장과 포상 내력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4cm, 너비 45cm, 두께 19cm이다. 비문은 20행 40자이며, 姜春産이 撰하고, 金正財가 書하였다.

(25) 朴貞奎功績碑(사진 44)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효지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동천분교장 정문 왼쪽에서 있다. 이 비석 바로 옆에 <朴鍾

大頌德碑> 가 있고, 반대편에 <金容學 功績碑> 가 있다. 박정규공적비는 1976년에 학구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뒷면에 “자나 깨나 어린생명 가꾸어온 役事 그 정열 이곳에 바치었으니 님의 은공 우러러 길이 새기리라”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 앞면에 <校長 朴貞奎 教育功績碑>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4cm, 너비 42cm, 두께 17cm이다. 관련 자료로 지도읍 선도리 대촌마을에 <朴貞奎 頌德碑> 가 있다.

(26) 金容學功績碑(사진 45)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효지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동천분교장 정문 오른쪽에 있다. 반대편에 <朴鍾大 頌德碑> 와 <朴貞奎 功績碑> 가 있다. 이 비석은 1976년에 김용학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동초등학교 학구민 일동이 세웠다. 비석 뒷면에 구민일동이 선생의 험격한 공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불망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비석 건립에 참여한 朴在根 외 7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1cm, 너비 40cm, 두께 18cm이다.

(27) 金彦斗遺蹟碑(사진 46)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안마동
- 유적현황 : 효지마을에서 안마동 마을로 가는 길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하나는 <金彦斗 遺蹟碑> 이고, 하나는 <驪興閔氏 實蹟碑> 이다. 金彦斗의 字는 學云, 號는 南崗이며, 본관은 金海이다. 文愍公 金駟孫의 후예이자, 金昌集의 아들이다. 공은 1882년에 태어났다. 공은 성장하여서 南原梁氏와 혼인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五倫을 실천하고,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것 보다는 공부하는데 열중하였다. 8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했고, 10세에는 四書五經에 능통했다. 훗날 공은 학식이 높은 선비로 성장하였는데, 공의 문하생이 되기 위해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1939년에 공이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사방에서 문인들이 찾아와 조문했다고 한다. 이 비석은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丙申年에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 <南崗 金先生 講道 遺蹟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선생의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비석의 측면에 문하생 梁曰錫 외 4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55cm, 두께 24cm이다. 비문은 13행 37자이고, 延安 李炳觀이 撰하고, 全州 李正日이 書했다.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연화동

· 유적현황 : 연계사는 김유신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사우이다. 연계사는 태천리 연화동 마을 끝자락 야산에 위치한다. 사우의 바로 앞에 <金敏斗妻 卍山蔣氏 出義碑> (壬午年)와 <金敏斗 妻 牙山蔣氏 出義碑> 가 있고, 그 뒤편에 사우의 강당에 해당하는 <講修齋> 가 위치한다. 강수재는 1937년에 세워졌다. 재실 내부에 ①「講修齋記」(乙酉年, 金益曾 記), ②「感謝記」(1978년, 蓮溪祠院 후손 일동), ③「蓮溪祠事實記」(羅有英 記), ④「蓮溪祠記」(乙卯年, 尹相植 記), ⑤「蓮溪祠再重修記」(丙寅年, 金大洪 識), ⑥「蓮溪祠再重修記義捐記」(丁卯年), ⑦「記」(丁卯年), ⑧「書蓮溪祠事實後」(庚辰年, 趙炳弼 跋), ⑨「祠宇重修記」(戊申年, 趙炳麒 記), ⑩「祠宇重修功蹟表彰」(戊申年), ⑪「蓮溪祠上樑文」(丁卯年, 高光善 述) 등 현판이 걸려있다.

강수재를 지나서면 그 뒤편에 사우인 <蓮溪祠> 가 위치한다. 연계사우는 지방 유림들에 의해 1896년에 건립되었다. 1933년에 김해김씨 문중에서 대대적인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른다. 매년 음력 3월 3일에 김유신 장군제를 지낸다. 연계사 내부에는 김유신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開國公 龍華 金先生>, <濯纓 金先生>, <三足堂 金先生>, <海隱 金先生>, <節孝 金先生> 등 5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연계사의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팔각지붕이다. 연계사는 신안군 향토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다.

### (33) 康堅祠(사진 51)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태천마을

· 유적현황 : 강수사는 한양조씨 문중사우이다. 태천리 태천마을에는 漢陽趙氏 奉事公派의 사우, 문중재각, 열녀각, 추모원이 조성되어 있다. 문중 선조들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追慕園, 문중재각인 <惇睦齋>, 문중 사우인 강수사 등이 그것이다. 외삼문인 崇慕門을 들어서면 정면에 <漢陽趙氏 奉事公派 追慕園 事蹟碑> 가 서 있고, 비석의 뒤편에 한양조씨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다. 송모문 왼쪽에 康堅祠, 그 오른쪽에 <漢陽趙氏 烈孝旌閭> 와 <惇睦齋> 가 위치한다. 강수사에는 총 9위의 문중 선조가 봉안되어 있는데, 즉 遜菴·事二齋·晚松·江村·農隱·焦坡·小山·農村·止齋先生 등이다. 사우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맞배지붕이다.

돈목재는 한양조씨의 문중재실로, 1982년에 건립되었다. 재실 내부에 <旅酬堂>, <康堅堂>, <敦厚堂> 등 편액과 6기의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雙松門記」(庚寅年, 李鶴宰 識), ②「旅酬堂記」(庚寅年, 鄭龍澤 書), ③「康堅室記」(己丑年, 趙炳弼 書), ④「一門五孝烈讚揚文」

(1962년, 趙永元 外 5人), ⑤「旅酬堂敦厚軒記」(趙老江 書), ⑥「惇陸齋長物記」(己酉年, 趙炳麒 書) 등이다. 재각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며, 팔작지붕이다. 돈목재 바로 앞에는 <漢陽趙氏 落南祖 遜菴處士 遺墟碑>가 있다. 돈암공의諱는 碩虎, 字는 成彩이며, 본관은 漢陽이다. 공은 中書公의 후예이자, 郎節公의 후손이다. 공은 1573년에 태어나 1623년에 세상을 떠났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59cm, 너비 59cm, 두께 28cm이다. 비문은 18행 40자이며, 台川 門靑契에서 1970년에 건립하였다

돈목재 바로 옆에는 仁同張氏, 金海金氏, 朔寧崔氏 등 3인의 열부에게 내려진 <漢陽趙氏 烈孝旌閭閣>이 위치한다. 정려각 정면 양쪽에 2기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孝烈旌閭記」(壬寅年, 金勳記)이고, 다른 하나는 「旌閭實記」(辛丑年, 趙炳麒 記)이다. 정려각 내부에는 현판 3기가 걸려 있는데, ①「烈婦 學生 漢陽趙公 貞元 妻 孺人 仁同張氏之閭」, ②「孝婦 學生 漢陽趙公 炳權 妻 孺人 金海金氏之閭」, ③「烈婦 贈 崇政大夫 參議 漢陽趙公 尙海 妻 貞夫人 朔寧崔氏之閭」등이 있다. 열녀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팔작지붕이다.

#### (34) 申逸東功勞碑(사진 52)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하탑마을

· 유적현황 : 송도와 사옥도를 연결하는 지도대교를 건너면 가장 처음 접하게되는 마을이 탄동리 하탑마을이다. 이 비석은 사옥도 선착장 초입에 위치한다. 비석의 주인공은 申逸東이다. 공은 申崇謙의 후예이자, 아버지 申龍培와 어머니 漢陽趙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은 명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안군 협의회장, 농업중앙회 지도단위농협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공은 사옥도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기여하였고, 연육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은 1984년에 중앙회 회장 표창장과 대통령 포상을 받았으며, 도지사 상과 각 기관장 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러한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 유지들과 조합원 일동이 1986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組合長 牛山 申逸東 功勞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공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추진위원장 金秩培를 비롯하여 위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44cm, 두께 21cm이다. 비문은 18행 32자이며, 全州 崔柄安이 撰·書했다.

#### (35) 지도대교 비석군(사진 53)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하탑마을

· 유적현황 : <지도-송도-사옥도> 를 잇는 교각이 지도대교이다. 이 지도대교를 건너면 초입에 6기의 비석이 줄지어 서 있다. 이 비석들은 원래 지도읍 탄동리 1구 탑선선착장에 있었던 것을 지도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나머지 비석은 사옥도의 연혁을 새겨놓은 <연혁비>, 지도대교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지도대교 개통 기념비> 이다. 다음은 지도대교 비석군을 정리한 것이다.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 고
			높이	너비	두께	
1	御史魚公允中永世不忘碑	1987년	129	45	21	
2	郡守洪公大重永世遺愛碑	1879년	109	25	3	철비
3	郡守李公玄翼永世不忘碑	1865년	128	57	17	방패형
4	郡守南公廷龍不忘善政碑	庚辰年	148	52	26	
5	연혁비	2004년	107	152	8	
6	지도대교 개통 기념비	2004년	151	104	37	

(36) 金龍聖功績碑(사진 54)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원달동

· 유적현황 : 지도초등학교 신광분교장 정문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하나는 <金龍聖 功績碑> 이고, 다른 하나는 <이장호 공적비> 이다. 金龍聖의 號는 沙溪이며, 본관은 金海이다. 1916년에 金元模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은 천성이 온화하고 살신성인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공은 1970년에 본교 초대 육성회장에 임명되었다. 이 때 공은 개인 소유의 밭 360평을 학교부지로 기증하였고, 1977년에는 교문을 건립하였고, 1978년에는 체력장을 조성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한 1978년에는 학습공원화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80년에는 3개의 교문을 재 건립하였다. 공은 또한 초대 면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80년에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申正熙를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공의 공적비가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沙溪 金海 金公龍聖 功績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공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 비석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8cm, 너비 42cm, 두께 17cm이다. 비문은 23행 33자이며, 咸平 李正本이 撰·書했다.

(37) 이장호공적비(사진 54)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원달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신광분교장 정문 앞에 있다. 이 비석 바로 옆에 <金龍聖功績碑>가 있다. 이장호 선생은 학교 운동장을 확장하고, 운동장 스탠드와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신광초등학교는 학습공원화 우수학교로 교육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비석은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80년 신광초등학교 학구민 일동이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교장 이장호 선생 공적비>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선생의 공적사항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93cm, 너비 30cm, 두께 12cm이다.

(38) 묘동마을 비석군(사진 55)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묘동

· **유적현황** : 묘동 초입에 마을 표지석과 함께 비석 3기가 나란히 서 있다. 2006년 4월 <묘동-당촌>간 도로 포장공사가 완공되면서 묘동마을 내에 소재하고 있던 비석들을 마을 초입으로 모두 옮겼다. 비석은 <全文正 淸德碑> <黃東源 紀實碑> <洪定燮 壇碑> 등이다. 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全文正淸德碑>: 원래 지도서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던 비석인데, 마을 초입으로 옮겨왔다. 공은 천성이 자애롭고 온화하며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1932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44년에 귀국하였고,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공은 후진양성을 위해 1946년에 지도초등학교 사육분교의 인가를 얻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졸업생들이 1983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 앞면에는 <月堂 天安 全文正 淸德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측면에 발기인 黃明哲 外 2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1cm, 너비 44cm, 두께 18cm이다. 비문은 21행 33자이며, 坡平 尹榮皓가 撰하고 全州 李正日이 書했다.

②<黃東源紀實碑>: 黃東源의 字는 平汝, 號는 魯齋이며 본관은 長水이다. 공은 黃誠昌의 후예이자, 아버지 黃呂鍾과 어머니 金海金氏 사이에서 1846년에 태어났다. 공은 형제 간에 우애가 돈독하고, 효성이 지극했다. 부모님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壇을 쌓아 놓고 축원하였으며, 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다. 또한 공은 華陽 선생과 함께 학문에 정진하였고, 勉菴 崔益鉉 선생을 추종하였다. 이 비석은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丙戌年에 세워졌다. 비석의 앞면에는 <魯齋 黃公壇享 紀實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8cm, 너비 44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13행 39자이며, 崔仁宇가 撰했다.

③<洪定變壇碑記> : 묘동마을은 사옥 1구이다. 이 마을은 金竹谷, 黃魯齋, 申升溪, 金松溪 등에 의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黃定變의 字는 永五이고, 본관은 南陽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4cm, 너비 48cm, 두께 21cm이다. 비석 뒷면에 공의 행적이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18행 32자이며, 完山 崔秉心이 撰하고, 任東宣이 書했다.

(39) 金基玉紀蹟碑(사진 56)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당촌

· 유적현황 : 묘동마을에서 당촌마을로 향하다 보면 도로 오른편에 <金基玉 紀蹟碑> 가 있다. 金基玉의 字는 若이고, 본관은 天安이다. 天安君 金仁亮의 후예이며, 同樞公 竹泉 金弼煥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영재라고 칭송하였다. 선생은 金頑石과 함께 松沙 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훗날 정자를 지어 문하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공의 문인들이 五禮에 따라 1973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松坡先生 金公 紀蹟碑> 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선생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7cm, 너비 43cm, 두께 21cm이다. 비문은 15행 31자이며, 坡平 尹相植이 撰하고, 金海 金鍾連이 書했다.

(40) 당촌마을 비석군(사진 57)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당촌

· 유적현황 : 당촌마을 노인정 옆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하나는 <金奉天 紀績碑> 이고, 다른 하나는 <金洪俊 紀績碑> 이다. 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金奉天 紀績碑> : 비석의 주인공은 金奉天이다. 공의 號는 蘭岡이며, 侍中公 金琢의 17세손으로 1890년에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유교이념을 숭상하였다. 또한 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과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항상 대화를 함께 나누며 적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공은 문중 일에도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한다. 또 일제 시대에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설립했으나, 일본 경찰의 억압으로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공립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초등학교를 건립하였다. 이외에도 공은 면사무소 행정 자문위원과 향교 교교를 역임하다가 1967년에 세상을 떠났다. 공의 묘는 묘동 두류산에 있는데, 면의 유지들이 1992년에 묘역 인근에 공의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典校 蘭岡 金奉天 紀績碑>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 비석을 건립하는데 추진위원장이었던 面長 趙成局 외 추진위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26행 48자로 국한문 혼용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4cm, 너비 58cm, 두께 27cm이다. 좌대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

② <金洪俊 紀績碑> : 비석의 주인공은 金洪俊이다. 공은 조선 선조 때 태어났다. 공은 三樂을 큰 즐거움이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3가지 즐거움은 첫째, 부모와 형제가 모두 생존하는 것, 둘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 등이다. 이 비석은 1986년에 선생의 문인들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鶴山 金先生 紀績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 발기인 金三正 外 4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6cm, 너비 45cm, 두께 22cm이다. 비문은 14행 30자이며, 全州 崔柄安이 썼다.

(41) 金海金氏孝烈碑閣(사진 58)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석산마을
- 유적현황 : 선도는 지도의 부속도서로 지도읍 탄동리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 비각은 선도 석산마을 선도교회 뒤편에 위치한다. 이 비각은 金海金夫人의 孝烈碑閣이다. 김해김씨는 金駟孫의 후예이다. 김해김씨는 어려서부터 효를 행하였으며 20세에 月溪 朴根重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26세가 되던 해에 남편이 중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김해김씨는 유복자를 키우면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문중 선조의 제사를 정성으로 모셨다. 김씨부인의 행실을 지켜본 박씨가문 사람들은 열녀라 칭송하였다. 김씨는 조선 철종 때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비각은 김씨부인의 행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66년에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金海金氏夫人 孝烈碑> 라 새겨져 있고, 부인의 행적은 “喪夫從死 含忍未圖 克家全節 繼嗣貽模 堂存姑舅 腹有遺孤 片碑能語 百世無誣”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67cm, 너비 33cm, 두께 14cm이다. 비문은 17행 25자이며, 慶州 李景弘이 撰·書하였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1칸, 측면1칸이며 팔작지붕이다.

(42) 密陽朴氏三世四孝碑(사진 59)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석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석산마을 초입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석 뒤쪽으로 멀리 선도교회가 보인다. 비석은 도로변 낮은 담장 안에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하나는 <密陽朴氏 三世 四孝碑> 이고, 다른 하나는 <朴世泰 遺址碑> 이다. 그리고 비석 바로 옆에 <金海金氏夫人 孝烈碑閣> 이 나란히 위치한다.

밀양박씨 3세 4孝子の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孝子 朴道亨은 領相 華의 후예이다. 공은 천성이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공의 부친이 병을 얻어 소생하지 못하자, 공이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부친에게 수혈하였다. 이러한 공의 열행 사실을 지켜 본 마을 사람들이 공을 효자라 칭송하였다. 또 공의 아들 박세태 또한 언행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 朴道亨이 병을 얻어 위독하게 되자,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 수혈하였다고 한다. 그 후 부친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병석에 눕게 되자, 공은 부친의 쾌유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 기도하였다고 한다. 朴道亨의 며느리 光山金氏 또한 효심이 지극하였는데, 향리 사람들은 아들과 며느리를 “夫婦雙孝”라 부르며 칭찬하였다. 이외에도 박씨문중에서는 朴仁淳, 朴孟甲 등 대를 이어 7명의 효자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박씨가문 사람들의 효행사실을 알게 된 지도유림들이 代를 이은 효자들의 행실을 기념하기 위해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효자비의 규모는 높이 142cm, 너비 78cm, 두께 47cm이다. 비문은 18행 42자이며, 丙戌年에 完山 李承旭이 撰하고 平澤 林哲周가 書했다.

(43) 朴世泰遺址碑(사진 60)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석산마을

· 유적현황 : 석산마을 초입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석 뒤편으로 멀리 선도교회가 보인다. 이 비석 바로 옆에 <密陽朴氏 三世 四孝碑>가 나란히 서 있다. 海隱公 朴世泰의 字는 聖瑞이고 본관은 密城이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공은 어려서부터 순탄하게 생활하였다. 공은 성장하면서 학문에 열중하였고, 배운 만큼 언행이 신중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효자로 천거되었으며, 후에 향리 사람들이 공의 부인 광산김씨와 함께 雙孝라 칭송하였다. 또한 공의 조카 朴仁淳 역시 효성이 지극하였고, 박인순의 사촌동생 朴孟甲도 아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였다. 이처럼 三代에 걸쳐 7명의 효자가 배출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후손들이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折衝將軍 行僉知中樞府使 海隱 朴公 遺址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3cm, 너비 53cm, 두께 27cm이다. 비문은 18행 42자이며, 奇光衍이 撰하고, 林哲周가 書했다.

(44) 金仁肖善德碑(사진 61)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북촌에서 주동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2개의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하나는 석산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대촌마을이다. 이 비석은 대촌마을 초입에 6기의 비석과 함께 서 있다. 즉 <金仁肖

善德碑〉 〈朴貞奎頌德碑〉 〈原州李氏紀行碑〉 〈朴炳玫孝行碑〉 〈朴榮來事蹟碑〉 〈朴準化善行碑〉 등이 그것이다.

김인초 여사는 천성이 순후하여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언행이 올바르며, 예의범절을 잘 지켰다. 김씨부인은 1944년에 靜山 朴貞奎와 결혼하여, 4남 4녀를 두었다. 부인은 남편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걷도록 내조하였으며, 친척들과 화목하게 생활하였다. 김씨부인은 종가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10명의 시누이와 시동생, 부모를 잃은 조카들까지 정성으로 보살폈다. 시부모님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쾌유를 빌며 정성으로 봉양하였으며, 끝내 세상을 떠나자, 3년 상을 모셨다. 뿐만 아니라 김씨부인은 문중 제사도 50여 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다. 또 남편의 후학들이 끼니를 거르며 어렵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고, 마을 부녀자들에게는 식생활 개선과 뜨개질을 익히도록 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행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북도초국민학교 졸업생인 任泰辰, 高永植등을 대표로 하여 2005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金海 金仁 肖女史 善德碑〉 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대한민국공훈사 발간위원장의 글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부인의 행적에 대해서 국한문 혼용으로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1cm, 너비 61cm, 두께 30cm이며, 비문은 修岩 金鎭이撰写하였다.

(45) 朴貞奎頌德碑(사진 62)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대촌마을 초입 도로변에 있다. 朴貞奎는 1926년에 常菴 朴炳玫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목포사범학교와 건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부터 신안, 무안, 해남, 진도, 목포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교감, 교장, 장학사, 학무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3년에 목포북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였다.

선생은 후학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르쳤으며, 많은 교육논문을 발표하여 대통령 포상, 성육문화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포상받았다. 교직생활과 더불어 신안군과 목포시 교육회장, 목포교대 총동문회장, 남북통일 국제연합국제승공운영위원, 한국지역사학회교 중앙 대의원 도이사 및 목포시회장, 목포애향협의회 문화분과위원장, 在木지도읍향우회장, 신안군 지도향교임원직 등으로 활동하였다. 지도동초등학교 靜山장학회를 설립하였고, 모교인 지도중앙국민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매년 두 차례씩 노인정을 방문하여 효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93년에 신안도초초등학교, 지도북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6cm, 너비 61cm, 두

께 30cm이며, 비문은 修岩 金鑣이 撰하였다.

(46) 原州李氏紀行碑(사진 63)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朴貞奎 頌德碑> 옆에 서 있다. 李東屈은 1902년에 선도 주동에서 李後先의 장녀로 태어났다. 16세에 선도리 대촌에 사는 密陽朴氏 肅愍公派의 24세손인 朴炳致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이씨부인은 시조부모, 시부모, 시백부까지, 그리고 동기간과 시동생들을 보살피며 생활하였다. 이씨부인은 효성이 지극하여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정성을 다하여 병간호를 하였다. 이러한 이씨부인의 행실을 지켜본 향리 사람들이 열부라 칭송하였고, 지도향교 유림의 천거로 성균관장으로부터 효부상을 수상하였다. 또 남편이 병을 얻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정성껏 수발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 54세때 불행하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부인은 홀로 3남 3녀를 결혼시키고 문중을 보필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2005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은 장손 朴仁甲, 朴京甲, 朴元甲 등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 常菴 漢醫 朴炳致之配 孀人 原州李氏 孝烈婦 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는 아들 朴貞奎를 비롯한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6cm, 너비 61cm, 두께 30cm이며, 비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새겨져 있다.

(47) 朴炳致孝行碑(사진 64)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대촌마을에서 주동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에 6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은 朴準化와 그의 아들, 손자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朴炳致의 字는 福童, 初名은 文玉, 號는 常菴이다. 肅愍公 朴承宗의 후예이다. 공의 고조는 朴載荷, 증조는 朴鑣, 조부는 朴準化이다. 공의 아버지는 參奉을 지낸 野隱 朴榮來이고, 어머니는 新安朱氏이다. 공은 1903년에 출생하였다. 공은 천성이 영민하고 비범하였다. 7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훗날 기우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였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의학에 뜻을 두어 박사가 되었다. 공은 선치초등학교 기성회 육영사업, 面政, 지도향교에서 활동하였다. 공의 나이 54세 때 세상을 떠나니, 공의 아들 朴肖胤, 朴貞奎 등이 부친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常菴 朴公 孝行碑> 이라고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는 후손 朴仁甲을 비롯하여 비석 건립에 참여한 29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8cm, 너비 55cm, 두께 24cm이다. 비문

은 국한문 혼용체로 새겨져 있으며, 達城 裴檜斗가 撰하고 達城 裴太佑가 書하였다.

(48) 朴榮來事蹟碑(사진 65)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대촌마을에서 주동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에 6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朴榮來의 初諱는 永春이고, 字는 仲彬, 號는 野隱이다. 공은 신라 朴赫居世의 후예이자, 고려 朴鉉의 후손이다. 공의 高祖는 朴濬煥, 曾祖는 朴載荷, 조부는 朴鑣이다. 공은 1885년에 아버지 朴準化와 어머니 天安 全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은 몸가짐이 단정하고 언행이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였다. 공은 농사를 지어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부모님 상을 당하자, 예를 다하여 장례를 모셨다. 또 공은 근검절약하여 향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 마을 사람들이 공을 칭송하였다. 공은 1962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비석은 후손 박정규가 1991년에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野隱 朴公 事蹟碑> 라 새겨져 있고, 비문은 達城 裴檜斗가 撰하고 達城 裴太佑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6cm, 너비 54cm, 두께 23cm이다.

(49) 朴準化善行碑(사진 66)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대촌마을에서 주동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에 6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朴準化의 字는 汝化, 號는 華谷이며, 朴鑣의 아들로 庚戌年에 태어났다. 공은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 성장하여서도 언행이 올바르고 예의를 갖추었다. 또 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극진히 섬겼으며,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예를 다해 장례를 모셨다.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 항상 덕을 베풀었다. 또 지도와 선도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제공해 주었다. 공은 辛酉年에 세상을 떠났다. 이 비석은 1991년에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華谷 密陽朴公 善行碑> 라고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의 행적에 대해서 국한문 혼용체로 새겨져 있다. 측면에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達城 裴檜斗가 撰하고 達城 裴太佑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9cm, 너비 52cm, 두께 23cm이다.

(50) 密陽朴氏烈行碑(사진 67)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대촌마을에서 주동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에 6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주변에 <

金海金氏世葬山> 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옆에 <密陽朴氏烈行碑> 가 있다.

밀양박씨는 조선 선조 때 충신 喚鶴亭 朴以祥의 후예이자, 朴允九의 딸이다. 성장하여 金寧君 金牧卿의 후예인 金白泰와 결혼하였다. 밀양박씨는 효성이 지극했으며, 남편 역시 효자였다.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부인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정성으로 간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목숨이 위급해지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남편에게 수혈하였다. 그러나 끝내 남편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들 부부에게는 당시 3세의 아이와 태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후 부인은 두 아이를 기르고, 김씨문중을 보존하였다. 이에 무안 士林들이 부인을 열녀로 포상하였다. 이 비석은 부인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에 세워졌다. 비석의 앞면에는 <密陽朴氏烈行記實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부인의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비문은 19행 37자이며, 己丑年에 李錫鍾이 記하고, 戊午年에 金浩仁이 書했다.

(51) 朴炳尹善行碑(사진 68)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대촌마을에서 선도교회로 이르는 도로변에 2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있다. 하나는 <朴炳尹善行碑> 이고, 다른 하나는 <朴學來紀念碑> 이다. 朴炳尹의 字는 正敎, 號는 松坡이며, 본관은 密陽이다. 공은 肅愍公 朴承宗의 후예로, 1881년에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공은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다. 장성하여 錦城羅氏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훗날 부모의 상을 당하자,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모셨다. 공은 향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비석은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戊午年에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松坡朴先生紀念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의 후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149cm, 너비 53cm, 두께 22cm이다. 비문은 18행 40자이며, 南陽 洪大杓가 撰했다.

(52) 朴學來紀念碑(사진 68)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대촌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朴炳尹善行碑> 바로 옆에 서 있다. 朴學來의 號는 菊坡이고, 字는 京道이며, 본관은 密陽이다. 고려 糾正公 朴雲仍의 후예이며, 조선 文景公 朴剛生의 13세손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온화하였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 학문에 뜻을 두었다. 또한 공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훗날 문하생 수 백인을 양성하였다. 이 비석은 문하생들이 선생의 행

적을 기리기 위해 1975년에 세운 것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菊坡 朴先生 紀念碑> 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9cm, 너비 53cm, 두께 22cm이다. 비문은 27행 50자이다.

(53) 朴萬用紀念碑(사진 69)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주동마을
- 유적현황 : 선도 주동마을에 지도초등학교 선치분교장이 있다. 선치분교장 정문에 비석 3기가 서 있다. 왼쪽부터 <朴萬用 紀念碑>, <朴彩福 紀念碑>, <朴東佑 功績碑> 등이다. 박만용은 학교 사택을 건립하고 교실을 증축하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방민들이 1965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會長 朴萬用 功績 紀念碑> 라 새겨져있고, 공의 행적은 앞면 여백에 “惟公率性 始營舍宅 恒在育英 再擔增室 全鄉頌德 巍巍功績 攻石刻名 與校共長”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8cm, 너비 48cm, 두께 18cm이다.

(54) 朴彩福紀念碑(사진 70)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주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선치분교장 정문 앞에서 있다. 박채복은 학교 건물을 증축하고, 자신의 田畓을 기증하는 등 영재교육에 공헌하였다. 이에 지방민들이 1956년에 공의 기념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會長 朴彩福 功績 紀念碑> 이라 새겨져 있고, 공의 행적은 4언 절구로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9cm, 너비 46cm, 두께 21cm이다.

(55) 朴東佑功績碑(사진 71)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주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선치분교장 정문 앞에 있다. 박동우는 초등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칼라 TV 7대, 비디오 카메라 1대, VTR 1대, 앰프 1대 등 교육기자재를 마련해 주었다. 이 비석은 1985년에 건립되었다. 공의 비문에 “선도 땅 넓은 벌에 가장 값진 소망을 걸고 정성어린 손으로 옥영의 거름을 뿌렸노라. 우리 다 같이 꿈을 실은 묘판 위에 단비가 내렸노라. 한 잎 두 잎 탐스런 새싹들 내일은 기필코 거목이 되어 당신에게 보람을 드리오니, 바친 정성 그 이름에 영원한 빛을 받으리라”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앞면에는 <朴東佑 先生 功績碑> 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 공적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45cm, 두께 21cm이다.

(56) 金海金氏紀行碑閣(사진 72)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주동마을

· 유적현황 : 주동마을에서 선착장으로 향하다보면 도로 왼쪽에 시멘트 담장으로 둘러진 비각이 있다. <烈女閣> 이라 새겨진 외삼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안에 비각이 있다. 비각 안에는 <烈婦 金海金氏 紀行碑> 라 새겨진 비석이 있다. 비문에 “烈이란 여자의 큰 절개이고 사람의 크고 중요한 근본이다.烈이 있고 효를 겸한 사람은 드문데 선도의 주동마을에 사는 김씨부인이 그런 사람이다.”라 새겨져 있다. 김해김씨는 昌寧 曹喜來의 부인이다. 김씨부인은 金翻孫의 후예이며, 金學才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로써 부모를 공경하니 효자라 칭했다. 나이가 들어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의 뜻을 따랐으며, 남편에게 순종하였다. 20세 때 남편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집안의 형편이 날로 기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가정을 지키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다. 평생을 홀로 살면서 절개를 지켰다. 이에 부인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에 비석을 세웠다. 이 비석은 曹在炫, 曹東碩, 曹才午 등이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7cm, 너비 59cm, 두께 18cm이다. 비문은 10행 36자이며, 密陽 金在權이 述하고 全州 李學庸이 書했다.

(57) 密城朴氏孝烈閣(사진 73)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매계마을

· 유적현황 : 선도선착장에서 좌측으로 열린 해안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매계마을이 나온다. 효열각은 마을의 초입에 위치한다. 석축의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왼쪽에 <原州李氏 旌閣> 가 있고, 오른쪽에 <朴炳煥 旌閣> 가 있다. 原州李氏와 朴炳煥은 할머니와 손자로, 1905년에 함께 정려를 포상 받았다. 비문은 長興 高光善이 敍했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팔작지붕이다. 비각의 바로 옆에 改·補修를 알리는 비석이 있고, 비각의 주변에 석재와 꽃이 장식되어 있다. 비각은 2005년 3월에 후손들이 중수하여 오늘에 전한다. 비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原州李氏 旌閣> : 原州李氏는 朴準權의 부인이다. 부인은 어려서부터 효를 행하고 온화했으며, 시집간 후에도 박씨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정성껏 봉양하였다.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자 정성으로 간병하여 생명을 연장하였다. 또 남편이 허약하여 희귀병에 걸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부인은 늙은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그리고 유복자를 보살폈다. 이러한 부인의 행실을 지켜본 이웃 사람들이 부인을 열녀라 칭송하고, 향교 유림

들이 중앙에 천거하여 정려를 포상받았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烈婦 貞夫人 李氏 旌閭碑閣>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5cm, 너비 51cm, 두께 21cm이며, 비문은 13행 24자이다. 석조건축이지만, 세부양식은 목조건축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朴炳煥 旌閭> : 향리사람들은 朴炳煥을 ‘하늘이 내린 효자’라 칭송하였다. 예조에 올린 계문에 의하면, “朴炳煥의 字는 德允, 號는 愛菴이며, 본관은 密城이다. 肅愍公 朴承宗의 후예이며, 아버지 嘉善 朴靖來, 어머니는 貞夫人 韓氏이다. 공은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가 병을 얻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러한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예조에서 立案을 내려 주었고, 甲戌年에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 <贈 嘉善大夫 孝子 朴公炳煥 旌閭碑閣> 이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측면에는 아들 朴菴奎와 손자 朴鍾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1cm, 너비 51cm, 두께 21cm이다. 비문은 12행 42자이다.

(58) 朴良煥 · 朴啓煥遺址碑(사진 74)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매계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선도리 매계마을 노인정 앞에 있다. 또 바로 옆에 <梅鳳堂> 이라 불리는 납골당이 위치한다. 密陽朴氏의 선도 입향조는 朴宗鶴이다. 본래 해남 화원에서 살다가 아들 朴良煥과 朴啓煥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공은 1799년에 이 섬에 입도하여 집을 짓고 밭을 개간하였다. 또한 공은 독서를 좋아하여 후진들을 양성하니, 사람들이 공을 處士라 칭하였다. 이후 선도에 박씨 후손들이 수 백호가 거주하게 되니, 소위 ‘朴氏島’라 일컫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을 추모하기 위해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處士 朴公 諱 良煥 三省 朴公 諱 啓煥 遺址碑> 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82cm, 너비 62cm, 두께 182cm이다. 비문은 18행 30자이며, 己未年에 竹山 安宅承이 撰하고, 癸酉年에 朴宣奎가 書했다.

(59) 全州李氏紀行碑閣(사진 75)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매계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매계마을의 뒤쪽 산록에 위치한다. 비각 담장은 붉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고, 돌 계단을 올라서면 왼쪽에 후손들의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있고, 오른쪽에 <全州李氏 紀行碑閣> 이 서 있다.

전주이씨는 1848년에 李應淑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密陽 朴準奉과 혼인하였다. 전주이씨는

어려서부터 행실이 올바르고 성품이 순후하였다. 성장하여서 박씨 가문으로 시집갔고, 이후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문을 수호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병을 얻어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으나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고,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수혈하니, 3일 동안 목숨을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 때 부인의 나이 22세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이씨부인은 늙으신 시아버지와 유복자를 보살피며 평생을 홀로 살았다. 이에 향리에서 부인을 효열부라 칭하고, 1959년에 지도향교 전교가 성균관에 열녀로 천거하였고, 1993년에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烈婦 全州李氏 紀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3cm, 너비 45cm, 두께 21cm이다. 비문은 19행 38자이며, 溫陽 鄭文炫이 씀하였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60) 英思齋(사진 76)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 유적현황 : 지도 참도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정도 가면 어의도에 당도한다. 어의도는 지도의 부속도로 행정구역상 어의리에 해당된다. 어의리는 어의마을, 김촌마을, 강촌마을, 어동마을 등 4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의도 선착장에서 지도초등학교 어의분교를 지나면 왼쪽에 英思齋가 있다. 영사재는 金寧金氏 문중재각이다. 현재의 건물은 1986년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재각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팔작지붕이다.

(61) 曹康煥遺惠碑(사진 77)

- 소 재 지 :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지도초등학교 어의분교 앞에서 있다. 공은 자신의 소유지를 섬주민들에게 경작하도록 대여해 주었다. 이에 1915년 섬 주민들이 공의 비석을 건립해 주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通政大夫 曹公 康煥 遺惠碑>라 새겨져 있고, 공의 행적은 4언 절구로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0cm, 너비 62cm, 두께 21cm이다. 비석의 오른쪽에 1987년에 어의리 주민들이 신안군수 徐仁燮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功績 記念碑>가 있다.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1) 韓末 다도해의 行政治所와 鄕校가 설치되었던 섬, 智島鄕校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자.

智島는 신안군의 북단에 위치하며, 내륙 연안과 매우 가깝게 입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도는 예로부터 고대 해로, 중국 교역로, 조운로 등 바닷길의 주요 길목으로 이용되었다. 이 같은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신안군 도서를 소위 '웃섬'과 '아랫섬'으로 구분할 때 지도 인근 해역은 웃섬에 해당된다. 이는 단순히 해당 섬의 입지적 조건만을 표현하였다기보다 해당 섬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지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안군의 중부와 남부 도서지역의 입도조들은 주로 영암과 해남, 진도에서 유입된 반면, 지도 인근 도서는 신안군의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영광·합평·나주지역에서 입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지도 일대의 주민들은 중도와 입자도 아래에 입지하고 있는 섬들을 '아랫섬'이라 하고, 중도의 북쪽에 입지한 섬을 '웃섬'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과 위상을 반영하듯 1896년에 지도에 郡이 설치되었다. 지도군의 설치는 조선시대의 향교건립 원칙(一邑一校)에 의거하여 1897년에 지도에 향교가 건립되었다. 이후 지도향교는 도서지역 유림들의 정신수양 및 유교정신을 선양하는 전당으로 활용되었다. 현재 지도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등이 현존하고 있다.

필자는 유형문화자원의 활용방안으로 지도향교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지도향교의 건축물은 전라남도 지방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교를 문화재로만 전승하기 보다는 지도지역 주민, 지도를 찾아온 외지인, 중·고교 학생들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장소로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지인들에게 향교의 동재와 서재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강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 읍내리 智島鎮(址)와 자동리 萬戶 碑石群을 체험학습의 場으로 활용하자.

智島로 진입하는 도로 초입에 다양한 유형의 비석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조선시대의 수군을 진두지휘하였던 萬戶, 조선시대 행정가인 觀察使와 郡守, 그리고 지도를 빛낸 인물들의 공적을 쌓은 사람들의 기념비이다. 총 28기의 비석이다. 조성시기는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다.

최근에 지도로 진입하는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자동리 비석군은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간선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석의 보존과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곳에 있는 비석은 건립시기와 외형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마다 직역과 신분이 다양하다. 따라서 비석의 형태와 재질도 차이가 있다. 비석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자동리 비석군의 종류와 내용

번호	비석명	년대	규모(cm)			비고
			높이	너비	두께	
1	萬戶李公技撫恤士卒清德善政碑	1702년	98.5	50	21	
2	御史朴公泰輔恤民善政碑	1702년	115	54	18	
3	行萬戶李公尙賢撫恤士卒清德善政碑	1705년	81	43	17	
4	萬戶南公聖重○○○○	1715년	101	46.5	17	
5	行萬戶申公寺岳恤民善政碑	1782년	115.5	51.7	16	호패형
6	行萬戶金公潤久恤民善政碑	1788년	125	55.7	18	호패형
7	行萬戶林公兼周恤民不忘碑	1842년	139.5	62	22.5	호패형
8	觀察使李公裕元永世不忘碑	1851년	106.5	46	19	가침석
9	萬戶池公得源恤民善政碑	1853년	100	43	21	
10	行萬戶車公益文善政碑	1860년	91	50	18	호패형
11	行萬戶朴公應祥永世不忘碑	1865년	111	40	19	호패형
12	御史二公敦相永世不忘碑	1868년	146	52	19	
13	觀察使李公鎬俊善政碑	1872년	135	49	18	가침석
14	行觀察使趙公性教永世不忘碑	1876년	145	54.5	18	
15	行勅使沈公覆澤永世不忘碑	1880년	111	46	17	가침석
16	御史魯公允中永世不忘碑	1880년	126.5	45	19.5	가침석
17	行郡守金候漢鼎永世不忘碑	1898년	134	58	19.5	가침석
18	觀察使尹公雄烈愛民善政碑	1998년	147	57	17.5	가침석
19	行郡守洪公永世不忘碑	1906년	155	52.5	21	가침석
20	樵山曹成煥先生教育功勞碑	1965년	115	39	14.5	7行 30字
21	新安郡守朴瑄柱善政碑	1972년	141	45	18	
22	碩泉崔乘用所長功績碑	1983년	108	77	24.5	17行 41字
23	重菴金先生智島謫盧遺墟碑	1990년	177	60	30	25行 50字
24	朝鮮國處士重菴金先生衛正斥邪碑	辛未年	153	68	22.5	15行 19字
25	萬戶梁侯相勳球履恤民永世不忘碑	년대미상	138	45	15.5	가침석
26	萬戶姜侯元準恤民善政碑	년대미상	126	46	13	호패형

위의 비석들은 해당 시기 지도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인물들의 활동상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석을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자. 현재 28기의 비석은 지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석군 옆에 작은 공간(부스)과 실습용 비석 몇 기를 설치하자. 그 다음 지도읍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학생과 관광객에게 금석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용 비석을 이용하여 탁본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소로 활용하자. 이와 관련하여 지도-사옥도를 연결하는 지도대교 옆에

서 있는 비석군(사옥도 탄동리 하탑마을 소재)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특히 사옥도에 소재하고 있는 鐵碑의 사례는 귀중한 교육 자료에 해당된다.

### (3) 蟬島의 자연과 역사, 섬 공간 활용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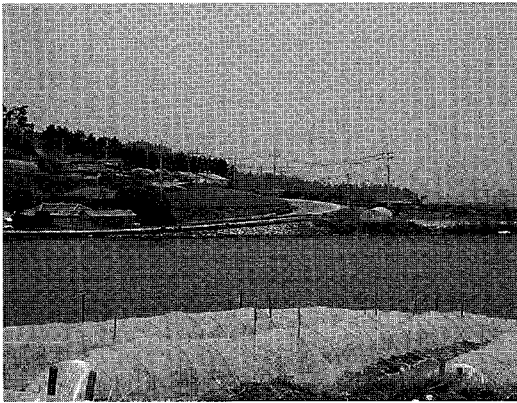
선도는 지도의 부속도서이다. 선도로 건너가는 길은 무안군 운남면 신월리에서 8인승 소형선박으로 이동한다. 이 섬의 특징은 육지와 가깝고, 부속도서로써 규모가 작으며, 섬 어디에서나 바다가 가깝게 입지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선도의 진변선착장에서 매계마을로 이르는 구간에 모래사장, 갯벌, 간척지, 그리고 맨 안쪽 끝자락에 위치한 매계마을에는 석축으로 조성된 밀성박씨효열각이 입지하고 있다.



<사진 1> 어의리패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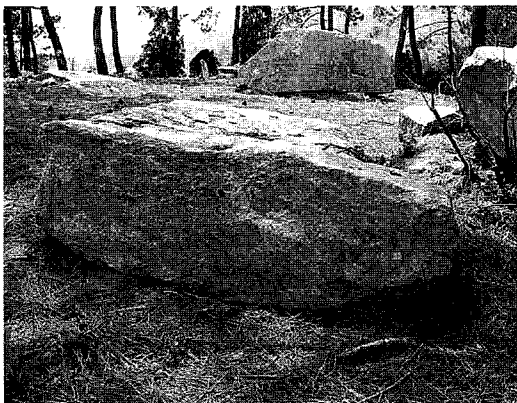
<사진 2> 어의리패총 훼손장면



<사진 3> 신창목 지석묘 훼손후 장면



<사진 4> 적거지석묘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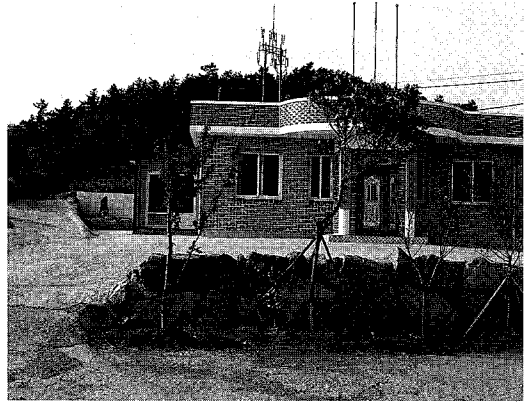
<사진 5> 적거지석묘군경



<사진 6> 내양리 장동 지석묘 원경



<사진 7> 내양리 장동 지석묘 근경



<사진 8> 자동리 입석 전경



<사진 9> 자동리 입석 근경



<사진 10> 자서리 입석-할머니바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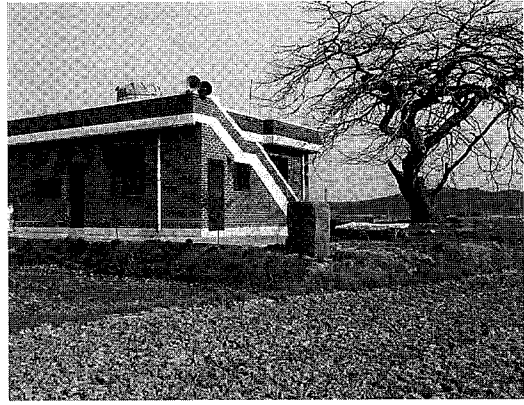
<사진 11> 자서리 입석-할머니바위 근경



<사진 12> 자서리 입석-할아버지바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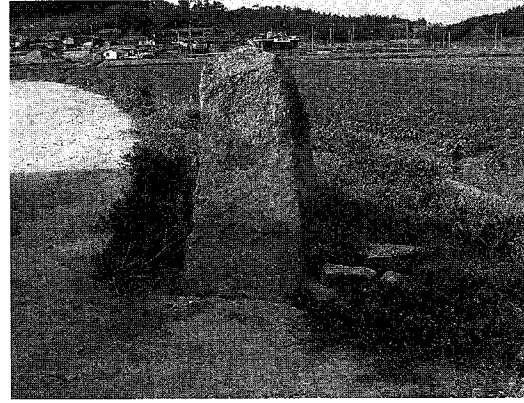
<사진 13> 자서리 입석-할아버지바위 근경



<사진 14> 탄동리 입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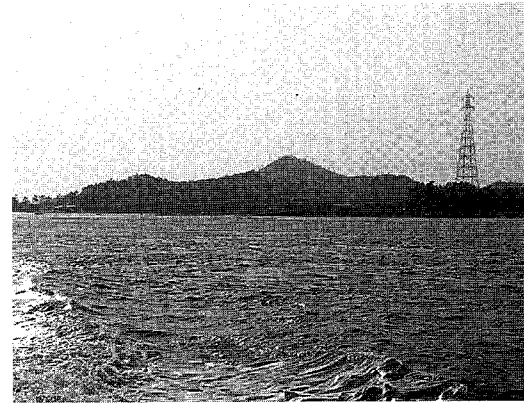
<사진 15> 탄동리 입석1



<사진 16> 탄동리 입석2



<사진 17> 탄동리 입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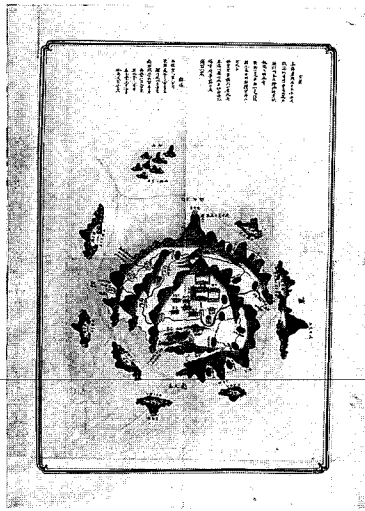
<사진 18> 선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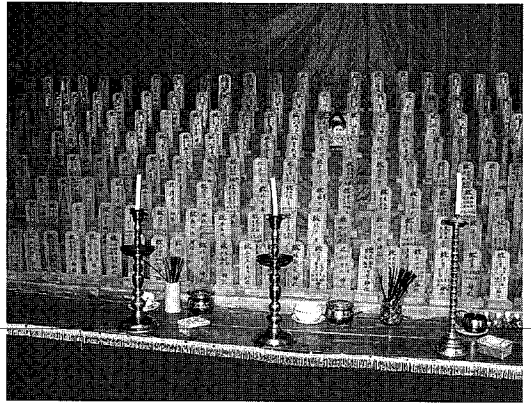
<사진 19> 선도 토기편 출토지



<사진 20> 선도 출토 타날문토기편



<사진 21> 지도진지



<사진 22> 일심사



<사진 23> 두류단 오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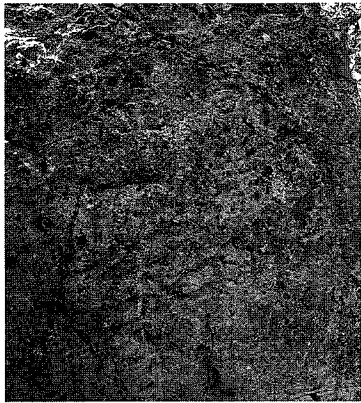
<사진 24> 소화강산 대명일월 최익현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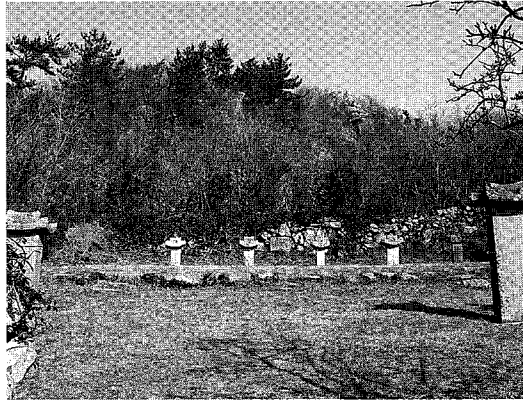
<사진 25> 지제여운 바위글씨



<사진 26> 중암유축 바위글씨



<사진 27> “幾張預程一朱直” 바위글씨



<사진 28> 두류단 내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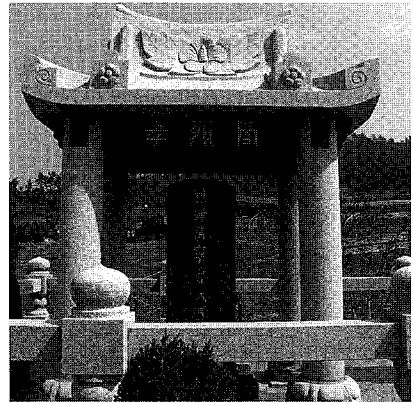
<사진 29> 羅俊煥慈善碑



<사진 30> 密陽朴氏施惠碑



<사진 31> 李載珍實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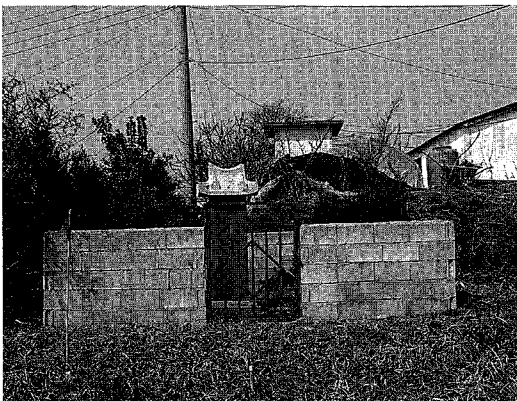
<사진 32> 昌寧曹氏實蹟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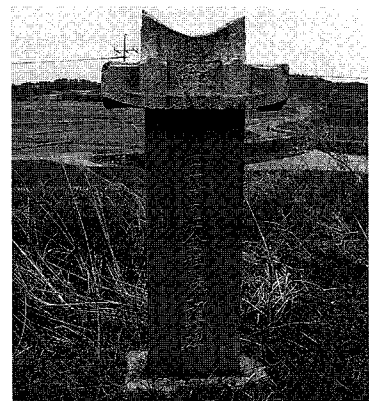
<사진 33> 金智庵頌德碑



<사진 34> 昌寧曹氏孝烈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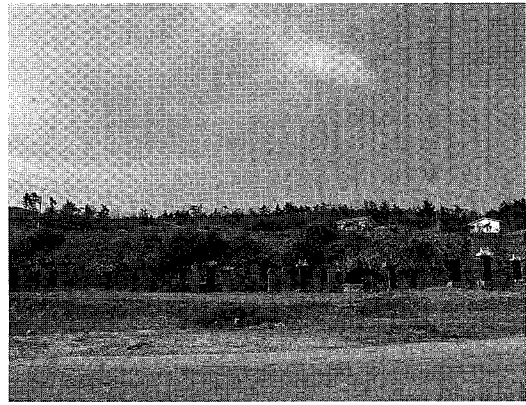
<사진 35> 朴孝奎遺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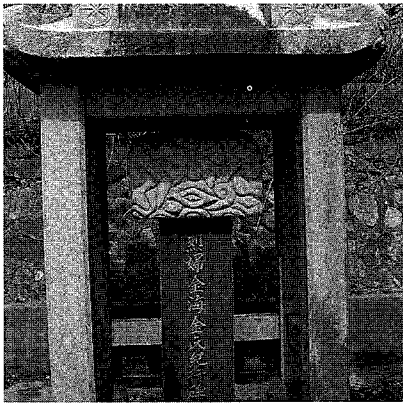
<사진 36> 김상수공적비



<사진 37> 지도향교



<사진 38> 자동마을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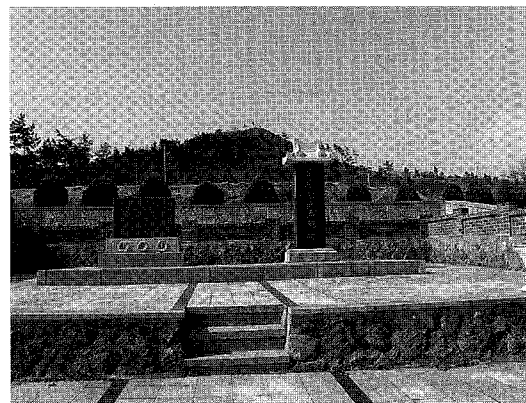
<사진 39> 金海金氏紀行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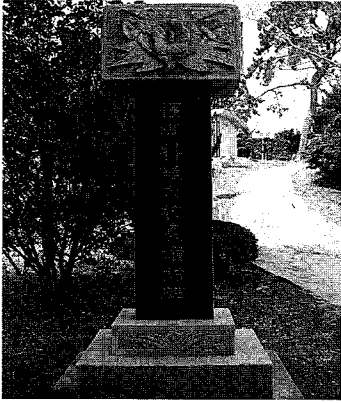
<사진 40> 崔芝澈實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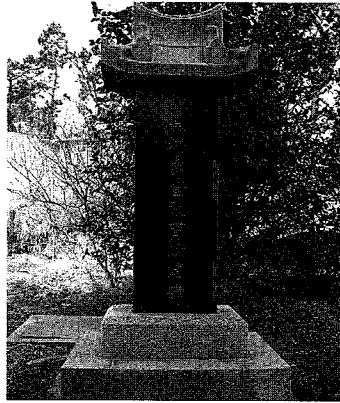
<사진 41> 전주최씨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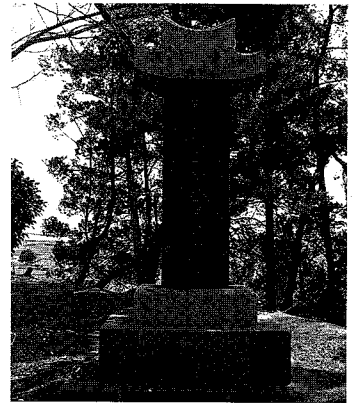
<사진 42> 南原梁氏三綱碑



<사진 43> 朴鍾大頌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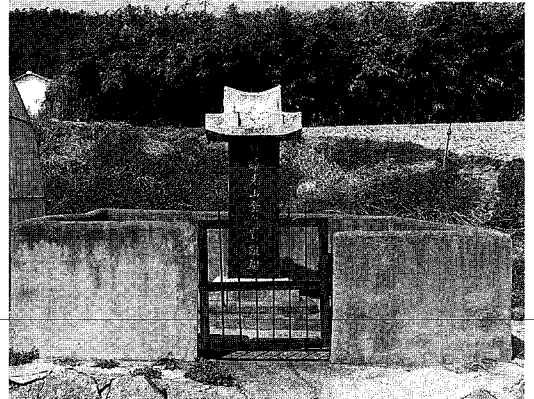
<사진 44> 朴貞奎功績碑



<사진 45> 金容學功績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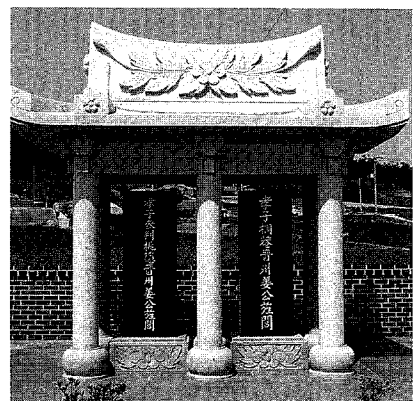
<사진 46> 金彦斗遺蹟碑 · 驪興閔氏實蹟碑



<사진 47> 光山金氏實蹟碑



<사진 48> 永慕齋



<사진 49> 姜永榘 · 姜鳳秀旌閭閣



<사진 50> 連溪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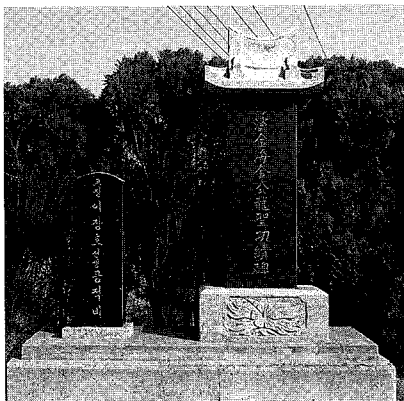
<사진 51> 康堅祠



<사진 52> 申逸東功勞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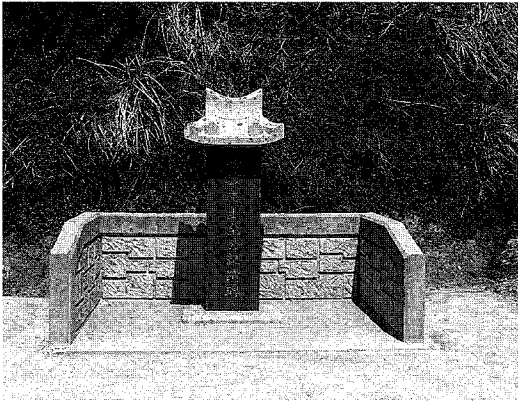
<사진 53> 지도대교 비석군



<사진 54> 이장호공적비 · 金龍聖功績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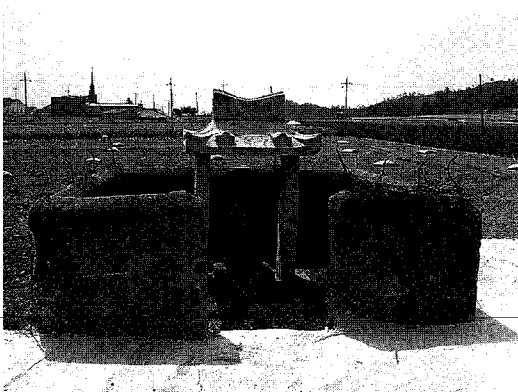
<사진 55> 묘동마을 비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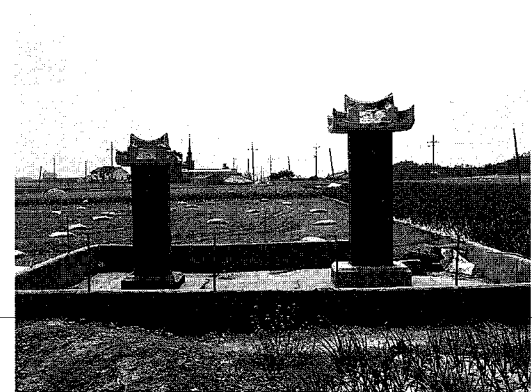
<사진 56> 金基玉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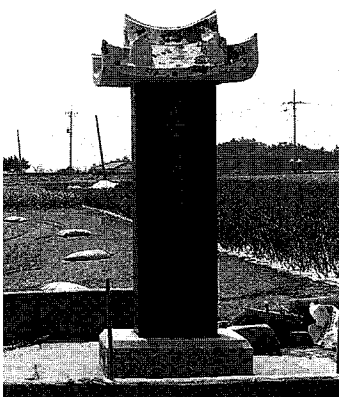
<사진 57> 당촌마을 비석군



<사진 58> 金海金氏孝烈碑閣



<사진 59> 密陽朴氏三世四孝碑



<사진 60> 朴世泰遺址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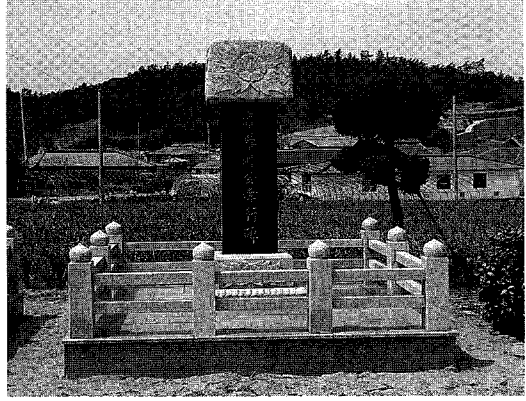
<사진 61> 金仁肖善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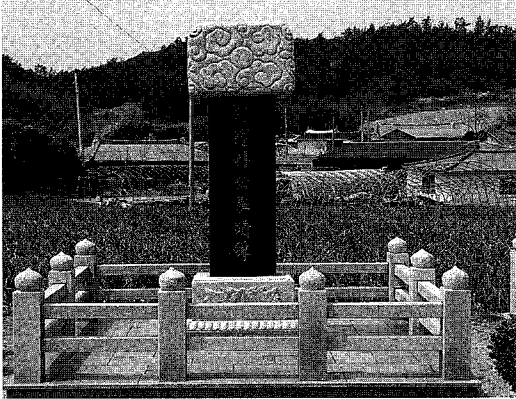
<사진 62> 朴貞奎頌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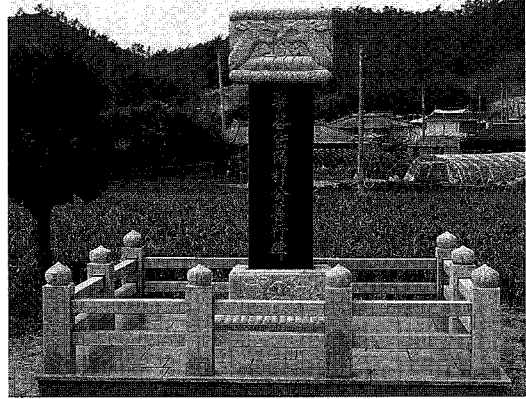
<사진 63> 原州李氏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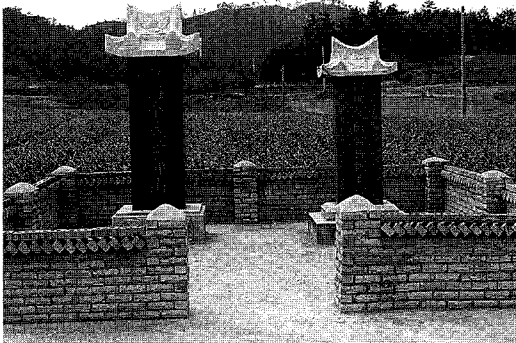
<사진 64> 朴炳玫孝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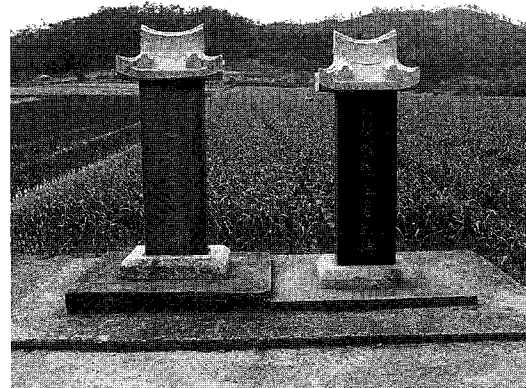
<사진 65> 朴榮來事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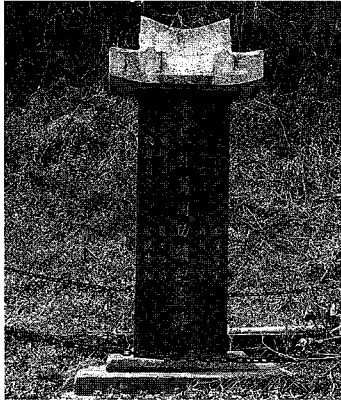
<사진 66> 朴準化善行碑



<사진 67> 密陽朴氏烈行碑



<사진 68> 朴炳尹善行碑·朴學來紀念碑



<사진 69> 朴萬用紀念碑



<사진 70> 朴彩福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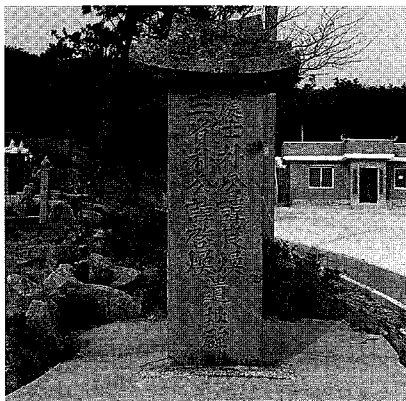
<사진 71> 朴東佑功績碑



<사진 72> 金海金氏紀行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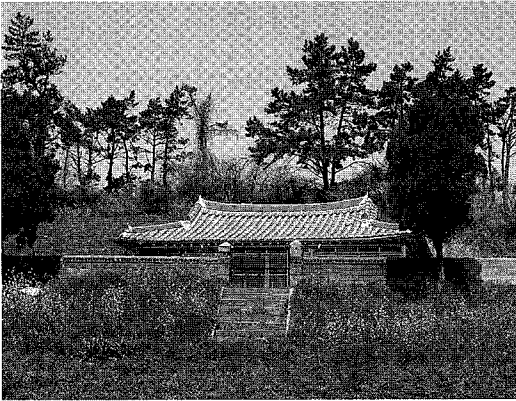
<사진 73> 密城朴氏孝烈閣



<사진 74> 朴良煥 · 朴啓煥遺址碑



<사진 75> 全州李氏紀行碑閣



<사진 76> 英思齋



<사진 77> 曹康煥遺惠碑

### Ⅲ. 민속생활문화자원

#### 1. 어로문화

번호	제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시	비고
1	어선어업과 어로활동	김영식(남, 63세) 안백호(남, 50세) 김두선(남) 홍경표(남) 박개수(남, 75세)	송도 감정리 감정리 감정리 금출 내양리 외양	1986. 7 14~17	『도서문화』5집
2	갯벌 어로활동	태천리 주민들 이영준(남, 63세) 외	태천리 봉리 3구 서동	2006. 5. 18 2006. 8. 2	현지조사
3	어로신앙	김영준(남, 73세) 안창문(남, 31세)	송도 송도	1986. 7 14~19	『도서문화』5집

조사일시 : 2006년 5월 18일, 2006년 8월 2일

제보자 : 지도읍 봉리3구 서동 이영준(남, 63세)외 마을 주민들

지도읍은 1975년 2월 25일 무안군 해제면과 연륙이 되면서 육지화 되었다. 문화양상 또한 섬 자체적인 문화상 보다는 점차 내륙적인 면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도(술섬)는 소나무가 많은 섬으로, 지난 1983년 지도와의 연륙공사가 완성되면서 생활권이 지도 본섬과 밀접해졌다. 연륙되기 이전 도선으로 건너다니던 불편을 씻고 지금은 도보로 지도읍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교통이 편리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에 대한 인지체계, 갯벌 어로활동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외의 사항은 『도서문화』 5집의 자료를 활용했다.

#### 1) 어선어업과 어로활동

##### ① 어로시기 및 도구

수산업은 해양생태와 양식의 有·無, 기술상태 및 어선의 이동 등 지역에 따라 계절적으로 양상이 다르다. 송도에서는 물때를 맞추어 출어를 하기 때문에 年中出漁는 하지 않는다. 1월에는 새우가 많이 잡히고 있어서 콩대이배(꼬리에 그물을 달고 다님)와 안강망 그물을 이용하여 새우잡이를 하고, 2

월과 3월에는 뚜렷하게 잡히는 어류가 없기 때문에 휴업하며, 부서와 병어가 많이 잡히는 4월에서 6월까지 어획한다. 이들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어로시기는 민어가 잡히는 7월로 민어그물인 12사 4치 3폰의 나일론 그물을 사용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8월에서 10월까지의 농어를 주로 잡고 있으며 겨울인 11월과 12월까지는 휴어기간이다. 이러한 어종들은 송도에서 서쪽으로 25km 지점인 임자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재원도 근해의 어장으로 이곳까지는 2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4척 정도가 함께 출항하는데 배 한척당 선장을 포함해서 5-6인이 승선한다. 出漁에 앞서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하여 出漁告祀를 지내는데 이는 信仰儀禮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어로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그물·낚시 채취도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물은 우리의 3대 재래식 그물인 柱木網·후릿그물·漁帳 등이 사용되었으나, 이제 재래식 그물은 흔적을 찾기 어렵고, 나일론의 등장으로 그물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나일론이 나오기 전에는 면사(무명실)에 감물이나 물감을 들여서 사용하였는데 지금의 나일론 그물보다 코가 적은 점이 다르다고 한다.

## ② 어로활동

시기별로 물때를 맞추어서 출어하게 되며 모든 준비물은 선장(선주)이 준비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현지 주민들은 일본말인 시꼬미라는 말을 쓰고 있다)은 어획물을 판매하고 나서 공동부담한다.

출어 5~6일 전에 식량과 물·기름·부식·담배·침구류 등을 준비한다. 선원들은 정해진 배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배의 구별없이 승선한다. 때에 따라서는 형제끼리 같은 배에 승선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장비와 인원이 완료되면 출어고사를 지내고 출어한다. 항해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재원도 근해에서 활동하는데 보통 7~8일 정도 어로하다가 귀항한다.

이들이 어획한 어류는 목포 등지에서 상선들이 와서 대부분 그 자리에서 팔게 되며, 횃집 등에서 구입하러 오기도 하여 사실상 현지에서 전량 처분되는 실정이다.

수입금액은 선주(선장)가 5할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선원들이 공동분배한다. 분배된 수익금은 일정치 않고 어획량과 어획물의 시세에 따라 다르다.

## 2) 갯벌 어로활동

### (1) 갯벌의 구분과 어류

갯벌은 일반적으로 질퍽질퍽한 개흙질이 많은 갯벌을 ‘뿔 갯벌’이라 하고 모래성분이 많은 갯벌을 ‘모래 갯벌’ 그리고 두 종류의 갯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곳을 ‘혼성 갯벌’이라 한다. 각각의 갯벌은 별개의 공간으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갯벌 내에 함께 형성되어 있다. 지도읍 봉리 사람들은 갯벌의 특징에 따라 명칭을 구분해놓고 있다.

지리창 - 흙이 질어 발이 빠지는 곳이다. 지리창은 발이 깊이 빠지는 곳도 있고, 비교적 적게 빠지는 곳이 있다. 주로 서렁기와 낙지가 서식한다. 낙지의 경우 봄·가을에 서식한다.

뒀등 - 흙이 비교적 단단해 발이 빠지지 않는 곳이다. 뒀등에는 농게와 낙지가 주로 서식하는데, 낙지의 경우 여름철에 주로 서식한다.

쩍개(쩍밭) - 조개껍질이 많이 깔려 있는 곳으로 발이 빠지지 않는 갯벌이다.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주 어로활동 공간은 아니다. 전체 갯벌 중에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랑 - 물이 흐르는 개울을 고랑이라고 한다. 고랑에는 주로 개맥이를 설치해 썰물을 타고 빠져나가는 고기들을 잡는다.



지리창에서 어로활동을 준비하는 봉리 아주머니들



지리창에서 서렁게를 잡는 봉리 아주머니

갯벌에는 주로 낙지, 서렁게, 농게, 꽃게, 통게, 나방(맛의 종류) 등이 서식한다. 갯벌 뿐만 아니라 바다의 어류들도 해갈이를 하는데, 2006년의 경우 비교적 수량이 적게 나는 해다. 이 외에도 음력의 윤달과 관련이 있어 윤달이 든 해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포획 시기가 늦다.

낙지의 경우 봄·가을에 가래로 파서 잡는 것은 남자들이 주로 하고, 여름에 손으로 잡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한다. 가래로 파서 잡는 것은 낙지 구멍을 파서 잡는 것이고, 손으로 잡는 것은 낙지 구멍 주위에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만들어 잡는 것이다. 낙지 구멍 옆으로는 물이 고여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

다. 이 공간을 손으로 걸어 낸 다음 그 위에 흙을 조심스럽게 덮어두면 낙지가 스스로 들어간다. 보통 2~3시간 후에 가면 낙지가 들어 있고, 손으로 재빨리 잡는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잡는 방법은 주로 여자들이 하고, 많이 잡을 때는 150마리 까지도 잡는다.

게는 봄철에 제일 맛이 있고, 많이 잡힌다. 농계와 꽃게는 발이 빠지지 않는 된등에 살고, 서렁게는 주로 발이 빠지는 지리창에 산다. 봄철에 게를 많이 잡지만, 요새는 낙지주낙 미끼로 쓰기 위해 여름에도 잡는다. 게는 봄에 산란한다. 봄에 새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봄에 산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게를 잡는 아주머니들은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허리에 망태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잡는다.

## (2) 갯벌 어로도구

### ① 떼(해변에서 고기잡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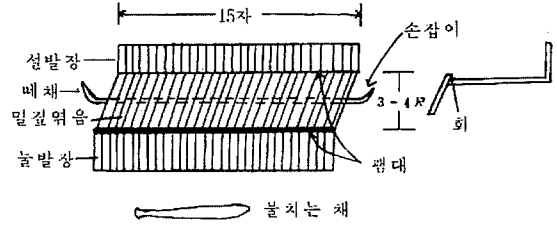
#### 가) 떼의 구조

- 설발장 : 고기가 튀어올랐을 때 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竹)를 갈라서 만드는 데 설대라고도 한다.
- 밀짚엮음 : 물에 뜨게하기 위하여 가벼운 밀짚으로 만들며 넓이는 약 3~4尺 정도다.
- 놀발장 : 끝이 해변바닥에 닿을라 말락하여 고기가 떼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밀짚엮음과 연결되나 밀짚엮음보다 약간 높이 설치하여 튀어오른 고기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밀짚으로 만들.
- 랜대 : 설발장과 밀짚엮음 사이, 밀짚엮음과 놀발장 사이에 위치하며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떼채와 손잡이 : 떼채는 보통 가벼운 나무(오동나무)로 만드는데 밀짚엮음 밑으로 부착되어 있다. 양쪽으로 손잡이가 나와 있는데 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다닌다.
- 물치는 채 : 나무방망이로 물을 때린다.

#### 나) 어로방법

고기들은 밤에 수심이 얇은 해변근처에서 잠을 잔다. 주로 송어·모치 등 물속에서 튀는 고기들을 잡게 되는데 인원은 3명이 필요하다(떼 미는 사람, 물치는 사람, 망태기 메고 다니는 사람). 떼 미는 사람은 놀발장 하단이 바닥에 닿을라 말락한 상태에서 밀고가면(이때 수심은 밀짚엮음과 비슷하다) 보다 얇은 해변에서 물치는 사람이 채로 바닷물을 친다. 그러면 해변에서 잠자고 있던 고기들이 놀라

튀어오르면서 밀짚엮음으로 떨어진다. 그 고기를 잡아 망태기에 넣는다. 밀짚엮음 위에서 고기가 계속적으로 튀면 회(고기를 때리는 막대기)로 때려 힘을 감소시킨 다음 잡아서 망태기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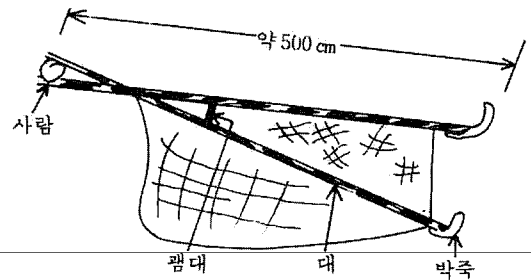


때의 구조

잡을 고기를 담아 운반하는 다리개가 있다. 다리개는 높이가 약 50cm 내외로 시누대(山竹)로 만드는데 아래는 넓고 아가리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이다. 깊으로 멜방을 만들어 달아 지고다니게 되어 있다.

### ② 사달

사달은 2개의 긴 대(竹)에 면사로 만든 그물을 단 연안고기잡이 도구로 2개의 대 사이에 편대를 두어 두 대가 접어지면서 그물이 개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 끝에는 구부러진 나무(박죽)를 달아 뿔속에 박히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나가도록 만들었다. 쟁뿔이 · 쌀모치 · 새우 · 엽삭 등을 주로 잡으며, 잡는 방법은 'X'자로 교차되는 대나무 사이에 사람이 서서(대나무는 허리높이) 사달을 물속으로 밀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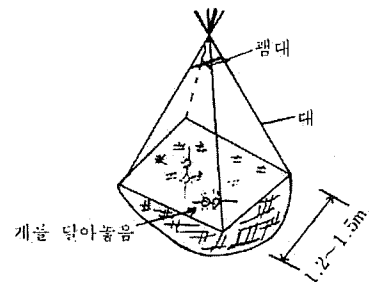


사달의 구조

얕은 곳으로 밀고나와 그물에 든 고기를 건져 망태기에 담는다.

### ③ 뜯그물(주로 여자들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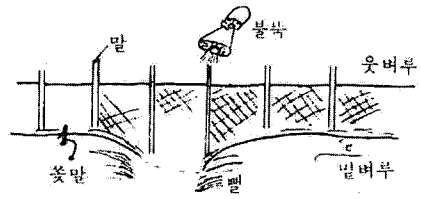
대나무를 사각뿔 모양으로 세우고 아랫부분에 그물을 달고 바닷게를 잡아 그물에 달아놓는다(사각뿔 위쪽에 꺾대를 十자로 가로쳐서 대를 지탱한다). 고기들이 게를 먹으려고 들어오면 살짜기 들어 올리면 된다. 망둥이 · 운저리 · 새우 등을 주로 잡는다.



뜯그물

#### ④ 개다리(개막이)

魚道を 차단하여 가로막고 차차로 좁혀진 데를 만들어 물고기가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잡는 어법을 말한다. 바닷물이 빠졌을 때 그물을 내려 말에 걸쳐 땅에 박고 빨로 묻어둔다. 바닷물이 들 때는 그물을 올려 말에 걸어서 고기들은 불뚝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다리의 구조

개옹에 그물을 쳐서 잡는 개막이도 한다. 개막이는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여름에는 뜨거워서 개막이를 잘 안 한다.

#### ⑤ 침때질

침때질이란 봄·여름에 농어잡이 하는 낚시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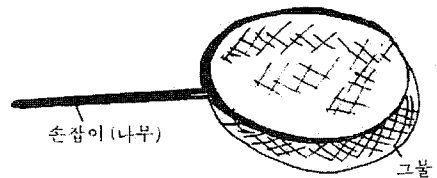
낙수(낙시)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철사를 두드려 인(고기가 물면 빠지지 못하게 하는 갈고리:미늘)을 낸다. 농어는 물이 싸고(세차게 흐르는 곳) 돌이 많은 곳에서 사는데 낙수가 돌에 걸리면 잘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 철사를 사용한다. 시장에서 구입한 낙수는 너무 단단하여 돌에 걸리면 부러지거나 낙수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낙수가 돌에 걸리면 힘주어 당기는데 그러면 낙수가 펴진다. 이 낙수는 다시 휘어서 사용한다. 낙수에 줄을 달고 납덩이를 채우며 잇감(미끼)으로 밀꼬라지(미꾸라지)를 끼워서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던진다. 고기가 물면 잡아당겨 잡는다.

#### ⑥ 낙지잡이

낙지는 갈낙지와 낙지가 있는데 갈낙지는 구멍을 흙으로 막아두면 뚫고 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잡고, 낙지는 구멍에 손을 넣어 잡는다. 잡은 낙지는 시누대(山竹)로 만든 바구리(바구니)에 담아 운반한다.

#### ⑦ 거름이(거름지)

민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계곡에서 내려오는 도랑의 끝에 받혀 놓게 되면 미꾸라지·붕어·피리(피라미) 등이 속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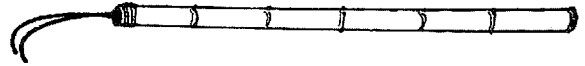
거름이의 구조

### ⑧ 섬

겨울에 민물에서 하는 고기잡이 도구로 짚으로 섬을 만들어 그 속에 소똥·인분 등을 넣고 입구를 술가지로 막아 놓고 돌로 눌러놓는다.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또 추우니까 섬 속으로 들어간다. 섬을 물속에서 들어내어 고기를 잡는다.

### ⑨ 서개

서개는 외서개(발이 한 개 달림)와 쌍서개(발이 2개 달림)가 있는데 겨울에 남자들이 게(통기·갈기)를 잡는 데 사용한다. 외서개가 더 오래된 형태이다.



쌍서개의 구조

게는 지하 1m 깊이에 구멍을 파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데 게구멍은 직경 6~7cm, 굽은 것은 10cm 까지 된다. 삽으로 게구멍 입구를 적당히 파내고 서개를 구멍에 집어넣고 게를 산채로 들어올린다.

### ⑩ 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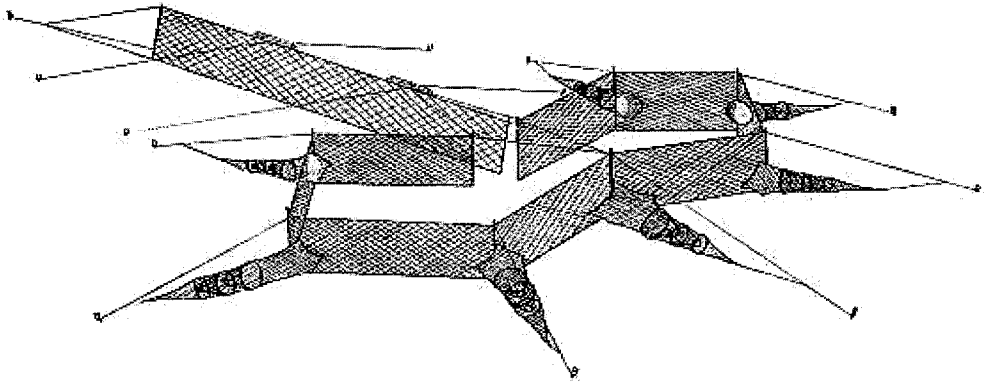
덩장어업은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육지에 가까운 쪽부터 말뚝을 박아 물이 빠졌을 때의 하조대까지 길게 말뚝을 박는다. 말뚝은 보통 2~3m 간격으로 박는다. 덩장은 크게 유인그물과 덩장통으로 구분된다. 상조대까지 뻗쳐있는 유인그물은 밀물과 썰물을 따라 이동하는 고기들이 그물을 타고 덩장통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길게 늘어뜨려놓은 그물이고, 덩장통은 유인그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들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통발 식으로 만들어놓은 그물통이다.



지도 황금동의 덩장



지도 황금동의 덩장



덤장의 구조

덤장을 지금은 말뚝과 그물로 설치하지만 예전에는 말뚝과 대나무로 만들었다. 지금은 그물로 만들어서 덤장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밭’ 또는 ‘덤장밭’이라고 했다. 현재 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50~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덤장은 주로 봄·가을에 설치하고, 여름에는 그물을 갯벌 밑으로 묻어둔다. 여름에는 고기가 많이 나지 않고, 햇볕에 그물이 삭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많은 덤장들이 그물이 쳐진 채로 있었는데, 이는 여름에도 조금씩 고기가 들고, 해체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둔 것이다.

### 3) 어로신앙

#### (1) 출어고사

해상의 작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출어한 어부들이나 그 가족들은 한시도 안심을 못한다. 당연히 그들은 자연의 기상 변화에 민감하며, 늘 불안속에 살아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농업처럼 단순하게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니고 풍어와 흉어, 안전과 위험을 모두 자연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선주·선장의 주관 아래 갖가지 고사와 배서낭 등을 모셔오고 있다.

배서낭은 대부분 여신으로 선체와 선원들의 평안무사와 漁運 을 관장한다고 어부들은 믿고 있다. 송도의 경우 8척의 大小어선들이 있는데 배서낭을 모시고 있는 배는 2척이며, 나머지 배들은 뚜렷한 대상이 없이 주로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송도에서 지내고 있는 출어고사의 시기 및 祭次이다.

① 神格 : 배서낭(선영), 龍王님

② 시기(祭日) : 출어 며칠 전에 택일하여 선주와 선원들의 참석한 가운데 낮에 지냄(1986년이 경우 7월 21일 지냈음)

③ 祭物 및 장소 : 돼지고기, 떡, 밥, 술, 생선, 나물 등 성의껏 장만하여 선장실, 기관실, 이물사공(뱃머리) 등에 진설

④ 祭의 順次 : 진설이 끝나면 선주가 재배하고 기원

⑤ 祭後 : 고사가 끝나면 선주와 선원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복한다.

⑥ 禁忌事項 :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승선할 수 없으며 고사에도 참석치 못하고 멀리서 구경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출어고사 이외에 큰 배에서는 항해 중에 지내는 고사가 있는데 첫그물 내릴때(낙망) 술잔잔 개고 절을 한다. 명절때에도 배에다 진설하고 고사를 지낸다.

## (2) 송도(솔섬)의 배서낭

솔섬은 행정구역상 읍내리에 속하는 섬으로써 서쪽으로 사육도가 위치한다. 읍사무소와는 1.5km 거리를 두고 바다가 가로질러 있었으나 1983년 시멘트육교를 가설하여 연륙됨으로써 현재는 육지가 된 셈이다. 그러나 섬의 들레와 예 關門港을 중심으로 아직도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삼는 어민이 있다.

이들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지켜주고 보호받기 위하여 '배서낭', '배선영', '배선왕' 이라고 부르는 신을 모신다(이하 배서낭으로 표기). 배를 부리는 선주나 선장은 설·보름·단오·추석·동지 등의 명절이나 출어때 또는 배를 새로 건조했을 때 돼지머리·술·과일·야채·포·복어 세 마리·생선(문치·송어·부새)·밥 세그릇(여서낭·남서낭·남해신)을 차리고 '용왕제', '거릿제' 를 지낸다. 이후 배서낭에도 음식을 진설하고, 술따르고 분향하고 절한 다음 용왕경을 외며 '서낭굿' 을 올린다. 예전에는 해제나루터 당골이나 읍내 무당이 서낭굿을 하였으나, 함평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요즈음은 서촌의 ○○의(33세) 엄마인 양진찬보살과 一心寺 스님이 징, 장고, 북, 피리를 불면서 경만 읽는 의례로 바뀌었다.

배서낭은 배의 부엌이나 선실에 모시며 각대기(상자) 안에 한지, 빨강·노랑 비단헝겂을 神體 로 넣어두었다. 한편, 선실앞 오른쪽에는 나무로 집(감실)을 지어서 오색깃발을 넣어둔다. 여서낭이나 각서서낭일 때는 여자옷·비녀·빗·바늘·끝미를 서방서낭이나 남서낭일 때는 기성(독)에 위패를, 동자서낭이나 아기서낭일 때는 배의 이물(코빼기)이나 기계간에 모신다.

이곳에서는 4톤 미만의 배가 새우젓, 부서, 민어, 농어, 조구를 주로 잡고있다.

### (3) 참도(참섬)의 각시서낭

참섬은 읍소재지와 7km 떨어진 배산임해(背山臨海) 마을로 동남쪽으로 적동, 서쪽으로는 서당골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현재 마을은 총 47호에 2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의도와 포작도 어민이 거쳐가는 곳이었으며 임자와 낙월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기항포구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연륙되었다. 참섬은 연륙으로 인해 내륙이 되기 전에는 칠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농업이 주업이고 어선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음은 참섬에서 만난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가 친정인 박순애씨를 통해 들은 자료를 기술한 것이다.

고기잡는 옆치기배 선실 뱃머리에는 '선영' 또는 '선당'이라 불리우는 뱃신을 모시는 장소가 있다. 여기에는 '각시서낭'을 모시는데 신체로 화장품, 가락지, 바늘, 삼색실, 삼색형짚, 얼기(레)빋, 참빗 등의 여자소지품을 당상자에 담아 놓는다. 혹 각시서낭 외에 썩이나 대떡이 신체가 되는 '구랭이서낭'도 볼 수 있다. 서낭은 선장이나 선주의 선몽에 의해 결정되고 봉안된다. 즉, 큰애기나 각시가 선몽하면 각시서낭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서낭을 모시고 있는 배는 진수시, 어장을 수리한 후 출어시, 배를 건조하여 첫 출항할 때, 정월그믐·정월보름·팔월보름 등의 명절 때, 열무셋날이나 수무셋날에 '뱃고사'를 거행한다. 이주 배를 건조하여 첫 출항할 때는 성대하게 고사를 치루며 당골을 초청하여 '뱃굿'을 하기도 한다.

뱃고사는 선장, 선주, 뱃선원이 목욕정성하고 깨끗이 새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 밥, 시리떡, 술, 생선, 돼지고기나 돼지머리, 미역 등을 선당실 앞에 진설한 후 헌작·재배 한다. 제물에서 미역은 마을에 산고가 든 가정에서 회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배선원은 배에 삼색기를 숫자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쫓는다. 삼색기는 선주가 직접 만들어 달거나 회사받기도 하는데 기에 글씨가 쓰여지거나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골을 초청하여 고사를 지낼 때는 배에 오르지 않고 배 주위에다 제물을 차리고 징을 두들며 굿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선주와 뱃사람, 마을민은 음식을 나눠먹고 징, 팽매기, 방구를 치면서 신나게 논다.

고사시에 여성은 부정있는 존재로 여겨 뱃머리에 오르리 못하게 하며, 남자의 경우도 개고기를 먹었거나 가족 중 임사부가 있으면 부정으로 간주하여 참석할 수 없다. 고사를 지냈음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다시 뱃고사를 거행하기도 한다.

뱃신인 각시서낭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신으로서 함부로 손댈 수 없으며 폐

선이 되어야만 없애게 된다. 기타, 배에서 쥐가 내리면 선원들은 업으로 여겨 금기하고 출항하지 않는다.

## 2. 설화와 민요

### 1) 설화와 민요 목록

이 목록은 지도읍 문헌조사(1) 『도서문화』5의 설화·민요(허경희 외)와 지도읍 현지조사(2) 2006년 설화·민요 현지조사(홍순일 외)에 의한다.

#### (1) 설화의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빈대쌈(백년절)	『도서문화』5
2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등등바위	『도서문화』5
3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용 이야기	『도서문화』5
4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삼암봉	『도서문화』5
5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진짜잔등	『도서문화』5
6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효자(본화장) 이야기	『도서문화』5
7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효부 이야기	『도서문화』5
8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9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백년동	『도서문화』5
10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구렁이 이야기	『도서문화』5
11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벌바우재	『도서문화』5
12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묘를 잘 써서 부자가 된 이야기	『도서문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3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	『도서문화』5
14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장사 이야기①	『도서문화』5
15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장사 이야기②	『도서문화』5
16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사냥꾼과 노루 이야기	『도서문화』5
17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중윤(남, 69) 김장무(남, 47)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18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효부 이야기	『도서문화』5
19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좋은 꿈 이야기	『도서문화』5
20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21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삼대 독자 이야기	『도서문화』5
22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장사바위 이야기	『도서문화』5
23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온돌방 이야기	『도서문화』5
24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당산나무 이야기	『도서문화』5
25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장수바위	『도서문화』5
26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당산나무	『도서문화』5
27	1986.10.31-11.06.	지도읍 광정리 장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상남(남, 73)	철마산 이야기	『도서문화』5
28	1986.10.31-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남, 56)	도사와 명당	『도서문화』5
29	1986.10.31-11.06.	지도읍 봉리 죽곡 168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영신(남, 77)	박씨집 부부	『도서문화』5
30	1986.10.31-11.06.	지도읍 봉리 죽곡 168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영신(남, 77)	열녀 이야기	『도서문화』5
31	1986.10.31-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탱자 이야기	『도서문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2	1986.10.31-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하는 일마다 계수 없어	『도서문화』5
33	1986.10.31-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제주개	『도서문화』5
34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이봉률(남, 71) 김완수(남, 54)	당촌	현지조사
35	2006.08.23.	지도읍 태천1구	홍순일, 김현주	김종양(남, 73) 구정희(남, 70)	당, 요법, 뱀산, 열녀 이야기	현지조사
36	2006.08.23.	지도읍 감정리 4구	홍순일, 김현주	김광배(남, 72)	두류산 유배, 금출 지명	현지조사
37	2006.08.23.	지도읍 감정리 4구	홍순일, 김현주	홍순철(남, 79)	제주갯 지명, 나무가 소리내는 이야기	현지조사

(2) 민요의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1986.10.31-11.06.	봉리5구 죽곡 내양리 적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임병모(남, 61), 강금순(여, 65)	모심는 노래	『도서문화』5
2	1986.10.31-11.06.	내양리 적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강금순(여, 65)	시집살이 노래	『도서문화』5
3	1986.10.31-11.06.	지도읍 내양리 가정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삼석(남, 76)	잡가	『도서문화』5
4	1986.10.31-11.06.	봉리3구 서동 720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양영례(여, 66)	이별가	『도서문화』5
5	1986.10.31-11.06.	봉리2구 원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진순임(여, 66)	밭매기 노래	『도서문화』5
6	1986.10.31-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비용(남, 67)	등당에타령	『도서문화』5
7	1986.10.31-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남, 56) 박비용(남, 67)	홍타령	『도서문화』5
8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농부가	『도서문화』5
9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나무꾼 노래	『도서문화』5
10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노동요(1) (지붕 흩어질 때)	『도서문화』5
11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노동요(2) (지붕에 흩올리면서)	『도서문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2	1986.10.31-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방아타령	『도서문화』5
13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신세타령①	『도서문화』5
14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최양길(여, 60)	신세타령②	『도서문화』5
15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아롱타령①	『도서문화』5
16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아롱타령②	『도서문화』5
17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맷돌가	『도서문화』5
18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장구타령	『도서문화』5
19	1986.10.31-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대담(남, 60)	탄로가	『도서문화』5
20	1986.10.31-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 (남, 미상)	상여노래	『도서문화』5
21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이봉률(남, 71) 김원수(남, 54)	달애	현지조사
22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이배(남, 82) 김인배(남, 66)	산다이, 고기잡으러 산을 올라갈 때 부 르는 소리	현지조사 (김인배씨 자택)
23	2006.08.23.	지도읍 태천1구	홍순일, 김현주	김종양(남, 73)	칭춘가	현지조사

##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 (1) 설화에 대한 해설

#### ○ 지도 설화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련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빈대쌈(백년절)	『도서문화』5

저 넘어 절터에 두류산에 가서 유명한 절터가 있는데 이 뽕짜가면 있어, 아무리 칠년 대한 가뭄에도 가물어 봤자 그 물은 언지나 샘이서 나와 그 물이, 근디 그 물 조아서 거기다 절을 지서 노니까 아이늬의 빈대가 성해가지고 말이어 도저히 살 수가 없단 말이어, 할 수 없이 중들이 못 살고 나가 버렸지.

(백년절이라 했던 말이여 어려서 : 청중)

저 우게 가면 그 우게 쪽옥 오대선생을 모신 다가 있는데, 중암선생, 최면암하선생이나 올라가면 단 양이라는 노사 기선생이나 나 본화장이나 모다 이방 여기다 모사갖고 있는데, 아 거기 가면 또 샘이 동 배에 있는 샘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 초군들이 나무 하려 가 가지고 돌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 놈의 것이 잠 한숨자고 나도록 뽀글뽀글 뽀글 소리가 난다 말이여,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명지 실꾸러미 요만하면 얼마나 많이 핑개, 아 그러면 세계를 갖고 와서 풀어서 독을 짜맨개 삼 북 풀어 저기서 여기까지 저것이 가만 있자 얼마다냐 600m 라냐 얼마라, 아 그놈이 다 풀려 그놈을 오려 가면서 독을 한 덩이씩 집어넣어 오늘날 다 미어져 부렸어. 그 옆에 가서 오대 선생의 비가 서 가 지고 있어. 그 밋의 절은 그렇게 해서 빈대 씹에 못 살고 나가부렸어. 지금도 빈대 꺾테기가 있어.

○ 지도 설화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등등바위	『도서문화』5

요 너메 요쪽으로 가면 등등바위가 있어. (등등바우요 : 조사자)

왜 등등바우라 했나하면 가서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등등 해. 아 그 짝 일테면 4대조 한아씨를 모셔 났던 말이여. 옛날에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등 소리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옛날에 용이 살다 나갔다 해, 횡 뚫어져갖고있어. 그래 거기가 딱 치면 등소리가 나.

오늘날 이것을 전부 일본 놈들이 와 가지고 파괴를 했은께 그러제. 우리가 어렸을 때 등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등등바우라 했제.

지금도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안나.

○ 지도 설화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용 이야기	『도서문화』5

에, 병자년이라면 가만 있자. 몇 해나 될까. 병자년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라고 그랬든 모양이제. 병자년에 요 우게가 호랭가 요 우게가 들어와 가지고 대나무 고랑이 있어. 거기다 소를 달아매면 잡아먹

고 나가부렀어. 용은 어찌게 되나하면 저 그 가면 큰 소락이라는 냇갓이 있어 거기 가서 배아니 비늘이 꼭 손빠다 들만씩해, 일테면 구렁이 허물 나무 일곱각지를 걸쳐 놓고 한 도막이 없어졌는디, 일곱각지였던 말이여, 그 놈이 어디 가서 있었냐하면, 여그치가 솟놈이고, 저그 저칠이지 간 데가 암놈이 있었든가 그래, 그 놈이 중간에 어찌게 발견 됐냐하면, 예, 옛날에 그 논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저수지로 되어 부렀어. 아 거기 가서 휘어 댕긴 데를 보니까 꼭 이런 놈이(한아름) 그래가지고, 아 저 배가 지나가면 파도를 갈고 가듯이 가는데 그런데 어디로 건너가니까 보니까 칠이지쪽으로 가드란 말이여. 칠이서 여전히 한나가 마중 나온 것이 거기 가서 본게 그런 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놈이 장웅이 한 장웅이 거기서 만난거여, 그래서 그런 것보고 내가 저것은 용이 아니라 일단 구렁이에 불과하다 이랬거든. 용이라면 씨엌이 난데 왜 씨엌이 없냐 그랬단 말이여, 그래 눈을 못 보고 쪼그막하게 옆으로 보는 경문도 잘 읽고는 장운집이라는 영감이 낙수질을 갔거든, 가서 본게 아 무시(무엇이) 막 물쌀을 일고 간게, 와따 집나. 그런데 그 영감이 가만 보니, 아 저것이 무시게, 글씨 저것이 용이라고 하지만 쭈엌이 없은게 그런디, 아,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보고 용이라고 그랬거든.

○ 지도 설화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삼암봉	『도서문화』5

여그 가면 삼암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그 바우에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다가 일테면 측량할 때 돌을 물어봤어. 그런디 어떤 여자가 나무하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 가면 과실이 많이 있었거든, 겁나게 있지, 그런데 우들도 그 전에 어렸을 때 까시에 굶혀 가면서 과실 따먹으러 막 돌아다녔단 말이여, 어느 여자가 거그에서 나무하러 갔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쫄 먹었더란 이런 말이 있어. 마셨는데 느닥없이 임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날 달에 나서 보니까 맨 배암 새끼만 났더란 이런 말이 있더란 말이여, 근디 그것이 누구였는가 몰라 내가.

○ 지도 설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5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진짜잔등	『도서문화』5

봉리쪽으로 넘어가면 진짜잔동이라고 있어. 진을 치고 씹한 잔동이거든, 그래서 그 때에 가만있자 그러면 그것이 임오군란 땀가 무엇인가. 거기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거그를 진짜잔동이라고 해.

○ 지도 설화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6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백양마을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효자(분화장) 이야기	『도서문화』5

효자는 분화장이라고 그 양반이라 유명씨고 성교씨라고도 하고 유명한 성교학자여, 최면암선생 수 제자 비가 다 서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양반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할 뿐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는 아버지가 없고 어무니가 없으면 어디서 생겼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그 저 당신네 부친 묘 밑에다 요만하니 꺾간한 외막처럼 쳐놓고 그 밑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3년간을 시묘살이를 했어. 효자 아니면 못하는 거여. 누가 도저히 여자 옆에도 안가제. 누우면 탄 음식도 안 먹제, 자기 손수 꼭 해서 먹어가면서 이것이 시묘살이여, 그런 효자가 어디가 있어. 여자건 뭐건 다 썰테가 없어. 아무 것도 썰테가 없어, 그렇게해서 시묘살이를 하고 나온 효자가 한 분 있어.

○ 지도 설화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7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효부 이야기	『도서문화』5

그 분이 박씨데 여기 저 내양리, 가정리에서 왔단 말이여, 왔는디 우리 집안을 왔어. 우리 백부의 자 부였거든, 아 남편을 열 여섯 살 먹어서 애 일테면 우리 형님이 장개를 가고 자기는 열 일곱 살 먹었던 가 이렇게 했는디, 남편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하다 불행히도 죽어부렀어, 죽은디 그래도 으제 용케 임신해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크다가 죽어불고 들째 늬이 크다가 일본 가서 즈그 작은아버지 면회간 다고 가 가지고 차에서 떨어져 일본에서 죽어부렀어. 죽은 다음에 그도 불고히고 자식도 없이 부모를 나는 이모 한 분 이별 혼사 부모를 섬기고 산다 해 가지고 아 우리 큰아버지가

“여봐라”

하른 별것 다 돌봐, 호랜(호랑이)가죽이라도 별것 다 들어와. 그런 판인디 시어무니, 시아버지가 그

렇게 호랜 같은 밑에서 꼭 그대로 시중을 허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살아나올 때 그래서 오늘날 행교에서 좌우간 열너라고 일테면 그렇게 해서 친을 해 주었다. 아침 조석으로 봄에 가서 꼭 여기 가서 물어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방이나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제, 꼭 죽을 써가지고 들어가서 새벽부터 드리제, 무속 전부 장만해서 드리제, 모든 것을 이래부러서 이 분보고 오늘날 그 분 보고 효 부라 해서 친장을 받았어. (친장을 받기 전에는 효부·효자 말을 못 들어: 청중)

○ 지도 설화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8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그 전에 여그 가서 도깨비가 원근(위낙) 심했다. 그래, 그래서 요 뽕짝, 요 집, 요 짝 그래서 좋은 오막살이 집을 짓고 사는 이낙점씨의 큰아들 두부란 분이 있어. 낙범씨도 장사고 그 두부도 아 장사였던 말이여, 이 놈을 쫓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종자들이 이렇게 해j 성가지게 쫓아가서 잡어논께, 큰 비지 짝 몽둥이가 불을 써가지고 올라오더니 예끼 이 잡것 너도 맛 봐라고 불 질러 부렸제. 너도 맛 봐, 뉘가 불 써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해, 애 이것이 뭐냐고 불 질러 부렸어. 그리고 나부터도 참 일본놈 시상에 그 내막개라고 하오리 그것을 입고 이렇게 했는디, 저 건네가 우리 산인테 그래도 구신을 만나면 은제야 우리가 완전 도립하고 살 수 있냐 내가 입다물며 감옥소에서 한 20년 산 놈이 낸장 맞을 것 나 좀 한 놈 만나보야 쓰것다. 아 내다보니까 우리 나무베늘에 불이 환히 쓰였어. 아니 으쁜 놈이 다 나무도 독질을 왔나, 뽕짝 가서 사람이 아니여, 뽕짝 달라들어 이거 뭐냐 하니까, 아 시푸런 불덩어리가 저리로 간단 말이여. 너 거기 있어, 막 쫓았제. 쫓아서 이 잔둥(봉리쪽) 을 넘어가 가지고 봉리 동네 뒷산 김씨들 시향산 뒷산까지 쫓았어. 아따 도저히 못 잡겼어, 거기 가니까 자자지더란 말이여. 이 도깨비란 것이 이렇게 심했어. 여기가 또 이 뒤에서 도깨비가 사람을 농락해 가지고 끝내 땡기다가 으 이 동네 원근 길력 썬 장사들이 많이 있어, 그 분들이 이것이 뭐냐 막 후레 쫓으니까 도망가 부렸어.

○ 지도 설화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9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백년동	『도서문화』5

으째서 백년동이라 했냐하면 우리가 수 천년 된 일인게 모르지마는 여기가 (백년마을 앞) 전부가 바다였다 그래. 요리만 이렇게 육지 땅이고 저리 전부 바다였던 모양이제, 어느 어르네를 뵈 여자가 이렇게 앉어 보니까 아 저 산이 둥둥 떠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꼭 영락없이 연꽃 송오리 같으나 마는 그런디, 저가 차꼬 여그디 앉으면 좋겠다 그런께 산이 이렇게 앉어부렀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연꽃 같다 해서 백년동이다 이렇게 했어.

○ 지도 설화1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0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구렁이 이야기	『도서문화』5

내게로 일테면 할아버지 된 한 분이 한나가 우리 집안에 치숙씨라고 한 한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어느 여자가 얻어 목으러 돌아다니드라고, 그래 보니까 얼굴이 좋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찌게 농락할라고 일테면 무슬 해봤든 모양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불가하다 이러거든, 게서 어찌 그렇단 말이나 하니까 가슴을 이렇게 보이는데 구렁이가 여기다가 딱 목 하나 감고 나왔어. 게 어쩐 관계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원래 어느 총각이 나를 항상 사모해 갖고 있으나 하되 내가 불응한 관계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먼저 죽었다 이것이며, 죽어갔고 그래서 구렁가(구렁이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고 이 몸뚱이 전부 감고 있드란거여, 그래 가지고 딱 이렇게 사타구니 요리 이렇게 감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보니까 아하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 할무니 한테.

○ 지도 설화1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1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벌바우재	『도서문화』5

거가 연간 벌이 옛날에 많이 살았거든, 그래서 거그를 벌바우재라 했제. 거가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을 한참 들어가야 되야, 근디 그 굴에 가서 그 일테면 옛날에 너구리라든지 그 뭐 저 여수 같은 것, 그런 것이 살어서 그놈 잡으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굴을 자꾸만 막어 가지고는 외구먹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느라고 다 막아져 부렀어.

○ 지도 설화1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2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묘를 잘 써서 부자가 된 이야기	『도서문화』5

아까 말한 똥똥바우라고 거기가 묘를 쓸 때 우리 증조부가 참 곤란해 가지고 애 참 근근히 그날 그날 노동 품팔이 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지사 한나가 와 가지고 요 용산골 화선달이라고 그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인 양반이 할멈하고 들이 참 품삯을 내고 못하고 해서 이 떡을 만들고 돼야지를 잡고 뭐, 안주를 잘 장만해서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는고니 하선달 보고 그러거든, 음식을 먹세 하면서 그러든 가만 있자 이렇게 진수성찬을 잘 가서 갖다 주는디 그냥 말 것인가 그런게, 어허 그런 것에 아 그러든 으짜게 가만 있자. 자네가 부를 원하는가 귀를 원하는가 한게 귀를 나는 원허네, 그런다면 요 뽕작 자네 집 옆에 여그 쓰소. 그리고 저 사람은 요건네 주소 이러거든, 그래 똥똥 머리곳에 묻힌 한 아씨가 그렇게 참 우리대 선산을 위해서 낙심없어 그래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거 가지고 순전히 지금도 보면은 냉감나무로 까시여, 까시덤불인디, 거를 더러치고 그 지사 말이 그 거술을 막 쳐버리고 거기다 묘를 쓰는디, 이러이러한 자리에 써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신네 친구들 같이 일꾼들을 인자 한 잔 잘 먹에 가지고는 밤에 가서 따 때려치아 부렸어. 따 때려치고는 흰칠을 맨들어 가지고 거그 묘 씌서로부터서 오늘날 똥똥 밖에 당신 그 양반 거기 들어가면서도 인자 오늘날 생전 여그에서 옛날에 우리 큰아부지나 우리 아부지 함평까지 놈의 땅 밭 안딜고 있어, 쪽들어 댕졌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자가 난 원인이 있고 또 우리 한아부지여도 영감이라고 여의도 만호로 임금 밑에 계신 그 양반이 우리 할아부지 서약장군이여,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가만 와서 보니까 요건만 관직에서 주는 그까지 것 믿고 살다가는 안 될성 부르니까, 저기 저쳐 쪽 갈채면 옷맹기란 데가 있단 말이여. 거기다가 화렴전을 만들어 가지고 불 구어서 소금을 맹긴다 말이여, 그것을 만들어서 대체 보니까, 이 놈보다 더 잘 되야, 아 그런디 아 인자 모도 소금을 사러 와서 가불고 없는디, 우리 한아부지한테 소금이 많이 있다하니까, 아 인자 배를 대갖고 소금을 흥정을 할라고 하는디, 대체 흥정을 해 놓고는 인자 그러면 내민 연막에서 오 육백 개 있단 말을 들었어, 아 있는디, 그날 내줄라고 보니까 원마 이놈의 소금 가마 위에다가 이만한(한아름) 구랜가 쭈욱 걸치고 있단 말이여, 그러니 누가 그 소금을 사갈 것이냐 말이여, 원마 문을 딱 닫히면서

“나 소금 안 팔랍니다”

이래 부렸단 말이여, 왜 그러냐 하든 나 이런 시세로는 안 판다고 해 놓고 그 이튿날 가만 가서 들어

다보니까 아 옛날에는 중선 앞뒤에 이렇게 등근 놈이어야 하거든, 새우장사도 와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렇게 굵어야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수수 만근 되는 것이라 물이 싸면 떨어져 볼제, 아 그런데 그 줄토막이여, 그 놈을 이쳐붙고 나서 연막을 딱 열어논께 막 배가 들어가게 막 들고 가제, 막 들고 올라간다. 그래서 고것을 인자 전부 팔아갖고 가만 행각해 보니까 요것보다도 일테면 임자면 작도란 데다 중선을 시작해 노면 이 놈의 다른 사람보다 무지하게 다 잘 잡히제, 그런데 진도에서 오는 배를 잡배가 올라오면 젓 사러 온 배가 만나 우리 한아부지만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부 모두 돈을 매겨놓고 우리 살림이란 것이 아 거기서 모두 몽땅 벌어들여갖고 오늘날 우리 백부님이 소작료 칠백석을 받고 우리 장자가 삼백석을, 천을 받은 부자가 됐다 이거여.

○ 지도 설화1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3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	『도서문화』5

그전에 애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파게서 한 동안 숨이 그냥 가버렸어, 오래 있으니까 깨어났단 말이여. 여러 시간 걸렸어, 그런데 이 양반 무시라고 하는고니, 아이고 가서 보니까 나 보고 어서 가라 하더라 그런께 우리 한아부지제, 무더로 왔냐 여기는 올 데가 아니다. 애 가서 보니까 우리 한아부지가 임금으로 왕은 그런거 아니다, 여기 올데가 아니다 못하러 왔냐, 여기 올 데가 아니다 애 거기를 가서 구경을 할라고 하니까 약간 구경을 시키고는 갈 때 과연 하면 오린가 개운(거윈) 가 하나 주드라 그래, 그래 주는데 그놈을 가지고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퍼득 날아가

부러 그통에 잤다 한다 말이여. 그 놈 잡으려고 하다 그통에 내가 잤다 한다 말이여, 나 역시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 한아부지가 일테면 가니까 어느 섬 왕 노릇을 하는데 뭇하러 왔냐, 너 올 때가 아니여, 빨리 가. 가라해서 왔습니다. 나도 개우를 하나 준디 모가지에 검을 띠를 두르고 있었어.

○ 지도 설화1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4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장사 이야기①	『도서문화』5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열명이 달라들어도 못들은 독을 짚어다가 다리를 놓은 이야기가 있어, 여그 저쪽 가면 그 독이 지금도 있어, 그 다리를 혼자가 저다 탁 놔서 당신 손으로 놔들어. 그리고 요그 치는 뽕짝 낙범씨가 왔는데 중간에 질 만드니라고 없애 부렸는데 수수심명이 달라 붙어 때려 부셨제 (박정웅씨가 혼자저다 놓은 다리가 지금도 있어 : 청중)

○ 지도 설화1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5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장사 이야기②	『도서문화』5

내가 선도리는데 가서 우리 할아버지 묘를 쓰라고 할 때, 그런디 뗏하러 우리 큰아버지는 동네 당을 사가지고 거기다 묘를 쓰라고 할거여. 당을 저렇게 인자거서 참 지금과 같으면 기계 있으니까 기계 톱으로 써는데, 아 손으로 써는데 아 손수 썰어가지고 자가 옷, 일테면 안 치 오픈의 판자 정도라야 중선이 견터난다 말이여, 아 그렇게 해서 그 지레기를 밑바탕을 일곱자면 쓴다 해가지고 일곱자에서 열두 자짜리 썰어 왔는데 그 놈을 일곱 장을 짚어지고 내려온 장사가 있제.

○ 지도 설화1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6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필환(남, 81)	사냥꾼과 노루 이야기	『도서문화』5

산 포수가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지금 같으면 제한이 있는데, 그 전 세상은 맘대로 잡았거든. 노루가 새끼를 낳단 말이여, 낳는데 노루를 쏘려고 본께 노루가 새끼를 들고 요력 있거든, 떨고 있어, 이 사람도 가만 생각해 본께 아하 저것도 새끼를 낳아 가지고 그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말이여, 저것을 쏘면은 나부터 죄 받을 것이다 해서 안 속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노를 놔 주었는디 그 노루가 무슨 수가 있나하면 한 번은 어느 나룻가에 갔는데 노루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가지를 말라 하드란 말이여, 못가게 자꾸만 잡아 덩겨, 그래서 못갔는데 그 배가 가다 꺼피졌어. 이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끌고 가니까 어디를 가다 구덕을 파라하니까 그 구더기기를 판께, 거기가서 옛날 문 보물 구더기를 발견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

○ 지도 설화1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7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중윤(남, 69) 김장무(남, 47)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그 날 도깨비를 사구면은 고기를 잘 잡는다고 했거든. 그러면 도깨비서 도깨비 밥을 해다 주고 떡을 해다 주고 해서 잘 사귀두면 확실히 그 사람을 보면 고기를 많이 잡었어. 바다에서 갯빨에 쪼끄마한 그 가방 해 놓고 고기를 집으로 저 날렸어. 그리고 잘못 사과서 함블로 해 불면 고기를 도깨비가 물어 분다 했어. 고기를 그런 이야기여.

○ 지도 설화1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8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효부 이야기	『도서문화』5

처음에 태천에 김씨, 주씨, 조씨 세 성받이가 자가 일촌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씨는 한양 조씨인데 한양 조씨 오늘이 입향조 제사여.

그런데 인제 우리 한양 조씨 집안에서 먼저 효부가 한 분 계셔. 효부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 우리 할머니인데 자기 시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자기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세 방울 흘렸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살으셔갖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랬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가 그랬읍니다.” 그래서 다시 태생을 해 가지고 떡과 붓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효부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성균관에 그 내용을 써서 그 양반이 인자 보냈제, 그래 인제 성균관에서 당장 각을 지어 주어라 해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각을 지었어 그 다음에 그 인자 또, 열부가 한 분 계셔. 우리 집안에.

열녀는 결혼 막 하자마자 그 이튿날 남편이 죽은 분을 열녀라 한다고 재가를 안하고 계속 살았어. 혼자, 그래서 여기서 나이 80세까지 되도록 살았어. 다른데 재가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성균관에 연락했제. 한양 조씨 집안은 효와 효부와 열녀가 사는 집안이라해서 성균관에서 각을 지어 주었제. 그래서 딱 보면은 비가 다 안에 있어. 행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제.

○ 지도 설화1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9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좋은 꿈 이야기	『도서문화』5

저희 큰아부지 되신 분이 조 성룡씨라고, 그 분을 인자 낳으실 때 용꿈을 끼었다 하데. 그래서 상당히 벼슬도 했제. 그 집안애가 산소가 여 바다 건네가 있어. 섬이 일곱 개여, 딱 일곱갠데 거기다가 내가 죽으면 거기다 묻어라 하고 거기다 묻었어. 산소를 그리 읊겼어. 그 집안에서 꼭 칠형제가 나왔어. 칠 남매가 그 분이 유언이라 해 가지고 후손들이 생겼지 않나.

○ 지도 설화2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0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도깨비 이야기	『도서문화』5

여기서 지도읍에까지 갈라면 한 5km 정도 6km 정도 되거든. 그런데 그 분이 그 지도읍애가 자기 작은 아들이 있어. 장사를 하시고 그 식육점 장사를.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제.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식육점을 한개. 돼지고기를 한 근이나 두 근이나 딱 떠서 들려보내 해 잡수시오 하고 그런데 쭉 오다가 도깨비를 만났는가 이 미신이제마는 온다. 아니 계속 어디로 그래 밤새 하얀 사람이 나를 다라 오라 하드라 해. 따라갔어. 인제 따라간디 자기는 무심코 따라 간거제. 그런데 그 밤에 그 그런 고기를 갖고 다니면 안 된다 하드면. 그런데 갖고 땡기니까. 그 도깨비가 흘렀제. 그런데 쭉 해서 간디 밤새 돌아땡기다 보니까 날이 샀어.

날이 새고 보니까 이런 바다를 빠져 땡겼어. 그러고는 수로가 있거든. 수문 그이 수로를 끼어 다니고 그라고 얼굴을 다 찢겨붙고 그래가지고 날 새블면 도깨비가 없어서 분다고 이 딱 보니까 어디가 있냐 하믄. 자기 아버지 산소에가 가 있드라여 날 이 닥 새보니까 옷을 보니까 그 빨바탕을 어찌나 빠져 땡겼는지 완전히 뭐가 되어 부렸고 다 굵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드만. 근디 밤에 그러니까 그 분이 이야기를 했어. 절대 하지 마라 했거든.

빈 병을 갖고 땡겨라 빈 병. 빛에 밤에 빛에 반짝이니까 도깨비들이 안 달라 든다 하드면.

○ 지도 설화2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1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삼대 독자 이야기	『도서문화』5

삼대 독자라 하든가 삼대 독자 때 부부간에 얘기를 나 놓가 갔드라해. 저 일하로 갔다온디 얘기가 없어 부렸어. 바로 저 산인데. 저산 근디 그 거그가 굴이 있어. 진짜 굴이 거기가 있는데. 틀림없이 그 굴에서 늑대가 와서 업어갔다 하고는 인자 거그를 가 봤는가 모양이라 마침 간께 거가 인자 죽어갔고 있어. 얘기가 죽어갔고 있고. 그래서 인자 그 놈을 갖고 왔어. 얘기를. 그래가지고 자기 아부지가 텔꼬 와가지고 고놈을 방에다 뉘여놓고 딱 뺨을 때려 부렸다 하데. 예끼 호레자식! 자기 아부지 보다 문자 죽었다 이겨여. 뺨을 딱 때려부니까 다시 살아났다 해. 요놈이 그런게 놀랬제, 시풀해갔고 죽어분거 아 니라고, 놀래 부렸어.

○ 지도 설화2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2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장사바위 이야기	『도서문화』5

요쪽 산에서 이곳보다 곧모래 산이라고 해. 그라고 저가 뭘 산이나 하면은 고수목산. 장사 바위가 저 가 있어. 장사 바위가 저가 있어 가지고 장사가 여그까지 전부 바다였다. 얼마 안돼. 한 몇십년 안돼. 그런디 여그 장사가 저 고수목 섬까지 뛰어 부렸어. 그런디 거그가 발테죽이 있어. 햐! 여그까지 뛰었다 하는 젤 먼저 들어가는 발테죽이 있고 난중에 디딘발은 들어가는 것이 좀 있고 그런 전설이 있어.

○ 지도 설화2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3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은돌방 이야기	『도서문화』5

지금 재래식 부엌에 그런데 인자 불을 대는 이 아궁이도 인자 왜 생겼냐 하면 온 산에 짐승이 많고 도저히 해 나갈 길이 없어. 애들은 다 잡아 가불고 근께 인자 나무를 비어 불었어. 나무를 비어 불면은 숲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도망갈 것 아니라고. 실은 그 나무를 어따 이용해야 할 것 아니라고.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 냈제. 아궁이를 그래서 온돌방이 생겨난 것여. 온돌방 유래가 거그서 생긴거여. 그리고 그 나무를 짐승을 쫓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대기 우해서 때야 하나까 온돌방이 생긴거여.

○ 지도 설화2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4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당산나무 이야기	『도서문화』5

저기 당산나무 거시기는 거 뭐시겠제. 하나의 뭐 뭇같이 모신것 아니라고 신으로 모신디 이유없이 부락에 소 잡아갖고 초상이 난다든가 뭐 잔치가 있다든가 그러며는 소머리를 이유없이 저그에다 물어 뒀어야 돼. 나무밑에다 그래다 이 마을에 뭇이(재앙이) 없다 해가지고 소머리를 묻었어. 계속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런디 그 뒀는 안 해 부렸제.

○ 지도 설화2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5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장수바위	『도서문화』5

장수바우라고 저-, 꽃 화자, 머리 두자, 화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 화두산에서 이 앞에 물건너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가 화두산에서 이 장수가 뛰었다고 그래, 뛰었는데 진 담뱃대를 가지가 요러고 탁 뿔서 때려 부렸는디 담뱃대, 그 조대통, 담뱃대 태가 있고, 발 태죽 돌이 있어, 그런디 담뱃대 고운 물을 장수바우 발태죽 물을 약물이나 해서 옛날에 상징불알 무병이 잇는 사람은 질러 목으로 땡겼다고 그런 것이 있어. 그런디 그것도 다 난포에서 원 막은데 없어져 불고 약수라고 지러 땡졌어.

○ 지도 설화2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6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조복희(남, 45)	당산나무	『도서문화』5

당나무 그것은 것이기 한디 지금 우리가 몇백년 되었다는 것은 몰라. 한오백년 더 되었다고 그래. 그런디 이것이 현재 문화재로 들어 갖고 있어(조사자: 제사를 지내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러제, 응, 제사를 잘못 지내면 이 부락에 나쁜 질병이라든가 부락에 그런 젊은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런 인자 내력이 있고, 당을 잘 못쓰고 인자 거그다 우리 부락 사람이 주력을 하면은 우리 부락에 참 무병하고 농사도 잘되었다고 이런 전설이 있어. 그런데 거그다 해꼬 당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고 옛날에는 고작으로 두르고 소매를 보거나 그 옆에 가서 대변을 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조사자: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명은 안한데 그 사람이 죽을라고 죽었다, 혈압에 몸이 좋아지고 혈압에 죽었는가 몰라도 당나무를 죽여 부렸어. 부락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장이 많제. 실은 당제를 부락에서 모스는데 교회가 부락 가운데 생겼다 그라믄 인자 교회라는 것은 제사를 반대하는 것 아니여. 그란께 이래서 교가 부락에 생김으로써 부락에 젊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도 제를 모시는디 안 모실 수가 없어. 문화재로 들어가 있당께.

○ 지도 설화2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7	1986.10.31 -11.06.	지도읍 광정리 장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나상남(남, 73)	철마산 이야기	『도서문화』5

여그 앞에 철마산이라고 있는데 요 위에 산이 철마산이 그 전설 있제, 여그는 임씨가 제일 많이 살았는데 어찌 그렇게 되아불었냐믄 임 장사라고 한 사람이나 가지고 여그 참 전설이 짚음세 그런데 산신령님이 그전에 쇠로 말을 딱 해져갖고 있는데, 그 거시기제 말굽에 빨이 문단디 저 등곡서태로 들오면 거시기 저 즈그 동네로 들어가면 질머맨다 요렇게 말 있다고 요렇게 매고 저죽곡서태로 올라선다치면— 일제 때도 되고 그전 옛날 임 장군이 그걸 이까진 걸 뒀헌데나 허고 그냥 뚜드러버렸던 말이여 그래서 말이 깨졌어. 두동강 나버렸어 근디 여그 저 일제 때 상구라고 한 사람이 즈그 가정에다 갖다논다고 갖고 오다가 그냥 죽사를 해 불었어 죽어 불었어 그께 참 그전 옛날상이 고담도 되고 이것이 어쩔랑가 몰라도 죽어서 도로 즈그 집다 갖다 났다 도로 갖다 산에 났제. 그래서 있어, 임씨가 한 가구도 못살아 그 때 그래서 한 가구도 못 산단 말이여.

임씨를 14代 되니 1代를 30년을 잡으니 420년 전의 일이다 그 말이여. 그래서 임장군 묘가 뒤에 있어.

○ 지도 설화2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8	1986.10.31 -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남, 56)	도사와 명당	『도서문화』5

옛날에는 요 지도가 지금 오늘 오는데 찌기 자동리에서 연륙된다가 아니라 찌기 내양리 가면은 해  
 체서 요로코 오는 강산나루라고 있어. 저기 나루가 조금 건네 주는다가 썸 길지마은 물길이 안싸. 여  
 기 오늘 연륙된디는 압해도 이순신장군이 업적을 남겼어. 그 수영 울돌목. 거가 제일 울돌목이라 그렇  
 게 물이 썸어. 거기를 막어버린 뒤가 얼마나 하면은 거기를 막고 여기 우아래를 막어 버려 가지고 우  
 리 지도읍과 해체면 양대 땅이 1885정 18매 약 2,000정보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늘어나 버렸  
 거든 그것이 양쪽에 좁은 도로 약 사백 삼십 몇 미턴가 그 꼬랑으로 물이 들랑거릴 때는 얼마나 썸었  
 나 그것이어. 수영 울돌목보다 더했다 말이어. 그것은 나룻배가 그리로 못댕기는디 해체에서 요로케  
 넘어와 당산나루로 서해 바다 큰 바닷물꼴이 넘었어 그래서 오다가 도사가 저 건너서 잠을 하루 저녁  
 주무시고 배가 없으니까 범선으로 댕겼지 때문에.(해체 인수비 가면 절이 하나 있어) 그래서 도사가  
 주무시고 와서 거기다 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지도에서도 내양리 이곳 사람들은 그 절을 대너  
 요.(지금 김진택씨라고 지도에서 대의원하고 계신분도 그 절에 나가) 그 도사가 쪽 오다가 어디로 갔  
 느냐 내양리 둔곡이라고 있어. 내양리 둔곡이라는 부락에서 보니까 참 산세가 좋고 참 좋아 그 우에를  
 딱 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때가 언제 었느냐 물이 많이 만조가 들었을 때여. 바닷물이 앞에 출렁출렁  
 허는 것 보니까 대쳐 아주 참 좋다 그거여. 물이 들어도 마찬가지로 썸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디 여기가  
 기다고 지팡이를 딱 짚으니까 바로 이 읍터자리가 이씨들 그 후손들이 선산을 써놓고 거기서 한참을  
 왕성한 판이여. 그래서 처자식 하고 옛날에는 그냥 잡아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창에다 집어 넣  
 어 버린거여. 그런게 도사가 도술로 빠져 나가서 어디로 도망갔나하면 송도로 건너 갔어. 바로 읍 저  
 건너 송도라는데 갔는디, 깨그랑 크도 얇고 바닷물이 들면은 못가고 쓰면 갈정도 되었는데. 전설에  
 한다면 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디로 가버렸다 그거여 죽일라고 보니까. 그래서 갈데가 그 건너 밖에  
 없어. 그 건너로 알고 쫓아갈라근게 지팡이로 싹 끊어버리니까 바다가 싹 말을 해. 대가리를 벗고 있  
 어.(그런디 연륙된디는 3년 되었지) 그래서 여기를 읍터를 다듬을라고 무엇을 파 뒤겨야지. 그러니까  
 소가 점성소가 앞발만 싹 딛고 뒷발을 못딛고 일어설락하는 판인디 파부렸어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흘  
 러나가.

그 뒤부터서 그 이씨들이 추풍낙엽이 된거여. 그래서 지금도 그 이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 그래  
 도 그 옛날에 부잣집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깨넘어서라도 부잣집 일꾼들은 하늘 천 따

지도 더 잘알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어. 개도) 그러드키 인제 그 옛날에 했던 그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씨들이 여기에서 문장도 쓰고 향고가 있어요. 우리 신안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데여. 무안군에서도 무안에 있고 지도에 생겼어. 이렇게 역사가 깊은 디어.

○ 지도 설화2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9	1986.10.31 -11.06.	지도읍 봉리 죽곡 168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영신(남, 77)	박씨집 부부	『도서문화』5

재작년에 지도읍에 효천이 들어왔는데 박가 박씨집인데 당신 부인 아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뜨게 효도를 해서 효천을 할라고 허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무니가 우리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우리 할머니 병을 시병을 허는디 저녁 사경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서 압니다.

첫 번에는 아이구 뭇이 목고 싣다허니까 고기를 볶아서 주는디 짝다고 허드래. 아이구 찢겨서 안 되것다야 뭇 고기를 이렇게 질긴 고기를 갖다주냐 허니까는 나중에 또 고 고기가 먹을만 허다허는디 어데를 찢어 첫 번에는 여기를 돌려 찍어서 볶아주니까 찍거든, 나중에 넙덕치 허벅다리 여그를 찢어 볶아드리니까 여건 보들보들허다 먹었던 말이여 그리고는 즈그 시어머님보듬도 몬져 머느리가 죽었다, 죽어서 저승에를 가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호소를 했던말이여. 그때도 호소를 하기를 내가 노모를 노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내가 몬져 왔으니 우리 시어머니 시중은 누가 할 것이며 아무리 기른다 할 지언정 저승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호소했던 말이여. 그러니까 아하 그러것다 도로 돌려보내 주라고 해서 도로 이승을 나왔다. 그 역사가 증명허는 것이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는 시병을 허시다가 돌아가실 임중에 농을 내려봐라 농을 내려본게 그전에는 부인들이 지금 갓잡에 속곳이 있고 가래 고쟁이가 단주구가 있고 여러 가지거든, 근디, 속곳이 보니까 속곳이란 그전에 속곳 밑에다가 부인들이 이렇게 한 몇꺼플을 막 주전매녕 달아서 입거든. 막 피가 흘러가지고는 뽕뽕해 가지고 고녁적이 되었어. 어머니 어째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기(이야기)를 해 내가 느그 할머니 병환을 시병하다가 정말 안되겠어. 인육이라야 쓴다드라야. 그래서 여그(손)을 잘라서 해주니까 고기가 뽕시다해서 나주에 여기를 넙덕치를 잘라서 해주니까 보드랍다 허드라. 그 옷을 누구보다 말 안하고 나 한자 마냥 간직해서 담어 둔 것이다. 느그들한테 이렇게 내가 고생허고 있으니까 느그들도 그 모범을 봐서 부모한테 효라도 허고 사람들한테 전해도록 해라 그랬

다고 해서 우리가 효친을 해줬다.

○ 지도 설화3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0	1986.10.31 -11.06.	지도읍 봉리 죽곡 168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영신(남, 77)	열녀 이야기	『도서문화』5

여자가 열일곱을 먹어서 시집을 왔는데 열 일곱을 먹어서 시집을 와 가지고는 이놈이 바람을 피워 가지고는 장개 온지 몇 달 안 되가지고는 나가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다니고는 어찌고 의박을 하고 다니고는 안와. 그런데 집안할라 가난해 가지고서 거시기 뭇이나 시부모도 시아버지 하나 밖에 없어. 그 남동 병신이라, 정신인디 어쁜 병신이든 잉꼬리 장사해서 벌어먹고 산디, 즈그 남편은 그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인나지 못해. 똥, 오줌 받아내고 그란디 또 오줌을 놀라면 자지를 쪼물쪼물해서 오줌이 나오제, 글 안하든 오줌도 안 나오네. 이놈의 신세를 어떻게 살아 응 똥을 놀라면 똥구녁에다 인자 푸대를 받쳐가지고, 잉꼬리 장사 아침에 나갔다 들어와 밥을 해서는 옆에다 놓고 나갔다 올 동안 물이랑 자시쇼 이렇게 하기를 어뜨게 그렇게 사내고 허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자란 것이 이상해. 남자 같잖애 남자는 대고 대고 외박도 피고 다니고 바람도 피고 다니고 하지만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그 가문에 들어가서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어. 칠거지악에 해당한달 치면 쫓겨 나는 법이여.

그니께 거기 구식에는 급살맞을라고 그런 놈의 짓을 했든가 몰라. 아, 즉, 시아버지가 돌아가게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헐 것인디 즈그 남편은 돌아보도 앓으니까 어찌고 꼭 그렇게 시봉을 하고 있는데 막상 즈그 아버지가 돌아가겠어. 돌아가게 노니까 그 상여를 고려의 고풍으로 해서 시체를 다 모셨어. 상여를 치렀단 말이여. 치렀는데 삼상을 지냈거든, 지금은 인자 그 죽은 뒤로 삼일도 탈상하고 단기도 지내지만 그전에는 꼭 삼상을 지내기를 참 일각이 여삼추여, 삼상 탈상이 오던 날 탈상을 딱 저녁에 모시는데, 그래도 일가간도 있고 아무리 고단해도 헐거 아니여.

다 모두 왔거든, 왔으니까 모두 제사탈상 막 모신 뒤로는 나도 며칠 잠을 못 잤으니까 참 당숙이랄지 시숙이랄지 뭐 저 할아버지랄지 우리집은 원청 단방 단가라서 여그서 의지를 못헐테니까 유제라도 모두 가서 쟁게서 기무시쇼, 나도 원청 지나치게 고단했으니까 나도 오늘 한숨 헐랍니다. 다 끝이 들을 것 아니여. 다 돌아갔단 말이여. 돌아간 뒤로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휘발유 딱 쾅겨버리고는 시차 자기까지 소사해 버렸어.

그것이 인자 출천지 열녀다 열녀도 되고 효부도 된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운동해 가

지고는 열너비를 세웠다.

○ 지도 설화3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1	1986.10.31 -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탱자 이야기	『도서문화』5

애기들이 인자 탱자를 가지고 놀았든 갑디다. 애기들이 탱자를 갖고 놀았든가 항에다 물이 한나 있은께 애기가 탱자를 그냥 그 함 속에다 놓았어, 빠져부렸어. 그런께 거시기 즉 아버지가 거시기 저 아 뷔 탱자를 이려고 저놈이 탱자를 뺏어 애기가 저놈이 탱자를 뺏어갔고 요려고 만나준다우 그런께 이 려고 들여다 본께, 대체 탱자가 있거든 거시기 저 즉 아버지가 들여다본께 인자 저 같은 놈이 물 속에 또 있었든 것이여.

에이 사람 같은 것이여고 애기에다가 뭘 짓서리인가 애기 탱자를 뺏어버리고 탱자 안 내줄랑가 그 런께는 거시기 저 막 저기 함 속에서도 그러거든. 막 욕을 하고 저가 같이, 요놈을 봐 버려야 되겠다고 몸동이로 막 항을 막 팍 깨버린께 물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탱자가 막내려져 볼드라우, 나와부르라우. 이놈은 이래 쥐야 쓰제 그럼서 아나 여그 탱자가 있다.

○ 지도 설화3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2	1986.10.31 -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하는 일마다 재수 없어	『도서문화』5

즉, 아버지 지사 지네로 간다고 고기를 사러 가다가 풀창에 간께 송사리가 구들구들 허드랑께 마치 저놈이나 잡아갔고 울 아버지 지사 지내야 되겠다고는 깨할딱 벗고 갓만 쓰고 고기 잡은다고 갓으로 물을 품은께는 개맹이(구렁이)가 와서 옷을 딱 끌어 가지고 가불거든, 그래갔고는 아- 인자 깨벗고 즈그 집으로 들어가서는 앞으로는 못 들어가고 뒤안 장강으로 들어간께 장강을 깨져 볼드라우 뒤안에 장강이 「아이구 할멈 장강이 깨졌네요. 뒤안에 장강이», 「장강 사면 장그릇 안 있소」그러던든 그런께 두시문으로 들어간께 앞문으로 못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간께 얘기를 뒷문 앞에 누어 났든가 얘기를 밟아 죽에부렸거든 그래서 「아이구, 알멈 얘기 밟아 죽에부렸네요」그러께 「낭면 자신 아니요」아니 그 러더니 옷을 주섬주섬 선반 위에 얹어 났은께 주워 입을라고, 옷을 입을라고, 이놈 저놈 내린께 거기

또 찌구가 있어던가 찌구가 내려져서 아래 자지를 딱 찌라라져 버렸거든,「아이구 할멈, 내 자지 찢라져 버렸네」그런게는 「아이구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소. 어쩌다가 그랬소」막 그리고 울고 방으로 들어왔더라우

○ 지도 설화3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3	1986.10.31 -11.06.	지도읍 봉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이병화(남, 70)	제주개	『도서문화』5

어쩌다 제주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식량을 사러 왔었어. 사러 왔다가 사 갖고 나감시러 고목을 배에 사용힐라고 싣고 나가다가 그 개에서 파산되어 갖고 제주 사람들이 죽어부렸어. 그래서 거그를 제주 개라 했다, 이거여.

○ 지도 설화3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4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헌주, 최유미	이봉률(남, 71) 김완수(남, 54)	당촌	현지조사

[이런 쪽, 잘 아시는 분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을 자체란 것이 생각도 해 본단 말이요. 당촌이라는 전설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그러지. 얼른 말해 당촌, 후촌, 나가문 장성거리, 문거리, 내방구지. 뭐 찾고 겁나드라고. 우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지. 목개, 산두개, 내방구지, 모퉁굴, 진난두 겁나요. 이것을. 안뜰머리, 운사람 머리. 우리도 그것을 한번 엮어볼라든 서도 안되더라고.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적어놨거나?] 말씀하시는데 김백동씨, 그 분이 잘 아시거든요.

[이 김백동 할아버지시죠? 연세가?] 80살 되었는데. 우리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여기를. 할아버지 때부터 못 들었기 때문에. 나이 지긋해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예.

[지금 건강하시구요?] 전설의 고향도 하고 있고. 전설의 고향까지 한다, 뭇을 알아야 하지. 내막들을. 우리가 지도서 딱 오른 하탑부터 생각을 하제. 여그는 하탑이고, 여그는 원달리고, 매도고. 그러든 매도서 들어갔고, 당촌 마을 갖고도 전설적인 것이 있드라고. 근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저리 나가문 할미 바위 있고, 할아버지 바위 있고 해브른께.

○ 지도 설화3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5	2006.08.23	지도읍 태천구	홍순일, 김현주	김종양(남, 73) 구정희(남, 70)	당, 요법, 뱀산, 열녀 이야기	현지조사

첫째, 예나 지금이나 당산을 엄하게 관리하는 이야기이다. 태천마을사람들이 똥·오줌을 누지 않는다. 그래서 해(害)가 늦게 오니까 제재를 시켜 당산을 돌아가게 한다.

둘째, 2-3년 전의 태풍으로 원뿌리만 남아 있는 할머니당 이야기와 이와 따로 있는 당산 이야기이다.

셋째, 당제이야기이다. 우선 제관은 음력 초사흘날 밤 12시경, 찬물로 목욕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씻는다. 다음에 제물은 전부 생것으로 마련하고, 술은 7잔에 따른다. 하나씨당에 돼지 윗턱을, 할매당에 돼지 아래턱을 묻는다. 다음에 굶치고 술먹고 잔치한다. 끝으로 나흘날에 결산을 한다.

넷째, 수류봉산과 관련 외롭거나 힘든 사람이 나온 이야기이다.

다섯째, 뱀이 개구리를 잡으러 가는 형국인데 당이 지키니까 못간다는 이야기이다. 뱀산이 명산인데 농지의 개량으로 산이 없어진 지 15-6년이 된다.

여섯째, 열녀이야기이다. 하나는 21살 때 시집와서 아들 하나를 두고, 25살 때 혼자가 된 실제 인물 임서(여, 80)의 향교 열녀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영리한 남자한테 시집온 여자가 15일만에 혼자되어 평생 살다가 죽자 조씨네 집안에서 열녀각을 세운 이야기이다.

○ 지도 설화3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6	2006.08.23	지도읍 감정리 4구	홍순일, 김현주	김광배(남, 72)	두류산 유배, 금출 지명	현지조사

김광배(남, 72)는 사옥도 당촌마을에서 출생하여 21살 때 혼인하여 살다가 29살 때 이곳에 왔는데 43년이 된다. 77년에 이장(4-5년), 새마을지도자(7-9년) 등을 역임했다. 중2 때 교회가 들어오고, 달애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두류산에 다섯 분이 두류산에 유배를 왔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광복기 미국인들은 금출이 금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금출마을에 다녀간 적이 있다고 한다.

○ 지도 설화3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7	2006.08.23	지도읍 감정리 4구	홍순일, 김현주	홍순철(남, 79)	제주갯지명, 나무가 소리내는 이야기	현지조사

홍순철(남, 79)은 부인과 지내고 있고, 자식들은 도시에 살고 있다. 소를 키우는데, 소막이 눈에 있다.

감정리 바로 앞애가 바다인데 제주갯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사람이 감정리의 좋은 나무를 많이 베가지고 배에 싣고 가다가, 그 배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외지인들이 나무들을 베가면 거기 있던 큰 나무가 소리를 냈다고 한다. 여러 번 그랬다고 한다.

(2) 민요에 대한 해설

○ 지도 민요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1986.10.31 -11.06.	봉리5구 죽곡 내양리 적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임병모(남, 61) 강금순(여, 65)	모심는 노래	『도서문화』5

어기 어허 어허여 상사디요

(허기 허이야 상사디요)(후렴. 받는노래)

우리 농군 시절이요 작년에도 풍년이 올해도 새 시절이 풍작이요

(후렴)

앞산 첩첩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히 가차와지네

(후렴)

세월아 세월 무정한 세월 오고 가지를 말세

(후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네

(후렴)

이 배미 저배미 숨구고 정두 배미로 가세

(후렴)

어매어매 우리 어매 그 날이 그리워라 정든 고향이 그리워라

(후렴)

내 어려 자라날 때 좋은 디로 갈라 했더니 농촌에서 썩는다

(후렴)

어기 어허 어허여 상사디요

(후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점칠 놈 따라 내가 가네

(후렴)

간다 헐 때 온다허니 보리밭에 아니오네

(후렴)

산천초목 풀잎은 저 철이 되면 찾아오는다 우리 님은 어디 가서 찾아올 줄을 모르는가

(후렴)

○ 지도 민요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	1986.10.31 -11.06.	내양리 적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강금순(여, 65)	시집살이 노래	『도서문화』5

올어매가 나를 낳아서 노무집에 보낼 때에

날 받고 달 받아서 열일곱에 날 여웠네

청풍가고 사주올 때는 삼제 삼제 사갔다 했는디

삼제는 무슨 삼제라고 했으리까마는 밋에 동생 집에 신세

혼자된 신세를 나 줄든가

하루저녁 자고 나면 신 한 짝이 없고

이틀적 자고 나면 신 한 짝이 없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신이 없는 시상을 어찌게 살아볼까

어매 어매 우리 어매 여울 떠가 그리 없어

삼제 삼제를 나를 채 줬든가

하례 울어도 못 다 울고 이틀 울어도 못 다 울어

신발을 어따 두었냐고 씨엄씨는 아당아당 하고

하도하도 애 터져서 창을 뜯고 길도 뜯은게  
 석달 너달 상한 신짱이 열두짝이 나오더라  
 그 신짱을 내놓고 보니 사람은 귀가 맥혀 못 살것는다  
 지금 세상 같으면 나오것는다  
 그때만 해도 동행이 몇 개든지 내가 먼저 나올까  
 그러자마자 서방이 병이 들어 십육세에 혼자되어 살라고 했드니  
 열아달에 중학생이 또 죽어서 발로 발로 걸어서  
 스물셋에 혼자 되어 들그덩 들그덩 베를 짜니  
 어느 누가 내 속 아나  
 석탄 백탄은 타여도 연기만 있어 타는디  
 내 가슴을 아는 것은 연기도 진기도 아니라네  
 어야 어야 세상살이 쓸디 없네  
 어린 새끼 두고 팔자를 고칠그나  
 아무리 해도 못 살것네 아무리 해도 못 살것네  
 이 집이 아니면 내가 살디 없을까  
 아리 아리롱 스리스리롱 아라리 바람 분디로 내가 걸어 간다네.

○ 지도 민요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	1986.10.31 -11.06.	지도읍 내양리 적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삼석(남, 76)	잡가	『도서문화』5

놀아 놀아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라  
 인생이란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어이 지누나니라  
 인생은 일장춘몽이나니 아니 노지를 말아노라리  
 꽃이야 곱더라마는 가지가 높어 못 꺾으리라  
 꽃이야 꺾든지 못 꺾든지마는 그 꽃이름 뭐라고 하실까  
 그 꽃에 이름이는 담장 안에 해당화라네  
 앞산에는 푸를 청자요 뒷 산에는 끝 정자라

구비 구비 내 천자요 가지는 가지는 꽃 화자라  
 방자야 술동을 부어라 마실 정자를 안주하라  
 얼씨구나 좋다 어쩔시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 지도 민요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	1986.10.31 -11.06.	봉리 3구 서동 720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양영례(여, 66)	이별가	『도서문화』5

연내라 연동 안에 백년화초를 숨겼더니  
 이십년도 못다 살고 이별화초만 남었네  
 임 떠나간 방 안에는 댐배꽂지만 남아 있고  
 차 떠나간 정그정은 거명 연기만 남었네

○ 지도 민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5	1986.10.31 -11.06.	봉리 2구 원동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진순임(여, 66)	발매기 노래	『도서문화』5

여네 자지는 어찌 큰지 뒷방 걸어 쉼어지고  
 남한장으로 풀리간게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몬차보고 주물러 보니 어허 그것 잘 생겼네  
 수 천냥 주께 풀고 가소 만냥 주께 풀고 가소  
 천냥 만냥 소용없고 오늘 저녁 새경전에  
 자네한테 풀고 가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지도 민요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6	1986.10.31 -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비용(남, 67)	등당애타령	『도서문화』5

등당애다 등당애다 당기등당애 등당애다  
 어매 어매 일어나소 세밀 봉창 해 비쳤네  
 어화등실 담행추대 담장 너머로 손 주어도  
 우리 머래 어디가고 내 손 줄줄 모르는가  
 등당애다 등당애다 당기등당애 등당애다

○ 지도 민요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7	1986.10.31 -11.06.	지도읍 읍내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남, 56) 박비용(남, 67)	홍타령	『도서문화』5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네 났네)(후렴)

문경세재는 웬 고갯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난다

(후렴)

나를 보아라 너를 보아라 내가 너 따라 살것냐 연분이 좋아도 내가 너따라 산다

(후렴)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속에서 놀고 이리 반쪽은 젖은 영계는 내 품안에서 논다.

(후렴)

정든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후렴)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래야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후렴)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간다.

(후렴)

넘은 가고서 봄은 오는데 꽃만 피어도 님생각 뿐이라.

(후렴)

○ 지도 민요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8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농부가	『도서문화』5

아나 농부 말들어 아나 농부 말들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뉘가무슨 반달이야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아아어허 에루 상사디여,  
 여보소 농부들 말듣소 아나 농부들 말들어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이놈다 송거불고 술참이나 쉬고 우리가 또 한번 놀아보세  
 아아어허 에루 상사디여  
 아나 농부들 말듣소 여보소 농부들 말들어  
 뉘가 무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도 인생이  
 먹는 식량량 할라고 송구는 곳에  
 어허 어기야 어허 상사디요

○ 지도 민요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9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나무꾼 노래	『도서문화』5

나무가세 나무가세 우리모두 나무가세  
 해안들려면 갈쿠나무는 우리가 해서 모대어서  
 방에불을 때가지고 따뜻하게 새안을 세어보세  
 나무가세 나무가세 우리모두 나무가세

○ 지도 민요1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0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노동요(1)(지붕 흠 이길 때)	『도서문화』5

어허어허 상가래로다 어허 가래로다

이흠을 이겨서 우리가 지붕을 올려놓고 초가를 지어야 쓰것네

어허기야 어허 상가래로다

○ 지도 민요1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1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노동요(2)(지붕에 흠 올리면서)	『도서문화』5

어서받소 어서받소 이걸어서 받어서 딱딱골라놓소

그래서 우리가 초목을 이루어야 쓰것는가

○ 지도 민요1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2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병수(남, 72)	방아타령	『도서문화』5

방아야 방아야 어서 쿵쿵 짚어라

어서 쿵쿵 짚어서 이방애를 얼른내어서

또부어서 또짚자

(방아야 방아야 어서 쿵쿵 짚어라

어서 쿵쿵 짚어서 이방애를 얼른내어서

또부어서 또짚자)(후렴)

(~ 후렴 ~)

쿵쿵짚는 방앤디 걸보리방애다 물붓어놓고

우리씨엄씨 죽으라고 말은했제마는 걸보리

방애에다 물붓어논께 우리씨엄씨 생각난다

방아야 방아야 어서쿵쿵 짙어라

○ 지도 민요1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3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신세타령①	『도서문화』5

늬사는 세상보고 나가는 세상보며  
아니나는 심정이 여리절로 난다  
우리어매 날날적에 자리우게다 낱던가  
구부구부 냉길나니 나의설움 많네  
높은집의 서방님은 자전차 운전을 하는디  
우리집 저물건은 챗바쿠 운전도 못허네  
막걸리 술한잔에 말띠워주는 우리부모  
막걸리 술동우에 풍빠져나 죽으소  
친냥이나 받고서 말띠워주는 부모는

만냥이라도 갖다주고 나를 물려가소  
시집살이 못허고 친정살이를 하여도  
양골년 술참고는 나는 못살것네  
오라고 헨디는 밤에 밤에나 가고  
이많은 죄석에 놀다나 갑시다  
산천초목은 푸러야만 좋고  
늬어가는 내한몸은 젊어야만 좋네

○ 지도 민요1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4	1986.10.31 -11.06.	지도읍 태천리 1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최양길(여, 60)	신세타령②	『도서문화』5

신작로 널라야 길건기 좋고  
 전깃불 밝아야 님보기만 좋네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아리가 났네  
 아리롱 얼씨구절씨구 아라리가 났네)(후렴)  
 니죽고 내가살아 열녀가 됐나  
 한강수 깊은물 빠져나 죽자  
 (후렴)  
 윤선은 가자고 쌍고동 트는데  
 보기싫은 송과장 뒤쫓아만 온다  
 (후렴)  
 너잘났다 나잘났다고 입뺨긋 말고  
 양손을 휘어 들고 사진관으로 가거라  
 (후렴)  
 화장품 마라고 신문이 났는디  
 화장품을 안허고는 나는 못살것네

○ 지도 민요1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5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아롱타령①	『도서문화』5

어이갈거나 어이갈거나 내가 어이를 갈거나  
 내발로 나걸어서 한양천리를 갈거나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라리가 났네  
 아리롱 흥이나 얼씨구 아라리가 났네)(후렴)  
 보고싶은 내아들은 꿈아니면 못보고  
 살기싫은 이내나는 법아니면 못사네  
 (후렴)  
 허든다 못난자식 신세한탄을 말고

간밤에 오는손님 반백을 말소

(후렴)

우연히 병이들어서 내가병나서 죽어도

내병에 나죽어도 우리어매 탓이네

(후렴)

이것네 저건네 강건네 살아도

백모님 쌀떨어지고 내가 못살겠네

(후렴)

○ 지도 민요1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채보자	설화명	비고
16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아롱타령②	『도서문화』5

물차지 물차지 정도포 차진디

득모님 딸차지는 내 차지로구나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라리가 났네

아리롱 흥이나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후렴)

이제 정이들어서 골속에 배케도

내방에 나죽어도 니야한몸 가시네

(후렴)

정들자 이별해다 갑속에 든넘아

갑문이 열려도 내가 못잊겠네

(후렴)

새내기 백발은 쓸모가 있어도

사람이야 백발은 쓸모가 없네

(후렴)

술은 술술술히 잘넘어간디

찬물에 냉수는 중치가 맥힌다.

(후렴)

삼보고 왔느냐 잊으려고 왔느냐  
인삼을 고대찾아야 내가 여기에왔네

(후렴)

나사는 내고향은 지도읍 금출동  
정내야 갈디는 정처여만 없네

(후렴)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느냐  
너를두고 가는나는 가고싶어 가나

(후렴)

○ 지도 민요1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7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맷돌가	『도서문화』5

응응응-어-영

내세상 언제 이런걸 안갈고  
밥에다먹고 쌀밥먹고 쌀밥먹고 쌀밥먹고  
조조방에 찢어서 쌀밥먹고 살거나  
나는 언제 놈같이 살어가지고  
농사지어서 기계돌린쌀방에 찢어서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안먹고 나도 놈과같이 살거나

응-응-응-으-응

○ 지도 민요1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8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금순(여, 52)	장구타령	『도서문화』5

열씨구절씨구 지화자종구나 아니놀고는 못살겠네  
 인간이별 만사중에 독수야 공방이 더욱허다  
 남아남아 왜죽었나  
 배가고파 죽었으면 밥을보고서 일어나오  
 목이메라 죽었으면 물을보고서나 일어나오  
 술이길어 죽었으면 양주장보고서 일어나오

○ 지도 민요1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9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박대담(남, 60)	탄토가	『도서문화』5

어저청춘 고운시절 엇그젠줄 알았드니  
 오날보니 늙었구나  
 검던머리 희어지고 곱던얼굴 주름지니  
 원수야 원수로구나  
 원수가 따로있드냐 백발이 모두다 원수란다  
 오난백발 내가한번 막을라고  
 한손에다 망치들고 또한손에다 절편들고  
 었어지고 뒤집어 또들어도 원수세월이 세월이라  
 세월아세월아 오지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늙어간다  
 또한 세월아 이내말을 들어라  
 젊은사람 늙지를말고 늙은사람은 죽지를말게

○ 지도 민요2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0	1986.10.31 -11.06.	지도읍 감정리	허경희, 이재창, 허준산, 장희, 최호정	김항복(남, 미상)	상여노래	『도서문화』5

자, 상뚫군들 관을 모십시다. (방에서)

(앞소리) (뒤소리)

태고 (태고)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복이나 (아니다)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복이나 (아니다)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복이나 (아니다)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꼭게꼭게나 (과남보살) 모십시다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과남보살) 태고 (태고)

\* 이제 운상을 해야지요. 자, 열두 상뚝군들 꼭게 모십시다.

과아나아암- 과아나아암- 보오살 과아나아암- 과아나아암- 보오살

어허 허어 허허

복망산천이 멀다고 하드니 건네 안산이 복망일세 그려

보아살

과아나아암 과아나아암- 보오살-

어허 허어 허허

인제 가면 언제 오실랴오 오만하니나 일러주쇼 그려

보아살

과아나아암 과아나아암- 보오살-

어허 허어 허허

나무아비타불 나무아비타불 극락세계 좋은 곳에 가십쇼 그라

보아살

과아나아암 과아나아암- 보오살-

어허 어허 어허어 어허녕 어가리녕차 어하녕

(어허 어허 어허어 어허녕 어가리녕차 어하녕)(후렴)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드나

(후렴)

날 두고 가신 님은 가고 싶어 가드나

(후렴)

북망산천이 멀다드니 건너 안산이 북망일세

(후렴)

명사십리 해당화야 니 꽃 진다고 서리마라

(후렴)

너는 피고 지건만은 명년 춘삼월레 다시 핀디

(후렴)

인생은 한 번 가게되면 다시 올 날이 정말없네

---

(후렴)

이팔청춘 수년배라 백박보고서 웃지마소

(후렴)

나도 어제 청춘이다 오늘날로 백발일세

(후렴)

진구명상 만장봉은 바람이 분다고 쓰러질까

(후렴)

송죽같이 곧으란 절개 내 맘 든다고 허락할까

(후렴)

과아나아암-과아나아암-보오살

과아나아암-과아나아암-보오살

태계(태계)

어허 어허 어허어 어허녕 어가리녕차 어하녕  
 (후렴)이제 가면 언제와요 오실 날짜나 일러다오  
 (후렴)  
 칠팔십 평생은 굶은 님이 이제 가면 언제올까  
 (후렴)  
 아베 아베 우리 아베 오실 날짜나 일러다오  
 (후렴)  
 열두 병풍 묶인 저 닭이 꼬끼오 울거든 오실라요  
 (후렴)  
 높고 높은 저 야산이 평지 되거든 오실라요  
 (후렴)  
 넓고 넓은 저 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후렴)  
 우두배 허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거든 오실라요  
 (후렴)  
 울지 울지 울지마라 내 죄야 실드라 울지마라  
 (후렴)

○ 지도 민요2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1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이봉률(남, 71) 김완수(남, 54)	달애	현지조사

#제보자의 삶

이봉률(남, 71)은 당촌2리 당촌마을 토박이 이고, 김완수(남, 54)는 당촌2리 당촌마을이 고향이지만 67년에 서울로 나갔다가 인제 들어온 지 불과 한 2년이 된다.

#달애(1)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촌마을에 장례를 치르지요? 밤달애라고 그러지요?] 밤달애? 지금

은 없어. 옛날에는 장작불 피 놓고, 3일 출상하든 다리를 치  
잖아. 근디 지금은 없어.

[그럼 고 얘기 좀 해주세요. 밤달애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죠?] 밤달애? 불을 피워놓고. 짚신삼고, 상두머리, 지풍 하  
고. 뚜든 거.

[짚신을 삼는다는 것은 짚신을 만든다는 거?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갖고, 인자 상여 나갈 때  
신고 나가제.

[이게 이튿날 밤이예요?] 그 날 밤부터 시작하제.

[돌아가신 날부터?] 위로한다고 3일간 잠을 안 자. 형제지간만 동네마을 사람들이 삼어주제. 그 계  
가 있어. 상두계가. 판 동네사람 신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짚신을 삼어갖고 준거야. 몇 대손,  
먼 성의라 해갖고.

[밤달애는 그럼 짚신을 삼으면서 뭐 하는 게 또 있어요?] 하는 거 없어. 그저 술 먹고, 위로 한다 그  
말이여. 3일 동안을 계속 달애를 해.

[달애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예요?] 유족을 위로한다 그 말이여. 초상집에서 누가 죽었잖아. 그럼 3  
일 동안 마을사람들이 우애를 해준 거여. 그 집 안에서, 어디 안 가고. 그래서 3일 출상이라는 것이 나  
온 거야. 지금은 없어.

[그러면 위로를 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은 짚신을 삼아주고?] 짚신 삼고, 술도 먹고, 돼이지도 잡고, 3  
일간 계속 거기서 음식을 먹어. 상여가 나갈 때까지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럼 소리도 해요?] 내일 나갈 거시기를 하제. 내일 나가든 소리를 어떻게 하자. 소리는 똑같은디  
똑같이 맞추자고.

[그럼 상여 나가기 전에 소리도 맞추고 해요?] 소리 맞출라고. 여러 사람이 한 게 똑같이 맞추자.

[그러면 상여에는 보통 몇 사람이?] 12상주잖아. 12명에다가 혼자 공 펴고.

[13명이요?] 13명. 얼른 말해서 12상주여.

[그럼 아까 짚신 삼아주고, 돼지고기 음식 장만해 갖고 먹고, 술도 먹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녁에 마  
을 사람들이 장만한 집에 모여서 노래도 하고 그런가요?] 여기는 노래라는 것이 없어. 그 상주노래. 어  
이 상여 나가는 소리. 소리 맞춘다 그 말이여. 나갈 때 서운하다고 소리 맞추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요새 상어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은 교회식으로 많이 하제.



<사진 1> 이봉률(남, 71)(06.07.13촬영)

[교회식이어도 3일 출상?] 3일 출상을 많이 하제. 3일 출상인디 교회식으로 많이 하제. 오늘 돌아가셨으면 모레하제.

### #달애(2)

[아까 그 밤달애 말씀해 주셨는데 돼지잡고, 술 마시면서 상주들을 즐겁게 해 주는 거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짚신도 삼아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령 소리도 하지 않아요?] 소리하제. 내일 나갈 소리. 그것이 달애여. 인자 다 하제. 장의사 가도 하잖아. 우리가 가믄.

[그러면 이튿날 저녁에? 그니까 상여 나가기 전날 밤에?] 오늘 돌아가셨어. 오늘 해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믄 오늘 저녁에 모여. 또 죽을 부락에서 쭈어 와. 밀죽. 다 그 옛날에 계가 있어. 밥해 올 사람은 밥해 오고, 죽 쭈 올 사람은 죽 쭈 오고, 떡해 올 사람은 떡해 오고. 그렇게 그때가 가난했다니까 마을이.

[계가 있어서 밀죽을 쭈 오면 또 다른 데서는 떡을 해 와요?] 그렇지, 품앗이. 떡은 안 해와. 죽만 쭈 와서 밥 먹어. 술도 갖고 올 사람은 갖고 오고. 술은 인사하러 절 한자리 할라고 술은 항시 갖고 다니고, 남자는. 여자는 죽 쭈 오고, 밥 해 오고 다 틀려요. 그니까 마을 잔치가 된거여.

[그니까 돌아가셨어, 저녁 때 모였어. 밀죽을 쭈 와서 저녁으로 먹었어.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먹은다니까. 이 사람이 오믄 많은 게, 손님 보고 한동 한동 두동으로 쭈 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쭈 오고.

[계속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사람은 모이지, 먹을 건 필요하지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음식을 해 오는 거죠?] 많이 와브믄 안되니까.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마을에서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저녁 밤에는 첫날밤에는 뭐 해요?] 죽쭈갖고 먹고, 신 삼고. 새끼 꺾고, 무더고. 나가는 상여소리 한단계. 그리고 일 없으믄 젊은 놈들은 씨름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팔대심도 하고 다 하제.

[신 삼는 것은 꼭 두 번째 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믄, 순번이 없어. 손이 많으믄 많이 삼고, 적으믄 조금 삼고 그래.

[신을 첫째 날도 할 수 있고, 둘째 날도 할 수 있고?] 상관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한께. 부족하믄 또 하고.

[아까 허리에 두르믄 것은 뭐예요?] 고것도 하제. 굴판. 새끼 꺾고 돌르고 땡기제.

[누가 그렇게 해요?] 동네사람들 다 하제. 근데 지금은 안 한다니까.

[그니까 짚신을 삼아서 유족들한테 신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것들 삼아서 동네사람들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에 한단계. 짚신 삼는 사람은 짚신 삼고, 그 맨든 사람은 거 맨들고. 그라고 방○ 질할 때는 상두건이라고 있잖아. 그러믄 옛날에는 산에 가믄 소나무 장작처럼 꺾어지고, 그것을 뭐라 하요? 청천재. 청천재를 불에 꼬실라갖고 덮었제. 옛날에는. 어쨌나믄 나무를 비어. 지금은 석관 아니

냐고? 그러든 나무를 비어갖고 그놈을 인자. 청천재. 그래갖고, 깔아갖고 덮어갖고. 이것이 안 까바지게. 덮어도.

[그러면요 신도 삼고해서 신계 하고 그거는 이해했는데, 소리도 하신다 했잖아요. 그거는 언제해요?] 그날 저녁부터 계속 한단께. 초상질할 때 하제. 상여 나갈 때. 상여 나갈 때 하지 그것은. 그라고 인자 우리가 달애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모태 갖고 거기서 맞춰 보제. 내일 나가기 위해서.

[그럼 전날 밤?] 나가기 위해서 맞춰 보제.

[전날 밤에 소리를 맞춰봐요?] 그러제. 맞추제.

[소리를 하면서? 뭘 맞춰요?] 발을 맞추고, 내일 나갈 것을 해서 상여소리를 하제. 널널 넘세. 뭐 한 식으로 나와서 한 식이제. 뭇을 넘자 한 식으로, 언제 만나자 한 식으로 인자.

[전날 밤에 상여소리를 하면서 발을 맞춘다 그것을 달애라고 그래요?] 달애라고 하드만. 그라고 장작 불 피워놓고. 지금은 장작불 없드만. 옛날에는 마당에다 장작불 피워놓고 했제. 막 3일 동안 피워놓고.

#### ○ 지도 민요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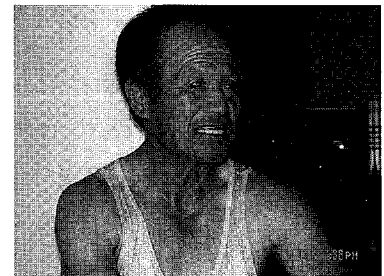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2	2006.07.13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이배(남, 82) 김인배(남, 66)	산다이, 고기잡으로 산을 올라갈 때 부 르는 소리	현지조사(김 인배씨 자택)

#### #제보자의 삶

김이배(남, 82)는 당촌2리 당촌마을의 토박이로서 염전이 100마지기, 소가 10마리 등이 있다. 김이배는 교회를 안가지만, 교회가 취미는 아니라고 한다. 아들이 장로이고, 며느리가 권사이다. 김인배(남, 66)는 현재 당촌2리 당촌마을의 토박이이다. 김인배는 성도이고, 부인은 권사이다. 김인배는 교회를 마음으로 다닌다고 한다.



〈사진 2〉 김이배(남, 82)(06.07.13촬영)



〈사진 3〉 김인배(남, 66)(06.07.13촬영)

#### #민요

[그러면 지금 김인배 할아버지는 배운 노래는 대개 어떤 거예요?] 나는 배우자네 그 양반들 한디를 같이 하고, 단가를 틀

어놓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르는 단가를 틀어놓으면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여. 그러믄 틀어보른 알아. 이~ 하다가 딱 나온단 말이여. 그러믄 한나까지 가드라. 하믄 여기 틀어보른 또 나와. 그러믄 그것을 듣고 해야 혀.

[그니까 한 것을 틀어놓고 따라했어요?] 따라 하다가 바빠서 할 수가 있어야 제.

[그래서 따라 배우신 것이 쑥대머리가 있고, 또?] 쑥대머리 인자 못허졌드만. 다 잊어브리. 육자배기도 겁나게. 쑥대머리 있고, 한평가 있고. 수심가도 있고.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 쑥대머리, 육자배기] 우리가 단가를 많이 했제. 요새는 이빨이 틀니 해버린 게 노래도 못하졌고. 다 빠져버린 게.

[동네어른 분들이 하셨던 거를 배우신 건데, 한 번 들려주시죠. 여기에 담아가게. 흥타령도 좋구요] 얼른 한다 해서 그것이 그래요. 할라 하믄 또 안나와 묘해.

[농부가도 좋고] 흥부가도 좋고.

[판소리도 좋구요. 또 민요도 좋고.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해 주세요. 또 소리는 하다보면 기억나고, 또 상황에 따라 가사를 지어내셔도 좋고] 이것이 술이 아니믄 못해, 노래라는 것은.

[술을 사왔어야 하는데] 아니, 술을 안 먹어. 간단하게 하제.

에~ 야 갈락거든 가거라

국재야 홀대야 아니다

의 심은 저기 저 여 우리 님을 실으거든 이 조차 실고서 가거라

이조차라는 것은 나를 실고 가거라 그 말이여. 같이 실고 가라 그 말이여. 이것이 서로 주고 받거니 흥이 있어야 나온다, 혼자 있으면 껍떡해갖고 안 나와. 속에 들어갖고. 한 번은 지도 각개나 나갔는디 저 경상도 사람이 왔드만. 하니 가보니 나보고 육자배기 잘 한다고, 하라고 해서 노인네들 좋아하디. 나 하라고만 하디, 대어섯이 앓아 갖고.

[지금 흥타령 하신 거죠? 그럼 또 이어서 가사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잊어브렀단게. 노래 안 나와.

[그러면 그 아까 쑥대머리, 육자배기, 단가 이런 거 있어요?] 쑥대머리도 다 잊어브렀는디 하다가. 쑥대머리라는 것이 장단이 3박인디, 참 어려운 것이여. 6박인디. 쑥대머리 조금만 할까?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의 찬 자리에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낭군 잔뜩 보고  
일장서를 내가 못 받는다

이것이 소리가 상당히 길어. 되고. 이것이 6박을 할란게, 단가 같은 것은 막 흘러간 노래처럼 한디 힘들어요.

[육자배기는 진양조로 좀 느리지요? 한 번 그것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알아야제. 춘향전도. 다 잊어 버렸는디.

[하실 수 있는 것만] 춘향전은 모르겠소.

[그럼 단가] 아까 그 단가 했고.

[아까 흥타령이요. 단가는 뭐예요?] 단가는 흥타령에다 조금 붙인 것이거든.

[흥타령에 원가를 붙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단가하고 흥타령하고 조금 틀리단 말이요. 다 잊어버렸어. 나이를 먹은게 다 잊어버려.

[단가하고 흥타령이 조금 틀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틀리죠?] 소리가 조금 틀리드만. 그 양반들 하는 소리가. 나는 안 해봤는디. 나는 단가나 흥타령이나 비슷한디, 육자배기 한 사람들 보든 틀리다 그 말이여.

[김이배 할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계속 사신 거죠?] 본토백이제. 여든 두 살 먹었던 게, 여기서. 여든 살이여라.

[그리고 김인배 할아버지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태어나셔서 결혼하시고?] 그러게 진도 가문 이런 거 잘 하드라고. 이것 할라든 진도를 가야 해. 나는 진도를 가르는 돈 100만원 갖고 가서, 한 서넛 이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오자. 그럼 가사를 다 알 수 있다. 첫째가 가사여.

[진도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배우고 싶은 거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배워요?] 안 가봐서 모르제. 지도 가문 회관 지어서 있다 하데. 텔레비에 나오드라고. 진도는 여자고, 남자고 맨 들 노래여. 그 전에 진도가든 발 메다가 남자가 지나 가든 노래 한 자리 해보쇼. 못하든 니 짤라브러라. 진도는 다 노래여. 말로 할래도 노래로 한다드만. 그 전에 동남씨 같은 사람도 목포 가서 배우고 그러드라고. 근디 지금 목포가 있다든 배우졌는디, 목포가 없어서 브렸어. 그런게 둘째 동생, 당촌 길남이 한 게. 그리고 테이프를 들고 같이 따라서 연습도 해야 한디 안 듣더란게. 나도 육자배기, 단가, 수십가,

청춘가, 2대째 있어. 테이프가.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교회간 게 그게 듣기가 힘들더만.

[할아버지 판소리 이런 쪽하고, 위에 동네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노래. 지금 흥타령도 좋았구요. 다른 것 또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있기가 있제.

[그러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산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구치고, 산다이.

[산다이한다 그래요? 산다이가 뭐죠?] 장구치고 평가평가. 옛날 말은 상을 뚜들기고 논단 말이거든.

[그럼 즐겁게 노는 것이 산다이예요?] 그 전에 산다이 하자. 술 한 잔 먹으면 그러지. 디스코 춤추는 산다이가 그 식이여. 평가평가 한거.

[그러면 내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가라오케라고 하는 것처럼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올 때 따라하는 거예요? 립싱크라고 하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또는 따라 부르는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 산다이예요?] 같이 노래 함시롱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소리하는 것? 그러면 이 마을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우들이 술 먹으면 산다이하자 하든 사람들 모태서 이렇고 딱딱딱딱.

[그리고 산다이하자라는 말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사용했어?] 그렇지 우들이 사용했제.

[그리고 따라서 할아버지도 놀 때 산다이하자 했었구요?] 그런게 잘한 게 하제. 또래끼리. 육자배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뭇이냐면 영감들 놀 때, 또 우리가 곳 보러 가서, 하고 그 사람 소리를 들어보고 머리에 담고. 그때는 따라함서 해도 틀려버리제, 그래서 테이프를 사다놓고 들어보르는, 인자 해본게 그렇다 그 말이여.

[그럼 판소리는 어른들이 곳 보러 갔을 때 많이 했어요?] 그랬제. 보통 같이 놀게 되든 노인장들이 놀든 소리 한자리씩 하제. 술 한 잔씩 했으면 놀고.

[젊은 사람은 안 하구요?] 사람 누가 안 하제.

[모임들이 놀 때, 또는 곳 보러 갔을 때 판소리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하제, 외동들이 어떻게.

[산다이라는 말 대신에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컸죠? 그럼 그 전에는 산다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그냥 놀자?]

놀자했제. 산다이 말은 안 했제. 산다이 말은 우들 때부터 산다이라 했어.

-재밋게 논 것 보고.

[여기서 그러면 산다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총각 때도 하셨어요? 장가 든 다음에도 했고? 주로 언제 해요? 명절 때?]

명절 때나 시안에, 한가할 때. 자 우리 산다이 하자.

[그럼 명절 때는 설, 추석, 제 명절 때니까요. 또요?]

추석하고 하룻달에나 정월 보름날에도 놀고. 시안에도 놀다가 술 한 잔씩 먹으면 노래 부르고. 지금 인게 일어제, 그 일은 맨 놀았지.

[초파일에도 놀아요? 초파일날은 어디서 놀아요?] 가정집에서.

[단오날도 놀아요?] 그 전에는 놀았는데 지금은 안 지내.

[그럼 지금처럼 설, 추석, 초파일, 단오 이럴 때 말고, 또 놀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안에 일 없을 때 회관에 가서.

[혹시 계모임도 많이 하시죠? 그 때도 놀고?] 계모임 가서 많이 놀제.

[그럼 초상났잖아요. 그때도 놀아요? 그럼 첫째 날? 3일장 치르면 첫째 날도 놀고, 둘째 날도 놀고, 셋째 날도 놀고. 논다는 것은 소리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상여소리제.

[어떻게 하죠? 상여소리?] 아이, 못혀.

[지금 사람은 안 죽었지만 저희는 배우러 다니는 것이니까. 어떻게 했나. 지금 대낮에 그거 하면 좀 이상하지만] \* 전에 조사 왔던 팀 이야기. 그 테이프 있더라고

[지금 있으세요?] 나는 없어. 상여소리 테이프가 있어.

[상여소리 지금 마을에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교회식으로 해버린 게 많이 안 해.

[상여소리 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그런게 지도 나가른 각개가른 그 것도 하라 한단계. 모임에 가른 야든 아홉, 90 될 사람인 게 죽어버렸제. 가른 뒤로 할 사람이 없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당촌리 성결교회. 당촌 사옥교회.

[그러니까 당촌 사옥 성결교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촌 사옥 성결교회가 한참 됐지요? 들어온 역사가?] 들어온 지가 한 50 몇 년 되겠는디?

[지금부터요?] 아니 짓은 지는 얼마 안 된다, 그 전에 동각철로 회관 있는 데가 있었어.

[당촌마을에 어디요?] 터 없애버렸제. 거기도 있었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옮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30년도 넘었제.

[지금 있는 교회로요? 그럼 50년 전에 생겼고, 30년 전에 새교회를 지었구요?] 40년이 되겠네. 웃 교회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밑에 교회는 한 4, 50년. 내가 16살 먹어서 인자 50년. 여 회관에서 지었는가? 거기 써 있제.

[초상 때도 하신다 했죠? 이 초상 때 상여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달 애한다고 하제.

[달애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인을 생각해서 잠 못 자게 하고, 놀아.

[상주들?] 상주들 잠 못 자게 하기 위해서 한 거여.

[그러면 잠이 오는데 어떻게 잠 못 자게 해요?] 울고 불고 하니, 잠 못 자게 눈물 닦음서 놀라서 전 부 달애한다고 하는 것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잠 오지 않게? 재밌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노래부르고.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 하고, 노래도 하고] 디스크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복대

[복대가 뭐예요?] 베 갖다 딱 펴놓고, 삼베 짜득이 잘 가라고.

[고풀이 한다 이거죠? 그럼 고풀이 하는 사람은 어디서 모셔와야지요?] 마을사람들이. 김갑배씨가 잘 했어.

[누구요?] 김갑배씨 돌아가셔서 브렸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되제. 한 20년 되겠소. 지금 뼈다구 밖에 없어.

[그러면 삼베 위에 뭘 이렇게 갖고 하셨어요?] 저기서 잡고, 상주한테 잡으라 하고.

[베를 상주하고 누가 잡아요?] 상주가 잡제.

[한 쪽?] 다. 한나로 잡아브러.

[상주들이 서로 잡고?] 돈도 놓고, 숫자 그려 놓고, 꽃 꺾어서 이렇게. 좋은 데로 가라고.

[그러면 상주는 베를 잡고, 마을사람들은 뭘 이렇게 움직여요?] 손으로.

[손에 뭘 건 없고? 손으로 이렇게?] 상주보고 돈 많이 벌고, 좋은데 가라고.

[그니까 마을사람들이 빈손으로, 손에 아무것도 없고?] 석작을 잡고 이리갔다 이리갔다 하제.

[베를 잡고?] 석작 있어. 요만한 것 있어. 그럼 이리고 쓸어내림서. 다 잊어브러났거든 어디가 뭐 어 찌고. 그럼 상주가 돈 다 가져가.

[그니까 석작을 밀고 다니면서 좋은 데로 가라? 이러면서 계속 민다 이거죠? 그렇게 하구요? 그날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요?] 상주 잠 못자게.

[그런데 거기서 놀이도 해요? 놀이라는 것은 소리 말고, 서로 이렇게 창극처럼 연극처럼] 그런 것은 안 해. 웃도 한번 놀고, 화투도 치고.

[그니까 놀이는 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눠서 드라마처럼 연기는 안 해요?] 안 해. 안 해.

[그니까 너 춘향이해라, 나 이도령 하겠다 그런 연극은 안 하고? 그냥 베 위에 좋은데 가라고 하면서 웃놀이도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걸 첫째 날도 하고, 둘째 날도 하고, 셋째 날도 하구요? 그 매일 그렇게 하구요? 알겠어요. 그럼 요때 소리하고 그럴 때 주로 어떤 노래를 많이 해요? 그것을 고틀이라 한다.

[고틀이를 할 때 소리를 하는 거죠?] 한 번 하든 주루루 나온다 안 한게.

[고틀이 할 때 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가사는 없는데 흥얼흥얼 하면서 하는 건가요?] 가사 있제, 근디 안 해본 게 모르겠단게. 가시거든 어찌고 허라 함시롱, 이쪽에서 한나 받아주고 그럼 뭐라 하고 다 잊어브러터. 복잡해.

[산다이, 또래끼리 놀자 그럴 때 어디 가서 놀아요?]

그냥 아무 집이나 앉으믄 놀제. 노인당 없었을 때

[노인들 없는 집에서?] 노인들, 우들 또래끼리 논제.

[집에서 또래끼리 하든 어른들께서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하제. 우리는 한 40살, 30살 먹었을 때 그렇게 영감들 눈에 보이제.

[할아버지가 3, 40대 그렇게 노셨어요?] 참말로 3, 40대는. 스무 살부터 놀았제.

[시끄럽다고 그러면 어디서 놀아요?] 그만하세, 끝나블제.

[어른이 뭐라고 하시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하면 그만 하구서 돌아가요? 다른 데로 옮겨가요?] 다른 데로 옮겨가서 놀기도 하고, 이웃집에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놀러갈 때 준비해 가는 거 있어요? 뭐 집에 놀을 때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럼 가서 놀다가? 그럼 음식을 막 내지 않나요?] 기름해 가꼬 닭이나 잡아다 놓고 뭘 사다가 놓고 하제

[그 주로 그때 먹었던 것이 뭐예요?] 소주나 닭이나 막걸리나

[그 고기도 넣어요?] 돼야지 고기도 있고, 뭐 광어도.

[아 돼지고기?] 지금은 뭐 지도 나가서 차차차 켈 거 많지, 돈만 있으믄. 자식들이 노인장 먹으라고 닭도 사다먹어.

[그러므로. 여긴 사육도 잘아요. 여기 주변에서 얻는 해산물 그런 것도 드시나요?] 그렇지.

[뭐요 그게?] 시래기 같은 거, 송어 그거 있고, 송어, 농어, 민어, 다 있제. 서대도 있고, 전어도 있고.

[전어? 송어, 농어, 민어, 장어. 또?] 뽕떡기. 뽕떡뽕떡한 기. 꽃기도 있고. 서툰기도 있고.

[이런 걸 또래끼리 모이면 이런 걸 술안주로 해서 밥 먹으면서?] 서로 품앗이 근게. 이 집서 먹고, 남의 집서 먹기도 하고.

[그러므로. 놀러올 때는 몇 시에 놀러 와요? 저녁 먹고 와요?] 저녁 먹고 갈 때도 있고. 저녁 때.

[와서 저녁을 먹어요? 와서 저녁을 먹고 논다 이거죠?] 저 옥에 집에서는 채나 많이 놀아서 하루에 국수를 세 번, 두 번 삶으니.

[그러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럼 국수 먹을 때도 있어요?] 장사가 온단계. 약 선전하러 와갖고 밀가리 큰 것을 1키로 씩 하나씩 쥐. 약 사라고.

[근데 이렇게 노실 때, 몇 명이 모여요? 또래끼리인데. 한두 명 모이진 안잖아요.]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더 모일 때도 있고, 덜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집에서 모인다면, 특별히 여러 번 놀다보면 더 재밌게 노는데.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노인장들은 없고. 노인장들이 애기들 놀론 좋다 하겠소?

[밤새워서 놀지는 않고, 와서 저녁 먹고 저녁 좀 늦게까지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 수요일에 교회가제.

[몇 시까지 놀아요?] 시안에는 시간이 없제.

[지금도 이렇게 노세요? 지금은 이렇게 안 노는데, 기억에 언제 정도까지 노셨던 것 같아요?] 40대.

[40대까지는 이렇게 노셨어요?] 한 40, 34세 때까지는 했죠.

[마흔 네 살, 마흔 셋. 요 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은 한 20년? 지금 예순 여섯이니까.] 한 30년 된다고 봐야제.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놀까요?] 나이 먹어블고, 놀 맛이 없제. 친구도 적고. 젊은이가 많이 있어야 놀제. 서로 싸움도 해고. 술 먹으믄.

[다투면서 재밌게 놀기도 했죠?] 사과도 하고. 그것이 친구요.

[싸울 때는 화나지만 또 화해하면 또 놀자고 하고. 근데요. 이렇게 노실 때 남자들만 모여요?] 여자는 없고. 교회 땡기느라 없단계.

[지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전에. 혹시 동네는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도 와서 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구요?] 없제.

[그럴때 없고 남자들만? 그럼 반대로 여자들 친구들도 이렇게 놀고 그랬어요? 그럼 여들끼리 놀 때는 남자친구들 오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이 마을은 진도처럼 예의를 지킨 게. 지금은 우들 밖에 몇 없어.

[여기서도 예의를 지키는 당촌 마을인데, 진도도 예의를 지켜요?] 아 없단계.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 2003년도에 진도 구경 다녀오신 이야기.

[그러면 아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 음식은 준비해가는 건 아니고, 그 집에 가면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 품앗이니까.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많이 했단계. 저 옥에 살 적에.

[김인배 할아버지 댁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랬제. 저그 집에서.

[어디서요?] 저그 저. 날마다 국수를 삶으라 한단 게, 그 때는. 곡식도 없은 게, 식구들 먹을 것도 없은 게 날마다 놀러온다 해도 밥을 많이 못해. 없은 게. 한참 때 여나무씩 모태 갖고 국수. 양이 안 차든 밥을 주라해. 그러믄 우리 술에 해놓은 밥을 딱 해서 해놓고. 이 마을 사람들 인심이 좋아.

[밥을 해주면 좋겠는데, 밥은 떨어졌고 국수를.] 흥년 들어갖고 곡식이 없제.

[그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국수를 삶아서 대접 했군요.] 여름에 들어와 국수는.

[이렇게 노시다가 다른 마을에 놀러간 적은 없었어요? 다른 마을에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가신 적 있으세요?] 거그 가서도 놀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놀았어요?] 놀러가제. 하여튼 그렇고. 계나, 계나 가믄 친구들끼리.

[계모임 할 때는 당연히 이웃마을에 갈 경우가 있을 거구요. 친구가 있어서 놀러간 경우는?] 드물제.

[가진 가는데? 그러나 계모임은 꼭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노시다보면 모임이 여러 개예요? 지금 3-40대 재밌게 20대에서 40대 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20대에 놀았어요. 그럼 30대에도 그 선배가 되겠죠? 마을에 선배 되는 형이나 선배들도 그런 또래끼리 모임이 또 있죠? 그러면 또래 그룹이 여러 개 있는 거네요? 나이별로 또래 산다이를 계속하는 거네요?]

수하들도 올 수도 있고.

[그니까 남여 간 함께 노래한 적은 없었고?] 함께 어울리지는 았애. 군민의 날 행사나 하믄 이장님이 차 대절해갖고 놀다가 차로 싣고 오고.

[그럼 또래끼리 노신 것은 한 40대까지 노신 거구요?] 그때까지 놀고는 그 뒤로는 안했어. 나이 들 어버린 게. 늙어서 술 먹고 돌아 댕기믄 하졌소? 그때는 막 술 먹고, 막걸리에 먹고 놀았제. 이 마을에 교회 다닌 게 술 먹은 사람이 드물어버려. 전부 거기다 열중한 게.

[그럼 또래끼리 모였을 때 어떤 노래 부르세요?] 유행가

[유행가면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그때 그 전에 이미자. 이미자 노래를 잘 불렀어. 그 때 이미자 노래가 유행했거든. 이미자가 우리보담 1살인가 더 먹을 것이네.

[그러면 이미자 노래 중에서도 조금 더 잘 부르시는 노래 곡목이 뭐예요? 동백아가씨? 또요?] 이미자 노래도 남인수 노래도, 부르고, 다 잊어브렸제.

[이 때 놀을 때 장단도 쳐요? 장구도 가져가고 그래요?] 장구는 없어. 상 뚜들고 산다이식 이여. 나 중에는 손뼉을 치제.

[이렇게 할 때 누가 처음 노래를 불러요?] 아무나. 주인네가 한 번 시작해 봐라 하믄 주인네가 하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고 같이 합쳐서도 하고.

[그러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순서를 정해놓고, 시계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고.

[근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번씩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주로 어떤 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번 돌리다가 술을 한 잔 하믄 합동.

[골고루 한 번 돌다가 나머지는 하고 싶은 사람끼리 아무나가?] 아무나 하제, 한 번에 다. 싫다고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노래하다보면 춤도 추게 되죠? 근데 이 혹시 노래를 하다보면 당연히 어깨를 들썩이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놀이로 넘어가나요? 가령, 야 우리 노래 많이 했으니까 들놀이하자, 아니면 다른 걸로? 술 마시면서 노래로 쪽 하고 헤어지겠어요? 놀이는 하지 않는 거죠?] 춤도 추고, 둥글둥글. 테이프 틀어놓고 디스코 춤도 추고. 화투도 하고, 화투를 하믄 그것이 다 나오제.

[그럼 노래를 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윗놀이하자, 화투를 치자 하면은 화투를 친다구요? 이때가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이렇게 놀았어요? 그니까 3-40대에 노래하다가 놀이도 하시고? 이때 놀이는 뭐해요?] 화투, 뽕, 육배, 삼뽕

[화투, 뽕, 육배, 또?] 고스톱 치다가.

[그때도 고스톱 있었어요?] 고스톱에다 그 스우친가 멋인가. 난 화투를 안 치는 사람인게.

[민화투?] 우리는 화투 안 친 게, 젊어서부터.

[이때 내기도 해요?] 그렇제. 술 먹기, 과자 먹기, 라면 삶아먹기, 닭 잡아먹기.

[그니까 내기를 하네요? 그때 돈을 낼 거 아니예요?] 먹기 위해서.

[지금 김이배 할아버지하고, 김인배 할아버지가 나이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노신 거죠?

내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기를 해요? 만약에 화투를 해서 그때그때 점 얼마씩 해요? 점 얼마씩 했어요? 보통]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국수를 산다 하든 돈 만원어치.

[거기에 맞게?] 국수에 맞게 딱.

[만약에 이번에 돈 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화투를 치는 거죠?] 글 안 하든 돈 모아서 먹자 그런 식이여.

[이렇게 해서 돈이 모아졌어요. 그럼 뭐를 먹어요? 술도 사오고? 닭도 사요?] 오리를 산다든지.

[오리요?] 그래서 먹고 이웃집에 안 가져와.

[닭, 술, 오리, 또?] 사이다, 맥주도 사고. 술 먹는 사람들인 게. 먹기 위해 하는 것인 게.

[안주는요?] 안두는 그것이란 게. 닭, 오리다.

[막걸리는요?] 막거리 안주는 병치 같은 거.

[그럼 막걸리도 사고, 병치 안주도 구입하는데 맥주 안주는 뭘로 해요?] 맥주 안주는 땅콩.

[소주는요?] 소주는 안주가 병치나 썰어서 초장 찍어먹는 것.

[막걸리를 먹을 때나 소주를 먹을 때나 마찬가지로?] 닭은 죽을 썰어서 한 번씩 먹을라고, 탕탕탕 좇아 갖고.

[그런데요. 한참 노래 하다보면 배가 출출하잖아요. 그 때 간식으로 또?] 또 국시 삶아먹제.

[국수 또 먹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3번 먹어요? 국수 삶아먹고, 배 고프니까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것도 씻어갖고, 삶아서 먹고.

[시금치는 어떻게 삶아먹어요?] 씻어서 삶아 디쳐 갖고, 막 무쳐 먹제. 그 전에 그랬어.

[시금치 삶아먹으면 맛있어요?] 좋제.

[시금치 말고 또 이렇게. 아주 생식을 하신 거네요?] 상추, 시금추.

[상추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된장. 초고추장에 버물려서 먹은 맛있어.

[뭐 먹을 때,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싸 먹제. 돼지고기 삼겹살 사다가 밥 먹을 때 상추 싸 먹은단게.

[그러면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 돈을 냈어요. 돈내기 말고, 서로 흥겹게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래로 해서 지면 노래를 더해라 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어, 서로.

[노래 내기로 벌주는 일은 없구요? 근데 이렇게 노시면 좋아요? 왜 좋아요?] 좋제. 시간도 모르고 재밌게 논게 좋제.

[재밌어요? 또 놀고 싶어요?] 인자는 다 늙어브렀제.

[그 당시에 또 놀고 싶어요? 재밌고, 떠 놀고 싶은데 같은 또래친구지만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있잖

아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안 한 사람은 빼버려. 올랐오고, 말람마라.

[근데 빼버리면 그 친구는 서운해 하지는 않아요?] 거가 참여 안 해버린단게. 혼자 빙빙 돌아.

[참여 안 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재껴 놓고 우리끼리 놀고 또 오면 어울려서 놀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김인배 할아버지가 예순여섯이죠? 근데 김이배 할아버지는 여든돌이시죠? 같은 마을에 사시면서 연세가 열여섯 차이가 나요. 열여섯이면 같이 놀지는 못하셨죠? 그러면 김이배 할아버지가 또래로 모셔서 노셨어요, 그 답에 김인배 할아버지가 노셨어요. 근데 열여섯 살 차이가 나지만 같이 어울려 놀자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애. 이녀 식구같이 지내.

[식구같이 지내는데 놀 때는 따로따로? 역시 합쳐서 놀지는 않고,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노셨는데 지금 안 하지만 한참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 20년 됐죠? 근데 옛날처럼 놀지는 않았지만 형태가 달라졌다고 할까? 가령 노래방을 간다든지.] 노인당을 지어갖고 장구 치고 한 번씩 논디, 그것도 서로가 다 하잖애 몇몇 사람 두서넛이만 한께.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사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저녁에 하루 쯤 놀아봤는디, 안 한게 하기가 싫어져버러.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한 서넛밖에 안돼. 셋도 썰데 없어.

[그럼 김이배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장론데, 김이배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시죠?] 안 가. 천당에 안 갈라고.

[근데 김인배 할아버지는 지금 계속 다니시는 거구요?] 교회서는 권사거든 권사.

[김인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자 두 달 다녔네. 세례 받아야제.

[전체가 아니고, 몇 사람만 서너 명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옛날과 달라요?] 사람이 여럿이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함시롱 한다.

[맞아요. 함께 모여서 신명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흥겨워져야지요.] \* 노래방, 유행가 이야기. 왜그냐면 그것이 더 점잖애. 이 유행가 같은 것은 너무 꼴보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 근디 육자배기나 단가나 할 때는 사람이 점잖거든.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행세를 한다 그 말이여.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을 지어서 장구치고 놀지만, 노는 사람만 놀아서 재미가 없다? 근데 옛날 재밌게 놀던 것이 또 다르게 바뀐 것이 있어요? 노인당에서 안 놀 경우는 계모임할 때는 밖에 나가서 노나요? 노래방에 가서 노나요? 그럼 어디로 주로 가서 노세요? 목포

[그니까 여기가 사옥도니까 송도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도읍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 뭐야.

[어디로 대개 노래방가요?] 지도로 가지 않애. 예를 들어 여행을 가든, 하루 코스를 가든. 예를 들어 지리산을 간다하든 그 근처에서 놀고, 산에도 올라가서 보고. 해남 대흥사를 간다하든 진도 수련장을 간다든지, 가을에 모이른 가거든.

[그니까 지리산에 가면 묵은 숙소 근처에 있는 노래방을 가는 거죠? 근데 노래방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는 곡이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곡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노래를 못 한 게. 그래도 가서 놀든 재밌게 가요.

[그 혹시 노래방에 가서 술만 먹지 않고, 혹시 도우미라고 해서 누구 불러서 재밌게 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한참 유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애. 요즘은 그러드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놀러갔고 같이 노래 하드만.

[놀러간 사람끼리 여전히 마이크 잡고 부르구요. 그러면 노래방 가면 한 시간에 얼마 하는데 한 시간 놀고, 또 한 번 놀고. 또 한 번 놀 때도 있어요?] 안 해. 한 번만.

[한 시간 정도 놀아요? 그럼 서비스로 시간 조금 더 넣어주기도 하죠? 그거 하고 딱 나와요?] 그런 게 얼른 와버리제. 돈이 많이 나온게.

[그럼 노래 나올 때 술도 시켜요?] 맥주를 시키는 노래가 나오제.

[맥주도 시키고, 음료수도 시키구요?] 한 상에 얼마 해버린다. 벌써 30-40명이 가버리면, 허허.

[이때 30-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모임이지요? 그럼 30-40명이 노래방 가서 한 곡도 못하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안 해.

[하는 사람만 하고 지켜보겠어요? 혹시 여기 주변에 놀 만한 좋은 산 있어요?] 앞에도 있제. 저기 가든 고성바우 돌레, 뒷산 사람이 해수욕장 만든다 하데, 셋이.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있어요? 이 근처에?] 아니, 현재는 없는데 어디를 막으면 모래가 흘러가지 않애 고인 다 하드만. 서울 사는 사람이 샀어. 셋이 합자드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동안 살아오시면서 집에서만 놀지 않고. 강, 모래가 있는데 가서 놀거나 산에 가서 논 적 있으세요?] 산에 가서 놀았어. 요 뒷산에 놀았제.

[뒷산은 이름이 뭐예요? 그냥 뒷산이라고?] 당산이라고, 유산봉. 헬리콥터 앞으라고 다 만들어놴어.

[여기가 헬리콥터장이 있지요?] 저 옥에 당산 옥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

[유산봉에 가서서 노셨어요? 거기 가서도 집에서 노신 것처럼 노신 적 있어요?] 술 갖고 가서 거기 앉아서. 젊어서.

[집에서 노는 거하고, 산에 가서 노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산이 더 재밌긴 하제. 내 맘대로.

[그럼 이때 마음대로 노니까 좋으신데, 이때도 역시 남자들 또래 친구끼리만?] 그러제.

[몇 명 정도 가요?]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금 갈 때도 있고 그러제.

[많이 갈 때는 몇 명이?] 한 일곱, 여덟 명

[적게 갈 때는?] 대 여섯 명. 근디 그때는 참말로 무서운 것이 없제. 젊은게.

[그럼 요때요, 노래를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놀러 올라갔제.

[나무를 하지는 않구요?] 나무하러 가기도 하제. 지계통발 뚝뚝시로 노래도 부르고

[이때 목발 뚝뚝기면서 노래 할 때도 있고? 이때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해요?] 보통 부른다는 것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제가 그런 걸 들으러 왔어요. 그거는 저희들 못 배우니까.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거, 산에 가서 흥겹게 놀았던 거 하나 해 주세요.] 나는 지계를 안 지고, 그물 한개. 그물 감음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이고 다리야

고기나 많이 걸려라

큰거 많이 걸리면

와따 많았다 뚱뚱뚱뚱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재밌어요. 또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지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갖고, 고기를 지른 요놈을

어찌고 갖고 갈끄나

아이고 무거와라

아이고 무거와라

나 죽겠다 살자가자 잘가자

혼자 땡개.

[혹시 김인배 할아버지 역시 산에 가서 놀 때 생각나는 거, 흥얼흥얼 이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안 했은게.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 모르죠? 산에 가서] 산에 가서는 유행가 하고 놀았제.

[그런 거 한 번 해주세요.] 다 잊어버렸네.

[그럼 산에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툭툭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지게 지고 가거든? 놈의 경운기 안 타. 나 혼자 그물지게 지고 감서, 짝대기 통발 뚫들서.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그럼 아까 하셨던 올라간다 올라간다 가사 좀 한 번 알려주세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 다리가 아프다도 올라간다

고기나 많이 걸려라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해주셨던 거] 인자 고기 잡아서 올 때.

[이건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하는 소리고, 그물에 갈 때에. 고기 잡으러. 짝대기로 또장또장 빈지겐게.

[근데 산에 갈 때는 지게를 지고 가는 건데요?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지게를 지고 가요?] 그러제. 지게 지고 간 게.

[그니까 산에 갈 때는 나무하러 가니까 지게를 지고 가는 건데] 산 넘어 간단게, 올때도 산에서 오고.

[그럼 고기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짝대기로 뚫들서, 너구리가 또 많이 먹거든

너굴아 너굴아

내 고기 먹지마라

사람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해주신 거를요. 제가 잔소리 안할게요.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갈 때를 다시 소리해 주시고, 이거 끝나면 고기 잡으러 갈 때 한 번 해 주세요.] 나무하러 안 간단게. 고기 잡으러 가지.

[앞에 그럼 올라 간다 올라 간다도 고기 잡으러 갈 때?] 나무는 안 해.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갈 때 지게를 지고 갔었어요?] 남의 경운기는 안 타. 자기가 지고 갔다 지고 온 게. 고기 잡아 지고 온 게.

[그럼 그것 좀 해 주세요] 올라갈 때 너구리가 흠에 걸리든 막 주워 먹겠는가. 산에다 송어를 물어 놔. 너구리가 먹을라고.

[할아버지 그러면 고기 잡으러 지계를 지고 가는 거, 산에 오를 때. 또 올 때 아까 그거 똑같이 해주 세요.] 그런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짝대기로 장단 때려. 장구 뚜든 것처럼. 그러든 또 고사리 꺾는 사람이 거기 있드만. 아저씨 뿔하러 노래 부르요, 너구리 고기 못 먹게 노래 부르고 간다고. 하나 잡아다 내 고기 먹지마쇼 그리고 또 내려와.

[할아버지 그럼 아까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이고 다리는 아프단 말은

내가 고기잡을란게 올라간다.

[할아버지 오실 때]

아이고 무거와라 아이고 무거와라 무건께. 겁나게 멀어.

[그러면서 너굴아 너굴아, 그것도 해주세요]

너굴아 너굴아

내 고기 한두 개만 먹어라

많이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오시는 거죠? 짝대기 두들기면서? 아주 재밌는 거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노신 거 죠? 이 산에서도 지금 노셨다고 했고, 산에는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겨울도 있고. 언제 올라가 십니까?]

[근데 지금 볼 때 남자들도 끼리끼리 놀고, 여자들도 끼리끼리 노는데. 여자가 더 많이 놀은 것 같애 요? 남자가 더 많이 놀은 것 같애요?] 남자들이 더 많이 놀제. 여자들은 시집 간게 더 적제. 암만해도. 첫판에는 여자들이 많이 놀았제. 근디 무장 가정에 일이 바쁜 게. 밭을 메네, 풀을 메네, 놀 시간이 없어.

[돌아볼 때에 남자들이 더 많이 노는 것 같고, 여자들이 좀 덜 노는 이유는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밭일을 한 게. 풀 메제. 집도 비워놓으면 다 풀 돌아. 날마다 밭으로 짓으러 대니제, 깡통지고.

[혹시 여자들이 밭 매면서 부르는 소리 같은 거] 그것은 못 들어봤어. 한 띠도 안 지나간 게.

[그러면요. 여자들은 밭 매지만 남자는 논일을 하잖아요. 그 논일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있죠? 상사 소리. 그 노래를 뭐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줄 치고, 손으로 모심어서 했는디. 지금은 기계 생겨본게 둘이 해브러. 뭘 소리 안해. 옛날에는 줄 끼고, 어야디아 이뽀이 심기고, 저뽀이 가시하고(?) 한다. 지금은 승용차, 타고 다님서 숨겨브런게 둘이 한단계. 아무소리 앓고.

[산에서 산다이 할 때 어떠세요? 산에서는 계절별로 하면 어느 계절에 많이 올라가세요?] 시안에 많이 놀제.

[시안에? 겨울인데 두요? 날씨가 조금 좋을 때? 그니까 시안이지만 날씨가 조금 좋을 때, 산에 가서?] 지금은 산에 갈 수가 없어. 째째해서 못가. 나도 뽀이지만 낮으로 비어.

[그럼 왜 산에서 산다이를 해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산에서 하는게 더 자유로우니까/. 아니면 나무하기 위해서 가다보니까?] 노래 올라가서 한 번 놀아보자

[그럼 나무하기 위해서 가다보니까 노래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렇지,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집에서는 또래끼리 했는데, 산에 갈 때는 또래끼리만 가요? 아니면 산이니까] 또래도 있고, 또래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집에서 나이차이가 있어도 놀 것 아니예요?] 놀제, 만날 수 있제.

[산에 갈 때는 꼭 나이가 있는 사람끼리 간다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집에서 또래끼리 놀기도 하겠지만] 집에서 놀 때도 소하자 올 수도 있고, 경길이가 따라 뽀였어.

[또래끼리 놀기도 하겠지만 나이차이가 있는 선후배끼리도 하겠어요? 혹시 산다이, 또래끼리 집에서 놀고, 산에도 가는데 서로 여섯, 일곱 명이 모이면 하나의 패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별명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래패, 민요패. 그런 건 없구요? 별명을 짓지는 않구요? 그 리구요. 이때 산에 가자 주둥, 나셔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냥 여기저기 가자자 하면 따라서 좋다 하구요? 근데 주둥자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마을에서는 누가 주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저씨가요? 할아버지가? 누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근디 지금은 산에 가자해도 못 간단게. 째째해갖고. 길이 없어.

[이때 집에서 그렇게 노는데, 산에 올라갈 때도. 집에서 한 일고여덟 명 논다면, 산에 갈 때는 더

적거나 비슷한 인원이 가요?]

적제. 적어.

[산에 가면 주로 어디서 놀아요? 산등성이? 아니면 평평한 곳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 위에서 놀아요?] 낙바우라고 거 앉아서 놀았어.

[요때도 남자끼리만 간다 그랬죠? 근데 이때 나무만 하지 않고, 소도 데리고 가요? 나무하러 갈 때 소도 데리고 가요?] 아니 깔. 풀 먹으라고. 지금은 모두 사료주고, 묶어다 준디 산에 갈 필요가 없어.

[산에 가서 당연히 배고프니까 음식을 좀 해가겠어요? 그러면 누가 해가요?] 추렴해 갖고 가져가지.

[그럼 추렴해갖고 사가지고 가겠어요? 그럼 사가는 것은 대개 아까 얘기했던 술이나 안주?] 산에 간디 많이 갖고 가졌어?

[가서 노래를 부르죠? 당연히. 노래 부를 땐 아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산이기 때문에 다른 노래 있지 않나요?] 있기가 하제.

[어떤 노래요? 아까처럼] 난 항상 땡긴 유행부르고 그러제.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이 때 유행가 불렀어요? 아까처럼 판소리 같은 것은 안하고? 이 때 산에 가서도 놀이를 했어요? 윗놀이 그런 거, 화투도 가져가세요?] 노리살이도 하고 그랬어. 코틀어잡기, 올라가서. 한사람이 한사람을 잡으믄 다 엎져, 뒤로. 그래갖고 올라타.

[등타기? 등타기라 그래요?] 그리고 종우때기에다가 장기판도 대갖고 장기도 한 번씩 두고. 윗놀로도 하고, 화투 갖고 와서 화투도 한 번씩 치고.

[할아버지 두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조금 아까 등타기도 하고, 장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뭐 하자 뭐하자 그래서 한거예요?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 또래, 또 할아버지 또래끼리는 함께 모여서 논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쪽마을하고 저쪽마을 노래패하고 겨룬 적이 있어요? 야 우리 마을이 잘 논다.] 없어.

신안의 달애”는 ‘달애한다’고 한다. 동네사람들이 상주가 잠을 못자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마을 사람들이 장작불(→연탄불)를 펴고, 이야기, 노래, 춤도 추고, 베를 펴고 곶풀이를 하는 것이다. 고 김갑배(돌아가신 지 20년 됨)가 했는데 베를 상주들이 잡으면 마을사람들이 석작을 밀고 다니면서 좋은 데로 가라고 한다. 놀이(윗, 화투)를 하지만, 역할극은 안한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

1) <신안민요> (<밤달애 노래(362-365) CD · 10-1 신안 밤달애 노래>). 『한국민요대전 2 전라남도 편-전라남도민요해설집』, MBC, 1993)

지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표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산다이는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것	#우리 때 산다이라고 했음, 그 전에 놀자고 했음
2	시기	시한(날씨가 좋을 때) #20-40대	#사람이 죽었을 때 '달애' 함. 이때 이야기·노래·춤을 추나 역할극은 안함
3	준비과정	#와서 저녁 먹고 늙(닭, 소주, 막걸이, 돼지고기, 송어, 농어, 민어, 전어, 장어, 빨떡기, 꽃게) #돌아가면서 집에서 음식을 채려줌	
4	#향유계층과 구성	#또래끼리(남자만들, 여자만들) #노래내기는 벌주는 일이 없고, 마을간 노래경쟁은 안함	나이별로 또래 산다이가 있음
5	연행양상	#마을간 원정하기도 하지만 드름(계모임으로 감) #한번 돌리다가 아무나가 함, 손뼉치고 늙, 보통 7-8명, 노래하다가 춤도 춤 #고기잡으러 산을 올라갈 때 부르는 소리, 유행가(이미자, 남인수 등)	#지금은 노인당, 노래방에 감 "육자백이 노래방이 있었으면....."
6	기능	마음대로 노니까 재미있음	
7	놀이의 변화과정	화투도 침.산에서 등타기, 장기, 윗놀이, 화투도 함	
8	연행장소(산)	집, 산(뒷산=당산=류산봉)	
9	#신앙	김인배는 교회를 마음으로 다닌다고 함, 김인배는 교회가 취미는 아니라고 함	

○ 지도 민요2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3	2006.08.23	지도읍 태천1구	홍순일, 김현주	김종양(남, 73)	청춘가	현지조사

#제보자의 삶

김종양(남, 73)은 지도읍 태천1구의 토박이다. 중3 때 화순경찰로 1년 반 공직을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5년 전에 집에 왔다. 아버지는 5형제 중 셋째이고, 제보자는 3형제 중 큰 아들이며, 제보자는 아들3 딸6을 두었다. 이 200년된 당산나무가 있는 태천마을은 현재 115호



<사진 4> 김종양(남, 73)(06.08.23촬영)

로 성씨 20여 개 중에서 김, 조, 주 삼문을 중심으로 단합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 그 그늘 밑에 정, 강, 최, 박, 오씨가 있지만 말이다. 마을의 생업은 논농사, 양파, 마늘, 깨, 콩 등이고, 김경재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특별이 난 것이 없는 편이다.

#### #민요

첫째, 노동요이다. 고 김정규가 모심는 소리를 했다.

둘째, 의식요이다. 상여소리는 고 김종신(김종양의 사촌동생임)이 했고, 주재담(남, 68-9)이 한다. 주씨가 상을 당하면 김씨가, 김씨가 상을 당하면 주씨가 소리를 해준다. 집안보다 이웃이 먼저 와서 본다. 단합하여(뭉쳐서) 보기 좋다.

집 나갈 때 가남보살을 하다가, 길 갈 때 댕소리를 하다가, 산에 묘를 쓸 때 가남보살을 한다. 봉분을 만들 때 소리없이 지게로 흙을 지어다 나른다.

태천마을은 6개조를 운영하는 상두계를 두고 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감을병정무기가 바로 그것이다. 6명이 들어가 태고 세 번 하고 관을 든다. 상조인원은 열두 상두꾼, 간사 2명, 책임자 1명 등 15명이다. 간사는 상두꾼 12명이 모이게 하는 일을 맡는다.

셋째, 유희요이다. 고 김정규, 고 조춘행 등이 육자백이, 진도아리랑을 잘 했다. 청춘가, 육자백이, 유행가 등을 하는데 육자백이는 어려워져 진도사람이나 한다. 청춘가는 세월아~ 하는 것이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등이 재미있는데 다 잊어버렸다. 노래는 술을 먹어야 받은 미쳐야 하는 것이다.

#### #판소리

단가는 판소리 또는 육자백이와 같은데 짧고 받고 주는 것이다. 즉 단가는 고달프지 않게 교대로 하는 것이다.

### 3) 지도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시대상황면에서 신안군 지도의 구비전승자원은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획력에 따라 시가 무가 융합된 이야기의 노래를 디지털방식에 의해 기록영상화하는 동시에 연행론적 공연방법에 의해 '현장의 현재적 상황'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지역에서 세계로'의 문화전략상 연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문화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강의교재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항목의 연희적 가치를, 구성원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이렇다. 조사의 주체(조사자, 관련기관)는 홍순일(김현주·최유미)·도서문화연구소와 신안군이다. 조사기간은 2006년 1월-6월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사대상(조사지역, 제보자)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및 부속도서인데 지도읍은 내양 6개리, 봉리 6개리, 어의 2개리, 감정 5개리, 읍내 3개리, 광정 5개리, 자동 4개리, 태천 4개리, 탄동 2개리, 당촌 2개리, 선도 4개리 등이다.

조사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신안군 지도읍 및 부속도서 편》<민속·구비전승>의 목록, 해설,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서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자원 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구비전승물 중 설화, 민요 등을 주제로 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설화를 중심으로 설화 연행자의 생애, 설화사회, 이야기공동체 등과 민요를 중심으로 민요 소리꾼의 생애, 민요사회, 노래공동체 등이다.

조사는 문헌·현지조사방법에 따라 지도 지역이 이루어졌다. 지도읍의 경우 『도서문화』5의 설화·민요(허경희 외)를 문헌조사했다. 조사는 보고(개발, 활용)의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이전 조사 및 자원화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허경희·이준곤,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2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1-압해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62-192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3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2-비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05-158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4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흑산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02-172쪽.

#이경엽, 「III.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5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도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5.10, 89-219쪽.

#이경엽, 「III.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6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안좌·팔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5.10, 88-250쪽과 285-342쪽.

이러한 조사결과는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청·도서민인 제보자에 의해 [해양·도서·연안]문화의 자체를 조사 및 자원화할 뿐만 아니라 도서민이 해양에서 연안을 오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조사함에 따라 [강·마을·산]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상황면에서 신안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 당산나무 이야기, 정서를 표현하는 이야기, 당산제를 지내는 이야기, 교회공동체 이야기 등이 있다. 특히 지도사람들의 경우

가령, 당산나무 이야기는 비일상화하는 지도사람들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다.

신안사람들이 구연하는 삶의 노래는 노래문화로서 산다이(상례 중 달애),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소리꾼, 새우잡이노래 속에서 인생의 진솔한 표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도읍의 경우 민속의 신앙면에서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한다. 가령, 이봉률(남, 71), 김완수(남, 54) 중심의 당촌리2구 당촌마을이 바로 그것이다. 의례면에서 상례 중 달래를 중심으로 노래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할 수 있다. 김이배(남, 82), 김인배(남, 66, 남) 중심의 당촌리 2구 당촌마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작업은 민속의 관점에서 자연중심의 적응성이, 생태로 나아가는 생명성이, 바다로 나아가려는 의식이, 개방을 추구하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자연적 적응성, 생태적 생명성, 진취적 의식성, 개방적 다양성을 지닌 도서·해양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길과 통한다고 하겠다.

#### ■ 부록: 지도의 설화와 민요에 대한 사진목록 및 표 목록

##### (1) 사진목록

###### ○ 지도민요 사진목록

<사진 1> 당촌리 2구 당촌마을 이봉률(남, 71) (06.07.13촬영)

<사진 2> 당촌리 2구 당촌마을 김이배(남, 82) (06.07.13촬영)

<사진 3> 당촌리 2구 당촌마을 김인배(남, 66) (06.07.13촬영)

<사진 4> 태천리 1구 태천마을 김종양(남, 73) (06.08.23촬영)

##### (2) 표목록

<표 1> 지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김이배(남, 82), 김인배(남, 66)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민속신앙	당제	당제	지도읍 탄동리 당제	1999.3.1 2002.3.5	도서문화
			광정리 광정마을 당제	"	
			읍내리 동촌(동아실) 서촌마을 당제	"	
			자동리 자동마을 당제	"	
			탄동 2구 원달마을 당제	"	
			태천리 태천마을 당제(산제)	"	
		당제와 장승	지도읍 당촌리 후촌마을 할머니·할아버지 장승	1986.7.16	
			자동리지서마을 당할매·당하나씨입석	1986.7.14	
			탄동리열개마을 당할머니입석과 살땀이입석	1986.7.15	
		달집태우기	지도읍 달집태우기	2003.2.15	
민속의례	수산의례	배서낭	송도(솔섬)의 배서낭	2006.8.26	
			참도(참섬)의 각시서낭	"	
	우실	우실	지도읍 태천리 우실	"	
세시풍속	월별풍속	송도마을	정월(설, 정초, 대보름)	"	
			이월(2월1일, 월중)	1986.7.16	
			삼월(삼짇날, 한식청명)	"	
			사월(초파일 등)	"	
			오월,유월,칠월(단오,유두,칠석,백중)	"	
			팔월(추석, 월중)	"	
			구월(중구 등)	"	
			시월(떡달 등)	"	
			십일월(동짓날 등)	"	
			십이월	"	
통과의례	출산의례	출산	기자	"	
			임신	"	
			출산	"	
			산후의례	"	
	혼례	혼례	의혼	"	
			혼례식	"	
			신행	"	
	상례	상례	입종	"	
			습염	"	
			치장	"	
			흉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초분, 애장	"	
	제례	제례	기제	"	
			묘제	"	
가신신앙	가신신앙	성주	성주	"	
		성주신앙	조상단지, 불그릇, 조상독, 성주동우, 성주단지	"	
		조왕신앙	조왕, 조왕단지, 조왕보세기, 조왕보상, 조왕할머니	"	
		시주	시주	"	
무속신앙	무속인	보살	양진찬보살과 정진스님의 사례	"	
	민간의료	민간의료	민간의료	"	
유형문화	의생활	개관	의생활에 대한 설명	"	
		평상복 외	남자, 여자의 평상복, 작업복, 외출복	"	
		초분신	초분신 만드는 법	"	
		의례복	출산복	"	
			유아복	"	
			혼례복	"	
			상복	"	
			수의	"	
			바느질	"	
		바느질, 빨래	빨래, 다듬이질	"	
			염색	"	
		방적	베짜기	"	
			미영베의 종류	"	
			미영베의 세탁	"	
	식생활	일상식	밥, 죽, 김치 등	"	
		저장식품	간장, 된장 등	"	
	의례식	제례음식	청주 등	"	
		명절음식	설, 추석 등	"	
		혼례음식	첫날밤 상 등	"	
		가양주	청주, 막걸리 등	"	
	향토음식	향토음식	낙지국수, 가오리회, 밀개떡, 밀문지, 송편떡, 꽃게	"	
	주생활	안채	큰방	"	
			정재(부엌)	"	
			광	"	
			대청	"	
			모방(작은방)	"	
			정지방	"	
		부속채	사랑방	"	
			외양간	"	
			칙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방앗간	"	
	기타	기타	모구부채	"	
			두데(거적)	"	
	가옥사례	가옥사례	지도읍 감정리 금출마을 이부근 가옥	"	신안군의 문화유적
			지도읍 감정리 조비마을 양희중 가옥	"	
			지도읍 내양리 둔곡마을 김득수 가옥	"	
			지도읍 탄동리 탄동마을 전덕산 가옥	"	
			지도읍 당촌리 당촌마을 김성섭 가옥	"	
			지도읍 당촌리 당촌마을 조정남 가옥	"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 (1) 당제

#### ① 지도읍 탄동리 당제

탄동1구는 섬 안의 마을이지만 바다와는 별 관계없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곳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당제를 모시고 있다. 당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뒷산의 상당과 마을 앞 하당 그리고 ‘살땀이’ 입석(3기)이다. 제사의 전체 순서는 먼저 상당제를 지낸 후 하당제를 지내고 이어 ‘살땀이독’ 앞에 음식을 간단히 차려 놓는 순으로 진행된다.

상당은 돌담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상당은 2번의 개축이 있었는데, 1980년 3월에 돌담만으로 된 당에 스펀트 지붕을 얹어 당옥을 지었던 것이 첫 번째고, 7-8년 전에 다시 지붕을 얹어 돌담당으로 복원한 것이 두 번째 개축이었다. 지붕을 얹었던 이유는 정월달의 추운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것을 헐고 돌담으로 복원한 것은 지붕을 얹어 당을 개축한 것이 마을에 해롭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당 안에는 높이 40cm, 30cm 크기의 입석이 모셔져 있다. 이 입석은 ‘당할머니’라고 지칭되는 당신(堂神)의 신체다. 이 당할머니는 이 마을 당제의 주신(主神)이다. 그런데 ‘할머니 있으면 영감이 있는 법이다.’는 식의 해석에 의해 실제 제의에서는 양위로 섬겨진다. 그리고 하당은 마을 앞에 있는 쥐엄나무를 지칭하며, 특별한 신격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살땀이 입석은 3기가 있는데, 1기는 쥐엄나무 곁에 있고, 나머지는 마을 윗길과 아랫길에 각각 1기씩 서 있다.

한편 이 마을 당에 대해, 주민들은 ‘인근 당말[堂村] 당산이 높고 시다. 거기서 띠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당촌리 당이 본당이고 거기에서 분가해온 당이 탄동리 당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어쩌면 주민들의 이주 내력을 전하는 구전인지도 모르겠다.

이 마을에는 당제 관련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동중계안’, ‘탄동리동중문서철(灘洞里洞中文書綴)’, ‘동중희사기 금고(洞中喜捨記 金鼓) 준창’, ‘금고부(金鼓簿)’ 등의 문서들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당제 축문이나, 예산 내역, 주민들의 기금 출연 내역, 금고 결성 시의 예산 내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서들은 이 마을 당제의 전통성과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제사를 모시는 제관은 두 사람이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보아 당제 5일 전에 선정한다. 그 중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며, 나머지 한 명은 전년도의 제관 중에서 선정한다. 이들을 각각 ‘신공원(新公員)’ 과 ‘구공원’으로 지칭하는데, 1999년도에는 방금중(남, 59)과 전덕산(남)이 그 역할을 맡았다.

공원으로 선정되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제물은 주·과·포로 준비하며, 신공원이 지도읍에 나가 구입해 온다. 제사 비용은, 과거에는 동제답이 있어 그 농사를 지은 공원이 소출 중 일부로 지출했으나 지금은 약간씩의 돈을 건어서 충당한다. 동제답은 얼마 전 경지정리를 할 때 규정 평수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공 용지로 흡수되었다. 이 논의 있을 때에는 제관으로 고생한 대가가 어느 정도 주어졌으므로 제관을 하려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제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정월 14일(1999년에는 양력 3월 1일) 저녁 8시 무렵에 김성호씨가 축문을 썼는데, 그 전부터 마을에 내려오는 축문 양식에 달라진 간지와 제관 이름만을 바꾸어 작성하였다. 한편 제관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 옆에 한글을 병기하여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한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새로 생겨난 현상이다. 이 축문은 11시 무렵에 신공원이 와서 받아갔다.

제사는, 11시45분 무렵 신공원 부부와 구공원이 신공원 집에서 제물과 제기, 풍물[농악기]을 들고 상당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상당에 오르자마자 진설을 시작하여 12시 10분 경에 제사가 시작됐는데, 절차는 헌작과 재배, 독축, 소지 순으로 진행됐다. 소지는 동네의 평안을 비는 ‘동네소지’와 집집마다의 평안과 재수를 비는 ‘가정소지’를 올리며, 올해(1999년) 당제의 경우 가정소지가 26장이었다. 이 중에서 16명은 따로 소지 종이를 사와서 제관에게 소지를 부탁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소지를 올리는 도중에 5분 정도 풍물을 연주했다. 팽과리는 구공원이 치고 장구는 신공원의 부인이 치고 징은 조사자가 쳤다. 이렇게 풍물을 치는 이유는 마을에 상당제가 거의 끝났음을 알려 가정에서 대보름 차례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계속 소지를 올리고 12시 46분경 철상을 한 뒤 바로 하산 준비를 하였다. 하산을 시작하기 전 징을 세 번 쳤는데 이는 상당제가 끝나고 하산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다.

12시 53분 신공원 집으로 돌아와 하당제에 쓸 메를 준비했다. 메를 준비하는 도중에 간단히 음복하고 휴식을 취했다. 오전 1시 31분 하당제에 쓸 제물과 제기를 들고 마을 앞 하당으로 이동했다. 이어 곧바로 진설하여 1시 46분부터 헌작과 재배 순으로 간단히 제를 모신 후 51분 무렵에 제사를 마치고 바로 철상했다.

하당제를 마치고 다시 신공원 집으로 돌아온 후, 살땃이독으로 가서 간단히 헌식을 했다. 먼저 옷길에 있는 살땃이독으로 가고 이어 아랫길에 있는 살땃이독에 헌식을 했다. 여기서의 제의는 진설하고 술을 붓고 음식을 던져주는 식의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당제를 마친 보름날 아침이면, 몇 해 전까지는 동중회의를 하고 금고[농악]를 연주하며 마당밧이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과거만큼 성대하게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마을 어른들 몇이 신공원 집에 모여 음복을 하고, 당제 결산 회의를 하며, 기회가 되면 마당밧이를 하는 식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올해의 경우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마당밧이를 하지 않았다.

이 마을의 당제는 얼마 전에 비해서는 활력을 많이 잃었으나 지금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제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 마을의 전통이기도 한데, 당제 관련 문서들에 주민들이 협심하여 당제나 매구를 전승해 왔던 내력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의 전승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980년 이후로 상당을 두 번 개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제가 과거의 잔존이 아니라 현재 작용하는 문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에 교회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들이 교회의 영향으로 당을 폐쇄하고 당제를 지내지 않는 것에 비교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과거만큼 신명나는 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당제를 전승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김성호(남, 62), 방금중(남, 59)

## ② 광정리 광정마을 당제

광정마을은 두군데에 당이 있다. 그 한 곳은 ‘하나씨당산’ 또는 ‘할아버지당’으로 불리고 남은 한 곳은 ‘할매당’ ‘할머니당산’으로 불리우고 있다. 하나씨당산은 마을북쪽으로 200m 떨어진 봉황산의 지맥인 꽃봉산(여자가 족두리를 쓴 형국) 중턱에 아름다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을 앞 보리마당터라 불리우는 곳에 위치한 할매당은 ‘당나무’라 부르는 규솔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원래

할때당은 여러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다고 하나 태풍에 넘어졌으며 남은 한그루도 고사중에 있다.

이 당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자시에 마을안녕과 질병방지, 가축번성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당제는 6.25사변이후 몇 년간 거행하다가 미신타파라는 국가정책과 마을민의 여론이 한데 모아져 없어졌다. 다음에 정리한 이 마을 당제는 약 20여년전 당시 제관경험을 갖고 있는 제보자의 구술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당제는 제관 1명과 유사 1명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이들은 음력 동짓달에 열리는 마을회의 석상에서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된다. 제관에 선정되면 마을과 개인에게 돌아올 해를 두려워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 금기를 지키게 된다. 또 그는 당제를 지내는데 있어 마을의 대표적 존재로서 부정할 것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임산부·제사집·상가·개고기를 먹는 곳은 일체 가지 못한다. 혹 제전에 제관택이 초상이 나게 되면 다시 선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는 제관 이외에 ‘공헌’이 있어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되는데 원래 그는 마을을 통치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다.

제관은 제 3일전에 공헌이 선정해준 별도의 깨끗한 집에 거처하면서 출타하지 않고 목욕재계의 정성을 다하고 공비를 마련하게 된다. 제관이 거처하게 될 깨끗한 가정은 대개 유사택이 되나 혹 다른 가정을 선정하기도 한다. 이곳에 거처하는 제관은 목욕재계시 추위도 춥다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변소만 다녀와도 손발을 씻어야만 한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제관에게 가능하면 굶도록 애기한다. 한편, 제관 스스로도 화장실을 가게 되면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정을 우려하여 거의 굶게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 3일전 공헌이 당산과 제관이 거처하는 집 그리고 샘에 마을민의 출입을 막는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대목대목 집어 놓는다. 제관은 금줄을 친 샘물을 두레로 깨끗이 떠낸 다음, 새롭게 우려난 물을 길어다가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짓는다. 샘물은 개인적으로 공을 드리고자 원하는 가정에서도 제관이 떠간 뒤 몰래 떠다가 사용하기도 한다.

제물은 공헌이 구입해오고 제관과 유사가 장만한다. 공헌은 제물찬거리를 구입해다가 제관이 거처하는 집 대문앞에 놓고 대문을 두드리면 제관이 나와 갖고 들어가게 된다. 이때 공헌은 마을내의 일과 당제 진행상황에 대해 제관에게 소리쳐 얘기해준다. 준비하는 제물은 돼지머리나 다리·시루·해의(김)·당일주(혹은 단방주)·미역국 또는 미역구이·주과포 등의 종류이다. 제물조리에는 여자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관은 직접 도구통에 살을 빼아서 시루를 마련하며 제일 아침 일찍 누룩으로 당일주를 만들어 저녁에 걸른다. 돼지는 통째 한 마리를 잡아 다리와 머리는 신께 바치게 되고 남은

몸통고기는 부정이 없는 마을민이 나눠 먹게 된다. 이러한 제물은 진설하는 과정에서 하나씩당산에는 돼지머리와 미역구이를 놓고 할매당산은 돼지다리와 미역국을 한 움박지(양푼)를 담아 차리는 것이 다른 점으로 나타난다. 이 마을 당제 제물은 전체적으로 해물보다는 육물을 주로 마련한다. 어찌되었든 준비된 제물은 제전 교자로 당산으로 옮겨진다. 제기는 마을공동제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되면 제관과 유사는 목욕재계한 후 자시에 당산에 올라 제를 시작한다. 제의는 진설·헌작·독축·유식·재배·소지와 축언·음복·퇴송·철상의 순으로 거행된다. 이 중 유식은 더 많이 드십시오고 대접에 밥을 맡아놓는 것이며, 소지는 약 40여장을 올리게 된다. 이 소지는 제관 1장, 유사 1장, 각성받이를 위한 문중소지, 마을공동소지 1장, 개인적으로 소지종이나 당산을 밝히는 참기름을 갖다 주면서 소망을 빌어 달라고 희망할 때 개인소지 등을 올린다. 축언은 소지를 올릴 때 마을 안녕질서와 가축질병예방을 구두로 기원하는 것이다. 제의의 마지막 퇴송 은 예전에는 신이 흠향한 제물은 마을민이 먹지 않는다 하여 모두 당산에 묻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일부만을 떼어서 묻고 나머지는 마을민이 음복한다.

이 제의가 거행되고 있는 제장에 제관외에 마을민은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각 가정은 불을 밝히고 물 떠다 메(밥)을 짓고 정화수를 떠놓고 공을 드린다. 각 가정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광명을 받기 위함인데 당산에도 참기름불을 켜게 된다. 단, 부정한 가정은 불을 켜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제가 거행되고 있는 시각의 마을은 초조하고 쥐죽은듯이 조용하며 마을민 모두가 부정한데 가지 않고자 스스로 주의하고 금한다. 혹 떠드는 이가 있으면 잡아다 때렸고 아예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시켰다고 한다.

제가 끝나면 음복, 대동계와 건구(지신밧기)가 이루어진다. 제물을 마을민이 나눠 먹는 음복은 생인(상인)·부스럼 난 사람·산고자 등이 스스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 않는다. 음복과 함께 치러지는 대동계에서는 공헌의 당제결산보고가 있으며 제관들은 “우리가 제를 성심껏 모셨습니다”고 마을민에게 보고가 있게 된다. 이때 마을민들은 제관에게 “추웠는데 고생들 했제. 고생했으니 자네들 복이나 많이 받소”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 대동계가 끝나면 건구(농약)를 치면서 토지신을 달래는 지신밧기를 한다. 지신밧기는 당산곳을 먼저하고 나서 마을유지급 가정부터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짓 곳과 샘곳을 쳐 액운을 몰아내 주는 것이다. 이는 정월 보름안에 끝나거나 2월 하래드랫날(1일)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제를 지내는데 든 비용은 동답(50두락)에서 충당하거나 가가호호 쌀 1되와 누룩 등을 조금씩 거출하여 사용한다. 마을공동소유인 동답은 공헌의 관리하에 마을민 전체가 출력을 나와 경작되었다.

광정마을 당제 제관은 제후 1년을 주의하고 정성을 해야만 한다. 제후 3일째 되는 날까지 스스로 정성을 다하기 위해 집밖을 출타하지 않고 집안 세배나 성묘 등도 다니지 않는다. 또 한 해 동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제관으로서의 소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주위에서 점쳤고 제관 스스로도 항상 의식하게 된다. 즉, 일년간 마을이 무사태평하면 제관으로써 미덕이 되어 기분이 좋았으나 혹, 병고가 생기면 제를 잘못 모셔서 그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더라는 제보자 주경석씨의 얘기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당신의 영험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한다.

어느해엔가는 제관으로 선정되어 당제를 맡아 지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후 당신이 선몽하여 알아보니 집안에 부정한 임산부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정월 10일 이내에 당제를 모셔 신을 위로 하였다.

이처럼 이 마을은 제를 잘못 지내게 되면 음력 15일 이내에 좋은 날을 다시 선정하거나 택일하여 당제를 모시는 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당제는 20여년 전에 폐지 되고 지금은 거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된 이후로 몇 년간에 젊은층 10여명이 죽어 나감에 따라 다시 당제를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마을민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거행되지는 못하였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주경범(남, 59), 주경철(남, 53)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조사자>: 이종철, 선영란, 김삼기

### ③ 읍내리 동촌(동아실) · 서촌마을 당제

읍내리는 지도읍의 여러 중요기관이 소재하는 읍소재지이다. 동촌과 서촌 마을은 행정구역상 이 읍내리의 1·2구에 해당하고 있다. 읍소재지인 만큼 상가가 군집된 변화가로서 1·2구는 총 268호에 1,16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버스터미널이 있어 다른 도시로 연결이 용이한 편이다. 이 두 마을에는 성결교회인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소재하고 있으며 마을 중앙부에는 각각 전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전나무(취엄나무)는 ‘당산나무’나 ‘당’으로 불리운다. 또 마을마다 달리 ‘당할매’, ‘당산할머니’나 ‘당할아버지’로 불리워져 나무에 이들 신이 거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나무는 대체로 희귀한

수중으로 자주 신영인 신목으로 숭상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나무가 대체적으로 벌레가 없고 수명이 길고 빨리 자라며 목질이 있어 외경스럽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서촌당과 동촌당의 형성은 마을형성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온다. 즉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같은해 같은날에 두 마을이 전나무를 심고 한쌍의 부부신으로써 서촌은 할머니, 동촌은 할아버지를 신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목의 잎이 윗가지에서 먼저 피면 윗동네가 풍년되고 시절이 좋으며 아랫가지의 잎이 먼저 피면 아랫동네가 좋은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이 두 마을 당목은 둘레 220~250cm, 높이 7m, 수령은 400여년으로 보인다. 특히 서촌당목 앞에는 1972년 10월 5일이라 새겨진 상석이 놓여 있었으며 주위는 돌로 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당에는 매년 ‘당제’, ‘동제’를 거행하고 마을평안과 농사풍년, 쥐나 새등의 짐승방지를 기원한다. 제일은 서촌의 경우 음력 정월 초이튿날 자시에 거행하나 동촌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 지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남신인 당할아버지를 먼저 위하고, 다음날 그 부인인 당할머니를 제사지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제의과정은 두 마을이 유사하나 여기서는 서촌마을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는 제관 1명과 유사 1명에 의해 진행된다. 제관이 되면 제전 1개월과 제후 3개월을 게려야 한다. 게린다함은 상가 음식이나 개고기를 먹는 등 부정으로 간주되는 행동이나 섭취를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관은 제전 7일 전 유사택이나 별도로 깨끗한 집의 방을 빌려 거처하고 목욕재계와 제물마련을 한다. 이처럼 제관이 거처하는 집을 ‘동제모신 집’이라 부른다. 제전에 당목주위와 당제모신 집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리는 것도 제관의 임무이다. 제관은 목욕재계나 제물장만 시에 사용하는 물을 중앙초등학교 뒷산 독샘물을 목욕한 후 조석으로 길어다 놓고 사용한다.

제물은 제관과 유사가 구입하고 장만한다. 일체 여자는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리는 간장과 깨소금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제기는 예전에 마을공동용이 있어 이를 사용했다고 하나 지금은 유사택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제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자시가 되면 제의는 시작된다. 먼저 당목에 도착한 제관과 유사는 메와 국 한그릇·백설기시리·돼지머리나 소죽·술·조기·승어·도미·산채·집채(콩이나 녹두)·해채(둬부기)·스르메·탕·밤·대추·배·꽃감·사과 등을 진설한다. 제물은 예전에는 거대하게 장만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해 유사의 성의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고 있다. 진설후에는 헌작·讀祝·재배·헌작·재배·헌작·재배·소지(분축)와 축언·설신·음복·철상의 순으로 제가 진행된다. 이때 소지는 당할매와 마을을 위해 2장을 올리는데 “마을 편하게 해주고 풍년들게 해

주시고 쥐새끼나 새 금해주십쇼”하고 축엿을 한다. 그리고 그리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당옆에 묻는 설신을 한다. 음복은 제관과 유사가 제후에 하고 다음날 서운한 사람을 불러 대접하는데 단,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

제를 마친 다음, 아침에 당제결산보고와 마을사를 토의하기 위한 대동계회의가 열린다. 예전에는 마을 회의가 끝나면 금고를 치고 놀았다고 하나 지금은 앉고있다. 금고치기가 없어지게 된것은 술을 먹게 됨으로써 꼭 옥설이나 싸움이 있어 신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얘기하고 있다.

제비용은 가가호호에서 걷거나 마을병풍·상여·채일대여비로 마련한 마을자금에서 1만5천원 가량을 쓰고, 남은 부족비용은 유사가 성의에 따라 보태고 있다.

이상의 당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정성으로 꾸준히 모셔왔고, 왜정때 지내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에서도 계속 거행하였으며 제에 대한 청년들의 반대가 없다는 얘기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86년도 제관을 맡은 제보자 최남석씨는 제관에 선출된 날부터 제후 한 해가 지날때까지 마을에 이상이 없으면 좋고 질병이라도 생기면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관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서촌마을의 경우는 교인이 꽤 있음에도 제를 방해할 정도의 수는 되지 못한다. 교인은 제관이나 유사로 선출하지 않는다.

서촌마을의 당제는 마을에 부정이 있으면 좋은 날인 정월 보름으로 연기하여 제를 올린다고 한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20여년전 웃마을에 질병이 생긴 해가 있었는데 서촌마을은 날을 잡아 당산 할머니께 제지내고 질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원하여 해를 막았다고 한다. 1986년 서촌마을의 제관은 최남석(남59세), 전복순(남58세)씨가, 동촌마을은 양운산(남42세), 임완섭(남43세)씨가 맡았다.

## (2) 읍내리 솔섬(송도)의 당제(산신제)

솔섬은 읍사무소와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배산임해마을이다. 원래 읍동에서 마주 보이는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이었으나 1983년 연륙됨으로써 읍동과는 도보로 10분 거리가 되었다. 총 63호(농가 56호, 비농가 7호)에 292명(남130, 여 162)이 거주하고 김녕김씨 21호, 김해김씨 9호, 밀양박씨 7호, 기타 여러성씨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상당과 하당이 있다. 상당은 ‘할아버지 당’으로 불리우며 하당은 ‘할머니당’으로 인식된다. 할아버지당은 마을 안산 정산부에 위치하며 할머니당은 안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당의 거리는 100~150m 떨어져 위치한다.

할아버지당의 형태는 담높이 90~150cm, 담폭 40~50cm, 지름 600cm의 원형석축제단이다. 당은 고 송 신목으로 우거져 있으며 동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석 안의 북쪽에 높이 57cm, 길이 1.4m 크기의 석 단이 있다. 석 당중앙에 화톳불을 피울 석판이 있으며 서쪽에 칠성신을 모시는 칠성제단이 있고 남쪽에 마신(철마신)을 모시는 마부제단이 있고, 동쪽 출입구 옆에는 문신을 모시고 있다.

할머니당은 마을로부터 50~70m 떨어진 안산 기슭에 위치하는데 담높이 55~60cm, 담폭 45~50cm, 지름 290cm의 원형석축제단형태이다.

이 두 당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 마을평안과 단결·질병방지·풍어와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당제’, ‘산신제’로 불리우는 제를 지낸다.

다음은 최덕원교수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고된 바 있는 송도마을의 당제의과정을 그대로 발췌하여 신는다(최덕원, 1984: 45~48)

3인의 제관은 생기가 맞는 깨끗한 당주집을 선정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금줄을 치고 제관들이 당주집에 들어간다. 1982년 당제시에는 1호당 500~600원정도의 25,000원의 제비나 제미를 거두어 리장이 사온 제물은 다음과 같다. ① 명태 40마리, ② 울 각 5합, ③ 축 14개, ④ 소지 10매, ⑤ 한지(금줄용) 3매, ⑥ 꽃감 50개, ⑦ 떡쌀, ⑧ 감주용 누룩 등을 사서 제관들에게 주었다.

제관은 제물을 만지기 전에 당샘물로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었고, 대변을 앓기위해 전날부터 밥을 먹지 아니하였다. 아침 일찍 당샘에 금줄을 치고 찬물로 목욕하며 감주를 담고 설상을 준비하였다. 제물을 접시에 놓을 때 그 수가 홀수가 되어야 하며 떡을 찌때도 홀수 두름이 되게 한다. 보통 칠성을 의미하는 7두름이 되게 한다. 또한 제주집에서 삼우제를 지낼 제물도 홀수로 남겨 당제가 끝난 후 성주상을 차리게 한다. 아침절에 제물 준비를 마치고 화톳불을 피울 준비를 한다. 이어 하당에 내려와 청 와 금줄을치고 내려온다.

떡과 제밥, 그리고 여러 제물을 지게에 지고 제일 인 음 정월14일 밤 12시에 제관은 평상복으로 상 당에 올라간다. 이때에 온 동네가 등불을 밖에 켜놓고 제가 끝날 때까지 끄지 않는다. 불이 꺼지면 신이 내려오지 않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상당에 이르면 화톳불을 피우고 자시에 설찬한다. 제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제밥을 올리며 제물을 차린다. 제밥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2그릇, 칠성신에게 7그릇을 올리는데 사발에 단 한 번의 주걱으로 밥을 담아 올린다. 또한 마신과 문신에게 한 그릇씩의 제밥을 올린다. ② 감주를 올리고 ③ 재배한다. ④ 축원한다. 축원시는 덕자가 들어가면 안된다. 당할아버지의 함자가 덕자이므로 덕택, 덕분이란 말로 축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을의 안녕과 객지에 있는 도민들을 보

살펴주고 풍년이 들게 축원한다. ⑤ 각호의 소지를 올린다. ⑥ 제밥과 제물을 한지에 싸서 돌로 눌러 놓고 화투불을 끄며 파제한다. 한지에 싸든 제밥은 이른 새벽에 동네아이들이 올라와 찾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하당으로 내려와 당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제상을 차리고 동서남북 잡신에게 제밥과 제물을 나누어준다.

寅시에 하산하여 음복한 후 이른 새벽부터 마을사람들이 당주집으로 와서 음복을 한다. 7,8세되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떡을 먹는데 떡고물을 흘리면 쥐가 성하다 하여 조심해서 먹는다.

제관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당주집에서는 성주신에게 제상을 차린다. 마을회회가 열리면 마을살림의 결산과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모든 당제의 행사가 끝나면 농악놀이나 줄다리기 등이 없는 조용하고 근엄한 하루를 보낸다.

이처럼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칠성신, 마부신을 영험있는 존재로 여기고 섬기는 술섬마을민의 정성은 대단하다.

다음은, 신격과 관련되어 전해지는 영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① 사옥도 장구섬에는 여장군신이 살고, 송도당에는 남장군신이 살고 있다. 송도에서 당제가 거행되면 장구섬의 여장군신이 송도로 와서 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혹, 여장군신이 제에 참석하지 못하면 쇠로 된 마는 선산(?)으로 사라져 버렸고, 이 섬을 지나 칠산바다로 고기잡이 떠나는 배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마을 안산에 위치한 굴을 여장군신이 장구섬에서 송도로 오는 통로로 여기고 있다.

② 해방후에 마을 아녀자들이 당목의 솔껍질을 벗겼다가 그해 출생한 아이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③ 마을민이 100년 이상된 솔나무가 우거진 당을 들어가거나 나무를 손댈수 없으며 썩은 나무가 있어도 가져올 수 없다. 만일에 당목을 채벌하면 유행병이 만연된다고 믿고 있다. 또 소변을 하면 성기가 비뚤어지고 머리가 빠지는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

④ 칠산바다로 가는 어장배가 송도당이 보이는 뒷강에 와서는 당신에게 고사를 지낸다. 그렇게 하면 뱃길이 무사하고 풍어가 든다고 믿고 있다.

송도마을에는 약13년 전부터 기독교 장로회 계통의 남부교회가 들어왔다. 교인은 약 28명으로 20여호 되며 이들은 조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마을의 당제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전 교도는 당제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김영문(남, 73), 김용대(남, 52), 김준일(남, 53), 김철재(23, 남)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조사자>: 이종철, 선영란, 김삼기

#### ④ 자동리 자동마을 당제

읍소재지로부터 4km 거리의 翰鳳산(해발100m) 아래 위치하고 있는 자동마을은 남쪽으로 태천이, 서쪽으로 광정리 적거 그리고 무안군 해제면과의 연육교가 인접하고 있다. 지명은 원래 동으로 불리웠으나 자신당으로 개명되었으며 다시 일제시대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자동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중 동은 400년전 임진왜란을 피해 영광군 양에서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전주이씨 양도공의 구세손 영준의 호 은에서 딴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당은 영준의 아들 철의 호가 마을 지명이 된 것이다. 마을은 1985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67호에 316명(남150, 여16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주이씨가 동쪽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은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 12시에 ‘할매’, ‘하나씨’ 그리고 ‘칠성신’에게 마을평안과 질병방지를 기원하는 ‘당제’를 매년 모시고 있다. 제장은 두 곳으로 일반적으로 ‘큰당산’ (혹은 큰당·하나씨당산·할아버지당·하나씨신), ‘작은당산’ (혹은 작은당·할매당·할매신)으로 불리우고 있다. 큰당산은 마을뒷산 한봉산 중턱에 위치하며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입구 노변 발둑에 위치한 작은 당산은 높이 45cm, 두께 23cm, 폭 30cm의 사각석주형태의 입석신체가 서있다. 이 입석에는 조사당시에도 원새끼에 참종이가 끼워진 금줄이 감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를 진행하는 제관은 생기인(生氣人)·복덕인(福德人)·유사(有司)·축관(祝官) 등 4명으로 제 3일전에 선정된다. 선정에 있어서 먼저 생기복덕이 맞아야 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이때 깨끗하다는 것은 생인(상주)·제사집·초상집·산고든 가정이 아니어야함을 의미한다.

제관에 선정되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만 한다. 이를 ‘게린다’고 하는데 이는 개고기를 먹지 않고 산고·상고·이장 등의 부정한 곳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게

림은 예전의 경우 제3일 전부터 일년동안 계속되었으나 지금은 3개월을 주의하고 있다. 특히 제관은 제3일 전부터 마을의 깨끗한 집 작은방에 거처하면서 목욕재계와 정성을 다해 공미(제물)를 준비하게 된다. 이때는 당산과 제관이 거처하는 집에 금줄은 치고 황토흙을 뿌려 부정스러운 사람을 경계한다. 제관은 한번 깨끗한 집에 들어가 거처하기 시작하면 일체 외출과 마을민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게 되며, 필요한 식량이나 술·담배 등은 마을민중에 누군가가 구입하여 넣어주게 된다. 이 마을의 1986년도 제관은 박남실(남69세, 복덕인), 박종만(남57세, 생기인), 이지용(남49세, 유사)씨가 맡아 거행하였다고 한다.

제물은 마을 이장이나 그 외 마을민이 지도읍내 시장의 깨끗한 상점에서 구입해다가 마련한다. 예전에는 목포까지 나가 구입했다고도 한다. 제물장만은 보통 유사덕에서 제관들이 하기 마련인데, 유사덕은 대개 제관이 거처하는 집이 되기 때문이다. 제기도 이 유사덕의 것을 사용한다. 제물은 두당산의 것을 따로 마련한다. 예전에는 제물을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머리(혹은 소머리)는 제신께 바치고 몸통은 제후 대동계때 나누어 먹을 정도로 크게 준비했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1986년 이 마을 당제 물목록이다(대동계때 구입한 내용도 포함함).

제미·병미·식미·합 백미오승 7,500원  
 제주 정종 1병 4,800원, 제육 42근 55,060원  
 신초 10속 3,000원, 담배 10갑 5,000원  
 양초·백지·창지·감작 합 4,750원  
 소주 10병 13,500원, 떡가루 1돼 200원  
 탁주 3두 9,900원, 유장주 3,000원  
 식미 10g 7,000원 적두·백미 2승 4,500원 총액 118,210원

이상의 제물구입가 제를 거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2~15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이 비용은 600평 가량되는 동답에서 나온 돈에서 충당하는데 동답은 제관 2명이 공동경작하고 있다.

제는 정월 열 나흘날 밤 12시에 큰당산에서 시작되어 작은 당산으로 이어지는데 신이 강림하는 시간내, 즉 첫닭이 울기 전에 끝이 나아만 한다. 제장중 큰당산에는 천막을 치고 덕석을 깔며, 작은당산에는 덕석만을 깔고 제를 거행한다. 제의는 진설하고 술드리고 축문읽고 7장의 소지를 태운 후 재배·음복의 순으로 간단히 진행된다. 이중 진설시에는 밥·국·정종·돼지머리·시리떡·미역튀

김·생미나리·생무우 등이 오르는데 큰당산과 작은당산의 진설 제물은 유사하다. 단, 밥과 국은 다르게 진설되고 있다. 큰당산은 생쌀 한그릇에 촛불을 켜놓으며 작은당산에는 밥 7그릇, 국 7그릇을 놓고 있다. 이와같이 작은당산에 7그릇을 놓는 것은 복두칠성을 의미하고 '복두칠성신'께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다.

제후 정월 보름(15일)에는 금고(鬮)치고 '지신뱀기'를 한다. 금고를 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고꾼은 가정의 행운을 빌고 액운을 쫓는 의미로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지신뱀기를 한다. 이때 부자집에서는 술이나 닭을 대접하기도 한다. 지신뱀기는 1960년대까지는 가가호호를 모두 했으나, 지금은 간단히 부자집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가 끝난 3일후(17일)에는 대동계를 개최하고, 2월 초하래드랫날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동계에서는 마을결산보고·신년도 계획논의·마을책임자 결정·동답결산보고·마을임금 결정 등이 이루어지며, 이때 마을민은 남은 제물이나 새롭게 마련한 음식을 먹고 즐겁게 논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이수백(남, 67), 이갑수(남, 39)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조사자>: 이종철, 선영란, 김삼기

#### ⑤ 탄동 2구 원달마을 당제

원달은 읍내에서 동력선으로 10분 거리의 사옥도의 선창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마을은 54호에 248명(남134, 여114)이 농사와 염전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14일) 밤 12시에 마을뒷산 당산나무에 '당제'를 모신다. 당산나무는 약 50주의 소나무가 서있고, 산의 봉아리 옷당에 영감, 산의 중등(중트마리)의 아랫당에 할멈을 모셨다. 신당의 형태는 사람머리크기의 돌을 ㄷ자 형태로 담을 쌓았고, 담안쪽에 넓적한 돌을 상판으로 설치하였다. 제관은 마을에서 산고나 상고없는 깨끗한 사람중에서 2명이 제 15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선정한다. 제관은 개고기 먹지 않고 찬물로 매일 목욕하며 날마다 제당을 깨끗이 청소한다.

제물은 오징어·해우(김)·밥 1그릇 등 간단히 올리고 젓가락도 올리지 않는다. 제의순차는 상올리고 소지 한 장 올리며 소원을 빈다. 소원은 "당산할매·할아버지 열흘만에 비 자주 내리고 농사풍작

되고 부락사람 편하게 해주고 학생·군인 등 객지 나간 자식들 무병장수하여 달라”고 빈다.

제가 끝나는 밤 12시에 당에 올라가 건구(금구:농악)치고 제관을 모시고 내려온다. 그리고 제관집과 동네우물 세곳에 다시 건구를 치고 잔치하고 놀고 잔다.

다음, 보름날부터 “군마갱갱” 치면서 놀고 대동계회의를 하여 품삯(남자 5,000원, 여자 4,000원)과 마을일년결산과 계획, 이장선출하고 계주 정하고 계청적고 결산 후 돈 100원씩(?) 내어서 술사서 어른대접한다. 제비용은 쌀 1되나 돈 50원(?) 가량을 걷은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제물과 제기는 지도읍내 장에 가서 물건 깎지 않고 구입하며 제기는 제후에 제관이 사용한다. 예전에 가물면 당산에 가서 호랑나무 태워서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의 조왕, 조상단지, 오쟁이는 김성갑씨택에 10년전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약 54호가 사는 이 마을에 14년전 대한성결교회가 들어왔으며 교인들은 제비를 안낸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이점백(남, 62), 김평용(남, 58), 김감용(남, 49), 임을순(남, 29), 임윤빈(남, 24)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조사자>: 이종철, 선영란, 김삼기

#### ⑥ 태천리 태천마을 당제(산제)

태천마을은 지도본도와 무안군 해제면이 이어지는 효지에서 남쪽을 약 6km 쯤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동쪽으로는 연화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오룡동이 위치한다. 인구는 106호에 434명(남 225, 여 209)이며, 성씨는 한양조씨 42호, 김해김씨 31호, 신안주씨 29호가 거주한다. 1949년 마을 앞에 제방이 막아지면서 농경지가 많이 늘었다고 하나 아직도 염전업이 성한 편이다.

‘당제’ 또는 ‘산제’라는 이 마을 공동제사는 마을평안과 단합을 기원하는 제의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거행된다.

태천당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300여 m 떨어진 평지에 있는 숲과, 마을내에 있는 팽나무로 형성된다. 이중에 마을앞 400여년생 당목이 높이 20m, 둘레3.5m의 팽나무 12주와 명구나무 15주 등이 울창하게 숲을 이룬 곳이 ‘할아버지당’이며, 마을내에 있는 팽나무가 ‘할머니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은 400~500년전 마을형성과 함께 마을민이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고 마을수호신의 거처로 설정하므로서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최덕원교수에 의하면 태천마을이 마을뒷산 등 산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

판에 당신을 모신것은 산신이 아닌 지신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최덕원, 1984:52)

제를 맡아 지낼 제관은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제관 1인과 집사2인을 선정하는데, 이 중에는 제답경작자도 포함된다. 제관들은 부정을 멀리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언행에 주의한다.

세명의 제관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준비는 집사가 거의 도맡는다. 음식을 장만하고 기타 제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3마지기(600평)가 조금 넘는 전답의 소출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제관은 제일 5일전 마을공동우물에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려 일반인의 사용을 금하게 한다. 이곳 샘에서 예전에는 소를 잡아 제속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돼지머리를 제물로 쓰고 있다.

당제에 앞서 초하룻날과 초이튿날 밤 10시 경에 지낸다. 피고사란 진설하기 위하여 도살한 돼지피를 제장 주위에 뿌리면서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리의 부정을 제사려(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빈다.

그리고는 자정이 지나 제관과 집사가 징·팽가리·북·장구를 쳐 제의 시작을 알리면, 이 소리를 들은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밥을 차리고 축원을 한다. 제관은 먼저 할아버지당으로 가서 촛불을 켜고 헌작·재배·독축·소지·헌식의 순으로 제를 진행한다. 이때 축원은 “우리 마을 106호의 일년한해 365일 아무 탈없이 해주십시오”라고 빌며, 진설했던 돼지머리 윗턱뼈를 제장에 묻는다. 큰당 즉 할아버지 당에서 제가 끝나면 곧바로 할머니당으로 가서 제를 지낸다. 이곳의 제의순서도 큰당과 동일하다, 헌식할 때 아랫턱뼈 묻는 것이 다르다. 할머니 당에서 제가 끝나면굿을치며 당을 돌게 된다.

다음날은 마을민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농악놀이를 한다.

조사당시 제보자 조성균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제관을 경험한 분으로 아들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제관을 자청해서 여러번 정성을 드렸으나 끝내 소원을 풀지 못했다고 눈물어린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마을 당은 영험이 있어 함부로 당에 소피(소변)도 놓수 없고 당숲의 나무도 벨 수 없다고 한다.

<조사일자> : 1999.3.1, 2002.3.5

<제보자> : 조성균(남, 70)

<수록> : 도서문화 제 5집

<조사자> : 이종철, 선영란, 김삼기

## (2) 당제와 장승(장성)

### ① 지도읍 당촌리 후촌마을 할머니·할아버지 장승

• 소재지: 신안군 지도읍 당촌 2구 후촌마을

• 위치: 후촌마을에서 장도로 가는 바다쪽 1,000m 지점인 마을입구로 논둑과 민가옆 90m 사이를 두고 세워져 있음.

• 재질: 거친 화강석

• 수량: 1쌍 2기

• 크기: 높이 178~200cm, 둘레 120~122cm

지도읍 사옥도에 위치한 당촌리는 두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사옥도의 내륙 북편을 당말(당촌), 서편을 후촌이라 한다. 이 두 마을은 모두 할아버지를 모신 '당말당'과 할머니를 모신 '후촌당'을 모시고 '당제'를 지내오고 있다. 여기서 후촌마을 장승은 당제의 하당신체이므로 당제의 과정과 함께 기술하기로 한다.

후촌마을은 57호의 농가에 235명(남 119명, 여 116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김해김씨가 36호, 파평윤씨가 5호, 기타 여러 성씨가 모여산다. 후촌의 신당은 마을뒷산 유산봉 중턱에 높이 145cm, 직경 약400cm의 네모난 돌담 안에 자연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주위에는 도토리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있다. 최덕원 교수에 의하면 애초에는 마을 안에 당이 있었는데, 인가가 많아집에 따라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0여년 전부터 산신이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최덕원, 1984:51). 덧붙여 인근마을인 당말당은 고송과 도토리나무가 우거진 유산봉 산정에 위치하며 높이 180cm의 돌담이 U자 형으로 신축되어 있고 그 안에 석단이 있다.

후촌당의 제일은 음력 정월 초하루이나 마을에 부정이 있으면 날밤이를 하여 지낸다. 날밤이는 보통 정월 보름날 등 길한 날을 받는다. 제주는 두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을 골라 생기복덕을 맞추어 선정하여 제를 진행한다. 제물은 쇠머리·메·막걸리·고사리·도라지·과일·떡(고물이 없는 흰시루떡)등이다. 이중 막걸리는 예전에는 단일주로서 그날 새벽에 담아 밤에 걸러내는 술로 온마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많은 양을 담그었다 한다.

이상의 신당외에 후촌에는 산중턱에 있는 중당과 마을입구 '장승(장성)거리'에 서있는 장성이 하당의 기능을 맡고 있다.

장성은 바다쪽에서 후촌으로 들어오는 1,000m 지점, 마을논과 양철집옆 길목에 2기가 90m 거리

를 두고 세워져 있다. 이들 장성은 ‘할머니장성’과 ‘할아버지장성’으로 불리운다. 또한 이 두 장성은 당제후 메밥을 올려 마을의 재액을 막아주십시오 빌기 위해 1917년에 세웠다고 한다. 이들 장성에 얽힌 또 다른 유래가 있어 기술한다.

당촌리는 지도읍 본도에서 바다 건너 남서쪽에 위치한 사옥도(현재 연도교로 연결됨)에 있다. 현재 당촌리는 동쪽의 당말(당촌)과 서쪽의 후촌이라는 자연마을로 나뉘어 있다.

후촌마을에서 장도로 가는 마을 어귀, ‘장승거리’라 부르는 곳에 2기의 장승이 90cm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서 있다. 하나는 ‘할머니 장성’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 장성’이라 부른다. 이 2기의 장성은 1917년에 세워진 것들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훨씬 전에는 현재의 자리에 목장성이 서 있었는데, 그 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썩어갔지만 새로 장성을 세우지 않았다. 1919년 직전의 4~5년 간 마을에 사망, 가뭄, 흉년 등의 액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러자 주민들이 이 사건들은 장성이 없어진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석장성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할머니 장성은 높이 178cm, 둘레 122cm에 긴 장방형의 자연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거친 돌의 표면을 적당히 다듬어서 눈, 코, 입, 귀 등을 알리게 양각하였다. 55cm나 되는 긴 얼굴에 두드러진 눈썹을 만들었고 둥근 안경테처럼 눈을 선각하였다. 그 밑에는 세모난 코와 일(一)자로 다문 입이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할머니 장성은 무표정한 얼굴이 무뚝뚝한 인상을 준다. 할아버지 장성은 높이 200cm, 둘레 127cm의 역시 긴 장방형의 자연석에 주로 얇은 선각 수법을 사용하였다. 두부의 양쪽 귀 통이는 비스듬하게 잘라서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며 평평하고 긴 이마에 가름하게 눈썹을 선각하였다. 두 눈은 약간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 동공이 음각되었다. 두툼한 양 입술을 꼭 다문 모양을 하고 있다. 턱에는 다섯 갈래의 수염이 선각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나뭇잎과 꽃을 거꾸로 한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다. 할아버지 장성은 전체적으로 근엄하면서도 할머니 장성보다는 더 인자한 느낌을 준다. 이 마을에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마을 뒷산 유산봉 중턱에 있는 ‘후촌당’에서 당제를 지낸다. 할머니·할아버지 장성은 이 후촌당의 상대역인 하당의 신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하당에서 어떤 제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조사일시> : 1986년 7월 16일

<수록> : 도서문화 제 5집, 신안군지, 신안문화원 홈페이지 등에 재 수록됨

<제보자> : 김광복(남35세, 후촌 1173번지 거주)

② 자동리 자서마을 당할때 · 당하나씨 입석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자서마을

· 위치 : 마을앞 최갑수(남30세)씨 밭안에 당할때입석이 위치하고 당하나씨는 김연수씨(남29세)

밭에 위치, 두 입석의 떨어진 거리는 30cm 가량임.

· 재질 : 자연석

· 수량 : 2기

자서는 원래 자동마을과 함께 ‘자신당’이라 불렀으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자신당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나온 동명이다. 총 30호에 130명(남62명, 여68명)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을 들어서면 입구 노변에 2기의 입석이 서있다. 1기는 길아개쪽 최갑수씨 밭에 서있는데 ‘당할때’로 불리우며, 남은 입석은 ‘당하나씨’로 길위쪽의 김연수씨 밭에 위치한다. 이 2기의 입석은 마을에서 매년 정월보름이면 행하는 마을공동의례인 ‘당제’의 신체로 섬겨진다. 다음은 입석에 행하는 당제의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당제는 제관 1명과 축관 1명이 집행한다. 이들은 그해 나이가 운에 맞아야 된다. 즉 일진을 보아 생기복덕에 맞고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3일전부터 이들은 별도로 마련한 깨끗한 방에서 제후까지 거처해야 한다. 그곳에서 제관들은 목욕정성을 드리고, 제장인 입석 주변에 황토흙을 뿌리고 금줄을 치며 제물을 장만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미역국, 메, 제주 등이 준비된다.

보름날 자정에 당제는 시작된다. 제의는 당하나씨입석에서 먼저 거행하고, 다음으로 당할때입석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물은 진설한 후 제주를 올리고 재배를 하면 축관이 독축을 한다. 다음은 자서마을 축문의 내용이다.

그리고 제물 일부를 거두어 제장 주위에 놓아두는 사신을 하면 당제는 끝이 난다. 제가 끝나면 마을에서는 신령을 보내드린다는 뜻에서 걸궁(농약)을 쳐준다고 한다.

한편, 제는 끝이 났어도 제관과 축관은 곧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들은 제후 이틀 동안 제사준비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집에서 머무르게 된다. 제관이 되면 예전에는 제후 1년동안 게리나 요즈음은 3개월을 게리고 있다. 이때 게린다는 것은 개고기를 먹거나 초상·산고·이장 등의 부정한 곳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호당 ‘추렴’하거나 ‘날패’한다. 제후 3일만에 대동계를 개최하고 논다.

마을민에게 입석은 영험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마을민중에서 맡가운데 입석이 서있어 경작이 불편하다고 하여 술을 마시고 파헤쳐 옮겨 놓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화가 미쳐 입석을 원래 위치로 갖다 놓았다는 얘기가 영험을 더욱인정하게 한다.

<조사일시> : 1986년 7월 14일

<제보자> : 이형섭(남75세,농업) · 최순문(남66세, 본관 전주) · 이정오(남54세)

<수록> : 도서문화 제 5집, 신안군지, 신안문화원에 재 수록됨

### ③ 탄동리 열개마을 당할머니 입석과 살매이입석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1구 동리 열 개마을
- 위치 : 당할머니입석은 기망산의 중북에 있는 당옥내, 살매이입석은 3기로 마을앞길에 위치
- 재질 : 자연석
- 수량 : 4기

열 개는 사옥도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읍사무소와 5km 거리이며 당촌마을로 가는 관문인 탑선마을과 민동의 중간에 위치한다. 읍내에서 동력선이 1일3회 운행되는데 30여분 소요된다. 전형적인 섬마을이지만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350년전 제주양씨가 처음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한다.

마을에는 4기의 입석이 있다. 1기는 당집 안에 모셔져 있는 ‘당할머니’의 신체로서 평상시에는 한지로 싸여져 있으며, 남은 3기는 마을길목에 세워져 ‘살매이입석’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마을 당집은 사옥도 기망산의 중북에 있는데 높이 2m, 폭 4m, 옆길이 3.3m에 스텔지붕의 석축으로 된 건물이다. 풍우한설을 막기 위해 1980년 3월에 돌담당을 헐고 지은 건물이 현재의 당집이다. 이 당집안에 높이 40cm, 폭30cm,의 네모난 입석이 한지로 싸여져 모셔있다. 그리고 마을길목에 세워진 살매이 입석은 할아버지를 모신 하당옆과 뒷길, 아랫길에 서있는데, 이곳에는 하당제시 제물을 차려 모든 잡귀와 액살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원한다.

다음은 이 4기와 관련된 신앙의례가 보고된바 있어 여기에 발췌하여 수록한다. (최덕원, 1984년:49~50).

당신은 당할머니이지만 제의시에는 양위를 모신다. 당제일은 음 정월14일 03시경으로서 3일간을

재계한 후 비로소 당에 오른다.

제관은 두사람이 되며 그 중 한 제관은 생기를 보고 선정되는 반면 또 다른 한 제관은 전년도의 제관 중에서 선정한다.

제관들은 동계답(3마지기)을 지어 당을 관리하는 당주(공원)집에 머물면서 제물을 장만한다. <동중계안>에 기록된 제물은 다음과 같다.

제주미 3승 · 제곡자 3승 · 제병미 5승 · 제병과미 1승 · 제반미 3승 · 우족 1근 · 황육 1근 · 황계 1수 · 북어 10미 · 건포 1꽃 · 울 2합 · 감 (미역) 1편 · 해의 10매 · 백지 1권 등이다. 이와같은 제물을 장만하여 당에 들어와 화톳불을 피우고 석단에 촛불을 밝혀 설상하고 배례한 후 제관이 종을 치면 각 호에서 가제를 지낸다. 축문과 소지를 올린 후 마을에서 시간을 알리는 쟁을 올리면 산상을 한다.

상당제가 끝나면 마을앞의 들판에 있는 할아버지를 모신 하당으로 내려와 당목인 짐나무(쥐엄나무)에서 제를 지낸 다음 제주 집에서 날새서 음복을 한다. 하당옆과 윗길과 아랫길에 서있는 살땀이입 석에는 제시 제물을 차려 모든 액살과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원한다.

아침에 동중회의를 마치고 각호를 돌며, 마당밧기(금고)를 한다. 동제의 농악비품으로는 영1쌍, 쟁1개, 광금3개, 대고2개, 소고7개, 병거지 3개, 복색배자 3개, 수9개, 고짚 4개, 진대 2개 등이 있다.

이 마을은 당을 관리하는 공원(안천호,57세)이 있기 때문에 당의 문서가 잘 보관되어 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당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동중계안(정묘 정월 망일, 1827)
- ② 탄동리동중문서철 (소화 18년)
- ③ 동중회의(계미 정월망일 시)
- ④ 동중 회사기 금고 준창(을사 정월 망일 1965)
- ⑤ 금고부(정해년 정월15)

<조사일시> : 1986년 7월 15일

<제보자> : 신정희(남, 40, 새마을지도자)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 ④ 지도읍 달집 태우기

지도읍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관은 지도읍 자율방범대가 하고,

지도읍 각 유지들이 다녀가는 형태였다. 물론 달집태우기가 지도의 전통적인 대보름행사인 것은 아니다. 이벤트성으로 정월 당제를 대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달집태우기는

##### 가. 개요 (지도읍 정월대보름놀이)

신안군 지도읍 자율방범대에서 연행하고 있는 정월대보름놀이(음력 1월 15일)는 설날에 농악놀이(지신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전통문화 놀이를 6년 전부터 재현하는 행사이다.

##### 나. 추진상 문제점

현재까지는 회원이 30여명이 되나 점차 회원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놀이 문화를 전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사비용이나 북, 장구 장비들을 회원의 회비로 자체조달 하다보니 매년 예산의 누적적자가 증가하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주요성과

그 동안 과거에는 행하여지던 놀이 문화가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지도읍 자율방범대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찾아다니며, 채록하고 놀이의 구성을 재연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월 대보름에 모든 읍민이 참여하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을 행하여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대동놀이로 승화시키고 있다.

##### 라. 발전방안

관에서는 놀이 문화가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나 제반 여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연 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보다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일시>: 2003. 2. 15

### (3) 수산의례

#### ① 송도(솔섬)의 배서낭

솔섬은 행정구역상 읍내리에 속하는 섬으로써 서쪽으로 사옥도가 위치한다. 읍사무소와는 1.5km

거리를 두고 바다가 가로질러 있었으나 1983년 시멘트육교를 가설하여 연육됨으로써 현재는 육지가 된섬이다. 그러나 섬의 들레와 옛 관문항을 중심으로 아직도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삼는 어민이 있다.

이들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지켜주고 보호받기 위하여 ‘배서낭’, ‘배선영’, ‘배선왕’이라고 부르는 신을 모신다(이하 배서낭으로 표기). 배를 부리는 선주나 선장은 설·보름·단오·추석·동지 등의 명절이나 출어때 또는 배를 새로 건조했을 때 돼지머리·술·과일·야채·포·복어 세 마리·생선(몬치·승어·부새)·밥 세그릇(여서낭·남서낭·남해신)을 차리고 ‘용왕제’, ‘거릿제’를 지낸다. 이 용왕제를 거행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조상 또는 기성에 제를 지낸다. 이후 배서낭에도 음식을 진설하고, 술따르고 분향하고 절한 다음 요왕경을 외며 ‘서낭굿’을 올린다. 예전에는 해제나루터 당골이나 읍내 부당이 서낭굿을 하였으나, 함평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요즈음은 서촌의 ○○의(33세) 엄마인 양진찬보살과 일심사 스님이 징, 장고, 북, 피리를 불면서 경만 읽는 의례로 바뀌었다.

배서낭은 배의 부엌이나 선실에 모시며 각대기(상자)안에 한지, 빨강·노랑 비단형겜을 신체로 넣어 두었다. 한편, 선실앞 오른쪽에는 나무로 집(감실)을 지어서 오색깃발을 넣어둔다. 여서낭이나 각시서낭일 때는 여자옷·비녀·빗·바늘·골미를 서방서낭이나 남서낭일때는 기성(독)에 위패를, 동자서낭이나 아기서낭일때는 배의 이물(코빼기)이나 기계간에 모신다.

<조사일시> : 1986년 7월 15일

<제보자> : 김영준(남, 73), 안창문(남, 31)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 ② 참도(참섬)의 각시서낭

참섬은 읍소재지와 7km 떨어진 배산임해 마을로 동남쪽으로 적동, 서쪽으로는 서당골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현재 마을은 총47호에 240명(남 122명, 여118명)이 거주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의도와 포작도 어민이 거쳐가는 곳이었으며 임자와 낙월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기항포구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연육되었다. 참섬은 연육으로 인해 내륙이 되기 전에는 칠산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농업이 주업이고 어선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음은 참섬에서 만난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가 친정인 박순애씨를 통해 들은 자료를 기술한 것이다.

고기잡는 옆치기배(?) 선실 뱃머리에는 ‘선영’ 또는 ‘선당’이라 불리우는 뱃신을 모시는 장소가 있다. 여기에는 ‘각시서낭’을 모시는데 신체로 화장품, 가락지, 바늘, 삼색실, 삼색형겜, 얼기(레)빋, 참

빛 등의 여자소지품을 당사자에 담아 놓는다. 혹 각시서낭 외에 쑥이나 대떡이 신체가 되는 '구랭(령) 이서낭'도 볼 수 있다. 서낭은 선장이나 선주의 선물에 의해 결정되고 봉안된다. 즉, 큰애기(치녀)나 각시가 선몽하면 각시서낭을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서낭을 모시고 있는 배는 진수시, 어장을 수리한 후 출어시, 배를 건조하여 첫 출항할 때, 정월그믐·정월보름·팔월보름등의 명절때, 열무셋날이나 스무셋날에 '뱃고사'를 거행한다. 이중 배를 건조하여 첫 출항할 때는 성대하게 고사를 치루며 당골을 초청하여 '뱃굿'을 하기도 한다.

뱃고사는 선장, 선주, 뱃선원이 목욕정성하고 깨끗이 새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 밥, 시리떡, 술, 생선, 돼지고기나 돼지머리, 미역 등을 선당실 앞에 진설한 후 헌작·재배한다. 제물에서 미역은 마을에 산고가 든 가정에서 회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배선원은 배에 삼색기를 솥자에 상관없이 있는대로 쪄는다. 삼색기는 선주가 직접 만들어 달거나 회사받기도 하는데 기에 글씨가 쓰여지거나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골을 초청하여 고사를 지낼때는 배에 오르지 않고 배주위에다 제물을 차리고 징을 두들며 굿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선주와 뱃사람, 마을민은 음식을 나눠먹고 징, 팽매기, 방구를 치며 신나게 논다.

고사시에 여성은 부정있는 존재로 여겨 뱃머리(코댕이)에 오르지 못하게하며, 남자의 경우도 개고기를 먹었거나 가족중 임신부가 있으면 부정으로 간주되어 참석할 수 없다. 고사를 지냈음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다시 뱃고사를 거행하기도 한다.

뱃신인 각시서낭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신으로서 함부로 손댈 수 없으며 폐선이 되어야만 없애게 된다. 기타, 배에서 쥐가 내리면 선원들은 업으로 여겨 금기하고 출항하지 않고 있다.

<조사일시> : 1986년 7월 15일

<제보자> : 박순애(여, ?)

<수록>: 도서문화 제 5집

#### (4) 우실

##### ① 지도읍 태천리 우실

지도읍 태천리 서북쪽 들판에 400여 년 생의 팽나무 12주, 명구나무 15주와 350여 년 생의 동구나무 5주 등의 혼교림(混交林) 원형(圓形) 우실이 있다. 마을 앞 들판에 있는 이 우실은 해풍을 막아주고 마을을 은폐시켜 줄 뿐 아니라 마을의 주신(主神)을 모신 제당이 있는 신수림(神樹林)이다. 이 곳

에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팔방지신, 잡귀신을 모시고 음력 정월 3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 (5)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관습을 말한다. 이처럼 생활관습으로 정착되기 까지는 세시풍속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어도 안된다. 즉 세시풍속은 오랜역사와 넓은 지역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성을 띤 문화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이 때로는 지역적 환경이나 생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예컨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등이 서로 다름도 바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지도지역의 세시풍속은 월별(음력기준)로 정리한다. 단, 다른 분야와 중첩되는 내용은 각기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정리한다.

#### ① 지도읍 읍내리 송도마을 세시풍속

##### <정월>

설은 년중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 설날 그믐날 밤 10시 무렵이 되면 미리 장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자정이 되면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의미는 조상들에 대한 자손의 도리로, 이는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온가정에 평안과 자손에게 만복을 주십시오 기원한다.

차례는 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자 순으로 재배를 하고, 젓가락을 상위에 딱, 딱, 딱 세 번을 두드린 후 가장 맛있는 음식앞에 놓아둔다. 차례상의 음식은 설날 아침 온가족과 사촌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침 일찍 선영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온다.

차례가 끝나면, 이웃의 어른 그리고 친척들게 세배를 다닌다. 세배는 초사흘까지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월보름까지 세배 다닌 것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 되었다.

정월보름 :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부른다. 이날 맨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위팔기’라 하여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아무 영문을 모르고 대답을 하게 되면 “내더우”(내더위)라고 하여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먼저 알고 “네하나씨 콧대더우”라고 응수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하는 셈이 된다. 또 이날은 율놀이를 하여 일년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초저녁이 되면 들관 여기저기에서 불강통을 돌리며 ‘불싸움’을 시작한다. 대개 인접한 마을과 싸움을 하며, 8~9세에서부터 16~17세 가량의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다. 싸움은 마을과 경계를 이루

는 지역에서 시작하며, 서로가 점차 사이를 좁혀가면서 상대방의 불을 먼저 끄거나 아니면 상대방쪽으로 불이 많이 타들어가면 이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서로 이기려고 때로는 격렬한 타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악의가 없는 싸움이라서 곧 해소되고 다음날 만나도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게 된다고 한다.

한편, 보름날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자정이 되면 일반가정에서는 깨끗한 상을 차려 가정의 무사고를 비는 ‘살풀이’를 한다.

그리고 열엿세 열이레가 되면 동편에서 떠오르는 둥근달을 보고 달점을 친다. 보름달이 마을 앞산 위로 높이 뜨느냐 낮게 뜨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밖에 보름 풍습 가운데는 ‘메기밥’과 ‘검구치기’가 있다.

메기밥은 지금은 보기 드문 옛풍습이 되었으나, 열이레나 열여드레가 되면 보름 음식은 거의 없어지고 궁금할 때 하는 풍습이다. 같은 연령의 부녀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걷는다. 이렇게 걷힌 밥은 김치와 함께 볶아서 나눠 먹는데 이를 메기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정월 한가한때에 부녀자들이 궁금함을 달래기 위해 했던 풍습이다.

이밖에 검구(농악)치기는 달리 ‘다보한다’고도 말한다. 이 풍습은 검구(농악)를 치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집안 액막이를 해 준 다음, 음식을 대접받거나 쌀이나 돈을 기부받아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월 보름에는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 가. 설

차례 : 그믐날 저녁 자시쯤에 조상상(선영상)과 성주상 2개를 차린다. 차례상에는 집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올린다. 아침에는 떡국을 쭈어 먹는다. 차례상에는 과일, 전, 고기 등을 올리며 비늘 없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떡은 설 3일 전에 떡대에 쳐서 만들고,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일주일 전에 시루에 길러 준비한다.

세배 : 아침 일찍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올해는 공부 잘 해라” 등의 덕담도 해준다. 산소에 성묘를 다녀와서 마을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마을 어른들은 세배 온 사람들에게 술상을 대접한다. 작은집에서는 큰집으로 음식상을 차려와 어른들을 뵙는다. 그 해 시집은 새 색시는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마을

여자들은 보통 정초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묘 : 아침을 먹고 나면 가족들끼리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한다.

설빔 입히기 : 설에는 새로 옷을 해입히는데, 보통 당목이나 베에 솜을 넣어 해입힌다. 저고리 끝에 물감을 들인 것을 '간치돔방이'라 한다.

놀이 : 설에는 강강술래와 윷놀이, 널뛰기 등을 하고 논다

#### 나. 정초

토정비결 보기 : 토정비결은 정초에 책을 놓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본다.

액막이 : 운세를 봐서 좋지 않으면 액막이(맥이)를 한다. 허새비를 만들어 살아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당꿀에게 비손을 한다. 특히 삼재를 방지하기 위해 허새비를 만들어 해당자의 옷을 입힌 다음 불사르거나 바다에 띄어 보낸다.

정초 12지일 : 용날에는 비가 많이 온다하여 물을 긴지 않는다. 때문에 전날 물을 길어다 봐야 한다. 뱀날 뱀을 쫓기 위해 뱀첩을 써 붙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

#### 다. 대보름

차례(14일) : 열나흘날 밤에 상을 차리는데 이 때는 성주상만 차린다. 저녁에 쌀, 수수, 콩, 동부 등을 넣고 오탁밥을 짓는다. 마당에도 상을 차리는데, 이를 '결판'이라 한다. 결판상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 예를 들면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귀신을 위해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결판은 보름날 아이들이나 총각들이 걷어다 먹는다. 이 음식들은 한 곳을 정해놓고 가져다 데워서 며칠씩 먹는다.

밤새기(14일) : 열나흘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길어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

더위막이(15일) : 보름날에는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실을 나이 수만큼 감아 목에 걸어준다.

길쌈먹기(15일) : 보름날 아침에 김(해우)밥을 해 먹기도 하지만 따로 차려 놓지는 않는다

빨게 먹기(15일) : 보름날 아침 바다에 나가 빨게(빨에서 사는 게)를 잡아다 먹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 곡식이 잘 여문다고 한다.

까치밥 주기(15일) : 밥을 떼어서 집 주위나 텃밭에 뿌렸는데, 이를 '까치밥 주기'라고 하며 '텃밭 주기'라고도 한다.

더위팔기(15일) :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니 더우, 내 더우”하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노래기 쫓기(15일) : 보름날 저녁에 솔가지를 꺾어 지붕에 던지는데, 이 때는 “사내기 밥 주자”라고 하면서 던진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땃불(쟁부닥불) 피우기(15일) : 마당을 쓸어 모아 놓고 생대나무를 넣어 불을 피웠는데, 이를 ‘쟁부닥불’이라 한다. 이렇게 대를 넣는 까닭은 생대가 불 속에서 터지면서 내는 폭음이 크게 나면 풍년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은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 넘는데, “발바닥에 좀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뛰어 넘는다.

액연 날리기(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깡통이 나와 불깡통 돌리기를 한다.

쥐불놀이(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깡통이 나와 불깡통 돌리기를 한다.

당산제(15일) : 보름날 저녁에 당산제를 모시는데 이 마을은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 두 곳에서 켈르 모신다. 당산제를 모시는 제관은 생기복덕을 봐서 당산제 5일 전쯤에 뽑는다. 동네에서 호당 쌀을 얼마씩 각출하여 제비를 만든다. 이 중에서 떡과 밥을 할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시장에 팔아 제물을 장만한다. 제를 준비하기 전에 마을에서는 집 한 곳을 지정하는데, 이 집주인은 하루 전부터 집을 비워준다. 열나흘날 저녁부터 제관들은 이 지정된 집에 들어와 잠을 자게 된다. 이 집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은 없다. 보름날 아침이면 제관들이 집 입구와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게 된다. 또한 황토도 뿌리는데, 이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당산에 먼저 제를 모시고 다음에 할머니 당산에 제를 올린다. 제를 모실 때가 되면 마을에서는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한다. 제를 모시고 나면 제관들은 다시 마을의 정해진 집에서 잠을 자며 다음날 아침에 동네의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제관은 각자의 집으로 간다.

마당밭이(15일) : 마당밭이를 ‘겉곳’이라 부르며, 보름이 끝나면 치기도 하지만 8월 추석에 동네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치기도 한다.

줄다리기(15일) : 줄다리기는 오래 전에 지도읍에서 행해졌다.

<2월>

가. 2월 1일

2월 초하루를 ‘하드렛날’ 또는 ‘하레드렛날’이라 부른다. 이날은 농사의 병충해를 없앤다는 뜻에서 콩이나 보리 등을 볶아 먹으며, 굼벵이 없어지라 해서 굼벵이를 볶아 먹기도 한다. 또 영등할머니가 ‘바람영등’, ‘물영등’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운을 점쳤는데 바람이 아주 많이 불거나 아주 적게 부는 것을 좋게 여긴다. 바람의 강약은 장닭의 꼬리가 나부끼는 정도를 보고 측정하였다고 한다. “물영등 내린다”는 것은 이날 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농사에 좋은 징조로 여긴다.

콩 볶기 : 2월 초하루를 ‘하렛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콩과 잡곡을 볶아 먹는데, 부엌에서 콩을 볶으면서 “굼벵이 볶자, 떡볼가지(벌레)볶자”라고 하면서 볶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논밭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한다.

#### 나. 월중

개구리알 먹기 : 경칩이 되면 개구리알(용알)을 주워 먹는다.

#### <3월>

3월중에는 초사흘인 ‘삼짓날’이 있다. 이날은 이제까지 한가한 철을 보내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날로 여긴다. 그래서 이날 머슴들은 썩은 새끼로 목을 멘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머슴에게 특별히 음식을 해주거나 하루 종일 쉬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 가. 삼짓날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 지도읍에 있는 당산나무의 오른쪽 잎이 먼저 피는가 왼쪽 잎이 먼저 피는가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 나. 한식, 청명

산일 하기 : 한식 때에는 개사토나 이장 등 산일을 한다.

#### <4월>

4월에는 초파일이다. 이날은 대부분 농가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렇다고 달리하는 풍습도 없다. 다만 하루를 쉬면서 보내고 절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만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절에 다녀온다고 한다. 곡우 때 바닷물이 많이 들면 농사에 좋고 적게 들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

는 풍습도 있다.

초파일 절에가기 : 초파일에는 절에 찾아가 연등 행사를 하는데, 지도읍에 있는 절로 많이 갔다.

<5월> <6월> <7월>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과 백중의 풍습이 있다. 그러나 지도지역 주민은 이날이 와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오에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하였고, 유두에는 밀개떡(밀문지)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칠석에는 밤이 오면 북두칠성을 보고 자식의 운세를 점쳤다는 풍습이 전해 온다. 즉, 북두칠성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에 해당하는 자식이 그해 운도 좋고 출세를 한다는 것이다. 7월 백중에는 더위를 피해 물맞으러 가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가. 단오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 아침 일찍 이슬이 맺혀 있는 상추잎을 뜯어다 이슬로 얼굴을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

약초말리기 : 풀잎이 약초가 된다고 하여 달여 마시기도 하고, 뜯어다 음지에 말리기도 한다. 익모초나 선모초 등을 베어다 말리기도 한다.

나. 유두

전부치기 : 유두 때에는 전을 붙여 먹는다. 이 때 콩을 넣어 해먹기도 한다.

농신제 : 아침에 밥을 해 가지고 가서 밭에 묻기도 한다.

물맞이 : 이 때쯤 마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여 물 맞으러 다니기도 한다.

다. 5~6월중

복달임 : 복날에는 개를 잡아 복달임을 한다.

라. 칠석

전 부치기 : 이 날 전을 부쳐 먹는다.

#### 마. 백중

마을잔치 :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 막걸리와 음식을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마시며 논다.

#### 바. 7 월중

머슴 위하기 :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는 날,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가면 주인은 닭죽을 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 <8월>

음력 8월 15일은 설과 함께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다. 이때가 되면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에게는 새옷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친지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한다. 묘소는 추석 일주일 전이나 두주일 전쯤에 미리 벌초를 해둔다. 한편, 머슴을 둔 가정에서는 추석 2~3일 전에 새옷과 여비를 주어 집으로 보낸다.

예전에는 추석때 강강수월래와 농악놀이를 하며 다음날까지 온마을이 쉬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추석 당일만 쉰뿐 다음날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 가. 추석

차례 : 추석 전날 밤에 차례상을 차려 놓는다. 상은 설날 차리는 상과 마찬가지로 상2개를 차리고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차린다. 추석때는 송편을 빚는다. 송편은 햅쌀을 이용해 빚는데, 철이 맞지 않을 경우 나락을 훑어다가 시루에 쪄서 말린 다음 절구에 빵아 쌀을 만든다. 이를 '새쌀'이라 부르고 이것을 이용해 송편을 빚는다.

성묘 : 추석에는 외지에서 온 친척들만 성묘를 갈 뿐 마을 사람들은 성묘를 가지 않는다.

마당밭이 : 추석 때 마을의 돈이 필요한 경우 마당밭이를 한다. 이 때 걸굿판에 포수, 양반, 각시 등의 탈을 쓴 사람들이 함께 한다. 굿을 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샘에 가서 샘굿을 친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굿을 친다. 집에서는 추석 때 장만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 놓고, 살을 한 그릇 떠다가 상에 놔둔다. 그러면 걸굿패는 마당굿을 먼저 치고 정지굿을 친다. 마당굿을 친 다음에는 집에서 대접한 음식을 먹는다. 정지굿을 치고 난 후 상에 올려놓은 쌀이나 돈을 챙겨서 나간다. 샘이 있는 집은 정지굿을 치고 집을 나가기 전에 샘굿을 쳐준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는 나룻배를 만들어 읍과 연결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 나. 월중

조상단지 갈아주기 : 햅쌀이 나오면 집안에 모셔둔 조상단지에 쌀을 바꿔 놓는다. 기존에 있던 쌀로는 밥을 해먹는데, 이웃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 < 9월 >

9월 초아흐렛날을 ‘중구’라 부른다. 예전에는 햅쌀이 처음 나오면 이날 햅쌀밥을 지어 집안에 차려두곤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 <10월>

10월을 ‘떡달’이라 부른다. 이는 대부분 문중에서 선영의 묘소에 시제(시향)를 모시는 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달에 일부 가정에서는 햅쌀로 밥을 지어 성주 앞에 차려두기도 한다.

시제 : 10월에는 시제를 모신다.

### <11월>

11월을 동짓달이라 한다. 동지날은 동지죽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살뎁이 한다”하여 문이나 벽 그리고 대문앞에 동지죽을 뿌린다. 동지죽을 뿌리는 이유는 과거에 피를 본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려다 빨간죽을 보고 이를 피로 오인하여 달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두그릇에 동지죽을 떠놓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갈라지는 죽그릇을 보고, 그달은 가뭄이 들 것으로 농사일을 점치기도 한다.

동지팔죽 쑤기 : 동짓날에는 팔로 팔죽을 쑤어 먹고, 또 솔잎을 이용해 집 곳곳에 뿌린다.

### <12월>

12월을 ‘설달’이라 한다. 이날은 마을 노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밀린 외상값을 갚기도 한다.

설달그믐 묵은세배 : 집안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다닌다. 특히 장가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투를 올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사드리고 다닌다. 이 때는 그믐 2~3일 전부터 인사를 드려도 상관없다.

빛 갚기 : 그믐 때가 되면 가지고 있던 빛을 모두 청산한다.

세시풍속			놀이	시식
1월	설	차례, 세배, 성묘, 여자출입금기, 설빔 입히기, 떡 붙이기	웃놀이	떡국
	정초	토정비결보기, 액막이, 용날 물 긴지 얇기, 뱀날 뱀쫓기	웃놀이	
	입춘	입춘축 붙이기		
		14일 차례, 유지저 세우기, 불싸움, 논밭둑 태우기, 복조리 걸기, 밤새기		오곡밥, 나물
	대보름	15일 차례, 더위팔기, 김쌈 먹기, 찰밥 얻어먹기, 허새비 버리기, 샘물 훑치기, 뱀쫓기, 노래기 쫓기, 개미 쫓기, 무 먹기, 소밥주기, 마당밭이 뱃고사, 달점치기, 쥐불놀이, 빨개 먹기, 까치밥 주기, 땃불(젠부닥불) 피우기, 액연 날리기, 당산제, 더위막이	웃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찰밥, 나물, 무
	월중	액연 날리기		
2월	2월1일	콩 볶기, 영등, 며느리날, 썩은 새끼줄로 목매기		
	월중	개구리알 먹기, 도롱뇽알 먹기		
3월	삼짇날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한식,청명	산일 하기, 한식 추렴		
	월중	곡우물 마시기	화전놀이	
4월	초파일	절에 가기		
5월	단오	창포물에 머리감기, 풀썰하기, 상추이슬로 분바르기, 익모초즙 마시기, 약초말리기, 떡 해먹기	그네뛰기	절레꽃떡
6월	유두	차례, 논고사(용왕제, 농신제), 들에 일찍 나가지 않기, 물맛이 전 부치기		전, 밀개떡
	월중	복달임		닭, 백숙, 개고기
7월	칠석	견우, 직녀 만나는 날, 전 부치기		전
	백중	차례, 머슴날, 마을잔치, 쉬는날		
	월중	벌초, 머슴 위하기		
8월	추석	차례, 성묘, 마당밭이(걸궁치기)	강강술래, 씨름떡국	송편
	월중	올벼심리, 조상단지 같이주기		
9월	중양절	염전고사, 국화주 담그기, 떡 해먹기		국화주
10월		시제, 산일 하기, 손 없는 달		
11월	동지	팔죽 쑤기, 날씨점치기		팔죽
12월	선달그믐	설 준비, 목은세배, 빗 갠기, 수세, 불 밝히기, 집안청소하기		
연중	윤달	수의 짓기, 이장, 부엌 고치기		

<연중>

윤달: 윤달을 공달이라 하는데, '손 없는 달'이라 하여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이나 부엌 고치는 일 등을 많이 한다.

<조사일> :2003년 7월 16일

<제보자> : 김영준(남,86세), 김용대(남, 67세), 양복임(여, 87세)

<수록> : 『도서문화 제5집』, 『전라남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6) 통과의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란, Van Gennep가 명명한 학술용어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축생·성인식·혼인·죽음에 따르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관혼상제의 범주와 비교하면, 통과의례의 축생의례는 사례에 없고, 대신 사례의 제례는 통과의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현외, 1979:59).

본 지도조사에서는 통과의례와 사례의 범주를 합한 출산의례·혼례·상례·제례를 다루었다. 이중 출산의례는 인간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상례는 그 마지막 관문이다. 상례는 사회 도덕을 지탱해주는 윤리관을 확립시켜 주며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혼례는 이성과 결합하고 후손을 낳아 기르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룸으로써 사회가 존속되도록 합법성을 부여하는 의례이다. 한편 제례는 혈연유대 강화라는 기능을 갖는 조상숭배제이로서 상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통과의례는 인생의 단계마다 원활한 변화를 이루게 하고, 지위가 변천을 승인하는 기능과, 위기의식의 해소라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를 Van Gennep는 분리·변전·통합의 세의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Arnold Van Gennep, 1966:10) 거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통과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도지역의 통과의례는 몇몇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타지역의 경우와 별다른 점이 없다. 이 지역에서 분리의례는 출산의례에서 금줄과 베갯지앙을 놓는 절차와 혼례의 초행, 상례의 장례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이전의 질서를 버리고 일반사회와 격리되는 의례이다. 이에 반하여 출산의례에서 세이레나 일곱이레에 지내는 제와 백일과 돌에서 유아사망의 어려운 시기를 넘긴 통합의례로서 긴장의 해소가 이루어진다. 통합의례는 혼례의 신행에서와 상례의 탈상제에서도 나타난다. 변전의례는 분리의례와 통합의례의 과도기에 추출되는 것으로 출생의례에서는 세이레나 일곱이레가 지나는 기간이, 혼례에서는 결혼식후 처가에 머무는 기간이, 상례에서는 치장후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다음 탈상제를 지낼 때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김준기 1986: 113).

다음에서는 이러한 통과사고를 느낄 수 있는 지도지역의 의례를 출산의례 혼례·상례·제례의 순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 ① 출산의례

### 가. 기자(祈子)

기자행위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로 이는 지성기자와 축술기자로 구분된다. 이중 지성기자는 일정한 대상물에 공들이는 것이고, 축술기자는 이상한 행위나 음식으로 아이를 얻기 위한 공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도 지성의례로는 당산에 시리나 쌀을 가지고 가서 공을 드리거나 정월대보름 일주일 전부터 당에 가서 목욕하고 빈다. 또 음력 초사흘·초이레시 집안에 시리를 차려놓고 빌거나 절에 가서 불을 쓰고 (켜고) 빌기도 한다.

이러한 지성기자외에 축술기자행위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기자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자식(아들)이 없으면 큰댁의 경우는 동생의 큰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작은댁에서는 큰댁의 작은아들을 데려다가 대를 잇는다. 그리고 딸이 많은 가정은 아들이 많은 가정과 바꿔 양아들을 얻어오기도 한다. 이때는 속곳에 아이를 넣어 본인이 낳았다는 시늉을 한다.

### 나. 임신

일단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출산까지는 새 생명의 신성함 등으로 임신부는 여러 가지 금기나 믿음을 지켜야 한다.

#### 가) 임신 중 산모의 금기사항

- 산모는 초상난 집에 가지 않는다.
- 산모는 일체 짐승을 잡아서는 안된다.
- 산모는 못직을 앓는다. 이는 아이에게 못자국이 생기거나 컷부리가 붓기 때문이다.
- 산모는 창구명을 막지 않는다. 아이의 눈이 막힌다.
- 산모는 삽질을 하지 않는다. 흙을 옮기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산모는 산달에 집밖에 나가지 않는다.
- 산모는 욕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되고, 담을 넘어 다녀서도 안된다. 아이가 모진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 나) 산모의 금기 음식물

산모는 초상집 음식이나 개고기·오리고기·상억기를 먹지 않는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이나 발가락이 붙는다고 하며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눈이 나빠지고 눈갓(?)이 빨개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네발 달린 짐승은 아이의 몸에 털이나 기름기가 많다 하여 금한다. 기타 산모는 남의 생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

#### 다) 태몽

태몽은 아기를 배기 전의 예시적인 꿈이다. 이는 산모나 시모가 아이를 가지려 할 때나 갖은 후에 꾸는 것으로 주로 밤에 꾸다.

꿈에 호랑이·염소·개·소·구렁이·용·돼지·시계·구름 등이 나타나면 태어날 애기가 남자로 예점한다. 그리고 여이는 늘렁감이나 빨강계 익은 감·무·호박·외(참외)·가지·비너·뽕 등이 나타나거나 꿈이 시원치않고 새끼가 딸린 돼지를 꿈에 보았을 때이다. 다음은 제보자의 태몽에 관한 얘기를 정리한 것이다.

· 큰 구렁이가 노적에 앉아 있는 꿈을 시고모와 꾸고 아들을 낳았고 집안이 번성했다. 또 염소가 불질을 하며 달려드는 꿈을 꾸 후에도 아들을 낳았다< 박득진씨, 여 56세, 태천리 태천마을 거주>.

· 며느리가 애기를 가졌을 때 하루는 꿈에 웬 남자아이가 나타나 “이집에서 살라고 왔다”고 말했다. 그 후 손자를 낳았다.<전일매씨, 여 62세, 자동리 자동마을 거주>.

---

#### 라. 꿈에서의 징조

· 길몽 : 소를 사오는 꿈을 꾸거나 용이 보이거나 지붕에서 장닭이 울면 길몽이다. 꿈에 용이 보이면 머리가 큰 아들을 낳게 되고, 장닭이 울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긴다.

· 흉몽 : 감을 따거나 쭈는 꿈을 꾸거나 짐승을 죽이는 꿈은 흉몽이다. 특히 짐승을 죽이는 꿈을 꾸면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한다.

· 수명장수의 꿈 : 소의 꼬삿(고삿)가 길면 수명이 길고, 고삿이 짧으면 수명이 짧다.

· 수복다남의 꿈 ;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있는 꿈과 같이 숫자가 많은 꿈을 꾸게 되면 자식을 많이 얻는다. 첫아이 때 이러한 꿈을 꾸어 낳은 아이가 딸이면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이면 아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한다.

#### 라) 태접

산모의 배가 편편하고 뒤에서 보았을 때 걷는 자세가 굽지 않거나 누운 자세가 편하면 남자로 점친

다. 그리고 산모의 배가 볼록하고 뒷모습이 곱거나 누운 자세가 불편하고 아이가 항상 배의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여아로 예점한다.

#### 다. 출산

지도지역에서는 아이 낳는 것을 ‘산고들었다’, ‘연고 들었다’, ‘순산한다’고 말한다.

임산부는 만삭이 되어 해산일이 가까우면 가위와 실, 걸레, 짚등을 준비한다. 분만은 친정에서 낳는 일이 많으나 보통 시댁의 산모가 기거하는 방이나 큰방에서 한다. 방은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바닥에는 짚을 깔아 아이를 무리없이 잘 낳도록 한다. 이 때 대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험있는 사람을 불러 아이를 받도록 한다. 제보자 박득진씨의 경우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앙이 틀리다”고 하여 시댁에서 낳았다고 한다. 출산시 산모는 보드라운 헨 치마를 착용한다. 그렇지 않고 뻗뻗한 옷을 입으면 살갓을 자극하여 다리가 붓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해산시에는 반듯이 누운 자세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이불을 등글게 말아 가슴에 받쳐 힘을 주어 낳기도 한다. 또 손을 뒤로 짚고 앉아서 낳기도 한다.

이 때 산실 윗목에는 ‘지앙상’을 차려 놓는다. 지앙은 ‘지앙할매’, ‘안지앙’, ‘재앙님네’ 등으로 불리우며, 아이를 잉태해주고 낳게 해주는 내륙의 산신과 같은 아동보호신이다. 지앙상은 아이 낳기 전이나 난산시에 시어머니가 짚을 깔고 쌀·물·미역등을 차려 놓은 것이다. 여기에 놓인 쌀은 성주옆에 보관된 것이어서도 안되며 남이 손댄 것이어서도 안된다고 한다. 산후 일곱이레(21일)가 지나면 이 지앙상은 모두 치운다.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첫 아이일때는 특히 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감염주술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잘 낳는 여자의 속치마를 빌려 입기도 한다. 또 시어머니가 윗목의 지앙에 “삼지앙님네 어찌든지 우리자식 현치마에 애낳듯 잘 나게 해주쇼” 나 “지앙님네 순산하게 해주쇼, 현치마에 애기 빠지듯이 속 나게 해주쇼”라고 순산을 기원하기도 한다.

#### 가) 태처리

순산이거나 난산이건 간에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한 가위와 실로 태를 자른다. 태는 피를 훑어서 한뼘반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실로 묶은 다음 가위로 자르며 자른 태는 산모 다리에 묶어 주기도 한다. 혹 애가 나오기 전에 아이를 끌어내면 배꼽이 튀어 나온다 하여 귀한 집 아이의 탯줄은 이으로 자르는데 한번에 잘라내야 한다. 자른 태는 단지에 담아 방우(방위)를 보아 정개(부엌)로부터 멀리

덜어진 깨끗한 곳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 버리기도 한다. 이때 방바닥에 깔았던 짚을 불태워 없앤다.

#### 나) 금줄과 베갯지앙

아이를 낳으면 곧 걸막(대문)이나 산모방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개고기를 먹었거나 상가를 방문한 사람을 부정으로 간주하여 출입을 금하기 위해 치는 일종의 분리장치인 것이다. 이는 집안 어른이나 산모의 남편이 원새끼로 꼬아 만들어 치는데, 여기에 남녀의 성을 표시한다. 남아인 경우는 원새끼에 고추·숯·참종이·남근을, 여아의 경우는 참종이·숯·흰형짚을 달아 놓는다. 특히 남아의 남근은 성기형태를 원새끼로 두껍게 꼬아 만든 것으로 1~2개를 금줄에 매달아 둔 것이다. 이 금줄은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나면 걷는다. 걷은 후에는 감아서 걸막에 그대로 감아두거나 깨끗한 곳에 태워 없앤다. 조사자는 읍내리 서촌마을의 윤성용씨택에서 세이레가 지난후 걸어서 대문 기둥에 감아 놓은 금줄을 보았다. 아들금줄임에도 고추와 참종이만이 끼워져 있었다.

이러한 금줄외에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는 또 다른 분리장치로 ‘베갯지앙’ 또는 ‘지앙’으로 불리우는 것이 있다. 이는 토방기둥에 짚물을 묶어 세워두는 것으로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날 때까지 두었다가 부삭(부승)에 넣어 깨끗하게 태워 없앤다.

#### 다) 출산 후의 산모 음식

아이 낳고 산모가 처음 먹는 밥을 ‘첫국밥’ 이랑 하낫. 첫국밥은 시어머니가 지앙상에 놓은 미역이나 쌀을가지고 준비한다. 지앙상에 놓인 미역은 아들을 많이 낳는다 하여 미역귀가 많이 매달리고 새끼로 묶인 것을 구입한다. 구입한 후 원새끼로 묶어 두기도 한다. 미역국은 쌀뜨물에 주로 대하를 넣어 끓인 것으로 산모에게 맑은 피가 생기게 하기 위해 세이레 동안 먹도록 한다. 산모는 김치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후하고 이빨을 버린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한다. 또 개고기 같은 추한 것도 먹지 않는다.

#### 라. 산후의례

산후의례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3일째부터 시작된다. 이날 아침 산모와 아기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된다. 아기 목욕은 출산 후 바로 씻겨주기도 하나 대개가 삼짚날 하고 있다. 매일 씻기는 것이 아이에게 좋으나 이레에 한번씩 씻기기도 한다.

아이가 입게 되는 옷은 보드라운 것으로 만들어 입히는데 보통 미영베를 이용한다. 옷은 것을 달지

않고 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소매를 길게 만들며 웃고름을 달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기저귀는 예전의 경우 헌옷이나 미영베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부드러운 가아제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기의 베게는 서숙, 수수, 베물(메밀)껍질을 넣어 만든다. 이러한 아기의 옷, 베게, 기저귀는 대부분 형제간에 선물로 사오거나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주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손톱, 발톱이 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의 보드라운 살에 쇠(손톱깎기)가 닿으면 상할 우려가 있다하여 산모가 이빨로 잘라준다. 자른 손·발톱은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이에 싸서 변소에 버리거나 날짐승이 주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 깨끗한 곳에 버리고 있다.

#### 가) 아기젖이 부족할 때

아이 젖은 산후 3일이 지난 후에 먹인다. 그러나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산모는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약을 지어 먹어 보기도 하고 이례안에 마을 샘에 시리를 이고 가서 '지양맞아 온다'고 하여 물을 길어다가 지양상에 놓고 젖맛이 태달라고 빈다. 이를 '젖 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산모는 돼지 발목을 고아먹어 보기도 하고 쌀밥에 국을 끓여 먹기도 하며 돼지 분통개(오줌보)에 날달걀 두 개를 깨서 먹어 보기도 한다. 또 돼지 발톱을 갈아먹기도 한다. 또한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아이에게 미역국을 먹이거나 '맘'이라 하여 생쌀을 절구통에 갈아 끓여서 먹인다고도 한다.

#### 나) 삼진날과 이례

아이가 태어나 3일째 되는 날을 '삼진날'이라 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첫이례'라고 한다. 이때는 산모방과 베갯지앙이 있는 곳에 '지양'이나 '지양님네'에게 지양상을 차린다. 지양상에는 짚을 깔고 밥, 미역국, 정화수를 떠놓고 애기에게 복주고 명 주라고 빈다. 지도지역은 예전에는 일곱이례(49일)까지 지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세이례(21일)를 지내고 있다. 세이례가 지나면 금줄과 베갯지앙을 모두 치우게 되며 산모와 가족의 금기가 모두 해제된다.

#### 다) 백일과 돌

아기가 태어난 100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고 1년째 되는 날을 '똥'이라 한다. 요즈음은 의학이 발달되어 유아사망률이 많지 않으나 예전에는 태어난지 백일과 1년이 못되어 사망하는 아이가 꽤 많

았다. 그래서 백일과 돌은 온 집안의 경사로 거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지역은 백일과 돌을 거의 지내지 않고 있다. 특히 백일은 거의 지내지 않으며 혹 지내는 경우에는 간단히 떡을 하여 친척·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정도이다. 돌의 경우도 크게 지내지 않고 가족끼리 지내고 있다. 이때 친정에서 아이옷과 떡을 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떡은 친척들과 나누어 먹게 된다. 가끔은 지양상에 밥 등을 담아 놓고 “아기의 명복을 많이 태워 주소”라고 빌기도 하는데 이때 지양상에는 고기를 놓지 않는다.

라) 기타

- 아기 이름은 대개 집안 어른이 작명하는데 좋지 않으면 돈을 주고 다시 짓는다.
- 재주있는 아이는 태어나면 짚위를 낀다고 한다.
- 아이가 체했을 때는 지추(지치?)를 다려 먹인다.
- 아기가 홍역에 걸리면 문을 열지 않고 따습게 해준다. 이때 빨간 금줄을 쳐두어 추한 사람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한다.
- 아기가 이질에 걸리면 썩뿌리를 다려 먹인다.

<제보자>

1. 박득진(여56세) 태천리 태천 거주.
2. 박정월(여76) 태천리 태천거주, 친정은 지도읍내이고 19세에 결혼하였다.
3. 전일매(여62) 자동리 원자동거주, 마을이장의 모친이며 21살에 결혼하여 1남을 슬하에 둔 분으로 친정은 당촌이다.
4. 황옥심(여47) 탄동리 탄동 거주
6. 김영자(여49)·반선희(여38) 당촌리 거주, 친정은 두분 모두 중도이다
7. 윤성용(남61) 읍내리 서촌 391-1번지 거주, 본관은 파평, 슬하에 3남3녀를 두었으며 4~5년전 사사육도 당촌에서 이주하신 분이다
8. 김상엽(여48) 읍내리 서촌 128번지 거주 본관은 김해
9. 정점술(여58) 봉리 심동 973번지 거주, 친정은 자동리 효지이고 17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 ② 혼례

### 가. 의혼

혼인할 나이의 자녀를 가진 집에서는 혼처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매인의 역할이 시작된다. 중매인은 여자나 남자측의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 주로 되는데 이곳 지도에서 이들은 ‘중마꾼’, ‘중마쟁이’라 불리운다. 중매가 들어오면 우선 양가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집안이나 궁합, 성씨, 행실, 재산등을 알아본다. 특히 남자측의 경우 여자가 길쌈을 잘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한다. 궁합은 동네의 한학자에게 의뢰하거나, 점쟁이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후 양가 부모가 만나 혼인여부를 결정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랑·신부가 서로 만나는 것은 큰 속으로 인식되었다.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측에서 약혼의 의미로 ‘사성단지’, ‘사신’을 보낸다. 이때 ‘신부옷걸림’이라 하여 신부 옷한벌과 이불감도 함께 보내는데 이를 신부는 시집을 때 다시 가지고 온다. 이를 신부집으로 가져다 주는 역할은 중마쟁이가 담당한다. 또 양가에서는 ‘혼서지’를 보내는데 이를 받은 신랑측은 택일을 하여 신부측에 보낸다. 택일은 신랑측에서 마을 동네어른으로 토정비결 등 한학에 조예있는 분에게 부탁한다. 혼서지를 받은 신부측은 대부분 그대로 따르나 혹, 날이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택일하여 신랑측으로 보낸다. 또 신부측에서는 택일 이바지로 술을 마련하기도 한다.

혼인식은 택일을 한 후 보통 한달안에 올리는데 봄 또는 여름에 택일하면 가을에 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 나. 혼례식

혼례식은 신부집에서 치르게 된다. 신랑은 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데 이를 ‘초행’이라 한다. 초행길에는 신랑을 인도하고 신랑집을 대표하는 ‘상각손님’이 따르고 ‘우인대표’와 ‘중방쟁이’가 따른다. 상각은 신랑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등 친척이 주로 맡는다. 우인대표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며, 함을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이 ‘중방쟁이’이다. 특히 중방쟁이는 마을에서 아들 잘 낳고 팔자 좋고 유유머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얼굴에는 검은 숯검정을 발름으로써 액매기(액막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함에는 신부 옷한벌, 족두리, 신랑의 사모관대, 오리와 머리카락을 잘라 맨 달크락(?)을 넣는다.

신랑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전 머물수 있도록 ‘손예방(?)’으로 모신다. 손예방은 신부집을 거치지 않은 이웃에 마련한다. 신랑일행이 손예방에 안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술상을 마련하여 대접하며 신랑은 사모관대를 꺼내 갖추어 입고 식의 준비를 하게된다.

먼저 식이 있기 전 증방쟁이가 신부집으로 함을 지고 간다. 신부집 앞에서 “증방쟁이가 왔네” 하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자네! 어디서 왔는가?” 묻게 되고 다시 증방쟁이는 “나! 이만저만해서 술이나 한잔 얻어 먹자” 하면서 짙어진 함을 즐까 말까 한다. 이때 신부 어머니는 술상을 내온다. 증방쟁이는 이를 먹은 후 함을 신부측에 건네준 다음 신랑을 모시러 손예방으로 간다.

함은 아들 잘 낳고 부부가 오래도록 같이 사는 오복을 갖춘 사람이 건네 받는다. 함을 받은 부인은 함의 네모서리를 빗자루로 두드릭 세 번 깔고 앉은 후 신부어머니에게 건네준다.

함이 들어오면 신부집에서는 앞마당에 대례상을 준비한다. 지도지역에서는 이 대례상을 ‘동네상’, ‘예식상’, ‘큰상’으로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상 위에는 떡, 과일, 술 등 장만한 음식과 보자기에 싼 암탉과 수탉, 동백나무를 꽃은 꽃병이 놓인다. 그리고 청홍실이나 삼색실을 동백나무에 걸치고 두 개의 술잔에 묶어 두는데 이는 인연을 맺어 잘 살라는 뜻과 자식의 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한편 신랑과 신부의 인연이 좋으면 이 대례상에 놓인 닭이 울기도 한다.

혼례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입장함으로써 시작된다. 신랑이 식장에 들어오기 전 신부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신랑을 놀리기 위해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신랑에게 길세를 내놓으라면서 장난을 건다.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신랑은 신부의 오빠나 친척인 ‘대각’이 맞아들이고 신랑이 예를 하는데 도와 준다. 이때 식순은 예 부르는 사람이라 하여 ‘집사’가 한다. 혼례식은 이 집사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신랑하마 - 신랑이 가마에서 내려온다
- 나) 신부입장
- 다) 신랑흥- 신랑이 일어선다.
- 라) 신랑재배 - 신랑이 신부에게 큰절을 두 번한다
- 마) 신부사배 - 신부가 신랑에게 네 번 큰절을 한다. 예맞을 때 신부를 도와주는 이를 ‘대각’이라 하는데 팔자 좋은 젊은 여자가 맡는다
- 바) 신랑 흙
- 사) 신부 흙
- 아) 신랑 관세세숫물을 떠다 얼굴을 씻기는데 형식적으로 손 끝에 물으 묻혀서 얼굴에 뿌린 후 수건으로 닦는 시늉을 한다.

자) 신부 세

차) 신랑신부 합석

카) 신부입방

이렇게 하여 식이 끝나면 신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다음 신랑이 들어간다. 신랑은 신부가 읊을 처 주었을 때 들어갈 수 있으나 그냥 들어가기도 한다. 그후 신랑신부와 상각손님은 신부대에서 크게 대 접을 받는다. 상각은 대개 당일날 돌아가나, 하룻밤 묵어 가는 수도 있다. 식을 마친 신랑의 경우도 일 진을 보아 당일치기로 k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나 보통은 신부집에서 3일간을 머물다가 간다.

밤이 으스스하면 신부어머니는 신방을 꾸며 놓는다. 신방의 윗목에는 술, 대추, 밤 등이 놓인 ‘첫날밤 상’을 놓아두어 신랑, 신부가 서로 낮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부는 첫날밤상에서 밤을 먼저 집 어 먹어야 하는데 이는 자식번창하고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에서이다. 신랑신부가 신방에 들면 마을 사람들은 ‘신랑신부엿보기’를 한다. 이는 처음 대면하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신랑 신 부 중 누가 도망가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다. 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랑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신랑·신부는 장 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을 떠난다. 이때 신부가 가마에 오르면 가마주위에 소금을 뿌리고 가 마의 네모서리를 두드린후 가마 양쪽 귀통이에 참기름과 머리 기름을 매달아 준다. 가마속에는 폐백 드릴 음식을 넣어준다. 신행길에 신부를 따르는 사람으로는 신부의 큰아버지나 오빠 등이 동행한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측에서는 객귀를 쫓기 위해 단골네를 불러 징을 친다. 그리고 대문밖 에는 상을 차려 놓는데 이를 ‘떡물림’이라 한다. 시가로 가마가 들어오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준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신랑집에서 미리 마련한 쌀과 실을 감아둔 손가락을 누룩 위에 꽃아 그것을 안 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또 시부와 신랑은 삼재가 끼었다하여 도착하자마자 부엌과 뒤결을 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시가에 도착한 신부와 신랑은 먼저 선영에 피복(피백)을 하고 시부모나 가까운 일가친척에게도 피 복한다. 피복은 신부가 친정에서 마련해 온 이불, 옷,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을 차리고 한다. 피복시 에 신부와 신랑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되며 절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에 잘살라는 의미로 대추를 던져준다. 피복이 끝나면 시부모나 일가친척들은 피복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마을 사람 들은 실꾸리를 신부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신부가 시가에 온지 3일이 지나면 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하여 친정에 가는데 이를 ‘재양질’이라 한다. 이는 일년 농사를 지어 이바지를 해서 가기도 한다. 신랑 혼자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신랑과 신부가 재양질을 오면 신부측 마을청년들이 신랑놀리는 풍습으로 ‘신랑 달아먹기’를 한다. 마을청년들은 당목으로 신랑의 발목을 묶은 다음, 시령에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신랑이 똑똑한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 재양질을 갔던 신부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준 이바지를 가지고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친정어머니가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 <제보자>

1. 전일매(여, 62) 자동리 원자동거주 출산의례 제보자란 참조
2. 권복울(남, 71) 탄동리 원달 거주, 본관은 안동이고 23세에 결혼한 분이다
3. 김광태(남, 35) 동리 원달 거주 본관은 김해이다
4. 최선자(여, 58) 전순덕(여66) 탄동리 탄동 거주, 출산의례제보자란 참조
5. 김영자(여, 49) 당촌리 거주 출산의례 제보자란 참조

### ③ 상례

#### 가. 임종

사람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사람이 마지막 통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지도지역은 사람이 죽는것을 ‘운명했다’, ‘초상나다’, ‘상사당했다’, ‘제상당했다’고 말하며 돌아가신 분은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유언이라 한다. 이 유언은 대개 자손들간의 화목과 생전의 거래관계, 재산상속문제 등으로 자손들은 이를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따른다.

부모가 사망할 기미가 보이면 먼저 새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안방으로 모신다. 그리고 친지와 자손들에게 통지하고 상복·칠성판·관·시의 등을 준비한다. 통지를 받은 자손이나 친족들은 고인이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사망 전에 곡을 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있다.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자손들은 시신의 손발을 꾀다. 두 손은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게 놓고 시신의 가슴위에 엮어서 묶으며, 두발은 함께 묶어 안방벽에 발바닥이 닿게 처리하므로써 시신을 정돈한다. 그리고 시신의 이물이 입이나 코를 통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솜으로 모두 막는다. 이때 손발을 꾀는데 사용되는 것은 당목, 가야제베, 참종이 등이다.

시신의 정돈이 끝나면 혼백을 부르는 ‘초혼’을 한다. 초혼은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동정을 떼낸 저고리나 속옷을 지붕으로 던지는데 이때 “신안군 지도읍 00리 아무개 복복복”하고 세 번 외친다. 초혼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을 떠남을 알리는 것이다.

초혼을 한 수 사제밥을 대문밖에 차린다. 상에는 밥 3그릇·술·참종이로 만든 신·동전을 놓는다. 이 때 밥을 세그릇 놓는 것은 저승에서 고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온 세 명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며 동전은 사자의 여비로 인식된다. 사제밥이 놓이면 상주는 “안녕히 가십쇼”, “가시는 길 어짜든지 잘 모셔 주쇼”라고 기원하면서 곡을 한다. 사제밥은 누구나 진설할 수 있으나 체벽을 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제밥을 진설한 사람은 후에 사자상에 놓인 동전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 후 상주는 부상일 경우 왼팔 두루마기손을 모상이면 오른팔 두루마기손을 빼고 머리를 풀며 며느리나 자손들도 머리를 푼다. 사자에게 사제밥을 먹인 후에는 초혼때 던진 지붕의 옷을 내려서 사신의 가슴에 덮어둔다.

시신은 손발을 꺾었고 바르게 고정시킨 다음 안방 윗목의 칠성판 위어 놓는다. 칠성판은 ‘시판대’, ‘시성판’으로 불리우며 부엌문짝을 사용하거나 얇은 널빤지 또는 대나무를 쪼개 엮은 발을 사용한다. 이는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고 장례시 목포에서 직접 구입해오고 있다. 칠성판에는 다리·허리·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세군데에 짚등치(짚물)를 놓은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얇은 흙이불로 덮어둔다. 이때 시신의 배게는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나 짚등치를 참종이로 싼 것을 베어준다. 그리고 시신의 턱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창지(창호지)나 지푸락(짚)을 뭉쳐 턱에 받쳐준다. 또 새 옷을 맡아서 턱에 받쳐주어 고정시키기도 한다.

시신은 두향이 북향으로 놓이게 되며 앞에는 병풍을 쳐서 가리운다. 병풍앞에는 ‘시사존’이라는 혼백을 만들어 놓고 주·과·포·향·양축이 놓인 작은 상을 놓아둔다. 상밑에는 고인이 생전에 신었던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놓아둔다. 시신이 안치된 방은 ‘체벽방’으로 불리운다. 체벽방은 불을 지피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자손들이나 일가친척 외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칸방의 가정은 어쩔수 없이 체벽방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게 된다. 초혼과 사자상·시신안치가 끝나면 일가친척과 마을민에게 부고를 띄운다. 부고는 호상이나 친족대표가 주관하며 이웃사람이나 마을청년들의 도움에 의해 전달된다. 조객이 방문하면 마루에 따로 마련한 ‘빈소’에 모셔 접대한다. 조객은 성복전에 상주를 만날 수가 없으며 성복제를 지내야만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 나. 습염

염은 시체를 씻고의복을 입힌 다음 묶어 관에 넣는 것으로 크게 습과 대렴, 소렴이 있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며, 소렴은 시체를 임시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손이나 친척들 중 상을 치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아서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맡아서 한다. 먼저 시신을 칠성판에 내려서 방에 깔아 놓은 가마니에 놓는다. 그리고 시신의 양쪽에 각각 1명씩이 앉아 습염을 하게 된다. 습은 향나무를 다린 '상물'을 사용하거나 향을 잘게 깎아 이를 냉수에 담구었다고 걸러서 하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 지역에서 습은 '씻김'으로 통용되며 씻김은 준비된 상물을 깨끗한 솜에 묻혀 형식적이거나 머리부터 차례로 닦아 준다. 이때 시신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참종이를 이용해서 씻기는 부분부분을 가려가면서 씻겨 내려온다.

씻김이 끝나면 시의를 입히는 소렴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를 '소다름'이라 한다. 먼저 시신을 명주로 감고 하의부터 상의의 순으로 시의를 입힌다. 이때 명주를 감는 것은 시신의 육탈시에 빠져 흩어져 없어지지 않고 명주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주는 가로로 석자, 세로로 일곱자 일곱치를 떠서 시신을 싼 다음 7매듭을 묶는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묶지 않고 있다. 시의는 남상의 경우 바지·저고리·허리끈·두루마기 순으로 입히는데 이때 부유한 가정은 도포까지 마련하여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여상의 경우는 고쟁이(고의)·바지·속치마·겉치마·속적삼·저고리 순으로 입혀진다. 이러한 시의 여러벌은 상의와 하의를 각각 시침하여 한번에 모두 입을 수 있도록 누빈다. 시의로 이용되는 옷감은 당목이나 목면이 주로 사용되나 부유한 가정의 경우는 명주, 마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주검입성', '주검옷'이라고 하여 시의를 생전에 만들어 두거나 사망후에 상가의 대청이나 이웃집에서 준비했다고 한다.

시의를 입힌 후에 여상의 경우 머리는 곱게 빗어 버드나무를 비녀삼아 쪽을 짓고 얼굴에는 다른 세상으로 시집간다는 의미에서 연지나 끈지를찍고 화장을 시킨다. 그리고 발톱은 깎고 버선을 끼우고 창호지로 접어 만든 신발을 신겨준다. 손은 손톱을 깎은 다음 창호지로 만든 장갑을 끼운다. 이때 자른 고인의 손톱과 발톱은 베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담아 손이나 발부근에 놓아 두며 머리를 빗길때 빠진 머리도 주머니에 담아 머리말에 놓아 둔다. 자동리 자서마을에 거주하는 이현배씨는 시신의 발에 끼우는 신발은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혼서지를 접어서 신기는데 부부중에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만들어 신긴다고 얘기한다. 대개 시신의 얼굴은 면막수로 가려준다. 그러나 고인이 면막수 사용을 원치 않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씌우지 않는다. 면막수는 가제베에 먹칠을 해서 말린 것이나 잘 씌지 않은 붉은색의 베를 사용하게 된다.

소다름이 끝이 나면 ‘반함’, ‘세미넣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다. 반함은 상주가 버드나무를 깎아 만든 수저로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세 번 가랑 떠넣어 주는 것이다. 쌀이외에도 진주나 고인의 생전에 빠진 치아를 보관해 두었다가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 반함을 하는 것은 “생전에 고생해서 식복을 걸렀지만 저승에 가서는 밥이나 거르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편 제보자 안평호씨에 의하면 저승에 가서 문초를 받는데 이때 아무말도 못하게 하기 위함과 귀신이 들어 생자에게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도 얘기한다. 습염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연장)가 시신 위로 오고 가서는 안된다.

입관을 하고 관을 당목으로 싸고 묶는 것을 대렴이라 한다. 관을 묶기 위해서 참종이와 짚을 섞은 16발의 원새네끼를 꼬아 사용한다. 관이나 상여는 예전의 경우 집안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생전에 소나무 등을 미리 구해 목수로 하여금 관을 짜도록 하여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것을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중 상여는 마을공동으로 준비해 둔 것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목포나 해제 등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관에는 칠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류’라 한다. 이는 벌레가 범하거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대부분 들기름을 사용한다.

소다름과 입관이 끝나면 상주나 친족들은 굴관제복과 상복을 착용하기 위한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전 상주들은 머리를 감아빚고 목욕정성한다. 제는 예전에 온갖 음식을 마당에 차려 제사를 모셨으나 지금은 간단히 방 안에서 지낸다. 제가 끝나고 나면 모두 상복을 입는다. 상복이나 굴관제복은 대개 마포나 당목을 사용하여 마련한다. 녀상주는 마포와 창지를 풀로 붙여서 말려 접은 ‘포건’을 덮어 쓰고 그 위에 짚으로 두겹게 새끼를 꼬아서 만든 ‘테머리관’을 들렀다. 남상주의 경우는 창지에다 마포를 풀칠하여 말린 ‘굴관’, ‘부관’으로 불리우는 것을 쓰고 여상주와 마찬가지로 테머리관을 머리에 들렀다. 그리고 허리에는 짚으로 굵게 꼬아서 만든 요질을 들렸으며 상막대는 부상의 경우 대나무를 모상의 경우 소나무, 쪽나무, 오동나무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상복의 바느질은 부상의 경우 시침을 바깥쪽으로 접고 모상에는 시침을 안으로 접어 마련한다. 상주는 벼짚으로 만든 ‘엄신’을 신는데 눈이 와도 양말을 신을 수 없다.

#### 다. 치장

치장이란 시신을 지하에 매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먼저 장지와 장일을 정한 후에 출상을 한다. 장지(외자리)는 지관(풍수쟁이)이 선정해 왔으나 지금은 <사례편람>을 보고 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

이 대부분 선정하고 있다. 장지로 적당한 곳을 명당자리로 고르는데 산수가 좋고 지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주위의 산세가 환하게 트이고 나무의 뿌리가 뻗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장일은 가정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3일장을 거행하고 있다. 출상준비가 끝나면 전날 저녁에 ‘밤달애’나 ‘밤달야’라 부르는 행사를 치른다. 밤달애를 하는 의미는 으스스한 상가와 슬픔에 잠겨있는 상주를 위로하고 무덤증을 없애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때는 “상여놀린다”고 하여 빈상여를 가지고 상여를 뿔 상두꾼이 모여 ‘상여놀이’를 하기도 한다. 상여놀이는 3경·4경·5경의 세차례에 걸쳐 복과 장고를 치면서 거행되며 이때 상중들은 흥겹게 놀기도 한다.

지도지역은 마을마다 상두계나 위친계가 있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칠때는 상호도움을 준다. 계의 총책임자는 계장이며 계원은 24명으로 구성된다. 계원들은 마을에 초상이 나면 운구에서 봉분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도와주게 되어있다. 밤달애때에 와서 상여를 놀리고 흥겹게 놀고 떠들어 주는 사람들도 대부분 계원들이다. 이들은 상가에 쌀, 술, 돼지고기 등을 공급해 주시도 하여 상가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준다.

장지가 결정나면 출상일 이른 아침, 상두꾼의 몇 명은 산역을 하기 위해 장지로 간다. 산역을 하기 전에 술·과일 등의 음식을 차리고 깨끗한 사람이 ‘개토제’나 ‘산신제’라 부르는 제를 지낸다. 개토제를 지낸은 개토산신에게 아무개를 이곳에 묻노라고 고하는 것이다. 장지는 물이 고이지 않을 네자 깊이로 파둔다. 이처럼 장지를 파서 묘자리를 만드는 일은 상가의 친족중 나이가 지긋하고 상을 많이 치른 경험이 있는 분이 직접보고 지시한다.

출상하는 당일날 관이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 주·과·포 등을 차려 놓고 ‘동관제’를 지낸다. 이 때 상주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방을 떠나간다는 의미에서 슬프게 곡을 한다. 동관제 후 상두꾼은 관을 들고 먼저 방의 네 못리를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돌며 가내의 액운을 없애기 위한 주술행위를 행한다. 특히 주술행위로 이 지역은 방문턱에 톱으로 열십자를 내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엮어 놓고 상두꾼끼리 “복이나“, “아니다”로 문답하면서 바가지를 깨는 행위, 선소리꾼이 바가지를 깨지 못하면 관을 들어서 깨는 행위 등이 그 일례이다. 이 때 바가지를 깨는 행위는 혼백을 깜짝 놀라게 하여 집안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얘기 한다. 특히 시신이 굳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복걸렸다’해서 액맥이를 하는 경우도 이때가 된다. 이 경우는 안방의 네모서리에 ‘海’자를 거꾸로 붙이고 방중앙 천정에는 ‘天’자를 붙여 놓음으로써 시신의 액을 풀어준다.

동관제 후에 안방에서 내온 관은 상여에 엮어 놓는다. 상여에 올려놓고 집안의 마당에서 정든집을 마지막으로 발인제를 거행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는 집을 떠난다. 상여행렬이 길을 가는 도중에

‘노제’, ‘거리제’라 부르는 제를 거행한다. 거리제는 행렬 도중에 “관음보살”을 외며, 상여를 내려놓고 병풍을 친 다음 제상을 차려 자손들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이다. 이때 상가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나온 마을민과 어린애들을 대접하기도 한다. 거리제를 지낸 후에는 북과 장구를 치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주면 상두군은 후렴을 받으면서 놀거나 ‘호상’을 하다가 장지로 향한다. 호상은 상두꾼이 상여를 뭇 때 고인의 사위나 조카, 집안의 젊은사람 등을 상여위에 올려 태우고 망자가 저승을 가는데 필요한 ‘노자’ 즉 돈을 상여에 걸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상으로 견힌돈은 예전에는 상두꾼이 술, 담배, 돼지고기 등을 사다가 먹어 없었다고 하나 지금은 상주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한다. 상여행렬은 공포·운아·영정(명정)·만장·영위를·상여·상주 순이 된다. 혼백상자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저고리의 동정과 사진, 삼색실(청색·홍색·노랑색), 신발, 모자 등이 놓여있다. 만장은 고인의 절친한 친구나 친족들이 마포에 잘가시라, 폭쉬어라는 의미의 글귀를 써서 준 것이다.

거리제를 지낸 후 장지로 향할 때 상여가 마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면 마을을 떠난다는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는데 상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여자들은 하직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장지까지 가서 봉분작업을 보기도 한다. 상여행렬이 장지로 향하는 도중 고인이 소유했던 전답이 있으면 이를 경유하게 되어있다. 상여행렬은 상여소리의 박자에 맞추어 전진하며 상여소리는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서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한다. 상여가 평지를 갈 때 상여소리는 “어닐 어닐 어노리 넘자 어닐”을 느린 속도로 반복하며 상여가산중턱을 오를 때는 “어하넘자 어하넘자”를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장지를 도착하여 상여를 내려 놓을 때는 “관음보살”이나 “태고”를 반복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 놓는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상여가 나간 방향으로 놓고 태운다. 이때 깨끗한 물건이나 옷은 태우지 않고 불위를 몇 번 돌린 다음 자손들이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준비된 묘자리에 하관을 시작한다. 먼저 과놓은 광밑에 곱게 걸러진 황토흙을 깔거나 참종이를 깔 다음 하관하고 명정을 덮는다. 다음으로는 ‘도엿개’라 하여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를 홀수 숫자에 맞춰 명정위에 놓아 관에 흙이 직접 닿는 것을 막는다. 혼백상자는 봉분의 때를 때어 내고 묻거나 불태워 버리며 고인의 기성과 사진은 상주가 모시고 다시 상가로 돌아온다.

라. 흥제

흉제는 고인의 영혼을 산에서 다시 상가에 모시고 제를 지내면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말한다. 치장 후에 기성과 사진이 상가로 돌아오면 상주는 곡을 하면서 이를 ‘영실’에 모신다. 영실은 공방에 해당하는 빈방에 마련하거나 마루한켄 마당 한쪽에 별도의 묘를 지어 만들기도 한다.

시신을 보내고 저승에서 떠도는 영혼을 맞아다가 위안하는 뜻에서 지내는 제사로는 초우제·재우제·삼오(우)제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삿제’가 있다. 초우제는 치장한 날 바로 영실에서 지내고 재우제는 치장후 이튿날에 거행한다. 그리고 치장후 삼일째에는 삼오(삼우)제를 지내고 자손들이 모두 모여 묘의 이상여부와 봉분상태를 살피기 위해 묘를 찾아간다. 특히 이날은 장례과정에서 고생한 상두꾼 등의 계원들을 불러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함으로써 감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삿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간단히 밥을 영실에 차리고 지내는 제사이며 이때 상주는 곡을 한다. 이러한 제 이외에도 상가는 탈상하기 전까지 조석으로 밥이나 국을 영실에 차려야만이 자식으로서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망 후 3년만에 치루는 탈상이 지금은 대부분 3개월이나, 1년만에 하고 있다. 이때는 다시 상복이나 국관제복을 착용하고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새롭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혹 장례시에 조문을 못했던 조문객이 방문하는 경우도 이때이다. 탈상이 끝날 무렵에는 입었던 상복이나 굴건제복등을 모두 벗어 깨끗한 곳에 놓고 태워 없앤다.

탈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혹 이장을 하기도 한다. 이장은 살이 썩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상태, 즉 낙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통 낙근이 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다. 이장은 자손들과 마을민중에 경험있는 사람이 조용히 치룬다. 이때는 낙근된 시신을 바로 다른 장지에 매장하지 않고 일단 집안의 마당에 안치한다. 안치한 후에는 매 식사때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며 다음날 매장을 행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상례는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나 산업화에 의해 현대생활에 맞춰 복잡 잡한 것은 소멸되었거나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마. 초분·애장

초분은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차장인 가장에서 시신을 완전히 썩혀 육탈시킨 후 본장인 이차장에서 유골을 깨끗이 처리하여 매장하는 이른바 이중장제이다. 이 지역은 이를 ‘초분’ 외에도 ‘출빈’, ‘빈수(殯所)’라고도 부른다. 초분을 하는 이유는 ① 음력선달이나 정월초에는 땅을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속신 ② 홍역 등의 전염병이 나들 때 땅을 파면 안된다는 사실 ③ 부모의 시신을 바로 매장

하기가 죄스럽고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세가지로 나타난다.

초분의 형태는 산 으스스한 곳에 양쪽 3군데씩 6군데에 마장(말뚝)을 박고 관을 놓거나 소나무를 쌓고 관을 올려 놓기도 하며, 돌을 쌓고 관을 올려 놓는 형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모두 관이 땅에 바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밑에 3개 정도의 상석을 놓아두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나 습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관은 마람으로 둘러싸고 마람에는 솔가지 등을 꽂아 둔다. 초분은 마람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씌워 줌으로써 단장해준다.

본장은 3년이 넘어 완전히 육탈이 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칠성관에 참종이를 깔고 뼈를 추려내어 맞추는데 이를 ‘씻골’이라 한다. 씻골 후에는 운아삽신과 명전을 넣어준다. 시신을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제사를 모신 후 다음날 매장하게 된다. 집안으로 모실 때는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손이 없는 공방인 방향에 안치한다. 공방의 방향을 지켜야 함은 남은 자손들에게 오는 탈(피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무척 조심하는 것이다. 본장때도 상례의 출상과 같이 매장지로 향하는 시신을 향해 자손들은 모두 하직인사를 한다. 예전에는 모두 초분을 실행했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않고 있으며 없어진 지가 10여년 된다.

애장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때에 실행했던 장법이다. 지도지역은 예전에 병들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보이지 않게 돌을 쌓아 올리는 ‘독담’, ‘독장’을 했다 한다. 이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의 음침한 곳이나 한적한 곳에 하는데 돌을 엮는 것은 산짐승 즉 여우나 이리떼들이 시신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시신을 독에 넣어 매장하기도 한다. 매장시에 아이의 시신은 평소 입었던 옷이나 새옷을 입히고 앓은 요(이불)에 싸는데 부모들은 “암데라고(아무데라도) 생겨서 다시 세상봐라”고 얘기하며 다시 다른 가정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혹 매장시에 시신을 엮어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시 우리집으로 오지 말라고 죽은 아이에게 독하게 해서 보는다는 뜻이다.

#### < 제보자 >

1. 이수백(남, 67) 자동리 원자동 777번지 거주 본관은 전주
2. 이현배(남, 56) 자동리 자동 997번지거주, 본관은 전주
3. 이정오(남, 54)자동리 자서마을 거주 본관은 전주
4. 김상술(남, 67) 탕동리 원달 거주, 본관은 김해
5. 안평호(남, 60) 탄동리 탄동 거주

6. 황찬복(남, 78) 당촌리 거주, 본관은 장수, 묘동마을 황용주이장 부친

④ 제례

가. 기제

기제란 묘제를 모시기 이전 몇 년동안 방안에서모시는 제사로 지도지역에서는 ‘방안제사’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대개는 장남의 가정에서 모셔지나, 혹 장남이 먼곳에 출타하거나, 초상난 곳 등의 곳은 데에 갔을 경우에는 차남이 대신 지내기도 한다. 제일에는 자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의 업적이나 유언·교훈 등의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제사지낼 시간을 기다린다. 특히 여자들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한다.

제는 보통 사람의 왕래가 적은 조용한 밤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낸다. 자손들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에 임한다. 장남은 제물을 진설한 후 ‘독’ 또는 ‘함’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기성을 내려다 모시거나 독문을 열어 놓고 진신·분향·강신·초헌·아헌·종헌·유식·설신·음복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독은 조사자가 음내리 서촌마을 김상엽씨택과 봉리 심동의 서맹호씨택, 광정리 광정마을 주경범씨택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김씨택은 가로 37cm, 세로 22.5cm의 정육면체 벽장형태에 3대조 양위의 신위가 붙은 채 안방선반에 놓여 있었으며 서씨택도 김씨택과 유사한 벽장형태로 대청상량밑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주씨택은 같은 형태에 밤나무를 깎아 만든 위패를 내부에 모셔두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독을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모두 모셨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제사때에 바로 기성을 써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기제사가 끝나면 자손들은 한자리에 모여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간의 계조직에 대해서나 가사일을 의논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제사 외에는 그리 흔하지 않음을 제보자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묘제

묘제는 5대조 이상의 묘를 찾아 한꺼번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지도지역에서는 ‘시사모신다’, ‘시제지낸다’고 부르고 있다. 제는 묘에 가서 지내기도 하나 산중제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지내리도 한다.

이 지도지역에서 3월이나 10월에 주로 거행되는 시제는 유사에 의해 주관되며, 제주가 지낸다. 유

사는 그해 시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문중에서 선출되며, 거출된 문증돈을 사용하여 제물마련을 맡게 된다. 혹, 부휴한 문중에서는 ‘시제답’이 있어 자손들 중에서 농사를 지어 거기에서 나온 곡식으로 경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제를 진행하는 제주는 초헌관·아헌관·중헌관·축관·집례 등 5명이 된다. 이들은 집안어른중 유식한 분이나 연로하신 분 중에서 선정된다. 제의는 제주들이 도복이나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후 유사가 마련한 송어·농어·닭·돼지·떡·과실 등이 전설됨으로써 시작된다. 제기는 대개 목기를 사용하는데 유사가 이를 보관한다. 진설후에는 진신·분향·강신·초헌·아헌·중헌·유식·설신의 순으로 제는 계속된다. 제주가 헌주하고 나면 일가친척이나 집안어른 등의 참석자는 모두 재배한다. 제후의 음복은 제주가 먼저 하고 나면 참석자 모두가 나눠 먹는다. 음복은 돌아가신 선조나 부모가 드신 음식을 자식들이 조금씩 맛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시제를 지내는 동안은 제주나 유사가 지켜야만 하는 많은 금기가 있다. 먼저 초상이 났거나 산고가 든 가정 등 추한 곳에 가서는 안되며 다른 문중의 시제 모시는 곳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고기나 뱀등을 먹는 것도 금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해가 미친다고 믿고 있다.

시제를 모신 후에는 마을민과 문중어르신을 불러 대접한다. 이때는 문중 어른들과 한자리에 모여 고인에 대한 생전의 얘기나, 앞으로 문중사를 주고 받는다.

#### <제보자>

1. 김상엽(여, 48) 읍내리 서촌 거주, 본관은 김해
2. 주경범(남, 59) 광정리 거주, 본관은 신안
3. 서맹호(남, 43) 봉리 심동 거주, 본관은 달성

#### (7) 가신신앙

가신신앙은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에 위치하는 신적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정단위의 신앙이며, 그 담당자는 주부가 대부분이다. 가신의 종류로는 대체로 성주신·조상신·삼신·조왕신·티주신·제왕신·업신·샘신·축신·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신들의 명칭은 물론 존재하는 양식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역할 또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번 지도지역 가신신앙의 조사는 무작위추출한 마을에서 신체를 봉안하고 있는 주부를 제보자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이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신은 성주신·조상신·조왕신·삼신이었고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신주’가 한 가정에서 채록되었다. 이러한 가신들을 조사한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특이한 점은 타지역에서 가장 큰 신격으로 신봉되는 성주신이 이 지역에서는 약화되고 있고 반면에 조상신이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신격들이 특별한 역할 분담이 없이 집안번성·자손번창·질병방지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조사된 가신 중에서 성주신·조상신·조왕신과 신주를 서술한다. 단 삼신은 앞의 출산의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 가. 성주

성주는 가택신으로 가정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신이다. 지도지역에서 성주는 대청 상량에 위치하는데 신체는 대부분 참종이나, 집을 신축하면서 실이 없는 참종이에 ‘성주’라고 쓴 다음 상량에 끼워 놓거나, 잘붙게 하기 위해 물이나 술에 담가놓았다가 상량에 던져 붙이는 것이다. 이때 경문을 읽는 독경쟁이나 점쟁이를 불러 성주경을 읽도록 한다.

성주의 신체는 타지역의 경우 큰 동우가 모셔진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지도지역은 참종이가 신체일 분 동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의례는 간단히 명절때나 생일 때, 제사때 대청문 부근에 짚을 깔고 성주상을 차리고 난 다음 “할매 하나씨 동서남북으로 테녀도(다녀도) 몸건강히 해주고 돌봐 주시고 자손이나 명길게 복주시소” 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성주는 집주인으로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한편, 외부에서 떡 등의 이바지가 들어올 경우도 성주신이 먹고 나서야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나. 조상단지·불그릇·조상독·성주독·성주동우·성주단지

읍내리 서촌마을 김상엽씨 가정은 안방선반에 ‘조상단지’ 또는 ‘성주동우’, ‘성주독’, ‘선주단지’라 부르는 가신을 모시고 있다.(이하 조상단지로 표기) 안방선반에 위치한 조상단지는 쌀을 담고 주둥이를 창호지로 봉한 후 단지뚜껑을 덮은 형태이다. 모시게 된 연유는 단지를 원래 시모가 모시다가 없었는데 20여년전 시부가 유언을 남긴 후 계속 꿈자리가 사나와 유언을 받들어 모시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김씨는 다니던 교회도 시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단지의 쌀은 새농사 지어 부정이 없고 손없는 좋은 날인 음력 초사흘이나 선달 초하룻날 옷을 깨끗

이 갈아 입고 담는다. 이때 혹시 마을에 산고나 초상이 있으면 ‘부정탄다’고 하여 담지 않는다. 이전에 담겨 있었던 쌀은 꺼내 함부로 버리거나 짐승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식구끼리 밥을 해먹고 있다. 단지에 한번 담은 쌀은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7월 새쌀을 넣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

조상단지에 대한 의례는 간단하다. 의례는 정월 초하루나 추석의 명절때나 생일때 그리고 제사때에 장만한 음식을 진석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봉안한 오가리는 깨끗한 그릇을 사다가 놓은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자신의 신명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청상량에 봉안되는 성주와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봉리 심동의 정점술씨도 안방선반에 조령신인 ‘불그릇’ 또는 ‘조상단지’, ‘조상독’ 등으로 불리우는 자신을 봉안하고 있다. 원래 예전부터 선조들이 모셔왔던 것이라 지금도 없애지 않고 모시고 있다. 최근 오가리가 너무 더러워 버리고 새로 깨끗한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 형태는 오가리에 쌀을 담고 주둥이를 참종이로 봉한 것이다. 쌀은 햅쌀이 날 때 고마움의 표시로 약1되 가량을 매년 담고 있으며 꺼낸 쌀은 깨끗한 사람끼리 술이나 밥을 해먹고 있다. 이사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조령신인 불그릇을 옮긴다고 정씨는 말하고 있다.

다. 조왕 · 조왕단지 · 조왕보세기 · 조왕보상 · 조왕할머니

조왕은 식량공급처인 부역의 부뚜막에 모셔지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조왕단지’, ‘조왕보세기’, ‘조왕보상’ 등으로 불리우는 신체에 ‘조왕’, ‘조왕님’, ‘조왕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전씨는 조왕할머니께 매달 초하루나 보름 새벽 3시경에 중발의 물을 새로 갈아담고 “자손과 농사 잘되고 손지(손자) 잘크고 잘되게 해줍쇼”하고 기원하고 있다. 이때 중발에 담긴 물은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샘에 붓는다.

한편, 광정리 원광정 임순채씨 가정에도 ‘조왕보세기’를 모신다. 보세기는 이갑수씨댁과 같은 중발의 형태로 부역 부뚜막위에 별도로 만든 선반에 봉안되어 있다. 임씨는 분가하여 새로 살림을 차리면서 “구설듣지말고 집안 식구 잘되게 해주십사”하고 봉안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며느리가 시모로부터 인계받아 모시고 있다. 예전에 동장군이 일어나기 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중발의 물을 갈아 담고 임씨는 공을 드렸다고 한다.

봉리 심동의 정점술씨는 조왕의 신체를 봉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부역의 조왕신을 제일 무섭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바지 들어온 음식을 먼저 조왕에게 바치고 있으며 또 굶은 음식은 절대 조왕님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

라. 시주

이는 봉리 심동 정점술씨 가정에서 봉안하는 신체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가신체로써 정씨는 시집와서 본 이후로 한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봉안하고 있다. 형태는 참종이로 만든 삼각형 봉투에 쌀을 담아 안방출입문 위에 매달아 놓았다.

봉안하게 된 연유는 정씨의 시모가 점쟁이의 문점을 받은 후부터이다. 시모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홉동네를 다니며 아무 말없이 치마를 벌리고 서있다가 동냥받은 곡식을 봉투에 담아 모신 것이다.

이러한 시주외에 정씨댁은 대청상량에 '성주'와 안방에는 '조상단지'(혹은 불그릇)를 모시고 있어 가신체들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청에는 쌀 한가마 반 가량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그릇이 여러개 놓여 있는데 이를 '지사항', '지사그릇'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어떤 신앙과의 관련을 엿보이게 하나 실제 면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보자>

1. 전일매(여, 62) 자동리 원자동 거주, 본관은 천안
2. 김상엽(여, 48) 읍내리 이구 서촌 거주, 본관은 김해
3. 임순채(여, 76) 광정리 광정거주
4. 서명호(남, 43) 봉리 심동 거주, 본관은 대구
5. 정점술(여, 58) 봉리 심동 거주

(8) 무속신앙

가. 보살(양진찬보살과 정진스님의 사례)

지도읍 읍내리 서촌마을 145번지에는 보살이 한분 살고 있다. 37세때 어느날 갑자기 몸이 아파 죽었는데 정지문짜(부엌문)에 올려 놓았다가 다시 재생했다고 한다. 이후 갖은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어 점을 쳐보니 남편이 내려 1년후 상(신의 내림)을 받아 법사를 따라다니면서 굿을 하여 '공양보살네'가 되었다. 지금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프기 때문에 굿을 하며 20년을 보냈다. 공양보살네는 황금리 장동에서 태어났으나 드문리로 결혼하여 딸여섯과 아들 둘을 낳았는데 모두 잘 살고 있다.(막내딸만 미혼).

양진찬보살(58세)은 초하루와 보름, 명절때(?)에 목욕 후 집안에 모신 신당에 과실, 메 차려 놓고 빌고 일심사에 올라가서 빈다. 집안의 신당점 안방에는 대한불교 태고종에서 내린 보살호개첩(보살

호개첩, 한국불교태고종 전남 중무원, 금강계단, 이 계첩은 보살계를 받은 양진찬, 복덕화를 주어서 갖게 함, 불기 2528년 음력 3월 12일)을 걸어 놓았다. 안방의 동쪽에는 신당처럼 실내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중앙에 석가모니부처님, 보살좌상을 모시고, 아랫제단에 기기로 만든 촛대, 향로, 만수향과 불전대, 표주박, 검은염주, 황색염주, 보살옷 등이 있다. 수많은 신위를 진열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단에 亡五江五川水龍天大神靈駕 · 亡南無五方烈位神將 · 北牛大星 七元星君之神位 · 五岳明山大靈山大神位가 있고 하단에 亡女后人朴氏明神 · 亡顯魄學住張化神 · 亡魂魄孺人 金化神母靈駕의 신위가 위치한다.

공양보살집에서 북쪽 산오솔길로 10여미터 거리에 ‘일심사’의 절이 있는데, 이곳에는 광주 중심사에서 수도를 뒀던 정진스님(속명 이일남, 53세)이 20여년 절을 지키고 있다. 이곳은 빈한한 섬이고 바쁜 농촌이어서 신도가 적고 4월 초파일과 칠월 칠석날 이외에는 거의 신도의 발길이 외당지 않는다 한다. 따라서 6.25때 전사자 영령을 모시고 돌아가신분 길을 닦는 염불을 외워주는 일이 가끔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일심사는 팔작와가로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육분합문 격자창호로 된 대웅전과 우진각 기와지붕의 요사체로 되어있다. 대웅전 주변에는 불신보편10방의 내용이 걸려있다. 대웅전 법당내에는 후벽에 칠성 화와 오방신장 화가 있고, 불단 중앙에 석가여래와 양측에 탄생불 1좌와 觀世音菩薩 2좌가 있고, 향로, 촛대 2기, 범종 1기가 모셔져 있으나 시대가 100년 이내의 것이었다.

일심사 정진스님과 아랫마을 양보살은 1차적으로 스님과 신도의 관계였으며, 2차적으로 의례진행에 있어 주사제와 부사제의 관계이다. 이분들이 행하는 의례는 크게 ① 성주(炁) ②넋건지기 ③ 셋김질으로 나누어진다.

#### 가) 성주(炁)

성주는 새성주해서 이사들어 갈 때(집을 새로 지었을때) 가옥 상량(들보)에 주인영감 · 할멈의 이름, 나이, 생일과 생시를 한지에 쓰고 대나무에 꽃아서 올려두고 떡시루와 귀신 숫자대로 밥그릇 놓고 집터 주소인 신안군 지도읍 ○○리 ○○마을 ○○번지 누구누구집에서 아무날 아무시(날자, 일진, 해시)에 성주를 올린다고 성주님께 고한다.

집주인이 만사형통하도록 복돋아주시고 좋은 주인으로 입정하여달라고 소지를 올린다. 떡시루와 과일, 구신(귀신) 숫자대로(보통 할미 · 하나씨 · 성주님등 서너그릇) 밥올리고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성주경을 읽는다. 또한 죽은귀신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라고 화목경을 읽고 귀신옷을 불사른다(태운다).

#### 나) 녀건지기굿

녀을 건지는 이유는 물속에 빠져 죽은 시신의 녀이 물속에 있으므로 건져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하면 요왕에서 죽은 것이니 녀을 건져주어야 하고 수살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녀을 건질 때에는 바닷가에서 요왕밥 3그릇, 맹인밥 1그릇, 밥, 대우, 사과, 배 등 과일,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등 너무새(나물)를 차려놓고 빈다. 이때 비린것(생선)은 차리지 않는다. 제물을 진설한 후 산신경·요왕경·해원경을 읽고 신장이 나오면 질(길)닥으고, 귀신나오라고 추원(기도)을 한다. 귀신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는 간짓대에 곱패를 매달아 물속에서 녀을 잘 건진다. 곱패는 식기에 쌀과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시를 써넣은 것을 말한다. 녀은 식기안에 죽은사람 머리카락이 쌀과 함께 곱패에 담겨 나오면 건져진 것으로 판단한다. 녀건지기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2만원에서 3만원이다.

#### 다) 씻김굿

씻김굿에는 '진씻김' 과 '모른씻김' 이 있다. 진씻김은 '관머리씻김' 이라고도 하는데, 막 죽은 사람을 관에 넣고 씻겨 주거나 죽은지 49일째 해원경을 읽어 씻겨 주는 것이며, 모른씻김은 죽은지 1년이 지난 소상이나 2년지난 대상 또는 방제사때 굿을 해주어 씻겨주는 것이다.

제사음식은 성의껏 장만한대로 강변에 차려 놓으며, 씻기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 놓는다.

보살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광목을 9개 또는 12개를 묶은 고(매듭)를 풀고, 광목위에 선영배를 띄어 잘닦고 대잡으며 바다의 수사한 곳으로 간다. 그곳에서 스님은 목탁치고 불경을 외우며, 초저녁부터 새벽 서너시까지 굿을 한다. 반주악기는 북, 쟁쇠, 징(젓대(빨레)를 부는 것은 당골래식이다)을 두드리며 해원경을 외운다. 해원경은 입으로 통달해서 보지않고 입으로 읽는다. 그리고 대나무로 표지 세워 신 을 만들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다시 경을 읽고 신 을 흔들어 보아 감응이 오면, 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쌀을 담고 뚜껑을 덮은 주발을 물속에 넣어둔다.

혼백이 실리면 신을 앞세우고 망자집으로 돌아온다. 혼백은 머리카락의 형태가 밥그릇 속에서 나오는데 손톱은 나오지 않는다. 망자집으로 돌아온 보살은 음식(음식)을 차리고 조왕굿·성주굿·지신굿·해원굿을 하고 다시 고를 푼다. 다음은 종이 부쳐서 만들어 배에 부치거나 한지에 참종이 오려서 만든 녀상기(자)를 만든다. 이 녀상기는 광목에 띄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길닥고 밖에 나가 선영배를 씻기고(불사르고), 망자옷은 마당에서 태우면 굿은 끝난다. 이때 드는 굿의 비용은 5, 6만원에서 10만원~1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라) 푸닥거리

양진찬보살은 밖에 나갔다 온 후 이유없이 실실 아픈 사람은 밥차려놓고 천지팔왕경을 읽어주며, 나무나 흙을 다루다가 아플때나 못박고 눈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왕에 밥하고 물 떠놓고 동정잡아 주는 기원을 하고 있다.

나. 동정잡이(최종두씨 사례)

사람은 병이 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과 노력들도 때로는 허사가 되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수가 종종있다. 동정잡이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선 치유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을 빌어 병을 고쳐주는 일종의 축술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자동리 오룡동에 거주하는 최종두씨는 절의 스님에게 동토경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가족이 아프거나 마을민 중에서 ‘동정’, ‘동티’가 나면 동토경을 여러번 읽어주고 동토신을 쫓아 주었던 것이다. 최씨는 동토경을 읽고 나면 본인도 의아하게 여길만큼 환자가 곧바로 효험을 보고 씻은듯이 나아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20여년 전부터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고 이를 백안시하고 미신으로 간주하게 되면서부터 전혀 않고 있다.

동토경을 읽어야 하는 병명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만큼 병의 원인도 다양했으리라 여겨진다. 발병의 원인은 점쟁이나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대개 집을 신축하거나, 집안팎을 수리하고자 흙을 다루는 날짜가 좋지 않을 때, 나무를 베거나 또 좋지 않은 나무를 집안에 끌어들였을 때, 부정할 일을 했거나 안할 일을 했을 때 등으로 나타난다.

병의 증상은 일을 했던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나타난다. 특히 집안의 어린아이가 열병과 같은 고열에 시달리거나 입이 시퍼렇게 죽어가거나 이상하게 아프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증상은 동정잡이에 의해서 “동정났다”, “동티났다”고 점쳐지고, ‘흙동티’인지 ‘나무동티’ 인지가 결정난다. 동티났는가를 점치는 방법으로 점시에 콩을 담고 흥두깨를 거꾸로 세워 보아 곧바로 서게 되면 확실히 동티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동티난 것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동정잡이를 불러다가 동토경을 읽는다. 먼저 환자를 그 맥의 방에 눕힌다. 그리고 동정잡이는 부엌의 솔에 밥이 있으면 솔뚜껑을 약간 열고 주걱을 걸쳐 놓고 경을 읽게 되며, 밥이 없는 빈솔일 경우에는 솔을 깨끗이 닦고 부석(부뚜막)에 짚을 깔고 물을 한그릇 떠놓은 다음 베들의 두투마리를 걸쳐 놓는다. 그 앞에 평복차림에 머리에는 고깔을 쓴 동정잡이가 앉아 한손에 식칼을 들고서 도투마리를 두드리며 불교경전 가운데 동토경을 읽어간다. 한귀절 한귀절을 암송하면서 도

투마리를 뒤집는데 7회 또는 21회를 반복하여 뒤집는다. 어느 정도 동토경을 암송한 동정쟁이는 식칼을 밖으로 던져본다. 이때 칼끝이 집안을 향하고 있으면 귀신이 집안을 나가지 않았다고 여겨 계속하여 동토경을 암송하게 되나, 칼끝이 집밖을 향하면 귀신이 물러났다고 판단하여 암송을 그친다.

감정골에 거주하는 동정쟁이 김부기씨는 동토경을 서당에서 배웠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동티난 것과 물린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물린다’는 것은 외지출타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걸리는 병을 말한다. 그 예방법은 외지출타 후에 바로 집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측간(화장실)을 거쳐 측신에게 고향으로써 잡귀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동티났을 때 읽는 동토경의 일부 구절에 “오조조작 엄부리 엄부리 삽과하”가 있는데 이는 “까마귀나 까치, 참새 등이 어디엔들 집을 못짓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손치더라도 이해하고 물러가거라” 하는 의미라고 김씨는 말하고 있다.

<제보자>

1. 최중두(남, ?) 자동리 오룡동 거주
2. 김부기(남, 47) 감정리 감정골 거주, 동정쟁이
3. 박영식(남, 41) 마을 이장

#### (9) 민간의료

예부터 선조들은 가족 가운데 병이 나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해쓰는 약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려는 민간의료란 발달된 과학기계문명에 의해 개발된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법이 아닌 전체처방과 전통적 비방, 그리고 주술종교적 처방을 말한다.

지금도 나이 많은 노인들은 가족중에 병이 들면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거나 실제 경험하여 얻은 생활의 지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래적인 치료약 중에는 특효약이 있고, 또 널리 소문이 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요즈음에 들어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재래적인 민속약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져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의학발달사를 살피는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 까닭일 것이다.

이번 민간의료 조사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 그쳤으며, 조사된 내용도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요목식 질문과 정리에 머물렀음을 밝힌다.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낮이나 쟁기에 손발을 베면 ① 아궁이의 솔 밑바닥에 있는 껌장(그을음)을 바른다. ② 담배가루를 바른다. ③ 뱀쟁이(?) 뿌리를 찢어 바른다.
- 추위에 손발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면 ① 돼지비계기름을 바르거나 따뜻하게 해서 지진다. ② 참기름, 머릿기름을 바른다.
- 박(머리)이 터지면 된장을 바른다.
- 개에 물리면 물었던 개의 털을 잘라 불에 태운 다음 참기름에 찍어 바른다
- 독사에 물렸을 때 아편(앵쑉갓)을 먹는다
- 무좀에는 탱자를 찢어 바른다
- 옷이 오르면 ① 초가로 된 화장실 입구의 마람을 태워 그 연기를 쏘인다. ② 자신의 똥을 바른다
- 땀띠에는 ① 찬물에 소금을 타서 목욕을 한다. ② 썩은 마람을 불에 태워 연기를 쐬다.
- 눈에 다람(다래끼)이 나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꼬마들 자지(성기)에 문지른다. ③ 열기빛을 돛자리에 문질러 다람에 댄다
- 벌레에 물리거나 쏘이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식초를 바른다
- 발가락 사이가 물면(혈면) 대추를 찢어 바른다.
- 부스럼이 나면 ① 찢덕살(?) 나무를 찢어 바른다. ② 개미팔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목욕한다.
- 더위먹으면 냉수에 소금을 타서 마신다.
- 설사를 하면 ① 담장이냉쿨을 찢어 생즙으로 먹는다. ② 콩깍질이나 익모초 그리고 익지 않은 탱자를 다려먹는다.
- 체하면 ① 참기름이나 소금, 식초 등을 먹는다. ② 칩냉쿨을 입으로 자근자근 깨문 다음 깨물었던 칩냉쿨로 목구멍을 살며시 찢른다.
- 목이 쉬면 계란을 먹거나 식혜밥을 먹는다.
- 배가 아프면 청개구리를 산채로 잡아 먹는다
- 이질배피에는 ① 아편대(앵쑉갓)를 다려 먹는다. ② 익모초를 다려 먹는다. ③ 쪽나무(?) 껍질을 찢어 물에 타 마신다.
- 상완병(요즈음의 맹장염과 같은 병)에는 초가지붕에 물을 뿌려 흘러내린 물을 받아 마신다.
- 허리가 아프면 쌀을 헹궈서 싸서 가볍게 두드린다. 이르 '잔밥 메긴다' 고 한다.
- 사람이 먼곳에 출타했거나 상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측간(화장실)에 들러 측신에게 고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잡신을 막기 위함이다. 외지출타하고 병이 든 것을 '물렸다' 고 말한다.

• 정신병이 들어 점쟁이에게 점치니 신이 있다고 얘기한다. 또 “마귀가 들었다”고 하여 복숭아나무를 잘라 놓고 빈병을 앞에 놓은 다음 경을 읽는다. 그러면 마귀가 병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병을 빨리 땅에 묻게 되면 정신병이 낫게 된다.

<제보자>

1. 조성균(남, 70) 태천리 태천마을 거주
2. 오관임(여, 60) 자동리 자서 거주
3. 김갑순(남, 76) 읍내리 읍서 거주
4. 주생기(남, ?) 내양리 둔곡마을 거주
5. 정점술(여, 58) 봉리 심동 거주

<부록> 지도읍의 동계신앙 문화내용표(11개 마을)

리	마을	제명	당격	당격	신격	역할	형태	위치	제일시	제관수	제의순차	제물	제비	제주행사	현행	기타
읍내리	읍동(당촌)	당계(동계)	당, 당산나무	당할아버지	마을평안 농사풍년 짐승방지	마을평안 농사풍년 짐승방지	당목(진나무)	마을중앙	음력 정월 초하룻날 자시	제관1명 유사1명	현각, 독축, 제배, 현각제배, 현각, 제배, 소지(본축)와 축언, 사신, 음복, 철상	매, 국, 백설기시리, 술, 조끼, 페지머리나소축, 송이, 도미산해체, 침체스트레, 땅, 밤, 대추	가솔하거나 마을자금	대동계회의 금고(구)	○	邑西畵과 부부신으로 인식(동계사래2)
읍내리	읍서(서촌)	당계(동계)	당, 당산나무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마을평안 농사풍년 짐승방지	마을평안 농사풍년 짐승방지	당목(진나무)	마을중앙	음력 정월 초이튿날 자시	유사1명 제관1명	현각, 독축, 제배, 소지와 축언, 사신, 음복, 철상	매, 국, 시리, 술, 돼지머리나 소축, 나물	가솔 마을자금	대동계회의	○	(동계사래2)
읍내리	솔섬(송도)	당계(산신계)	①상당할아버지(당) ②하당(할머니)	①당할아버지 지, 분신, 절성 시, 마부신 ②당할머니	마을평안과 단결, 질병방지, 풍어와 향해전	마을평안과 단결, 질병방지, 풍어와 향해전	①원형석축 제단 ②원형석축 제단	①마을안상 정상부 ②안상 기슭	음력 정월 열나흘날 자정	제관3명	진설, 현각, 제배, 축연, 소지, 파제	평태, 밤, 대추, 떡, 밤, 감주	환담 돈을 거출(25,000원)	음복, 마을회의 농악놀이, 놀다리기	○	(동계사래3)
광정리	원광정	당계	당, 당산	①하아씨(당산할머니) ②하아씨(당산할머니)	마을안녕 질병방지가속된정기원	마을안녕 질병방지가속된정기원	①당림 ②당목(구출나무)	①꽃동산 중턱 ②마을앞보 리마당터	음력 정월 초하룻날 자시	제관1명 유사1명	진설, 현각, 독축, 유식, 제배, 소지와 축언, 음복, 퇴송, 철상	돼지머리나 다리, 시루, 해의(김), 당일주, 미역국이나 미역구이, 주파포	동담(60두), 떡, 거출(저신뽑기)	20~30년전 패지	각 가정도 함께 제를 거행함(동계사래1)	
자동리	원자동(자신당)	당계	①큰당(큰당) ②작은당(작은당)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①하아씨(당산할머니)	마을평안	마을평안	①당림 ②입석(사각석주형)	①현봉 산 중턱 ②마을 앞구 밭둑	음력 정월 14일 12시	제관1명 유사1명 축관1명	진설, 현각, 축문, 소지, 제배, 음복, 철상	돼지머리, 떡, 국, 정종, 시리떡, 미역튀김, 생미나리, 생부우	금고(저신뽑기) 대동계, 줄다리기	○	(동계사래4)	
자동리	자서	당계	당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마을평안	마을평안	입석(2기)	마을앞 밭둑	음력 정월 보름 자정	당계1명 축관1명	진설, 현각, 제배, 독축, 사신, 철상	돼지머리, 떡, 미역국, 매, 계주	추렴(날배)	○	(장성·입석사래2)	
태천리	태천	당계(산계)	당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마을평안	마을평안	①당술 ②당목(행나무)	①마을앞쪽 평지 ②마을내	음력 정월 초사흘	제관1명 짐사2명	피고사, 진설, 현각, 제배, 독축, 소리, 현식, 철상	돼지머리	동담(600평)	○	(동계사래6)	
탄동리	원달	당계	당산나무	당할아버지(당산할머니)	농사풍작 마을평안 무병장수	농사풍작 마을평안 무병장수	식축제단	①산정상 ②산중턱	음력 정월 열나흘날 밤 12시	제관2명	진설, 소지, 소원기원	오징어, 해우(김), 밤	가솔, 5천원 소요	5년 전 패지	(동계사래5)	
탄동리	열개	당계	①상당(당할머니) ②하당(당할아버지)	①당할머니 ②당할아버지	엑살과 잠 귀방지	엑살과 잠 귀방지	①당정(80년신축) 당집내 입석 17기(②당목(귀나무))	①기마산 중턱 ②마을입구 ③마을입구	음력 정월 14일 03시경	제관2명	분축, 진설, 현각, 독축, 소지, 철상	계주, 미역, 해태, 시리떡, 소축, 닭, 북어, 꽃감, 밤	동계담 (3마지기)	○	당제가 행하는 시 간에 각각도 함께 제를 거행(장성인 석사래3)	
당촌리	당말(당촌)	당계	당말당	당할아버지	마을평안	마을평안	석축제단	유산봉 정상	음력 정월 초하루	제주2명		쇠머리, 매, 마갈리, 고사리, 도라지, 과일, 흰시루떡, 단일주		○	(장성·입석사래1)	
당촌리	후촌	당계	후촌당	①당할머니 ②장성(할머니·할아버지)	마을평안	마을평안	①가면석축 유산봉 중턱 ②장성2기	①마을앞산 유산봉 중턱 ②마을앞길목	음력 정월 초하루	제주2명	쇠머리, 매, 마갈리, 고사리, 도라지, 과일, 흰시루떡, 단일주		○	장성은 1917년 건립(장성, 입석사래1)		

현지조사된 지역별 장승개요

읍면	리	마을	명칭	현존 유무	위치	수효	재료	년대	조각 글씨	기능	동계 유무	비고
지도읍	당촌	후촌	할머니·할아버지 장성	유	마을서 남쪽 입구	2기	석	70여 년전	.	마을 재역 방지	당제	하당 신체

장승의 부위별 측정표(cm)

구분	소재지	재질	기수	전고	폭	후	얼굴		눈		코		입폭 치아	개수	이		관		검고	기타 특징	
							고	폭	좌	우	고	폭			좌	우	고	폭			
1	지도읍 당촌 리 후촌	석	2기	할아버지 장성	200	.	.	.	.	.	.	11.5	9	13	.	.	.	.	.	.	.
				할머니 장성	178	33	30	55	.	.	21	9	12	.	.	.	.	.	.	.	.

현지조사된 지역별 입석개요

읍면리 (마을)	기수	명칭	규모	기능	분포위치	재질 및 특징	제유무	비고
지도읍자 동리(자동)	1	입석	높이:27, 폭:38, 두께:6	기자, 잡신·질병방지	마을 북동쪽 발	자연석	구:유 현:무	
지도읍자 동리(자서)	2	①할아버지바위 ②할머니바위	①높이:106, 폭:47, 두께 32 ②높이72, 폭55, 두께 24	잡신,질병 방지	①마을 남쪽 ②마을 남서쪽	①자연석 ②자연석	구:유 현:무	
지도읍탄 동리(단고)	3	①입석 ②입석 ③살뻘이입석	①높이65,폭30,두께20 ②높이110,폭40, 두께50 ③높이105,폭50, 두께 15	잡신·질병방지	①마을 남쪽 농로기슭 ②마을 앞 논둑 ③마을 동쪽 어귀	①자연석 ②자연석 ③자연 석유	유	

현지조사된 지역별 현행 동제개요

읍면리	마을	제명	제당명	신격	역할	위치	형태	제일시(음력)	축문	제관수	제비용	제후행사	비고
지도읍	당촌	당촌(당말)	당제	당말당	당할아버지	평안	유산봉정상	석축단	1월1일		2명(제주)		
	당촌	후촌	당제	후촌당	①당할머니 ②장성할머니, 할아버지	평안	①뒷산 유산봉 중턱 ②마을 논과 길목	①자연석 축단 ②장성2기	1월1일		2명(제주)		
	읍내	송도	당제(산신제)	①상당(할아버지) ②하당(할머니당)	①당할아버지, 칠성신, 문신, 마부신 ②당할머니	평안, 단결, 칠병방지, 풍어, 향해안전	①안산정상 ②안산기슭	①원형성 축단 ②원형성 축단	1월14일 밤 자정	유		호당거출	음복, 회의, 농악놀이, 줄다리기
	읍내	읍동(동촌)	당제	당, 당산 나무	당할아버지	평안, 풍농, 짐승방지	마을중앙	당복(전나무)	1월1일 밤 자시	유	2명(유사1, 제관1)	호당거출, 마을자금	회의, 농악놀이
	읍내	읍동(서촌)	당제	당, 당산 나무	당할아버지	평안, 풍농, 짐승방지	마을중앙	당복(전나무)	1월1일 밤 자시	유	2명(유사1, 제관1)	호당거출, 마을자금	회의
	자동	원자동(자신당)	당제	①큰당산(큰당) ②작은당산(작은당)	당할매, 당 하나씨, 칠성신	평안, 칠병방지	①한봉산 중턱 ②마을입구	①당림 ②입석:사각 석주	1월14일 밤 자정	유	4명(생기인1, 복덕인1, 유사1, 축관1)	동답	회의, 농악놀이, 줄다리기
	자동	자서	당제	당	당할매, 당 하나씨	평안	마을앞 중턱	입석2기	1월15일 밤 자정	유	2명(당제1, 축관1)	호당거출	회의
	탄동	탄동(열개)	당제	①상당(할머니) ②하당(할아버지)	①당할머니 ②당 할아버지	액살, 잡귀방지	①마을입구 ②가방산 중턱	①당목(취업나무), 입석 1기 ②당집(1980년 신축)	1월14일 새벽 03시	무	2명	동답	음복, 회의, 마당밧기
	태전	태전(산제)	당제	당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평안, 단결	①마을남쪽 평지 ②마을내	①당림 ②당목(팽나무)	1월3일	유	3명(제관1, 집사2)	동답	회의, 농악놀이, 줄다리기(구)

(10) 지도의 유형문화

① 의생활

가. 개관

우리민족 고유복식의 기본형은 대체로 裳袍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冠, 帽, 帶, 靴 또는 履가 첨부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북방 호족계통의 의복에 속하는 것이었다. (유희향[한국복식사], 1983). 즉 우리민족은 원래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며 신을 신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유복적은 김춘추가 진덕여왕 2년에 당에 청병하러 가서 당의 복제를 들여와 공복으로 사용함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복식과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조선말까지 서민들은 고유복식을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중국복식을 입음으로 해서 이중구조는 지속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유복식의 형태는 다소간 변하지만 그 기본복제에는 변함이 없고 외래복식이 관료들의 복제는 대륙의 지배세력이 바뀔에 따라 변화한다.

고유복식과 중국복식으로 대표되던 우리의 복제는 갑오경장 이후 서구의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양복으로 입으며, 여자는 양장을 함으로써 고유복식과 서구복식의 이중구조로 바뀐다. 또한 이 시기에 요즈음의 한복차림에서 볼 수 있는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등이 나타난다. 두루마기는 원래 사대부계급에서는 평일 집에 있을 때, 서민계층에서는 외출할 때 입던 옷인데 갑오경장 이후 조신의 대례복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까지 확산되었다. 마고자는 대원군이 청의 유한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와 보급이 되었으며, 조끼는 양복의 조끼를 본 따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복식은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의 이중구조로 지속되어 오다가 현재는 고유복식이 그 명칭조차도 양복에 대칭되는 용어인 한복으로 지칭되며 50대 이상의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행사복이나 의례복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고유복식이 평상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남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나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지도의 옷차림은 육지부에 비하여 약간 질박한 편이나 평상복에서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고 대동소이하나 상복 등에서 약간의 이동이 있다. 조사내용을 기록하여 고유복식의 형태나 종류,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시차 등의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② 옷차림

가. 평상복, 작업복과 외출복

가) 남자

남자 옷차림의 기본형은 바지, 저고리이며, 여름에는 홑겹, 겨울에는 두겹 또는 솜을 넣어 누벼서 입는다.

① 상의 : 적삼, 홑저고리<여름>, 겹저고리, 돗방애(솜을 넣음), 핫옷(솜을 넣어 누빈옷) <겨울>, 접옷(두겹으로 만듦) <봄, 가을>

② 하의 : 진중우<여름>, 바지<겨울>

③ 신발: 짚세기, 초분신(일명 두지기신)

④ 부자의 평상복: 부자들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더 입으며 여름에는 토시, 등구지(등거리)를 저고리 속에 끼워 입어 옷이 몸에 붙는 불편함을 제거하며, 겨울에는 겹저고리, 바지에 짐승의 털을 넣어 입기도 한다. 신발은 갓신을 신는다. 바지의 댕넘은 옷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며 댕넘과 비슷한 꽃대미가 있다.

작업복은 평상복과 크게 차이가 없어 평상복을 그대로 입고 일을 하기도 하며, 잠뱅이(잠방이), 땅중우(반바지)에 폴딩지개(조끼적삼)를 입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쟁쟁이 중우적삼(=단중우적삼)을 입는다고 한다. 쟁쟁이 중우적삼은 상의는 팔꿈치, 하의는 정강이까지 닿는 옷으로 반팔, 반바지의 형태이다. 머리에는 비나 햇살을 막기위해 삿갓을 쓰고 우장은 떠나 짚으로 엮어 입는다.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는 계절로 작업복이 따로 없다.

외출시에는 평소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는 정도이며 삿갓을 쓴다. 겨울에는 저고리 소매에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솜을 넣어 만든 토시를 끼며 휘양(휘양)이나 남바구(남바위)를 머리에 쓴다. 부자들은 의관을 똑바로 갖추어 갓을 쓰며 주평(개화장, 지팡이)을 짚고 다니다.

요즈음은 기성복으로 속옷은 면, 겉옷은 합성섬유를 주로 입는다. 가까운 이웃집 잔치에 갈 때는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멀리 떨어진 잔치집이나 장거리여행을 할 경우는 양복차림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나이드신 할아버지는 한복차림에 구두신고 모자를 쓰며 지팡이를 짚는다.

## 나) 여자

여자의 옷차림은 치마, 저고리로 남자의 옷차림 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①상의: 적삼, 홰저고리<여름>, 겹저고리, 핫저고리(솜을 넣어 누빈옷), 겹저고리(두겹으로 만들며 세탁할 때마다 뜯어서 바느질을 한다), 박음저고리(두겹으로 박아서 만듦. 세탁할 때 뜯을 필요가 없음) <겨울>

② 하의: 홰치마<여름>, 겹치마<겨울> 여자의 하의는 겉옷 보다는 속옷이 발달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겨울에는 겹겹이 끼어 입었다. 가슴은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지 않도록 동여매는 허리 띠가 있었다.

③ 버선: 홰버선<여름>, 겹버선(수놓부터 자리개 중간까지 솜을 넣음) <겨울>

외출시에는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며 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꽃신을 신으며 머리에는 조바구(조바위)를 쓴다.

작업할 때는 머리에 1자 정도 크기의 마포나 면포를 접어서 쓰며 옷차림은 평상복과 비슷하나 조금 허름하다.

약 20년 전만해도 머리에 쑤시대비너(납으로 만든 비너)에 낭자머리를 하여 짧은 머리카나 파마머리를 보기 힘들었으나 요즘은 60이상되신 할머니들을 제외하고는 낭자머리를 볼 수 없으며 옷차림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한복 대신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기성 양장복을 사 입는다.

#### 다) 초분신 만드는 법

초분신은 추운 겨울에 발등을 따듯이 하기 위해서나 뽕밭에 다닐때, 특히 염전에서 작업할 때 신이 벗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었던 것으로 신총이 발등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의 짚신이다. 초분신의 제작과정을 보면

①뗏짚을 추려 짚부스러기를 제거한 다음 물을 적셔 방망이로 뗏짚을 두들겨 부드럽게 한다.

②뗏짚 3개씩을 좌우로 갈라 길이 180cm 가량의 새끼를 꼬아 새끼의 양끝을 묶어 원형의 날을 만든다

③원형으로 된 날을 팽팽히 잡아당겨 두가닥이 겹치게 되면 가느다란 새끼줄로 중앙부를 함께 묶어 허리에잡아매고 고리가 생긴 날의 두끝을 엄지 발가락에 건다. 이때 새끼줄을 잇는 매듭은 왼쪽 겹줄의 허리끈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짚 2개를 오른손으로 잡고 좌우 발가락에 나누어 건 실날의 중앙부에 대고 오른쪽 속날부터 감아 결날로 돌려 다시 속날을 거쳐 왼쪽 결날을 차례로 몇 번 감아 신의 앞축을 만들면서 좌우 신총을 꿰어줄 새끼를 길게 만들어 준다.

⑤짚신과는 달리 발바닥을 만들면서 좌우의 신총을 9~12개 정도 만든다. 신총은 새로운 짚을 2개씩 사용하여 만들어 간다. 맨앞의 신총은 길이가 짧으며 뒤로 갈수록 점차 길어진다.

⑥신총이 완성되고 바닥도 절반 정도 만들어지면 돌귀총을 좌우에 1개씩 만들게 된다. 길이나 크기는 신총의 1/2정도인데 뒤축과 신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⑦바닥이 완성되면 뒤축을 만들게 된다. 작업 도중 간간히 단단하게 하려고 신을 다지게 되는데 손으로 짚신을 잡고 발바닥 사이에 낀 다음 힘껏 당기면서 다진다.

⑧뒷축은 돌귀총보다 조금 높게 하며 두 겹으로 만들어서 좌우에 하나씩 돌귀총과 연결되게 한다. 돌귀총에 연결된 새끼 위에 예전에는 칩깍질이나 삼깍질을 사용하여 땀시와 모양이 나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질리게 된다.

⑨뒷축까지 완성되면 처음에 만든 신총을 끼우게 된다. 맨앞에서부터 좌우 번갈아 가면서 끼우는데

실제 신총의 길이는 발 크기보다 약간 크다. 그 이유는 그속에 짚검불 등을 넣어 보온을 하기 위함이다.

⑩신총을 다 끼우고 나면 신발이 완성되는데 이때는 칼이나 낫을 사용하여 다듬는다.

나. 의례복

가) 출산복

속옷은 부드러운 미영베로 짠옷을 입고 다니다가 애기를 낳을때가 되면 속치마는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걸치마만 입는다. 미영베 전에는 마포로 짠 치마를 입었는데 애를 낳다가 살이 다 헤여서(긁혀서) 상처가 나 혼이 나기도 했다.

나) 유아복

갓난 아기에게 입히는 옷을 ‘배안에 저고리’라 하여 아기의 엄마 될 사람이 손수 준비하거나, 형편상 준비를 못하는 집은 부자집에서 입혔던 아기옷을 가져다 입히기도 한다. 옷감은 미영베(요즘 가재베)를 사용하며 거의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누벼 짓(깃)은 달지 않고 소매는 아기의 손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길게 만든다. 옷고름은 한 줄 정도로 가늘게 하며, 저고리의 여밈은 이 옷고름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 아기에게는 저고리만 입히며, 저고리의 길이는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 가릴 정도이다. 옷 이외에도 기저귀나 베개를 장만하는데, 아기베개는 메밀껍데기나 찌지않은 서속으로 베개속을 넣는다. 이 모든 것은 산전에 엄마가 미리 준비하나 30~40년 전에도 부자집에서는 아기옷이나 기타 필요한 준비물은 사다가 입히고 그 옷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다) 혼례복

혼례복은 그 시대나 유행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온 복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구식혼례의 경우 신랑, 신부의 의복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지어 한집에 맡겨놨다가 ‘례 맞을 때’ 빌려 입는다. 이곳은 사모관대를 ‘예복’ ‘관대복’ ‘관대’라 부르고, 원삼족도리를 ‘족도리 옷’이라 부른다.

먼저 신랑복을 보면, 민속수(삶아 익혀 명주실로 짠 무늬가 없는 옷감)로 만든다. 안감은 다홍색에 겹감은 남색인 관대복에 쌍학의 흉배를 앞뒤로 달고 속옷은 미영으로 짠 속적삼, 바지, 저고리를 입는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붉은 요대를 하며, 신은 게오자를 신는다.

신부는 검정과 빨간색의 천과 구슬을 이용해 만든 족도리에 붉은 땡기를 드리우고 모시적삼, 분홍 저고리, 속바지, 홍색치마를 입고 이 옷 위에 안감은 다홍색 속고사에 겹감은 진녹색 속고사로 지은 원삼을 입는다. 신은 신코에 예쁜 꽃무늬를 놓은 꽃신을 신는다.

지금은 레를 거의 예식장에서 올리며 신량은 검정이나 끈색의 양복바지, 저고리에 구두를 신고, 신부는 흰 면사포에 드레스를 입고 흰구두를 신는다. 사모관대와 원삼족도리는 폐백시에 잠깐 예식장에서 빌려 입는다.

#### 라) 상복

상복은 전통적 재래복식이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감은 마포가 주류를 이루나 요즘은 미영베에 노랑물을 들인 천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미리 준비해두는 집도 있으나 사후 준비하는게 대부분으로 여름에는 마당이나 대청에서, 겨울에는 방에서 옷을 짓는다. 옷을 지을때 사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옷감을 안쪽으로 접어서 바느질(안어른 이라해서)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바느질(바깥어른 이라해서)한다. 바느질할 때 뒷바느질하면 '죽은자가 뒷말을 한다' 하여 듬성 듬성 바느질한다. 상복만들때 상제들이 신는 신을 '엄신'이라 하며, 원생원(상주)은 굴판재복이라 하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이음새(바느질 자리)가 뒤로 가게 한 포건(건)을 쓰며 짚으로 원새대끼를 꼬아 손가락 길이만큼 만든 수질을 포건 양쪽의 귀부분에 단다. 허리에는 짚으로 만든 요질을 두르고 상장목(상장막대기)을 짚는다. 다리에는 행건(행진)을 두르고 엄신을 신는다.

원생원 이외의 상제들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 이음새가 뒤로 가게 한 포건을 쓰고 상장목을 짚는다. 행건을 두르고 엄신을 신으며 수질은 달지 않는다. 자식이 아닌 조카들은 포건의 이음새가 옆으로 가게 하며 수질과 지팡이는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상중에 머리를 풀고 마포수건을 쓴다. 수건과 치마, 저고리에 버선과 엄신은 공통으로 착용하며 큰며느리나 할머니는 수질을 달고 요질을 두르며 상장목을 짚는다. 며느리와 친딸은 머리에 마포로 된 때를 왼쪽으로 꼬아 한겹은 두겹고 다른 한 겹은 가늘게 하여 2겹을 합해 다시 왼쪽으로 꼬아 그 사이에 솟을 달아맨 것을 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의 상복도 마찬가지로 준비한다.

지금은 상복을 전문적으로 짓는 집에서 사다 입는 일이 많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한다.

#### 마) 수의

수의는 집안의 식구들,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이 준비하며 사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천(마포)을 바깥

으로, 여자일 경우에는 안으로 접어 바느질 한다. 여름에는 마루나 대청, 겨울에는 방안에서 짓는다. 준비하는 옷가지는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를 지으며 집안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미영으로도 준비한다. 사람이 겨울에 죽었다해도 준비하는 옷감은 마포이다. 옷 치수는 평소의 것보다 4~5치 정도 크게 만들며 저고리는 동전을 만들지 않는다. 신은 참종이(한지)로 만들어 앞·뒤부분만 풀로 살짝 붙여 신기고 얼굴에는 공자형의 민박수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씌운다. 남자 일 때는 종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여자 일때는 오동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아준다. 바지는 속바지와 겉바지의 허리와 부리 부분을 같이 꿰매고 치마도 겉치마와 속치마의 허리부분을 같이 꿰맨다. 수의를 지을 때 이웃에서는 이도 안잡고, 빨래도 하지 않으며, 바느질도 하지 않는다.

#### 다. 바느질과 빨래

##### 가) 바느질

바느질에 사용되는 바늘에는 이불이나 큰 옷감을 바느질 할때 사용하는 또바늘 또는 작대기, 가벼운 옷을 바느질 할때 사용하는 바늘 또는 중침, 수놓을 때 사용하는 시침 또는 가는것이 있다.

바늘 외의 도구에는 상지(반진고리), 실패, 실, 가위, 자, 골미(골무)등이 있다. 실은 무명이나 명주 실을 사용하며 두꺼운 천을 꿰맬때 손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끼우는 골무는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끼우게 되어 있으며 두꺼운 광복이나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느질시 실수로 손이 찢리게 되면 그 손가락 부분을 코에 대고 숨을 내쉬면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 <손바느질 종류와 용도>

뜯바느질 : 저슬개(겨울에 입는옷)

감침질 : 여름옷, 봄살이

박음질 : 여름에 입는 옷 봄살이(봄철에 입고 지낼 옷가지)

시침 : 가바느질시 나중에 뜯는다.

뜸질 : 치마단, 귀통이

푸세(푸서)에 바느질 봄살이

##### 나) 빨래, 다듬이질

빨래는 대개 집에서 하는 손빨래가 대부분으로 물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집에서는 집안의 샘(우

물)에서 하게 된다.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수도물로 빨래를 하기도 하나 샘이 남아 있는 집은 샘에서 한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도 한다. 흰것과 색이 있는 빨래는 함께 섞어 빨지 않으며 색이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빨아 뒤집어서 말려 햇볕에 오게 두지 않는다. 흰 것은 더욱 희게하기 위해 두 세 번 빨아 널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때가 잘 빠지지 않는 천은 잿물을 풀어 삶거나 밀대(밀짚)를 시루에 받아 때를 뺀다.

다듬이질은 빨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빨랫감이 고루 퍼지게 하는 목적과 윤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듬이질의 대상이 되는 옷감은 옥양목, 백목(무명), 명주 등이 있고, 특히 이불호청과 같은 것은 다듬이질의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축축할 때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린다. 완전히 말라버렸을 경우에는 밥그릇이나 다른 용기에 물을 떠다 입에 머금고 뿜어내면서 다리는 방법도 있다. 백목은 풀을 먹여 흥두깨질을 하여 주름을 펴고 윤을 내며, 다른 빨래감은 다듬이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마포는 두드리지 않고 발로 밟는다. 저고리의 깃을 다려 선을 굵을 때는 깃에 밥풀을 묻혀 인두로 굵고, 다른 부분은 인두판(?)으로 다린다.

#### 다) 염색

- 검정색 : 검정물을 사서 조달(양젓물)과 함께 섞어 저으면서 푹푹 삶는다.
- 흰색 : 조달을 사용하거나 없을 때는 지푸라기대나 메밀대를 시루에다 받아 그 물로 염색한다.
- 노란색 : 감물을 사용하거나 치자물을 들여 입는다. 이때는 맹기(무명)에다 치자물을 들여 입는 게 최고급 옷이었다.

#### <제보자>

- ① 박득진 (여 56세 태천리 태천마을)
- ② 최석년 (남 56세, 광정리 적거마을)
- ③ 박봉화 (여 90세, 광정리 적거마을)
- ④ 최종태 (남 50세, 광정리 적거마을)
- ⑤ 방영숙 (여 71세, 감정리 백련골)
- ⑥ 박개수 (남 75세, 내양리 외양마을)
- ⑦ 최용석 (남 57세, 탄동리 내도마을)
- ⑧ 김순용 (남 56세, 읍내리 1구)

- ⑨최금희(여 78세, 봉리 서동 293)
- ⑩입하순(여 64세, 봉리 서동 293)
- ⑪장정열(남 72세, 읍내리 1구)
- ⑫김근석(남70세, 탄동리 내도마을)

라. 방적

가)베짜기

지도에서 길쌈이라 함은 무명베 짜는 일을 말한다 명주는 소량으로 하였으나 삼베나 모시베는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목화는 재배의 주산지로 명성이 매우 높았다. 호당 500~1,000근 썩의 목화를 수확하여 50~100근은 길쌈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판매하였다. 목화의 재배에서 베짜기까지의 과정과 무명베의 종류, 길쌈도구 등을 알아본다.

(가) 미영의 재배

미영은 음력 3월말 내지 4월초순에 보리밭 사이에 심는다. 보리가 여물이 들고 노랗게 익기 시작할 때 쫄 아낙들은 보리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도랑의 사이사이에 미영씨를 심는다. 보리가 익으면 조심스럽게 베어내고, 어느 정도 자란 미영을 가꾼다. 가끔 미영밭을 매는데 “화중밭 맨다”고 한다. 화중밭은 수확할 때까지 세 번 매고 수확은 8월부터 한다.

(나)수확한 미영은 잘 말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따로 담는다. 다래가 활짝피어 송이가 복슬복슬한 것이 좋고 다래가 완전히 피어나지 않고 빛이 검은 것은 좋지 못하다. 대체로 좋은 것은 상품의 베를 짜고, 나쁜 것은 하품의 베를 짜거나 이불솜 등으로 쓰인다.

(다)씨앗이로 앓는다. 미영씨를 빼내는 작업으로 씨아에 미영을 넣고 돌리면 미영씨와 솜이 분리되어 나온다. 미영씨로 짠 면실유는 식용유, 덴뿌라유로 사용하거나 세탁비누로 만들어 썼다.

(라) 활로 탄다. 씨를 뺀 솜을 대나무로 만든 활의 줄에 닿게 놓고 꼭두말로 활줄을 튕기면 뭉쳐있던 솜이 보드랍게 부풀려진다.

(마)꼬치를 만든다. 바닥에 판자를 깔로 몰대(수수대)를 이용하여 솜을 말면 약 30cm의 솜덩이가 되는데 이를 “꼬치”라 한다.

(바) 물레에 잣는다. 물레는 꼬치를 실로 만들어 내는 기구이다. 몸체와 피머리를 가래장으로 연결하고, 가래장 위에는 물레독을 올려 고정한다. 피머리에는 가락을 기우게 되어있고 가락과 몸체는 물

레줄로 연결이 되어있어 물레를 돌리면 가락이 같이 돌아간다. 오른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왼손으로 꼬치를 잡고 쪽 뺀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가락에 실을 감는다. 이 때 가락에는 짚 껍데기(가락웃)를 끼운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실이 고구마 형태로 주먹만큼 커지면 빼어내는데 이를 “명땡이”라 한다. 명을 잦을 때는 품앗이를 하는데 아침 먹고 시작하면 저녁 먹고 돌아온다. 부자집에서는 품을 산다.

(사) 고무래에 명땡이 10개를 끼워 놓고 실 10줄을 동시에 잡아당겨 망태에 차곡차곡 담는다.

(아) 마당에 말뚝을 두 개 박고 망태의 실을 나르는데, 말뚝 사이의 거리는 20자이며, 한번 왔다 갈 때마다 형짚 등으로 표시를 한다.

(자) 나른 실을 질기게 하기 위하여 솥에 넣고 풀(곡식으로 만듬)을 조금 풀어 삶는다. 삶은 실은 물을 짜서 잘 말린다.

(차) 실을 보두에 켜다.

(카) 베를 맨다. 멀리 꼬실쿠 위에 맷돌(맷돌)과 함께 실을 엮고, 이쪽은 도투마리를 뱃말 위에 올려 놓고 솔로 풀을 먹인다. 풀을 먹인 아래에는 모닥불을 피워 풀칠이 잘 마르게 하며 풀칠이 마르면 도투마리에 감는다. 이대 실이 엉키지 않게 뱃대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타) 베를 찐다. 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에 엮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북고 보두(보디)를 번갈아가며 잡고 때리면서 베를 찐다. 북속에는 꾸리가 있어 명땡이 두 개를 감으며, 20자를 찔려면 꾸리 5개가 필요하다.

<표 1> 물레의 명칭비교

번호	표준말	지도
1	꼭지마리	꼭두말
2	동줄	거무줄
3	굴동	굴뚝
4	물레줄	물레줄
5	물레돌	물레돌
6	고동	가락고리
7	가락	가락
8	물레바퀴	물레살
9	가리장나무	가래장
10	피머리	피머리
11	피머리기둥	피머리기둥
12	설주	

<표 2> 베들의 구조와 명칭

번호	표준말	지도	번호	표준말	지도
1	용두머리	원산	16	바디	보두
2	뒷기둥		17	바디집	보두집
3	베틀신대		18	북꾸리	꾸리
4	도투마리	도투마리	19	눈썹줄	
5	사침대	사침	20	눈썹노리	
6	뱀덩이	뱃대	21	눈썹대	원산대
7	베틀다리		22	북(북바늘)	북(북단개)
8	베틀신끈	신끈	23	최활	켓발
9	베틀신	고걸이	24	말코	몰코
10	눌림끈	눌림대줄	25	부티끈	허랑개끈
11	비경이	빙어리	26	부티	허랑개
12	눌림대	눌림대	27	앞을개	앞일개
13	잉아대	잉애대	28	다울대	밀침대
14	잉아	잉애	29	가로대	가래장
15	속대	고패대			

베들의 구조는 내륙부와 다름이 없으나 명칭은 다소간의 이동이 있다.

베를 짜다가 베올이 끊어지면 “풀소금”으로 잇는데 누에고치를 잣물에 삶으면 고치가 풀어져 나풀 나풀해진다. 이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조금 떼어 손으로 문질러 잇는다.

베들은 큰방이나 작은방에 설치하는데 큰방에 놓을 때는 윗문쪽에 붙여서 놓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나) 미영베의 종류

##### (가) 보디에 따른 종류

베올이 곱고, 거칠음은 몇 새 보두로 잦느냐-즉 몇새 베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보두의 구멍이 40개이면 한새다. 그러므로 여섯새는 보두 구멍이 240개, 여덟새면 320개이다. 또한 각 새마다 두 번걸이 세 번걸이가 있다. 예를들어 여섯새 두 번걸이는 보두 구멍이 240개 하고도 10개씩 두 번이 더 있다는 얘기로 구멍은 총 260개가 된다. 여섯새 세 번걸이는 구멍이 270개이다.

그런데 실을 보두에 꿰때에는 한구멍에 두올씩 꿰어야 하므로 여섯새 베는 실이 모두 480올, 여덟새 베는 640올이 되며 여섯새 두 번걸이는 520올이 된다. 단위가 높아질수록 상품이며 짜기도 힘들다

미영을 잦을 때 굵게 잦느냐 가늘게 잦느냐에 따라 몇새 베를 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굵게 잦으면 5~6새, 가늘게 잦으면 8~9새의 베를 짜게 된다. 그 이유는 굵게 잦은 실은 8~9새 모두에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간다해도 베를 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도에서는 다섯새에서 아홉새까지의 베를 짤다.

#### (나) 직조법에 따른 분류

##### 가. 외올베

석(3)새베를 말한다. 여섯새 모두에 한구멍씩 건너서 올을 꿰고, 베를 짤때도 모두집을 가만가만 쳐서 얼얼얼얼 짤다. 보통 여름에 여인들이 치마를 해 입는다.

##### 나. 자오새베

자오새베는 미영을 잦을 때 오야 잦은 미영덩이와 오리 잦은 미영덩이를 3:7의 비율로 섞어서 짤 베를 말한다. 오야 잦는다는 말은 왼쪽으로 잦는다는 뜻인데, 물레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가락에 거무줄을 걸때 꼬지 않고 바로 걸면 가락이 오른쪽으로 돈다. 이 방법은 일상적인 방법인 오리 잦을 때(거무줄을 한번 꼬아 건다)와는 반대로 가락이 돌아간다. 그러기에 솜씨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실을 가늘게 잦아 보통 7~8새베를 짤다. 옷을 해 입으면 윤기가 나고 보기도 좋아 고급품으로 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영을 모두 오리 잦되 고무래에 미영덩이를 하나는 옹게 끼우고 하나는 거꾸로 끼워 빼낸 실로 베를 짤다. 이렇게 짤 베를 자로새베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칙적인 수법이 아니며 옷을 해 입어도 덜 이쁘고 상품의 가치도 덜하다.

#### ○ 가락에 거무줄 거는 방법

- 오리 잦을 때(가락이 왼쪽으로 돈다)
- 오야 잦을 때(가락이 오른쪽으로 돈다)

#### (다) 노란 미영베

미영이 노란색이다. 다래가 작아 수확이 적다. 전체를 노란 미영으로 짜기도 하지만, 보통 흰 미영을 섞어서 짤다. 많이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 다) 미영베의 세탁

- 베를 다 짜면 젖물에 삶는다.

-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아 널으면 하얗게 바랜다.
- 풀을 해서 말린다.
- 다듬이돌 위에 놓고 다듬이질 한다.
- 접어진 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홍두깨에 올려 다듬이질한다.
- 풀을 써서 동구리나 고리짝에 담아둔다. 풀을 쓴다는 말은 안팎을 구별하여 접는다는 뜻으로 미영베를 길게 반으로 접는다. 옷을 해 입을 때는 접어진 안쪽이 밖이 된다.
- 필요할 때 적당량을 잘라 옷을 해 입는다.

## ② 식생활

### 가. 개설

지도는 원래 섬이라고는 하지만 생업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어서 식생활도 육지부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한국의 전통농촌형의 생활양식 속에서 영위되고 있다. 다만 수원이 부족한 섬지방의 특성 때문에 종경지는 논이 51.5%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남의 논비율 61.2%, 전국의 59.4%에 비해 논이 적고 밭이 많다. 따라서 잡곡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민들의 주식도 잡곡을 혼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부식류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김치의 조리에 있어 지도지방에서는 새우젓국을 삭여서 넣음으로써 전남 내륙부가 대체로 멸치젓을 넣는 것과는 비교가 되고 있다. 이것 역시 새우잡이 어장인 전장포가 지리적으로 가까워 젓국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문화라 할 수 있다.

지도에는 “딸이 이쁘니까 삐비죽 주고, 며느리는 미우니까 송쿠죽 준다”는 속담이 있다.(제보8). 이것은 옛날 지도의 식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속담이라 할 수 있는데, 띠풀의 꽃(삐비)을 넣어서 쓴 죽은 딸아이에게 주고 며느리에게는 뚝은 소나무 속껍질인 송쿠(송기)를 넣은 죽을 먹었던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다 할 것이다. 지금도 대체로 주민들의 식생활은 검소한 편인데 근대화 이후에는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나. 일상식

이주 부유한층을 제외한 일반서민들은 대부분 잡곡밥에 실가리국이나 된장국, 김치, 젓갈이 하루 세끼의 식사였다. 간혹 여유가 생기면 생선국이나 고기국을 끓여 먹었다(제보1). 부자집에서는 어른들은 쌀밥, 며느리나 일꾼들은 쌀과 보리를 섞은 밥을 먹었으며 부식으로는 김치 이외에 회, 고기, 생

선에 생선국, 고기국을 먹었다. 장독대 항아리 속에는 다식, 약과, 정과, 유과, 꿀, 화채, 약식, 강정 등을 만들어 넣어 두고 언제고 꺼내 먹었다(제보5). 일상식의 종류를 보면,

- 밥 : 쌀밥, 보리밥, 찰밥, 조밥, 고구마, 돈부밥, 콩밥
- 죽 : 송쿠죽, 쑥시죽, 흰죽, 밀가루죽, 쌀죽, 녹두죽, 깨죽, 메밀죽, 보리깨죽(보리겨죽), 터럭적, 팔죽
- 국물 : 실가리(시래기)국, 소금국, 미역국, 된장국, 생선국, 고기국
- 김치 :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김치, 총각김치, 동김치, 오이김치, 고추김치
- 나물 : 녹두나물, 콩나물, 곰반불레나물, 시금치나물, 고구마순나물, 고사리나물, 토란나물, 들복나물, 미나리나물, 무나물
- 장아찌 : 무장아찌, 들깻잎장아찌, 된장장아찌, 마늘장아찌, 고춧잎장아찌, 풋고추장아찌
- 구이 : 전어구이, 조기구이, 강다리구이, 명태구이
- 젓갈 : 송어젓, 반지락젓, 멸치젓, 엽삭젓, 석화젓, 새우젓, 병치젓, 갈치젓, 게창젓
- 찜 : 게찜, 가오리찜, 홍어찜, 명태찜, 감자, 고구마
- 떡 : 쑥떡, 호박떡, 찰떡, 흰떡, 방시리떡, 무지개떡, 시리떡, 보리개떡 등이 있다.

이중 미역국은 소금, 미역, 참기름, 쌀뜨물을 함께 끓인 국으로 요새의 닭고기나 쇠고기는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다. 장아찌류는 거의 소금이나 된장에 넣어 짠맛이 배도록 한다. 김치류는 새우젓국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담았으며 그 외 송어젓, 강다리젓, 잡어젓, 멸치젓을 간혹 사용키도 하였다. 고추김치는 고추를 소금에 절여놓았다가 꺼내어 다시 젓국 속에 넣어두고 먹을 때 꺼내어 갖은 양념을 한다. 떡 종류 중 보리개떡은 보리가루를 반죽하여 팔고물을 묻혀 먹는다.

#### 가) 저장식품

(가) 간장 : 메주를 건져낸 장항아리 둘레에는 원새내끼에 종이 자른것, 고추, 숯 등을 꿰맨 금줄을 둘러서 부정을 막는다. 또 장을 담글 때는 송장이나 출산하는 것을 보지않아야 한다. 만약 보게되면 장맛이 쉽게 변한다.

(나) 외장아찌 : 참외가 거의 들어갈 때쯤 나오는 참외를 두조각내어 소금에 간했다가 된장에 넣어 둔다.

(다) 된장장아찌 : 무를 15일 정도 말려 쌀뜨재(왕겨)에 노랑물을 섞어 된장속에 넣어둔다.

(라) 고추잎장아찌 : 고추잎을 소금에 절여놨다가 건져서 씻어 먹는다.

## 다. 의례식

### 가) 제례음식

가가례라 하여 집안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광정리 적거마을의 최석년씨 덕과 감정리 백련골 방영숙씨 덕의 제사음식을 보겠다. 제사상에는 주, 과, 포, 餅, , 전, 채, 탕, , 멧자반 등이 올라가는데 각각의 종류를 보면,

주: 청주

과: 목과에는 대추, 밤, 꽃감을 놓고, 조과로는 유과, 약과, 다식, 강정, 정과

포: 명태, 상어, 문어

병: 시리떡

전: 명태전, 돼지고기전, 쇠고기전, 새우전, 肝전, 석화전, 생선뼈전

채: 콩나물, 고사리나물, 미나리나물, 시금치나물, 무나물

탕: 닭고기탕, 쇠고기탕, 돼지고기탕, 계란만두탕, 생선탕, 계란탕, 석화탕

멧자반: 생선구이 등이 있다.

강정중에는 깨강정, 쌀강정, 콩강정 등이 있다.

### 나) 명절음식

명절때는 그 음식이 집집마다 차이가 거의 없다. 각 명절마다 약간씩의 대표적인 음식을 제외하고 나물류와 같은 것은 거의 차려지고 있다. 각명절의 음식을 보면,

• 설: 찹쌀시리떡, 떡국, 보리가리떡, 쑥떡, 엿, 들북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 콩나물, 감자순나물

• 대보름: 쑥시밥, 미역국, 걸판떡(찰떡), 오희밥, 보리막걸리, 고사리, 도라지, 들북, 무, 감자순, 콩나물

• 유두: 밀문지, 장냉이

• 삼복: 돼지고기, 기고기

• 추석: 송편, 보리막걸리, 호박나물, 고사리나물, 가지나물, 감자순나물, 명태찜

• 동지: 팔죽

### 다) 혼례음식

혼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서로간의 혼처를 구하게 되는데 두 집안의 혼인의사가 결정되

면 신부집에서 택일을 해 보내며 이때 택일 이바지로 술을 마련한다. 혼인날이 되어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며 “손예방”이라하여 신랑에게 방을 마련하여 술상을 차린다.례를 마친 후 상객에게 술과 온갖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고 신랑, 신부에게도 상객상과 똑같은 상을 차려준다. 첫날밤 신방에는 “첫날 밤 상”이라하여 서로 낮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술상을 차리는데 전류와 술, 밤, 대추 등으로 상차림을 한다. 폐백음식은 신부 집에서 준비하며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이 차려지고, 이 음식은 시부모와 친척이 먹는다

① 동네상 : 신랑과 신부가 교배를 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상을 말하며 이 상의 음식은례맞은 후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동네상은례맞은 곳에 명석을 깔고 놓으며 상위에는 생선, 육고기, 과일, 채소, 편, 떡, 장담(숫담) 등을 놓고, 신부옆에 교배술과 木雁을 놓은 작은상을 놓는다

#### 라) 家釀酒

① 청주 : 보리와 밀을 맷독에 갈아내 물을 조금 붓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섞는다 →반죽한 것을 골망대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며 일주일 정도 두어 뜨게하면 누룩이 된다. → 마른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냄새가 나가도록 한다.→ 하루정도 누룩을 말리는 동안 쌀과 보리를 시루에 담아 쪄낸다→ 식힌 후 마른누룩과 섞는다. →물을 부어 발효시킨다→용수(동방주)를 넣어 청주를 떠낸다→생강이나 기타 향료를 넣어도 좋다

#### ②막걸리

가. 누룩만들기: 보리나 밀을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간다→다 갈아낸 가루는 물을 부어 잘 반죽한다 →반죽된 것은 작은 망태기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한다→망태기에서 꺼내 일주일 정도 두면 누룩이 뜬다→뜬 누룩을 말린다

나. 술담그기 : 마른 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하루동안 바래게 한다→쌀, 보리, 좁쌀을 물에 불리다가 시루에 넣고 쪄서 술밥을 만든다→술밥을 식혀 적당량의 누룩과 섞어 물로 흘랑흘랑하게 해서 동이에 담는다

다. 술거르기 : 5~7일 후에 걸러 먹는다.

③초 : 보리쌀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촛병에 담고 누룩가리를 넣은 다음 덮어둔다. 며칠이 지나면

초가 된다. 초가 거의 없어지면 막걸리를 붓는다.

라. 향토음식

가) 낙지국수

말복 후 큰 낙지가 나오고, 가을이 닥치면 낙지맛이 좋다. 갈낙지(새끼낙지)를 국수장국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있는데, 낙지를 삶은 물에 국수가락을 넣고 삶아낸 낙지를 잘라서 넣어 먹으면 맛이 좋다.

나) 가오리회

여름철 들일을 한 후 잘먹는다. 생가오리를 토막내서 미나리, 양파, 초, 고추장을 넣어 알맞게 간을 맞춰 먹는다.

다) 밀개떡

밀가루를 빼고 남은 거친 찌꺼기로 개떡을 만들어 밥지을때 밥 위에 얹어 썬 먹는다.

라) 밀문지

밀을 맷돌에 갈아서 체에 걸러 고운가루로 참기름에 전 부치듯이 부쳐먹는다

마) 송편떡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좁쌀가루, 쭈시가루 등으로 빻어 팔고물을 넣는다.

바) 꽃게

된장국을 끓일 때 넣어 먹기도 하고, 소금에 절여 놓거나 생선젓국물류로 만든 기젓국에 담가놔다가 건져 먹기도 한다.

사) 서령게

꽃게보다 얇고 납작한 것으로 작은 것은 부드럽고 좋으니 깨끗이 씻어 된장에 초를 약간 섞어 2~3일 정도 간이 스며들도록 하여 호이(회) 만들어 먹듯이 해먹는다. 이때 게는 반으로 토시고(나누고) 발가락은 약간 잘라낸다. 이외에도 생게를 왜간장에 양념하여 담가놔다가 걸러내어 장국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

③ 주생활

가. 개관

지도에서 살림집은 대개 안채와 부속채, 또는 안채, 아래채,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랑채가 있

는 집은 드물다. 즉 대부분 서민의 집이 많다는 얘기다.

안채는 주거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큰방, 작은방, 정지, 정지방, 마루, 광이 있고 아래채나 부속채에는 사랑방, 외양간, 광, 헛간, 방앗간, 칩간, 축사 등이 있다. 또한 집안의 외부공간으로 마당, 뒤안, 텃밭, 장독대 등이 있다. 이들의 구성이나 배치의 방법은 건물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옥의 평면배치, 가옥구조, 가구 등 건축적인 분야는 제외하고 각 공간의 기능과 공간내의 시설물의 종류 및 그 배치상황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가구나 시설물은 사용자의 취향과 편리도에 따라 그 위치가 다소 바뀌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장소에 놓이게 된다. 또한 생활정도에 따라 그 형태나 종류가 다양하다.

취락은 대체로 야산을 배경으로 분포되어 산 사면의 방향에 따라 동향 또는 서향,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정하지가 않다. 지도에는 냇이 없어 앞의 임수는 보이지 않는다.

#### 나. 안채

##### 가) 큰방

큰 방은 집안의 어른 부부가 거처하는 곳으로 식당, 가족들의 대화의 장, 손님맞는 접객실, 물레, 베틀을 놓고 길쌈하는 작업의 장, 가정교육의 진원지로서의 기능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큰 방은 대개 정지와 붙어있어 항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따로 군불을 땔 필요가 없다.

30년전까지는 천장은 종이반자이며 벽은 무늬없는 흰 종이를 발랐다. 방바닥은 왕골자리를 까는데 보리타작 후 이 자리를 걷어다 부뚜질한다.

방내의 시설물들은 남자용품과 여자용품이 공존하는데 가구류, 침구류, 조명구, 담배용품, 문방구, 화장구, 바느질용품 등이다. 방의 옆면이나 윗목에는 대개 가구를 놓는다

(가)쇠뚝농 : 부들을 절어서 상자형으로 만들며 흙으로 붙이고 종이를 발랐다. 상하 두짝 한 벌이며 문이 따로 있다. 농의 좌우면에 고리가 달려있어 들어 옮기기에 편리하다.

(나)비둘기농 : 나무 판자로 만들어 고운 꽃종이를 발랐다. 상하 두짝으로 전면에 좌우 미닫이 문이 두 개 있다. 주로 부자들이 사용하였다. 명칭의 유래는 전면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다고도 하며 곁에 바른 꽃종이가 울긋불긋해 비둘기처럼 이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나 실물이 없어 정확치 않다.

(다)木籠 : 상하 두짝으로 뚜껑이 따로 있으며 冠帶函 보다 조금 크고 비둘기농보다 작다

(라)장롱 : 한쪽으로 된 농으로 白銅장석이 곳곳에 붙어있어 약간 현대식의 기분이 난다. 봉리 죽곡 천순기씨 소유의 장롱은 크기가 95.5×52×87cm이다. 최상부는 작은 설함이 4개 있으며, 농의 중앙

부에는 여닫이 문이 4짝 있는데 좌우 두짝씩이 장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운데 두짝만 열면 4짝이 모두 열리게 된다. 문짝마다 화조도가 그려져있는 거울이 붙어있다. 농의 하부에는 옷가지를 넣을 수 있도록 큰 설합이 1개 있다.

이상의 장롱들은 제보자들의 조언에 따라 시대순으로 나열하였는데, 약 40년전에는 결혼할 때 부자는 장롱을, 가난한 사람은 앞닫이(반닫이)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

(마)앞닫이 : 반닫이라고도 하며 전면 상부에 여닫이 문이 있다. 보통 귀목나무나 소나무로 만든다. 봉리 죽곡 최봉금씨 소유의 앞닫이는 크기가 91×44×73.5cm이고 문의 크기는 91×29cm로 전면의 2/5정도가 문이다.

방의 윗목 벽의 상단에는 사랑(시렁)을 만들어 구के상지, 상지, 석작, 모짚이, 동구리, 삼합상지, 고리짝 등을 엮는다.

(바)구के상지 : 윗대 할머니의 성명을 적은 종이를 안쪽에 넣었으며 시렁안쪽에 둔다. 타지방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형태이다. 명일날이나 제사때 상을 차린다.

(사) 상지 : 반진고리를 말하며 바늘, 실, 가위 골무, 실패, 형겔 등 바느질 용품이 들어있다. 보통 대나무로 홑겹 또는 두겹으로 등글게 만들지만 나무판으로 네모지게 만들어 색종이나 한지를 바른것도 있다.⑧ 삼합(오합)상지 : 두꺼운 종이를 만든 상자로 3개가 한 벌이면 삼합, 5개가 한 벌이면 오합상자이다.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것까지 차례로 있으며 큰 것은 옷가지, 작은 것은 소품을 넣는다.

(아) 동구리나 고리짝에는 무명베 천이나 옷, 버선 등을 넣는다.

벽에는 못을 박아 인두, 인두판, 다리미 등 세탁 용기와 빗자루, 쓰레받이 등 청소용구, 그리고 아랫목 벽에는 햇대를 쳐 외출복이나 옷을 걸어둔다.

주거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중의 하나가 조명이다. 옛날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솔불을 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코밑이 새깜하다는 사실을 고노들은 잘 기억한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름을 이용하여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지도에서 식물성으로 참기름, 면실유와 쌀이무깨(쌀겨)기름을, 동물성으로 가오리기름과 소, 돼지기름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이무깨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주발위에 형겔을 깔고 이무깨를 소복히 올려놓은 다음 이무깨에 불을 붙이면 지글지글 타면서 기름이 주발에 받아진다. 이 기름을 등잔에 붓고 심지를 창호지로 만들어 불을 붙인다. 등잔은 등잔대에 올려놓는다.

석유가 보급되어 호롱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사방등에 호롱을 담아 외등을 켜기도 했다. 요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다.

방의 아랫목은 주인 어른의 자리로서 문방구, 서류함, 담배용품이 가까이 있다. 문방구는 간단한 문방사우만이 있을 뿐이고 조금 나은 집에서는 硯床, 필 , 연적 등도 갖춘다. 서류함은 나무판으로 간단히 만들던지 색지상자를 이용하기도 하며 연상의 아랫부분을 이용하기도 한다.

담배용품은 푸오, 당초, 황초(농사편참조)를 담는 담배합, 부시와 부싯돌, 담뱃대가 있고 외출할 때 호주머니에 넣거나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 있는 담배쌈지가 있다. 재떨이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지만 화리(화로)나 등틀(등잔대의 받침대)에 던다. 화리는 나이드신 어른이 계시면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동안 방안에 있는데 며느리는 특히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화리단속을 잘해야 한다.

부녀자들의 화장구는 극히 간단하다. 상지에 면경, 빗치계, 대로 만든 참빗, 나무로 만든 열개빗(열레빗), 빠진 머리카락을 담아 사랑이나 농위에 놓아둔다. 머릿기름으로 동백기름이 있는데 병에 담아 벽에 걸어둔다. 부자집에서는 鏡台를 사용하기도 한다.

타지방에서처럼 안방물림이라는 의식은 없고, 집집마다 다르지마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할머니 혼자되셨을 때 작은 방으로 옮겨가시는 경우가 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큰방으로 옮겨 모신다. 안방물림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의 관리권 이전이다. 집안의 여주인이 광을 관리하지만 여주인이 살림을 관리할 힘이 없을 때는 며느리에게 광의 관리를 맡긴다. 즉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

#### 나) 정지(부엌)

정지는 조리의 장이며 부인들의 공간이다. “자식이 결혼하면 몇 해 동안 한정지에서 산다”하여 정지가 집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지는 새로 맞은 며느리나 시집보낼 딸의 살림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솔은 3개(꺼명솔, 밥솔, 국솔) 또는 2개(밥솔,국솔)를 설치하는데, 꺼명솔(큰솔)은 겨울에 물을 데우거나 농사철 품앗이꾼이나 늙(씩꾼)을 부릴 때, 큰일 치를때에 쓴다.

솔의 앞벽에는 조왕보사구(조왕그릇)가 있어 수시로 정화수를 떠 놓고, 집안의 무사와 가족들의 안녕을 빈다.

정지의 한쪽에는 사랑(시렁)이 있다. 말뚝을 박고 대나무를 쪼개 엮어서 만드는데 일종의 찬장 구실을 한다. 물항, 상, 구정물통, 기영통(설겅이통)은 사랑옆에 위치하며 구정물은 소, 돼지의 먹이가 된다.

정지의 모퉁이는 나무청으로 이용된다. 나무로는 갈쿠나무(갈퀴로 굵은 낙엽), 솔가지, 잡목 등이

있는데 솔가지는 7월에 산에서 소나무 가지를 치고 8월에 내린다. 요즈음은 부삭(아궁이)과 함께 연탄이 많이 보급되었으며 읍내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지의 가까운 곳에는 도구통, 도구대, 체(키), 확독, 열개미, 풀매 등의 조리기구가 있다. 확독이 있는 집은 드물다.

#### 다) 광

광은 식량, 알곡, 각종 씨앗, 자주 쓰지 않는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광의 관리는 집안의 여주인이 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탄동리 원탄동 최남열씨댁의 광을 살펴보자. 광은 안채의 우측 끝에 위치한다. 바닥은 마루 바닥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들보 밑에 성주대(대나무 가지에 창호지를 맨 형태)가 걸려있다. 바닥에는 쌀뒤주, 저망(전달린 독), 항아리, 옹구병, 지사동이(질동이), 오가리 등 20여점에 알곡을 담아 판자나 점판암으로 뚜껑을 하여 2중 3중으로 쌓아두었다. 또한 동구리, 이바구리(채반), 덴담바구리(덴담 넝쿨로 엮은 바구니), 떡살, 다라이, 비닐봉지에 담은 각종 씨앗 등이 벽에 걸려있으며 한쪽 벽면 상부의 사랑(시렁)에는 말린고추, 면화, 석작, 함지, 종이로 만든 포장상자 등이 얹혀져 있다.

개개 광에는 “부루그릇”이라는 대소 2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광의 신으로 불어나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

#### 라) 대청

대청은 마루바닥으로 여름의 공간이며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의례의 공간이기도 하다. 대개 사당이 없으므로 벽면 상부에 선반을 만들어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며, 제상, 제기 등의 제사용기와 다듬이돌, 맷돌, 큰상 등 생활용구를 보관한다.

대청이 없는 집은 이러한 물건들을 광이나 모방(작은방)에 둔다.

#### 마) 모방(작은방)

모방은 대개 자식들이 기거하면서 멀리서 오신 손님을 모시기도 한다. 자식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방이 된다.

#### 바) 정지방

정지방은 여식이나 어린이들이 거처한다.

다. 부속채

가) 사랑방

머슴들의 숙소이며 농한기에는 새끼, 멍석, 가마니 등을 짜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된다.

나) 외양간

소는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존재로 옛날에는 소의 관리를 잘했다. 겨울에 머슴들은 해질 무렵 큰 여물솔(가마솔)에 여물, 고구마대 말린것, 물, 보리겨 등을 넣고 소죽을 쑤다. 소죽을 쑤으로써 사랑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따끈한 소죽을 먹은 소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외양간에는 여물솔, 작두, 여물주걱, 가마바가지 등이 있다.

다) 칩간

칩간은 대개 변소와 잣간으로 구분이 되며 잣간은 퇴비와 농기구의 보관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칩간에는 쟁기, 끌쟁기, 소매쪽박, 장군, 귀땡이 등의 농기구가 바닥이나 벽면에 보관되어 있다.

라) 방앗간

방앗간에는 도구통, 디딜방아 등의 도정기구와 함께 매통, 풍구와 같이 목재 농기구가 있다. 대개 방앗간이 따로 있는 집은 드물고 농기구나 디딜방아가 처마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라. 기타

가) 모구(모기)부채

여름에 모기를 쫓는 부채인데 왕대를 얇게 절어서 만든다. 종이는 붙이지 않으며 모기가 물면 때려서 잡기도 한다. 방안의 모기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화로에 불을 붙이고 생풀로 덮어 연기가 많이 나면 방안에 옮겨둔다. 방안에 연기가 자욱하면 모기가 스스로 도망가는데 옷이나 댓잎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나) 두데(거적)

토방에 곡식가마니 등을 쌓아놓고 비가 오면 가마니에 비가 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리는 물건으로 짚이나 밀대로 만든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적당하게 만든다.

마. 가옥의 사례

가)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416(금출마을) 이부근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416번지(금출마을)

본 가옥은 해발196m의 삼암봉을 북동쪽으로 등지고 형성된 금출마을의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연대는 현 소유주(이부근, 1936년생)가 약 10여년 전에 이주해온 관계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약 100여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 건축물로는 寅坐申向으로 앉힌 안채가 垜地의 중앙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전면 좌측으로는 건축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행랑채(합석집)가 1동 들어서 있다. 또한 대지 우측 아래쪽으로는 약 5평 규모의 죽담구조 측간 한 채가 있다.

안채는 약 18.8평 규모의 1자형 초가집으로 평면형태는 좌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 끝으로는 조그마한 정지광이 드러져 있고 앞쪽으로는 모방이 설치되어 있다. 뒷마루는 마래와 안방 앞쪽에 4척 폭으로 시설되어 있다. 구조는 전후와 우측으로 퇴를 둔 2고주5량집으로, 기단은 45cm 높이의 막돌허튼층쌓기 형식이며,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5cm 각의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도리는 12cm 각의 납도리를 걸쳤으며, 서까래는 끝마무리 지름이 8cm인 통나무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광과 정지는 판장문으로, 안방은 띠살문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안방 전면에는 머릿창을 설치하였다. 벽체는 흙벽으로 외부에는 어떠한 마감도 하지 않았다.

행랑채는 7.8평 규모의 우진각 합석집으로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외양간, 방, 창고 순으로 꾸몄으며 구조는 막돌초석 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로 結構한 4량형식으로 되어있다.

나)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114(조비마을) 양회중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114번지(조비마을)

전면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조비동마을의 맨 위편에 남서향으로 본 가옥이 자리하고 있다. 양회중씨(52세)가 5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가옥의 건축연대는 1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본 가옥의 현존건물로는 대지의 중앙 안쪽에 艮坐坤向으로 앉힌 안채와 1983년도에 신축된 12평 규모의 벽돌창고가 안채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약17평 규모의 일자형 초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외양간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지와 외양간 앞쪽으로는 나란히 모방과 외양창고를 드렸다. 본 가옥의 본래 평면구조는 정지까지로 현재의 외양간과 그 전면 방들은 약 50여년 전에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안방과 광 전면으

로는 3척 폭으로 뒷마루를 설치하였고, 안방 뒤쪽으로는 약 2척 폭으로 토방을 만들어 향아리 등을 놓은 收藏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는 전퇴를 둔 4량구조로 민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직경 18cm의 두리기둥을 퇴주와 후면 기둥에 사용하였다. 기단은 35cm 높이의 막돌허튼층쌓기로 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도리는 12×8cm 크기의 납도리를 걸쳤으며 종도리는 15×10cm 각을 사용하였다. 창호는 부엌과 광의 판장문 외에는 모두 띠살창호로 구성하였으며, 벽체는 흙벽으로 전면만 회로 마감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훼손되어 있다. 본 건물은 100년 이상된 고가이나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현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다) 지도읍 내양리(둔곡마을) 김득수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둔곡마을)

읍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둔곡마을은 현재 약 50여 가구가 밀집해있으며 북쪽으로는 이웃하여 황생연 가옥이 있는 솔목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본 가옥역시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오직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현 소유자 김덕수씨(85세)에 의할 것 같으면 100년 이상된 가옥이라고만 한다. 배치는 대지의 중앙에 乾坐夷向으로 안채를 앞히고 전면 좌측으로는 비스듬히 헛간(4.2평, 죽담구조)을 배치하였다. 안채는 약 15.9평 규모의 골스레이트집으로 약 10여년 전에 초가로부터 개량된 것이다. 평면형은 좌측 정지 앞의 방 2개가 전면선에서 2척정도 돌출되어 있어 뒤집어 놓은 (ㄱ)자형을 연상케하며, 그 구성은 정지 옆으로 안방과 우물마루를 간 마래 순으로 배치하였고 안방과 마래 전면으로는 3.3척 폭으로 뒷마루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정지좌측 端部에는 외양정지가 별도로 꾸며져 있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으로, 기단은 현재 시멘트몰탈로 덮혀져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12~13cm 각의 방주를 썼으나 맨 우측 기둥만은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도리는 12cm 각의 납도리를 걸쳤으며 벽체는 흙벽으로 되어있다.

라) 지도읍 탄동리 388(탄동마을) 전덕산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383번지(탄동마을)

마을 뒷면이 빙 둘러 산으로 둘러져 있는 탄동마을 중앙 아래쪽 낮은 곳에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가옥은 건축 당시의 원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가옥이다. 건축연대는 약 100여년 전

으로 추정된다. 현재 戌座辰向으로 배치된 안채와 그 전면 좌측면에 약 7.5평 규모로 건립된 죽담구조의 헛간이 1채 있다.

안채는 20.5평 규모의 (ㄱ)자형 초가로 그 평면형태는 좌로부터 흙바닥으로 된 마래, 우물 마루 대청, 안방, 정지 그리고 맨 우측으로는 북동측을 향하게 사랑방을 배치하였고, 꺾어지면서 외양간을 설치하였다. 툇마루는 전퇴부분과 사랑방 전면에 모두 4척 폭으로 설치하였다. 본 가옥에서는 다른 가옥과는 달리 사랑방 배치가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었고 그 앞쪽으로는 툇마루까지 시설되어 있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량가로 기단은 25cm 높이로 막돌을 바르게 1벌대로 놓았으며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원주와 방주를 섞어 배치하였으며, 도리는 10×7cm 크기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흙벽으로 꾸몄으나 외양간 전면과 우측면만은 흙돌벽 구조로 하였고 창호는 광과 정지의 판장면 외에는 모두 띠살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가옥의 창호 중에는 사랑방 후면에 설치된 정방형의 띠살형(하단에는 판장을 댐)이 특히 눈에 띈다.

마) 지도읍 당촌리 733(당촌마을) 김성섭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733번지(당촌마을)

60여호로 형성된 당촌마을 (당말로도 불려지고 있음)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본 가옥은 정방형의 대지에 안채와 그 전면 좌측 끝으로 헛간과 돈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乾坐夷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연대는 상량문에 “崇禎紀元後輪周四〇甲辰年二月二十七日開基…”라는 기록이 있어 1844년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당촌리 당말 마을에는 10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된 가옥이 여러채 있으나 본 가옥이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으로 여겨지며 또한 건축연대도 정확히 판명되고 있다.

안채의 평면은 1자형으로 그 구성은 좌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그리고 맨 우측으로는 겹집 형식으로 작은방을 상하로 배치하였다. 정지 앞쪽으로는 헛간부분에만 조그맣게 모방이 드러져 있으며, 툇마루는 대청과 안방 앞쪽에만 설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면구성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일부가 약 10년 전에 개조된 것으로서 원래는 뒤쪽의 작은방 부분이 외양간이었으며, 모방도 6×6척 규모로 되어 있어 퇴주선에서 앞쪽으로 3척정도 돌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내부평면의 개조와 함께 지붕개량도 이루어져 초가에서 현재의 시멘트양식기와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구조는 낮은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상에 막돌초석을 놓고 퇴기둥만 직경 19cm의 두리기둥을 사용하고(대청과 안방사이의 퇴주만은 유일하게 방주임)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2고주5량형식으로

주심도리는 12×10cm, 종도리는 15×10cm, 들보는 24×16cm, 서까래는 끝마구리 직경 8cm의 부재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종량상의 마룻대공 상부에는 도리방향으로 보아지를 끼운다. 벽체는 흙벽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대청의 좌측문과 부엌문은 판장문으로, 나머지는 띠살창호로 구성하였으며, 안방의 정면에는 이 지방민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봉창도 설치되었다.

바) 지도읍 당촌리 1199(당촌마을) 조정남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1199번지(당촌마을)

당재리 당말부락의 가옥들은 유난히 담장이 돌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가옥의 담장 역시 비교적 높게 돌담구조로 되어 있다. 안채는 대지의 중앙 안쪽에 亥坐巳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연대는 약100여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정면4간(14.2평) 규모의 일자형 초가집으로 각 실의 구성은 좌측으로부터 광, 안방, 정지 그리고 맨 우측으로는 전후로 정지방과 모방이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정지방 부분은 원래 외양간이었으나 약 30여년 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축했다고 한다. 뒷마루는 광과 안방 앞쪽에 3.6척 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몸채 왼쪽에는죽담구조로 헛간이 몸체에 붙여 증축되어 있다. 그리고 광은 현재 장마루가 놓여져 있으나, 본래는 흙바닥 구조였다고 한다.

구조는 퇴주만 두리기등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운 2고주 5량형식으로, 기단은 약 40cm 높이의 막돌허튼층 쌓기로 하였으며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다. 벽체는 흙벽으로 되어있고 창호는 광과 정지에는 판장문을, 각 방에는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활용방안

본 보고서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지도의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탄동리 당제를 비롯해 8개의 마을의 당제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임자도와 증도와 마찬가지로 당제에 대한 전통관념이 잔존하고 있거나 그 관념 자체가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라는 점은 공통사항으로 보인다. 다만, 전통적인 것에 맥락을 두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개발된 당제가 조사되었다. 바로 지도읍의 달집태우기이다. 따라서 활용방안을 거론함에 있어 유형무형의 토대가 견재한 사례는 지도읍의 달집태우기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지녀온 민속 관념이 현대의 생활 문화 이면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특히 생활문화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능이 정지 된지 오래이며, 흔적 또한 명료하지 않은 까닭에,

망실된 문화자원을 복원하거나 복원에 준하는 특별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활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생활문화의 활용방안을 거론코자 한다면 생활문화를 복원하고 그 복원된 자원을 토대로 활용을 거론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망실된 세시풍속을 복원할 뵈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기능되어야 하는 까닭에, 이미 망실된 생활문화를 복원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도의 민속문화 중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그것을 대상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객관화시키고 이벤트화시키는 콘텐츠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도읍의 달집 태우기는 그 전승력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술한 키워드에서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본 보고서가 목적하는 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또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범주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중의 목록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곧, 지표조사의 활용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지도에서 실현 가능한 신앙민속과 생활민속 중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지표자료 분석과 전망

민속신앙의 경우 대표적 당제로 지도읍 탄동리 당제 외 8건의 당제가 조사 보고되었다. 이 마을의 당제는 얼마 전에 비해서는 활력을 많이 잃었으나 지금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제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 마을의 전통이기도 한데, 당제 관련 문서들에 주민들이 협심하여 당제나 매구를 전승해 왔던 내력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의 전승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980년 이후로 상당을 두 번 개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제가 과거의 잔존이 아니라 현재 작용하는 문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에 교회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들이 교회의 영향으로 당을 폐쇄하고 당제를 지내지 않는 것에 비교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과거만큼 신명나는 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당제를 전승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정리 광정마을 당제의 경우는 20여년 전에 폐지 되고 지금은 거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된 이후로 몇 년간에 젊은층 10여명이 죽어 나감에 따라 다시 당제를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마을민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거행되지는 못하였다.

읍내리 동촌, 서촌마을 당제의 경우는, 마을에는 약13년 전부터 기독교 장로회 계통의 남부교회가

들어왔다. 교인은 약 28명으로 20여호 되며 이들은 조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마을의 당제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하 보고된 당제들도 제사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망실되거나 이미 없어진 당제를 복원하기란 대단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지도읍의 달집태우기를 중심으로 대보름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달집태우기가 이 지역 풍속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집태우기가 지도읍 소방대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전통과 민속이 생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만큼 달집태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간의 당제적 전통을 가미한 달집태우기를 지도읍의 대보름축제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지도읍의 민속문화적 활용방안의 틀을 세우게 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외 세시풍속의 경우에는 이미 고래의 풍속은 사라진지 오래이므로 생활문화체험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정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왕의 조사에서 수집된 바 있으므로 후술하는 활용편을 참고하여 테마마을 등의 활용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활용

### ① 지도읍 달집태우기를 활용한 지도 대보름축제

#### ○ 개요 (지도읍 정월대보름놀이)

신안군 지도읍 자율방범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월대보름놀이(음력 1월 15일)는 설날에 농악놀이(지신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많은 전통문화 놀이를 6년 전부터 늦은 시간 밤을 이용하여 발굴 전승 보존하는 민속행사이다.

#### ○ 추진상 문제점

현재까지는 회원이 30여명이 되나 점차 회원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놀이 문화를 전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사비용이나 북, 장구 장비들을 회원의 회비로 자체조달 하다보니 매년 예산의 누적적자가 증가하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주요성과

그 동안 과거에는 행하여지던 놀이 문화가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지도읍 자율방범대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찾아다니며, 채록하고 놀이의 구성을 재연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정월 대보름에 모든 읍민이 참여하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을 행하여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대동놀이로 승화.



지도읍 달집태우기



지도읍 달집태우기와 자율방범대 농악



지도읍 달집태우기와 액막이 연



지도읍 달집태우기농악과 불꽃

### ○ 발전방안

관에서는 놀이 문화가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나 제반 여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연 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도 보다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가. 지도읍 대보름축제의 의의 및 목적

첫째, 지도의 대표적인 당제와 새로 만들어진 지도읍의 달집 태우기를 총괄하여 지도읍의 대보름축제로 승화시킨다. 이것은 민속문화를 가능한 범주에서 계승시키고 또 새로운 민속문화를 발굴 전승하

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정월 대보름의 지도읍 달집태우기와 지도읍의 어촌마을을 연계한 코스 지정으로 관광자원화한다. 이것은 복원된 민속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현행되는 지도읍 달집태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킨다. 이는 본래 당제가 가지고 있던 주민 주체의 민속을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나. 지도읍 대보름축제의 예상 개요

축제에 소요될 향토생산물: 송어젓, 반지락젓, 멸치젓 등의 각종 젓갈, 게찜, 홍어찜 등의 어류찜, 썩떡, 찰떡 등의 떡.

기간: 정월 대보름 1회

범위: 지도읍을 중심으로 하되, 반드시 광정리 및 탄동리 등을 포함시켜 베짜기 등의 내륙적 민속문화를 병행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 한다.

주최: 지도읍 자율방법대를 중심으로 한 지도 대보름축제 추진위원회(TFT 가동)

행정적 지원: 지도읍사무소

기술적 지원: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프로그램 개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마케팅 장소: 지도 달집태우기할 곳, 테마마을 프로그램이 가능한 2~3곳의 마을

#### ② 지도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테마마을의 지정

- \* 지정예상마을: 지도읍 광정리 및 탄동리 혹은 태천리
- \* 지정마을로고 이칭: 섬과 육지가 절묘하게 섞인 곳 신안군 지도마을
- \* 관광 카피: 내륙적 문화와 섬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도로 오세요

세시풍속의 현대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의 대표적 마을이 이른바 테마마을 등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체험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등의 실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생활문화와 더불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소포리의 경우는 강강술래, 소포농악, 닛배노래, 진도북놀이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생활문화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체험관광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 외에는 거의 모두 테마마을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의 세시풍속과 기타 생활문화를 가지고 문화자원화 혹은 활용한다는 맥락에서는 테마마을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한 테마마을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테마마을의 목표

마을의 도서해양 인프라와 내륙적 민속문화를 활용한 변별성, 지도 마을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립성과 역동성, 친화성,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져오는 생활문화, 깃벌체험 등의 도서해양관련 특화 테마 등을 통해서 어촌 전통테마 마을의 입지와 계승·발전을 통한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역량강화와 자립 경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 나. 개발 원칙 및 방향

- 지도 고유의 인프라, 예를 들어 우전리 당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지도 고유의 어촌문화를 상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고유한 지도의 어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지도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타지역 혹은 타 도서와 변별적, 차별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
- 사계절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어로 혹은 농업 외 소득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농번기, 농한기 특히 여름철의 해수욕장 개방 시기 등 지도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지도의 고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프로그램
- 지도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는 프로그램
- 과도한 기반 시설이나 필요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 신안군과 연관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관광협력의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처럼 어촌및 내륙마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곳의 전통테마마을사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일정과 무관하게 바뀌는 일반 조직(예컨대 이장,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보다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도의 경우에는 우전리 당체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

우선은 농어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 선출된 마을 주민들을 각자의 특기에 맞춰 직능별 소위원회에 배속하고, 각 직능별 소위원회에 소속된 주민들은 교육훈련과 현장경험을 통해 담당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촌 향토 음식팀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민박의 경우에는 이 음식팀을 활용하여 식사 등을 지도 관리하고 마을회관의 합숙 등은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박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민박 자체가 각각의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먹는 그대로 제공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도에서 나는 어촌 특산의 음식들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절적 미각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을 것으로 본다. 지도의 특산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인근 섬의 특산인 젓갈, 민어, 새우 등이 특별요리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본다.

## IV. 사회문화자원-갯벌-

###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갯벌을 일궈 지탱해온 삶
- 지도병치라고 해야 팔린다 - 병치와 새우젓의 집산지 송도어판장
- 맛이 가장 좋은 낙지잡이, 장그지갯벌의 '물음낙지'
- 일자리 잃은 사람, 고향갯벌에 안기다 - 선도 낙지주낙

### 2. 사회문화자원 현황

#### 1) 갯벌을 일궈 지탱해온 삶

무안에서 지도로 이어지는 바다와 갯벌은 온전히 붉은 바다다. 빗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황톳물이 골을 타고 내려와 도로를 넘쳐 바다로 흘러든다. 논도, 밭도, 바다도 온통 붉은 색이다. 이제 막 양파작업을 마친 밭들은 수박이 심어졌고, 다른 밭은 붉은 색칠을 해놓은 듯 농부의 붓질을 기다리고 있다. 마늘작업, 양파작업, 모심기, 낙지잡이, 바지락 작업 등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만큼 바쁜 철을 지난 어민들은 장마철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 길 끝자락에 신안군의 면 소재지 중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 '지도'가 육지 것들을 유혹하고 있다. 장마 그치면 이 길을 따라 머지않아 임자도의 증도의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이다.

지도읍은 송도, 사옥도, 어의도, 포작도, 선도, 울도 등의 작은 딸린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신안의 유일한 '읍' 지역이며, 1980년 인근 증도면이 분리되기 전까지 면적과 산업 그리고 인구의 측면에서 신안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 ○ 옛 뱃길, 문화의 통로였다.

신안군 지도읍과 무안군 해제가 연결(1974)되면서 섬 아닌 섬이 되어버린 지도는 낙월도와 임자도 그리고 목포로 잇는 정기여객선이 새우젓을 싣고 지나는 중요한 뱃길이었다. 새우젓을 나르던 그 뱃길은 고대 중국과 문화를 교류하던 뱃길이었고, 한양으로 세곡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이 이동했던 '고대문화의 소통로'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시 해로를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는 왜군이 반드시 거쳐야 하

는 뱃길이었다. 이순신이 울돌목싸움 이후 숨을 고르며 전열을 가다듬었던 고하도가 지척에 있다. 그런 탓인지 임자도와 지도에는 일찍부터 수군진이 설치되었으며, 마침내 한말(1896)에는 지도군이 창설되었다. 한때는 칠산바다와 고군산군도 등을 아우를 만큼 큰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완도와 함께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이 탄생한 것이다.



지도읍의 대부분 논들은 갯벌을 막아 만들었다.

중앙에서 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 섬의 경제·군사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선초기까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을 펴왔던 중앙은 섬을 소나무를 기르는 ‘양송지’와 말을 기르는 ‘목장지’로 적극 활용했다. 지도 역시 대표적인 목장지의 하나였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민초들을 동원해 섬의 목장지를 개간하여 ‘둔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염과 어장 등 수산물을 개발해 이속을 채웠다. 지금도 간혹 섬에는 ‘둔전리’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 중에 하나가 ‘향교’ 이야기이다. 육지가 아닌 섬에 향교가 세워졌으니 그럴만하다. 육지 것들의 바다와 섬 생활의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섬사람들은 ‘섬’ 답지 않는 혹은 육지와 ‘갈음’을 내세우려는 심성이 있다. 그러나 바다와 섬의 독특함과 ‘차이’가 남도문화의 원형이며 자산이라는 재평가가 되고 있다.

1896년 지도군이 설치되면서 ‘하나의 군에 하나의 향교를 둔다’는 원칙에 따라 성균관의 주선과 지역 내 유림들의 건의로 1897년 향교가 건립되었다. 지도 향교는 지도읍 진산인 봉정산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등이 남아 있다. 다른 지역 향교들의 역할이 약화되던 시기에 세워진 지도향교는 이미 이곳에 유배되어 지역인재를 기르던 김평묵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지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했다. 중암(重庵) 김평묵은 경기 포천출신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1800년대 영남지역 유생들의 위정척사 상소문에 감복하여, 척양과 척왜의 소(疏)를 초안했다 왕의 노여움을 사 이곳에 유배되었다. 지도읍 두류산에 세워진 두류단에서는 매년 음력 9월 15일이면 일명 오선비(이항노, 기정진, 김평묵, 최익현, 나유영)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지금은 육로를 이용하지만 뱃길을 이용하던 한말까지 해로를 끼고 있는 지역은 육지의 다른 어떤 곳 보다 외부와 문화 접촉이 훨씬 쉬웠고 다양했다. 여기에 육지에만 설치되던 향교가 지도에 설치되고 보니, 지역유림들의 입장

에서는 자긍심이 대단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섬들이 철부선(차를 싣고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과 농협배들로 연결되기 전, 목포-지도-전장포-낙월도를 잇는 뱃길은 섬사람들의 애환이 스며든 길이었다. 목포가 종착역인 호남선이 전라도사람들을 애환을 닮는 길이라면, 이 뱃길은 섬사람들 삶의 메타포라 할 것이다. 지금이야 지도에서 목포까지 뱃길이 잠깐이고, 사선으로는 담배 한참도 되지 않지만 객선을 이용하던 때에는 4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느려터진 배는 '진달이'라 불렀던 낙월도에서 새우젓 통을 가득 싣고 힘에 겨워하며 물길을 헤치며 목포에 닿는다. 물론 임자도의 전장포에도 들러야 했다.

어쩌다 칠월칠석이나 특별한 날 임자도의 타리파시나, 칠산바다 조기잡이나 새우잡이 배들이 출어를 앞두고 큰 곳이라도 크게 열리는 날이면, 목포에서 구경을 하기 위해 모시적삼을 입은 구경꾼들로 배에 가득했다. 이런 곳 판에 남사당패들의 놀이가 빠질 리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증도나 임자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의 점암포구나 송도포구, 지신개를 이용해야 한다. 지도-송도-사옥도는 이미 연륙도로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사옥도와 증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공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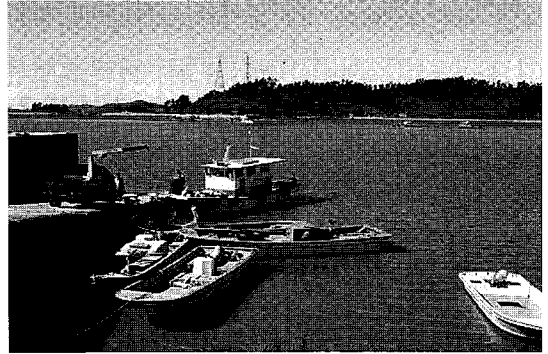
오일장이 열리는 지도읍 중심지

신안의 임자도, 증도, 지도, 사옥도 일대의 주민들은 무안을 거쳐 바로 광주로 연결되는 길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을 갖는 섬을 주민들은 신안에서도 '웃섬'이라 부른다. 그리고 비금·도초·장산·하의·자은·암태·안좌 등 나머지 신안의 남부지역 섬들을 '아랫섬'으로 구분한다. 최초로 섬에 들어온 사람을 입도조라고 하는데 웃섬의 입도조들은 나주·영광·함평에서, 아랫섬은 진도·해남·영암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일까, 웃섬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내륙적 특징이, 아랫섬에 비해서 강하고 생활권도 무안과 광주권에 속한다. 섬 사람들이 구분하는 방식 속에도 육지 것들을 닮고 싶어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 가난한 참섬, '돈섬(?)'이 되었다.

지도는 말이 좋아 섬이지 '해변산중'이나 다름없었다. 유일하게 어업활동을 했던 곳을 꼽는다면 참

섬 정도였다. 이곳은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까지 가난을 넘어 사람살기 곤란한 섬이었다. 지금은 참섬 주민들은 간척지농지와 소금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 지도읍에서 최고의 알부자들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참섬은 30여 가구 중 어장 일을 하는 주민이 대여섯 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병치잡이와 통발 어업을 하고 있다.



지도읍 참도 포구

10여 년 전에 참섬에는 10여 척의 멩텅구리배가 있었다. 이 배로 붉은 새우를 많이 잡아 ‘복새우젓’을 담거나 말려서 팔았다. 특히 말린 붉은 새우는 농번기철에 미역국을 끓이는데 비싼 쇠고기 대신에 넣은 필수품이었다. 어촌 사람들이야 조개를 넣어 시원한 맛을 냈지만 육지에서야 마른 새우가 제격이었다.

지도읍의 호남염전, 가정염전, 조비동 염전 지역은 과거에 화염(煮鹽), 즉 소금을 구웠던 곳이다. 당시 소금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히 여겼던 것은 ‘소’였다. 소 한 마리가 ‘반살림’ 역할을 했다. 자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갯벌을 갈고 바닷물을 붓기를 반복해야 하던 시절에 소가 하는 일은 대단했다. 그래서 소가 없는 주민들은 이틀이나 사흘 가져다 쓰고 몇 사람 몫으로 일당을 쳐서 주거나 귀한 소금을 주기도 했다. 지도는 섬치고는 산이 좋고 소나무가 우거졌고, 여기에 갯벌이 좋아 전통적으로 소금생산을 많이 생산했다.

#### ○ 우리 ‘봉리’ 살아요.

지도는 섬의 특성을 따지만 농업 중심의 생업구조를 갖고 있다. 쌀농사가 별 재미를 볼 수 없게 되면서 마늘과 양파 등 상업작물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경사가 급한 작은 밭도 묵히는 일이 없다. 지금은 호화농장, 오룡농장, 태원농장 등 넓은 간척농지들이 조성되었지만 불과 1세기 전에만 해도 지도에는 이렇다 할 농지가 없었다. 당연히 농지가 없었으니 물길 인들 있었겠는가. 당시 만들었던 크고 작은 저수지 그리고 논배미 귀통이에 작은 둑병(웅덩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간척지들은 지도의 여러 마을들 중 봉리 쪽에 집중해 있다. 특히 서동과 참도 그리고 내양리를 연결해 만든 호화농장은 지도사람들의 식량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막아진 이 방조제는 암태도의 지주 문재철이 일제로부터 300여 원을 지원받아 원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문씨가는 암태도에서 소금을 구워 큰돈을 벌었으며, 큰 배를 지어 인천과 군산 등으로 올라 다니며 ‘웃다리 장사’를 하여 큰 이문을 남겼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웃다리장사’란 소금을 싣고 위로 올라가 팔고 내려올 때는 생필품을 갖고 와서 팔아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에서 낙지도 잡고 승어도 잡고, 운저리도 잡는 최고의 갯벌을 꼽으라면 봉리 앞의 ‘장그지갯벌’이다. 참도의 서북쪽, 서동리 앞에는 솔섬에서 시작해 소금출 앞방조제까지 이어지는 갯벌이 ‘장그지갯벌’이다. 황금리에 비해서 작은 금이 나와서 붙여진 소금출마을 솔섬에는 갯벌에는 농어, 돔, 장어, 민어 등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해제와 연륙이 되어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농어와 돔은 사라졌다.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승어와 운저리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곳 갯벌에서는 서동마을 부녀자 몇 명이 지금도 서렁계(철계)를 잡는다. 서렁계는 1kg에 7천원정도에 팔리는데 하루 나가면 10kg 내외로 잡고 있다. 서렁계는 갯벌 바닥이 말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철에 많이 잡는다.

간척지가 생기 전 봉리의 서동사람들은 다른 지역사람들이 ‘어디 사세요’라고 물으면 ‘뒷면사요’라고 했다. 뒷면이라 함은 지도읍 뒤 갯가에 사는 사람들을 예들러댔다. 그러던 이들이 간척농지가 생기고 나서 이제는 자신 있게 ‘봉리살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이후 봉리사람들은 결혼도 하기 쉬워졌다. 땅이 생기니 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봉리는 서동(서당골)을 비롯해 참도, 심동(깊은골), 원동(원골), 봉동(봉골), 죽동(대실), 황금동 등을 묶은 행정리로 지도 북쪽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이들 마을들은 읍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뱃길도 불편하고 갯벌을 제외하고는 이러하다할 생업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척박한 마을들이다. 봉리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간척을 주도한 문씨가는 은인이 다름없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있음직한 공덕비를 찾기 어렵다.

서동에서 만난 주민들이 답을 알려줬다. 간척지가 조성될 무렵 봉리 일대의 땅을 갖지 못한 민초들은 물길에 드러난 땅, 즉 ‘뿔땅’을 일궈 농사를 짓었다(영산강 천변에 농사를 짓는 것 처럼). 이 땅들은 주인이 없는 땅들로 국가소유였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씨가 간척을 하면서 간척지 내부의 ‘뿔땅’들을 자기 땅으로 전환시켜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척박한 땅을 일궈 겨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뺏어갔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인해 ‘돈만 아는 사람에게 무슨 공덕비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도는 이미 1920년대 암태도와 도초도와 함께 서남해역 중 소작쟁의가 활발한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지도읍 내양리는 해방을 전후해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꼽힌다.

보릿고개 넘기 어려웠던 시절, 주민들의 가늘고 길긴 명줄을 이어줬던 것이 갯벌이었다. 갯벌을 막

아 농사를 짓고, 갯벌에서 소금을 만들어 배고픔을 넘겼다. 지금도 지도사람들은 그 갯 땅을 막은 농지에 농사를 짓고, 밭에는 양파와 마늘을 심고, 소금을 일구며 살고 있다.



지도읍 송도에서 먹은 병치백반

## 2) 지도병치라고 해야 팔린다 - 병치와 새우젓의 집산지 송도어판장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녹음이 짙어질 무렵 서민들이 맛있고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횡감으로 당연히 ‘병치’라 할 것이다. 병치는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갈무리해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머리와 내장을 잘라내고 잘 갈무리해 냉동실에 넣었다가 썰어 따뜻한 밥에 얹고, 마늘과 고추 그리고 집 된장을 상추와 깻잎에 가득 싸서 한 입에 몰아넣고 씹으면 달고 고소함이 입 안 가득하다. 여기에 소주라도 한잔 곁들이면 부러울 게 없다.

“다른 병치도 ‘지도병치’라고 해야 팔려요”

“왜 이렇게 비싸요. 며칠 전에는 10만원도 안 되던데.”

30미 한 상자에 12만원이라는 주인의 이야기에 병치를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던 손님이 벌써 두 번째 묻는다. 20여개의 생선가게들이 늘어진 송도어판장을 두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다.

이곳 가게들은 모두 중매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들이다. 싱싱한 생선을 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점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바다에서 비슷한 그물로 잡은 것들이라 거래되는 생선들이 비슷하다. 그래도 손님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닌다.

오늘처럼 쉬는 날이거나 주말이면 지도읍에 위치한 신안수협송도공판장의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다른 상품과 달리 갯것들은 물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물이 살아나는 ‘산짐’이나 ‘객기사리’ 무렵에 병치가 많이 잡히고 조금 물때에는 적게 난다. 당연히 가격도 상자에 8만원 하던 것이 조금 물때에는 12만원까지 오른다. 바다와 갯일을 모르고 백화점에서 고정된 가격만 보아온 ‘육지 것’들의 눈으로 보면 왜 비싸게 받느냐고 따질 일이지만 후덕한 송도 상인들이 이를 설명하기 보다는 한 마리 더 얹어주는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손님을 기다리는 병치

이렇게 작은 섬에 광주는 물론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병치’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다른 해역에서 잡는 병치들도 ‘지도병치’라고 해야 팔리겠는가. 이 모두 신안의 갯벌 탓이다. 갯벌에서 나는 생선치고 안 맛있는 것이 없다. 특히 이곳 갯벌이 게르마늄 갯벌이고 보면, 제철에 나는 음식에 건강에 좋은 갯벌이라 ‘웰빙’이 따로 없다.

병치가 이곳 바다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어디 포구나 조금 무렵에 병치그물을 손질하는 어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박해 있는 배들의 십중팔구는 병치 잡는 그물을 신고 있다. 크면 고용된 선원들까지 네댓 명이, 작으면 부부 혹은 부자지간에 그물질을 하는 것이 병치철의 바다풍경들이다.

전국에 유통되는 병치의 60% 이상 공급하는 곳이 전남 지도읍에 위치한 손바다만 한 작은 섬 ‘송도’다. 이 섬에는 고추와 깨를 비롯해 밭농사와 갯벌을 막아 마련한 작은 논에 벼농사를 짓는 70여 호의 주민들과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송도공판장’이 있다.

신안수협에서 운영하는 ‘송도공판장’은 겨울철 몇 달을 제외하고 늘 문이 열려 있다. 광어, 농어, 돔, 갑오징어 등 잡어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기세등등한 찬바람도 물러가고 병치들이 한두 마리씩 그물에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놈들이 남해 먼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꽃 소식들이 남쪽 섬에서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조도해역을 지나 임자도, 우이도, 안마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산란준비를 한다.

이곳 갯벌은 모래갯벌이 발달해 하늘이 주신 산란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던 모양이다. 돈 실으러 간다는 칠산어장의 조깃배들도 이곳에서 그물질을 하며 올라갔었다.

7월쯤이면 이곳 어장에서 잡은 민어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병치가 잡히는 임자도 일대의 어장은 일제강점기 민어파시가 형성되어 일본기생들이 기모노에 사미센을 연주하며 머물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해방 전까지 임자도 타리섬 앞(대광해수욕장) 모래밭에는 100여 동의 초가를 이은 임시 막들이 지어져 파시촌이 형성되기도 했다.

여기서 잡는 민어들은 운반선을 거쳐 무역선으로 옮겨져 바로 일본으로 보내졌다. 민어를 즐겨하는 일본인들 중에는 아직도 ‘타리파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찬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8월이면 민어 대신 농어가 다시 공판장을 차지하고, 겨울이면 김장용 새우 ‘동백하’가 12월 말까지 판매되면 공판장은 문을 닫고 4월까지 휴식에 들어간다.

‘당일바리’ 병치로 승부한다

최근 근해어장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감척되면서 서남해 연안어장으로 회유하는 고기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져 병치잡이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송도 중매인협회 진미봉(46) 대표의

이야기다.

송도수협공판장의 일년 매출액은 350~400억 원에 이르며, 전국 군단위 수협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이곳 송도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어종은 단연 '병치'와 '새우젓'이다. 입자도 전장포를 비롯해 어민들이 직접 가공한 새우젓은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목포와 송도에서 위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양이 전국 새우젓 공급 물량의 70%에 이른다고 한다.



송도의 병치 위판모습

광천, 강경, 곰소 등 전국 유명 새우젓은 대부분 이곳에서 유통된 것들이다. 요즘 제철을 맞고 있는 병치의 경우도 전국에 공급되는 80% 가량이 이곳 송도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진씨의 지적이다.

송도위판장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진씨를 비롯해 4~5명이 중매인으로 참여할 때만 해도 어민들이 이곳을 찾지 않아 직접 운반선으로 어장을 찾아다니며 잡은 고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도위판장은 어판장의 크기로 본다면, 며칠씩 바다에 머물며 근해에서 잡은 생선을 공급하는 목포, 군산, 대천, 인천 등 대도시 어판장에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연안어장에서 5~10톤 내외의 작은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해 당일 잡은 생선을 새벽을 가르고 달려온 '당일바리'이기 때문에 신선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병치만 해도 한 상자에 인근 목포에 비해서 1~2만원 더 비싸게 거래되며 병치철이면 주차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차들로 가득하다.

요즘 송도위판장은 조금철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에 공판을 시작해 밤 9시를 넘기기 일쑤다. 송도 지역 주민들과 지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하역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송도위판장을 회센터, 유통과 판매 그리고 관광을 겸하는 복합센터로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다.

### 3) 맛이 가장 좋은 낙지잡이 - 지도읍 장그지갯벌의 '물음낙지'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산지에서 먹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싱싱하기 때문이다. 물론 분위기 탓도 있지만, 특히 바다에서 나는 갯것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같은 갯것이라도 잡는 방법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 그 맛을 결정하는 것은 잡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느냐' 하는 점이다.

멸치 중에 가장 맛이 좋은 멸치는 단연 죽방렴 멸치이다. 죽방렴보다 더 맛이 좋은 것은 독살로 잡

은 멀치겠지만 제주도를 비롯해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 아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갈 뿐이다. 물론 가격이 일반 멀치에 비해서 비싼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좋은 낙지잡이 이야기다.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먹어봤기 때문이다. 허기가 진 탓에 객관적인 맛을 판단할 능력을 잃었다고 말할 지 모르지만 그 맛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갯벌 한 가운데에서 낙지를 잡던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갯벌에 행귀 건네준 낙지를 잡고 머리부터 씹어 먹었다. 낙지의 8개의 다리(사실은 팔이다. 몸통과 팔 사이에 머리와 눈이 있다. 낙지머리로 알고 있는 먹통이 사실은 몸통이다.)이 얼굴을 감싸고 어떤 발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리를 들이민다. 한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기에 어찌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씹는 것 밖에. 내가 생각해도 자연스럽다. 우물우물 씹으며 아주머니를 뒤쫓았다. 맛이 있다. 내가 평생 먹어본 낙지 중에 이렇게 맛있는 낙지는 처음이다. 그리고 셔터를 눌러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점심을 거른 채 오후 3시가 넘도록 아주머니를 따라 갯벌을 쏘다녔으니 배가 고프다 못해 속이 쓰렸다. 이런 상태에서 여름 생낙지를 씹어 먹으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탈이 나지 않을까. 한 마리를 먹었는데도 든든했다. 허기가 싹 가셨다. 그래서 보양식이라 하는 모양이다. 여름을 넘기기 위해 삼복에 큰 낙지나 문어를 넣고 죽을 쑤어 먹지 않았던가.

앞서가는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뒤쫓았다. 갯벌에서 꽃발을 딛는다고 하면 믿겠는가.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들이면 낙지들이 구멍으로 들어가버린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애들이 손꼽장난 하듯 만들어놓은 갯벌로 만들어 덮어놓은 작은 무덤을 들추기가 무섭게 낙지를 집어 내야 한다. 이렇게 잡는 낙지를 문음낙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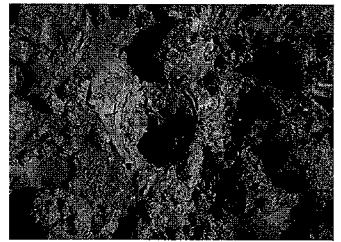
갯벌에 물이 빠지자 세명의 아줌마들이 주전자와 40센티 길이의 손가래를 들고 장그지갯벌에 들어섰다. 장그지갯벌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마을을 펴갯벌로 낙지잡이와 서렁게(칠게) 잡이를 많이 하는 곳이다. 갯벌에 들어선 어민들은 각자 갈 길로 흩어져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그러다 한 어민이 갯골에서 낙지구멍을 발견하자 작은 손가래로 조심스럽게 파들어 갔다. 그리고 안에 맑은 갯물은 고여 있는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다. 이곳이 확실한 낙지구멍이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 웅덩이가 낙지들이 노는 방이라고 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구멍 깊은 곳에 있던 낙지가 이곳으로 올라와 놀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그 작은 웅덩이를 약간 크게 만들고 낙지구멍이 어느 쪽으로 뚫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갯흙으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한 후 낙지구멍이 뚫린 쪽으로 반원을 그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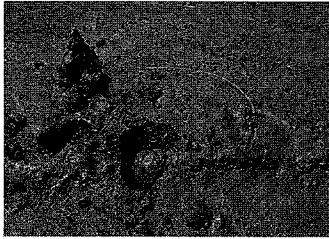
문음낙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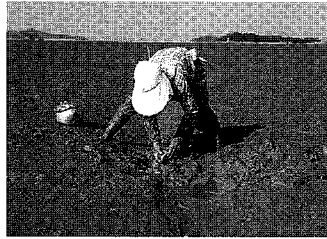
문음낙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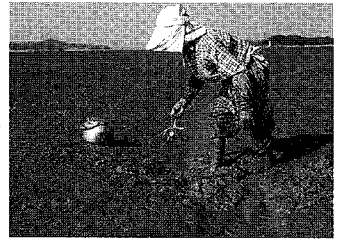
문음낙지3



문음낙지4



문음낙지5



문음낙지6

<문음 낙지를 잡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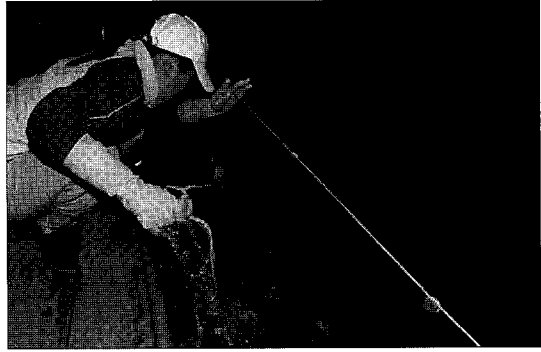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낙지구멍 찾기를 계속한다. 갯벌을 뺨질나게 들고 나는 나도 낙지구멍과 게나 짱뚱어 구멍을 구별하기 어렵다. 보통 10개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낙지가 많을 때는 7-8개는 낙지를 잡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무더운 날은 낙지들도 잘 나오지 않는다. 30여분을 헤매고서 겨우 2개를 발견했을 뿐이다.

뚜껑을 열던 아주머니가 팔을 갯벌에 쑥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낙지가 인기척에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거나 안에 있는 낙지를 압력으로 뽑아내려는 것이다. 뚜껑을 덮고 반원을 그려 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손을 집어넣어 낙지를 잡기 위함이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낙지가 구멍 속으로 들어갈 경우 구멍이 뚫린 쪽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낙지를 따라가며 손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을 받은 갯벌이 토해내는 열기로 얼굴이 화끈 거린다. 갯벌을 걷는 것도 힘든데 더운 열기로 아줌마들을 따라가기 더욱 어렵다. 겨우 몇 마리 낙지를 잡는 것을 보고 갯벌에서 나와 그늘에 몸을 숨겼다.

독살처럼 자연에 가장 가까운 고기잡이 방법인 '문음낙지', 구멍을 확인하고 낙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다. 물이 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낙지가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한다. 문음낙지는 많이 할 때는 50여개(문음은 마리가 아니라 '갯수'로 표시한다)정도 하기 때문에 낙지는 40-50여 마리 잡는다. 옛날에는 낙지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기잡이 방법이 '기다림'

이었다. 지금은 고기가 있는 곳을 어군탐지기와 GPS를 이용해 확인 하고 쫓아가 잡는다. 지도읍 봉리 장끄지 갯벌에서 잡는 문음낙지는 일반낙지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것이 진짜 ‘빨낙지’ 이기 때문이다.



낙지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어민(지도읍 선도)

4) 일자리 잃은 사람, 고향갯벌에 안기다 - 지도읍 선도 낙지주낙

‘물었다. 세발낙지네’

배가 지나는 속도에 따라 재빠르게 낙지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뱃머리에 앉아 낚시 줄을 사리던 어민이 몇 차례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놓친 것이 안타까웠던지 알려주는 소리다. 장마 통에 잠깐 개인 날 저녁 어촌계장을 졸라 낙지잡이에 나섰다. 며칠 전 태풍으로 낙지 배들을 모두 물으로 올려놓았던 어민들이 하나 들썩 낙지잡이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일성(46) 선도어촌계장과 낙지주낙을 위해 나선 곳은 무안군 망운과 현경면, 신안의 지도읍으로 둘러싸인 탄도만이다. 여름 낙지는 굵은 것이 특징인데, 이 날 주낙에 붙어 올라온 낙지들은 발이 가는 세발낙지다. 여름을 지내고 9월쯤에 잡혀야 할 세발낙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은 탓일 것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말이다.

신안군 지도읍에 속한 선도는 160여 호에 주민 400여 명이 될까 말까하는 작은 섬이다. 가장 큰 마을은 40여 호의 주동마을이며, 진변, 매계, 석산, 대촌, 북촌 등은 기껏해야 20여 호 쯤 될 듯싶다. 거주 인구에 비해서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어 낙지잡이에 나서기 전에는 김양식과 농사가 생업이었다.

#### ○ 고향 갯벌로 돌아온 사람들

지도와 무안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물길을 막기 전까지 선도를 둘러싼 조류는 곧장 칠산바다로 흘렀기 때문에 섬 가까운 곳에 천혜의 어장이 형성되었다. 한때 주민들 대부분 지주식 김 양식으로 생업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20여 가구가 72ha에 1440척의 양식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몇 가구가 양



주낙에 서령계를 끼워 낙지를 잡는 ‘낙지주낙’ (지도읍 선도)

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륙되면서 조류가 변하고, 다른 지역의 양식규모들이 기계화되고 대 규모화되면서 지주식 김 양식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무안과 목포의 어민들이 주낙을 이용해 낙지잡이에 나설 때 선도 주민들은 농사에 의지했다. 대신 선도갯벌은 목포, 탄도, 송현, 홀통 등 인근 지역의 어민들이 차지해 낙지를 잡았다. 하룻밤이면 30-40여 척의 낙지배들이 몰려들어 낙지를 잡아갔지만 주민들은 갯벌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 마을면허도 없었고, 널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낙지잡이는 물론 김 양식 이후 양식 어업에 관심이 없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박일성씨를 중심으로 선도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몇 명의 고이도와 신월리 어민이 어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 선도갯벌지키키에 나섰다. 이렇게 선도어민들이 '갯벌지키키'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선도갯벌'이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여기에 IMF 이후 고향을 떠난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돌아오면서 어촌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마을어업 면허도 확보해 힘을 보탤다. 당시 무안과 목포의 광산지역 등 낙지잡이 어민들의 탄도만에 자주 출현하면서 어민들과 갈등도 빈번해 해양경찰들이 출동하는 일도 잦았다.

선도를 떠난 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은 갯벌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낙지' 때문이다. 고향에서 몇 사람이 낙지잡이로 돈을 번다는 소문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IMF 이후 벌어도 시원찮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자 고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선도갯벌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초기에는 어촌계장도 고향을 떠난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와 같이 낙지잡이를 하자고 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갯벌을 관리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10여 명의 어민과 기존에 낙지잡이를 하는 사람을 모아 어촌계도 건설하게 만들고 어장의 질서를 잡아갔다. 예를 들어, 낙지잡이를 비롯해 마을어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선도에 거주해야 하며, 그것도 외지에 적(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촌계획회에서 가입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1년 이상 거주한다 하더라도 어장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입이 허락되면 가입금(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300여 ha를 마을공동어업으로 낙지, 갯지렁이, 해조류, 패류(고막, 바지락) 면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선도갯벌에 들어올 수 없다. 선도갯벌지키키에 함께 했던 일부 고이도와 신월리의 주민들은 행사계약을 맺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어촌계원만 20여 명에 이른다. 100명 200명이 넘는 어촌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마을 바로 앞 어장에서 낙지잡이를 할 수 있다는 점만은 어느 어촌계도 갖지 못한 자원이다. 이렇게 해서 일 년이면 낙지잡이로 2-3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 ○ 한 밤에 갯벌에 밝히는 불빛

낙지주낙을 하기 위해서는 낙지배와 주낙이 필요하다. 낙지잡이 배는 선외기를 많이 이용하며 구입하는데 2-3천만 원 정도, 주낙은 1틀을 마련하는데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어장 이용에 대한 내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민들은 낚시를 300개 이상 걸어서 작업을 했다. 낙지주낙의 모양은 150여 미터의 굵은 몸줄과 얇은 70여 미터의 아릿줄로 구성되어 있다. 몸줄에 같은 간격으로 아릿줄을 270개 정도 매달고, 아릿줄 끝에는 ‘다불’이라고 부르는 미끼를 끼울 수 있는 타일과 고무줄이 있다. 여수처럼 깊은 바다에서 낙지주낙을 할 경우에는 다불에 낚시바늘을 달아서 줄을 끌어 올릴 때 낙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어장이 넓고 작업장이 좋은 곳은 몸줄의 길이가 400여 미터에 낚시를 350여개씩 다는 경우도 있다. 낙지주낙을 갯바닥을 훑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김양식 말목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작업하기 어렵다.

낙지잡이에 가장 적합한 물때는 조금(음력 초여드레, 스무사흘)을 전후해 사나흘 정도다. 밤에 활동하는 먹이활동을 하는 낙지는 조류가 세지 않는 조금철에 잡기 좋다. 특히 달이 뜨는 날이면 낙지가 더 많이 잡혀, 이를 ‘달사리’라고도 부른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바닷물이 탁하면 많은 낙지잡이가 어려워며 갯바닥에 파래가 끼기 시작해도 낙지잡이가 수월치 않다.

낙지미끼로는 서렁게(철게)를 이용하는데 하루저녁 낙지잡이를 위해서는 3키로 정도가 필요하다. 다불이라 부르는 타일에 두 마리의 서렁게를 고무줄로 고정시켜 준비를 해 두었다가 해가 지고 갯바닥에서 물이 선외기가 뜰 정도로 빠질 즈음에 낙지주낙을 시작한다.

주낙의 양쪽 끝에는 불을 밝힌 전구를 스티로폼 위에 올려놓고 닻을 매단다. 닻 한쪽은 바다에 내려놓고 주낙을 길게 바다에 빠뜨린 후에 조심스럽게 다른 한쪽을 배에 올려놓고 10여 미터 앞으로 줄을 끈다. 일반 낚시처럼 몸줄을 어떤 속도로 끄느냐는 낙지잡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배위에 있는 닻을 바다에 넣고 몸줄을 따라 배를 이동해가며 아릿줄에 달린 낙지를 확인한다. 반대편 줄 끝에 가서는 다시 닻을 올리고 10여 미터 앞으로 줄을 끈다. 줄은 마치 갈지자모양을 그리며 앞으로 이동한다.

선도가 낙지잡이로 적합한 것은 낙지잡이 장소가 멀지 않고, 잡은 낙지를 육지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낙지를 잡기 위해서는 배를



낙지주낙을 위해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지도읍 선도)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선도는 3되 남짓이면 낚지를 잡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 낚지잡이는 봄철에는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가을철에는 8월부터 12월초까지로 각각 90-100여일 작업을 한다. 낚지 가격은 철마다 다르지만 금년의 경우 봄철 비쌀 때는 한 접(20마리)에 8만원에 거래되며, 평균 5만 5천 원에 판매되었다. 가을철에는 낚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4만원에 거래된다. 어촌계장 박씨가 아내와 함께 이날 잡은 낚지는 모두 죽히 60여 마리는 될 것 같다. 이날 낚지잡이는 깊은 곳 보다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더 많이 잡혔다. 낚지를 많이 잡을 때는 하루저녁에 수십 접을 잡기도 한다. 이렇게 잡은 낚지는 신월리를 통해서 밖으로 보내 판매한다. 어민 중 한사람을 선정해 모아서 어민이 가져가서 탄도만어판장이나 무안상회에 거래하기도 한다.

#### ○ 인간이 바다에 그어놓은 경계들

선도는 행정구역으로는 신안군 지도읍에 속하지만 주로 무안군 망운면 신월리를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렇지만 읍내에 일이라도 보려면 이들은 몇 개의 면의 경계를 넘어 지도읍으로 가야 한다. 먼저 배를 타고 무안군 망운면 신월리로 건너가야 한다. 그리고 현경면을 지나 해제면을 거쳐 지도읍에 이른다. 얼른 세어 봐도 세 개의 면을 지나야 읍내에 들어설 수 있다. 배를 타고 와서 군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가능한 일이다. 압해도-망운면-고이도-선도-지도읍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른다. 아쉬운 대로 고이도-신월-선도로 이어지는 연결 다리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만, 희망은 잠시뿐 '권력이 있을 때도 못한 일을 기대도 안 한다'고 체념한다. 아마 국민의 정부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다.

지도읍-선도-오이도-망운면으로 둘러쌓여 있는 갯벌을 '탄도만'이라고 한다. 이곳 탄도만은 최근 '자율어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낚지연승, 즉 '낚지주낙'을 하는 인근 10여개의 어촌계를 하나로 묶어 '탄도만자율어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판매장과 위판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낚지를 잡고 있지만, 선도어촌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브랜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인간들이 갈라놓은 경계 때문에 자율어업공동체에는 망운, 해제, 운남 지역의 어촌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어업이란 2005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이다. 정부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주체인 어민들이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가주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어촌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율어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승인을 받으려면 바지락을 하던지 다른 품목을 선택해야 한다. 육지에서 금을 굿듯 삶을 나누고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바다와 어민들

의 삶에 맞지 않다. 바다의 생업은 경계가 없다. 삶이 그렇다. 그렇다고 선도 어민들에게 새로운 투자를 요구 할 수는 없지 않는가.

### 3. 사회문화자원 활용방안

#### 1) 신안대표축제 개발- 지도, 병치와 민어의 자원화

서남해안의 어느 지역에서나 잡히는 병치라지만 이곳 병치를 덮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품은 단연 '병치'라 할 것이다. 최근 관광을 비롯해 축제의 추세를 볼 때 볼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토착 먹거리이다.

대하, 전어, 키조개, 주꾸미 등을 이용한 지역축제들이 봄과 가을철에 어촌지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병치처럼 생산에서 지역성이 강하고, 소비가 광범위한 생선도 흔치 않다. 뿐만 아니라 보 관성도 좋고, 계절적으로도 축제가 집중해 있는 봄철과 가을철을 피해 여름철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적절하다.

신안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아무리 좋은 축제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하기 어렵다. 다행스럽게 송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사육도와 증도도 이어지는 다도해의 특징도 간직하고 있다. 전국 명품으로 자리한 지도병치와 임자도민어 그리고 다도해의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소재로 삼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신안은 도서별로 크고 작은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기도 했지만 접근성이 불편해 이뤘다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스럽게 지도의 송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신안지역의 도서에서 고루 잡히는 병치와 민어를 이용한 축제의 개발은 지역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게다가 초여름의 축제는 시기적으로 다른 축제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V. 지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 1. 지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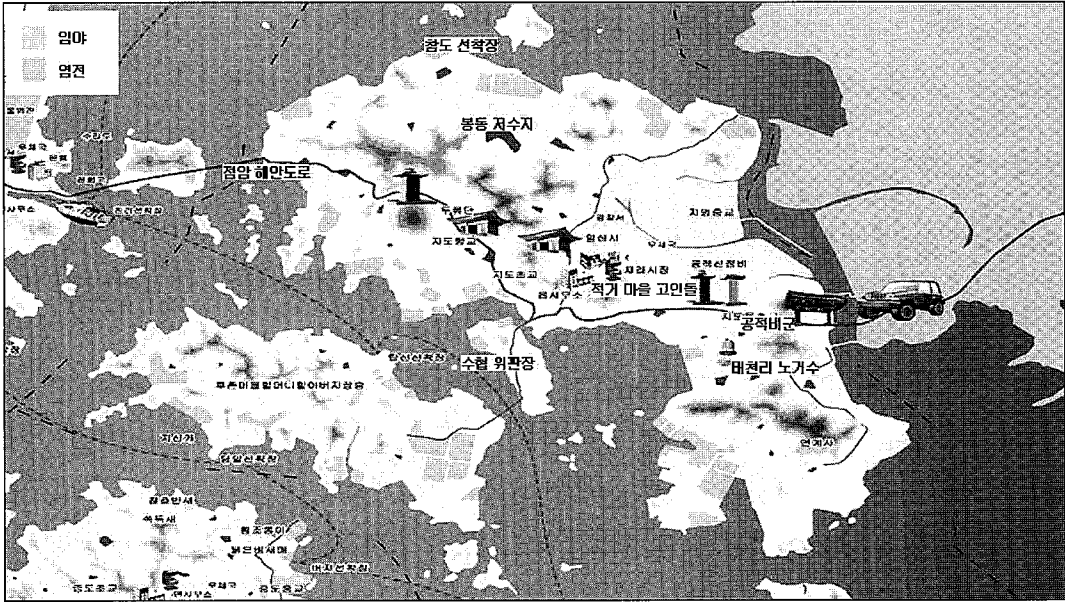
(다도해와 육지가 만나 역사문화를 꽃 피운 인재의 고장)

#### 1) 지도의 지리적 특성

- 지도는 신안군 북쪽에 있는 도서로서 총면적이 79.90km<sup>2</sup>이며 목포와의 거리는 육로로 약66km이다.
- 지도는 1975년 2월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와 지도읍 자동리가 연륙교로 연륙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도서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거의 없는 섬으로 변모하였다.
- 지도읍은 지도를 포함하여 유인도 5개, 무인도 6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도 총면적은 지도를 포함하여 77.29km<sup>2</sup>이다.
- 지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쪽은 무안군의 해제면·망운면과 마주하며, 해제반도와 지도 사이에는 다리가 건설되어 육지와 연결되었다. 서쪽은 임자면, 남쪽은 자은면과 압해면에 이웃하고 있으며 북쪽은 영광군 낙월면을 바라보고 있다. 지도는 1980년 12월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신안군에서 유일한 읍 소재지이다.
- 해안선의 총연장은 98.18km이다. 지도읍의 최고봉은 삼암봉산으로 그 높이는 196.2m이다.

#### 2) 지도의 사회·문화적 특성

- 주민의 주 소득원은 쌀, 보리 유채, 참깨 등이다. 연안의 수역에서는 농어, 민어 등이 많이 잡히고 김을 생산한다. 또한 지도, 위도, 사옥도 등에는 염전이 개발되어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 문화유적으로는 읍내리 선정비군, 연계사, 두류단과 지도향교가 있으며, 지도향교는 전남문화재 자료 111호로 지정되었다.
- 지도읍 태천리 연화동에 위치한 연계사는 김유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로 매년 음력 3월 3일에 김유신 장군제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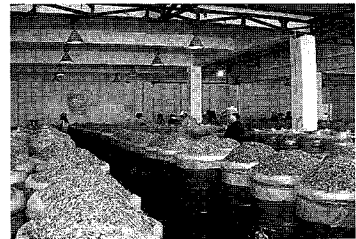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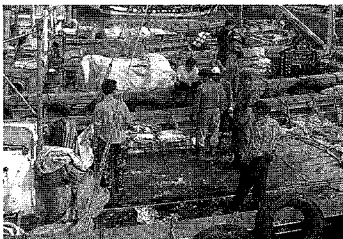


지도읍 지도

## 2. 관광자원 현황

### 1) 송도 위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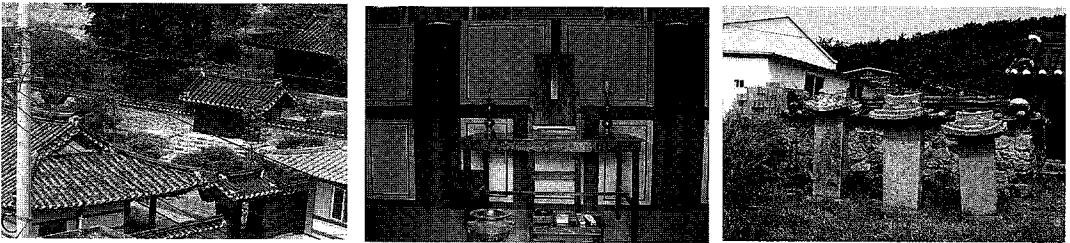
- 지도 인근해역에서 생산된 각종 어종들을 모아 위탁 판매하는 곳으로 특히 전국 생산량의 60%를 자랑하는 임자 전장포항의 새우가 이곳 송도 위판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병어, 농어, 참게 등이 판매되기도 한다.
- 신안지역의 다른 항?포구에 비해 활기가 넘치고, 배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내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주변에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송도 주변의 화려한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



수협 공판장

## 2) 지도향교

- 지도향교는 조선 고종 1896년에 설립되었으며,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국가 교육기간이다.
- 지도향교는 봉정산의 남쪽에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양사재, 내삼문, 외삼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공부자 오성과 유교의 현인 22위를 모셔 놓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낸다. 1984년 2월 29일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 11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지도향교

## 3) 두류단

- 지도읍 감정리 배런동 두류산 정상부에 5 선비각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쪽으로 두류산과 두류단의 유래를 기록한 두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 최초의 두류단은 1720년경에 주자, 정여창, 김평필 세분을 모시는 정자를 짓고 제향을 지내왔던 곳이라고 한다. 그 후 1914년 호남지방의 선비들이 전라도 지방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항로, 기정진, 김평묵 3분의 단비를 모시고 3현단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5년 뒤에 최익현 선생도 함께 모시면서 4현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8년 중암 김평묵의 제자였던 지도 출신의 나유영 선생을 단비를 모시고 오선생단 또는 오선비라 부르게 되었다.
- 두류단 뒤편으로 최익현, 김평묵선생의 바위글씨가 있다. 두류단 뒤편으로 약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가시땀굴이 우겨져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 두류단 앞쪽으로 수풀을 헤쳐서 나오면 조그만 바위가 나오는데 바위에서 바라보는 점암 쪽은 풍광이 아주 뛰어나다.
- 두류단을 올라가는 길목에는 두류산에서 흘러나온 약수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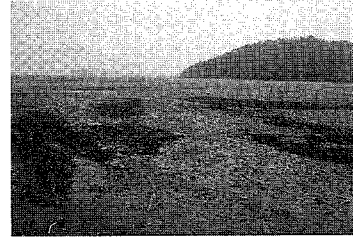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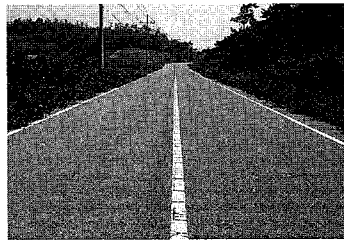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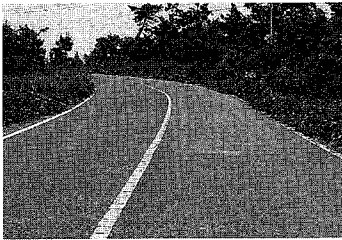


두류단

지도 전경

#### 4) 점암 해안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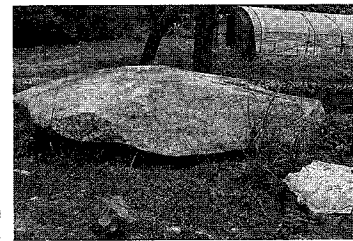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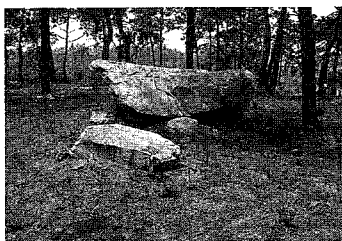
- 점암 해안도로는 지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잘 포장된 도로와 도서 지역의 농산물 재배지가 펼쳐져 있고, 지도의 화려한 해양경관과 주변 양식장을 감상할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점암 해안도로

#### 5) 적거마을 고인돌

- 적거마을은 장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연혁과 지명유래가 실려 있는 비석을 볼 수가 있다. 마을회관을 지나 위로 가보면 조그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 안에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적거마을 고인돌

### 6) 태천리 노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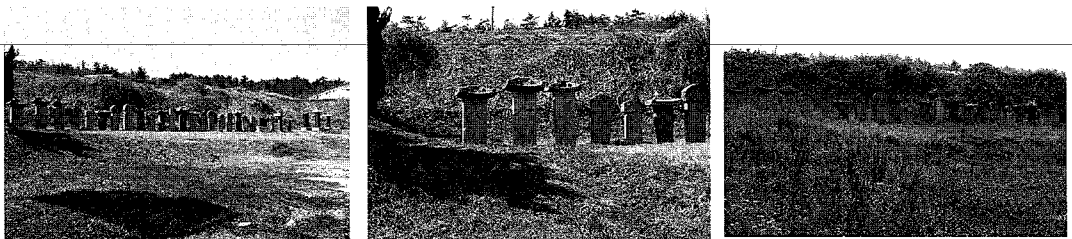
- 태천리 노거수는 태천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된 나무가 잘 우거져 마을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가운데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당제 터가 위치하고 있다.



태천리 노거수

### 7) 공적비군

- 지도읍 자동리에 들어서면 27개의 비석군이 있다. 만호관찰, 어사, 군수의 선정에 대한 칭송한 비석들이다. 특히 1896년에 신설된 지도진과 관련된 만호들의 공적비가 가장 많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조성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 특히 지도로 접근하는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인적이 끊겨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유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자원으로 전략하였다.



공적비군

### 8) 봉동 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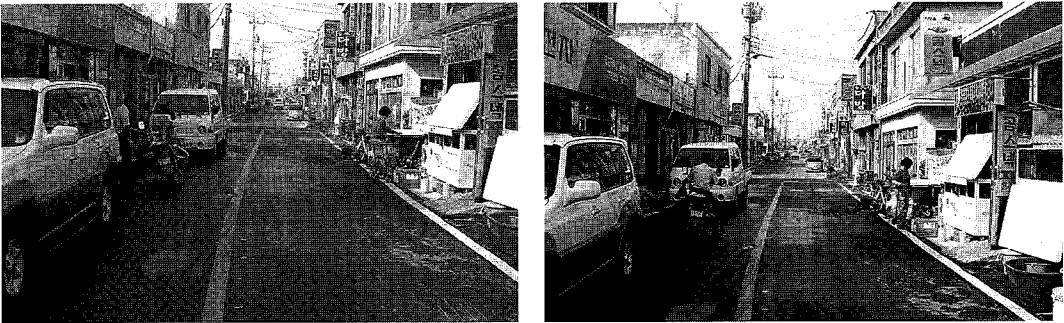


봉동 저수지

- 봉동 5리에 위치한 저수지는 지도읍내에 위치한 저수지중 가장 큰 것으로 현재 낚시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또한 주변에 민박시설이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도 있다.

### 9) 지도읍 5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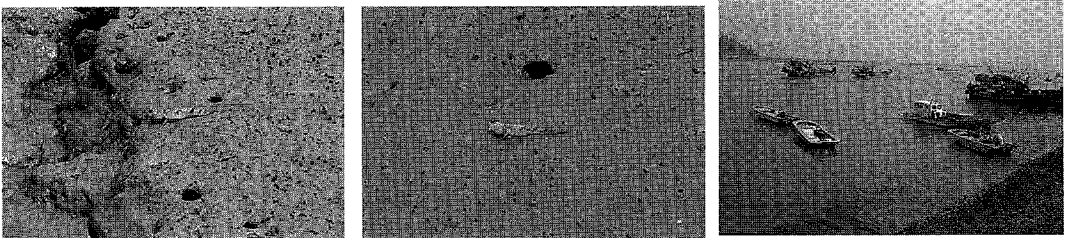
- 지도읍내에는 5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이 관광객을 유인한다. 지도 주변에 있는 중도, 병풍도, 임자도 등의 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옛 장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 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변의 상가들이 복적대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지도의 대표적 생활문화 자원이다.



지도읍 5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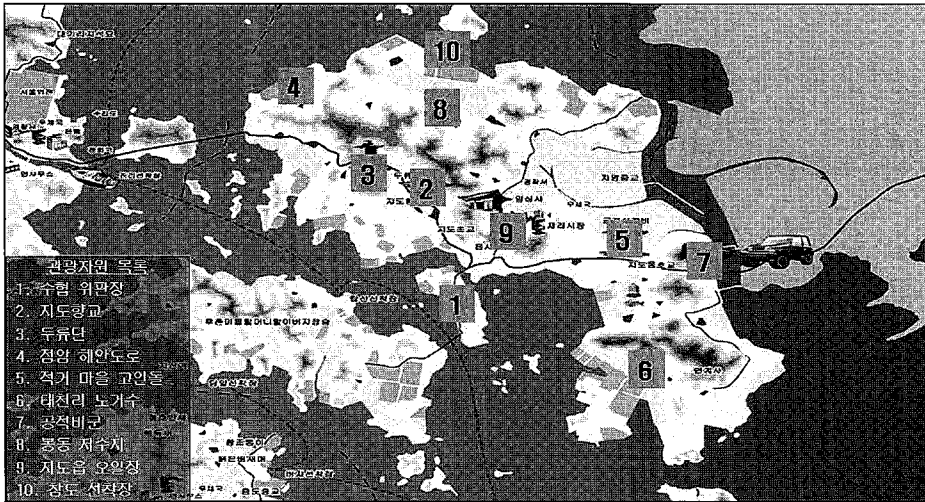
### 10) 참도 선착장

- 지도읍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아담한 항구이다. 새우잡이 배를 볼 수도 있고 좌우로 넓은 갯벌이 위치하며 갯벌위에서는 많은 쟁뚝어를 볼 수 있다.
- 마을 주민에 따르면, 선착장 주변의 선박에서 유출된 각종 오염원 등으로 인하여 참도 선착장 주변의 쟁뚝어는 먹지 못한다고 한다.
- 선착장 앞쪽으로 대포작도를 마주하고 있고 인근 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참도 선착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가 있다.



참도 선착장

## 11) 관광자원 목록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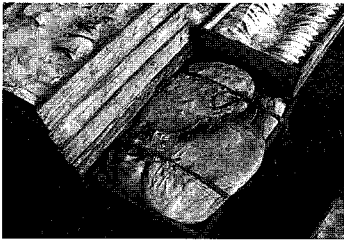


관광자원 위치도

## 3. 관광자원화 방안

### 1) 수협 위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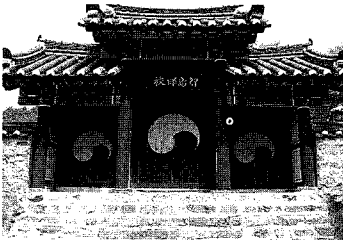
- 송도 선착장에 위치한 수협 위판장은 신안군에서 유일한 경매 위판장으로서 현재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신안군에 위치한 다른 항구에 비해 비교적 활기가 넘치며, 인근 해역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도 볼 수가 있다. 주변 부대시설도 확충이 되어 있다.
- 송도 수협 위판장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단일 코스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아직 지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지도에 위판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곳을 활용하여 신안군의 수산물을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신안의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 정비와 시식 코너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매년 거행하게 될 증도 갯벌올림픽 기간에 외지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들러서 반드시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젓갈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 소재이다.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활용한다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간단한 시식코너와 인근 식음료 시설을 연계한 음식 관광코스로 개발이 가능하다.



수협 위판장

## 2) 지도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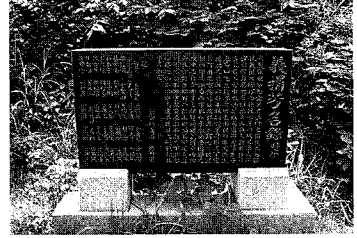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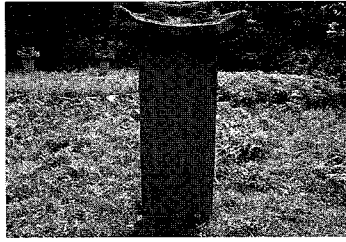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가치가 우수한 지도향교를 이용하여 유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관광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지도향교는 보존이 잘되어 있어, 일부 시설 보완과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예절과 덕목을 가르치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지도읍내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5일장이 서는 날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도향교

## 3) 두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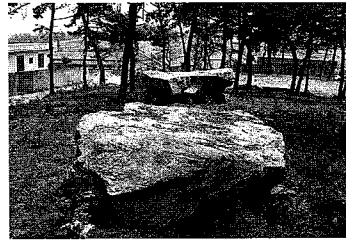
- 두류단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두류단까지 접근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두류단 뒤편에 최익현선생과 김평묵선생의 바위글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적이 끊겨 가서 덩굴로 둘러 쌓여 찾아보기가 힘들다.
- 앞쪽으로는 지도를 한눈에 내다 볼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도 있다. 또한 올라오는 길에는 약수터가 있어 시원한 약수도 마실 수가 있다. 두류단 주변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역사적 공부도 하고 지도의 화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역사문화 탐방 산행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두류단

#### 4) 적거마을 고인돌

- 적거 마을은 장수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 중앙에 아늑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곳에 는 고인들이 위치하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원을 정비하고 장수마을이라는 특징을 살려 웰빙관광 상품화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거마을 고인돌

- 최근 웰빙과 장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도시민들에게 차별화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홍보 한다면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어지는 곳이다. 마을 어귀에 과수나무와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 현 지주민에게 듣는 장수비법, 웰빙 식단 꾸미기, 장수 마인드 컨트롤 (Mind control)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의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5)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 지도 향교는 역사공원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는 지도향교 입구 앞에 표지판을 세워놓고 주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인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이곳을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 전남 인근지역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수학여행단 또는 역사현장 탐방학습을 유치하고 지도에 분포한 다른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두류산에 위치한 두류단, 약수터, 바위글씨 등을 전반적으로 발굴하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두류산까지 오는 길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가치가 높은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6) 자연생태 활용방안

- 참도는 갯벌이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참도 선착장 일대에서 갯벌 생태 체험을 하고 갯벌에서 직접 짱뚱어를 잡는 체험관광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맞은편에 있는 소포작도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과 패총이 있다. 참도와 포작도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도와 소포작도는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므로 나룻배나 뗏목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접근하는 운송수단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가족단위 짱뚱어 잡기 대회를 개최하여 직접 잡은 짱뚱어 요리를 해주거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밴댕이가 많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 시식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 밴댕이 낚시 어선 체험과 선상에서 회를 시식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도 모색한다.

#### 7) 향후 잠재력

- 지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무수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관광수요가 예상된다. 신안군 다른 도서에 비해 접근성이 가장 높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광해수욕장과 우전리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여 관광객이 반드시 경유하는 지역이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관광객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설 정비가 부족하여 단순 경유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도에서도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반적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진행 중인 해안도로가 완성이 되면 지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안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유입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개발이 시급하다.

- 임자도의 대광해수욕장과 증도 우전리 일대의 관광자원과 시설은 향후 대규모 관광객이 지도를 경유하여 인근 도서지역으로 분산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 지도와 수도를 연결하여 임자도로 이어지는 연도교와 증도-사옥도간 연도교, 이어서 사옥도와 증도간 연도교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도의 관광객 유입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 연도교 주변의 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정비하여 전망대와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반드시 관광객들이 차량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관광객 편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정비하여 지도에서 체제 시간을 연장토록 하고, 관광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 향후 연도교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능과 업무를 상실하게 되는 선착장의 활용방안 모색도 절실하다. 관광유람선 또는 낚시어선의 재정비와 코스 구상을 통한 관광객 이용 시설로 적극 탈바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참도와 선착장일대는 체험관광형태의 개발이 가능하고 신안에서 자랑하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짙둥어가 많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와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자원화 지도

## 8) 관광자원화 지도와 관광 진흥 방안

- 지도의 해양 관광 루트는 송도항과 참도선착장을 연결한 것으로서 지도의 서쪽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루트이다. 이곳은 지도의 무인도와 유인도가 화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고 또한 참도선착장 앞에 있는 대포작도와 소포작도에 위치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고분과 폐총을 볼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하다.
- 핵심 관광 권역인 지도읍 5일장은 도서민의 인심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인근 도서의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지만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무수한 수산물과 지도만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통 시장인 만큼 적극적 홍보를 한다면 교통이 편리한 지도읍 5일장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송도 선착장은 무수한 관광자원을 지닌 곳이다. 우선 사옥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도대교에 새로운 이미지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관광상품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선착장 옆 수협 공판장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현장, 그리고 송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을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능하다.
- 부속도서인 사옥도 일광염전에서 천일염과 함초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소금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넓은 염전에서 소금체험관광형태도 가능하다.
- 현재 지방 문화재로서 방치되어온 지도향교를 이용하여 유학사상을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 옛 학교의 생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중 개방을 한다면 역사 체험 관광도 되고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 수협 위판장은 현재 비교적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홍보를 하고 지도읍 인근에서 잡아드린 생선을 직접 맛볼 수 있고 경매의 장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 부수관광권역인 두류산은 두류단까지 가는 곳을 등산로로 개발하고 중간지점에 있는 약수터를 활용하고 역사체험관광 형태와 산 정상에서 지도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도 관광의 또 다른 특징은 신안군에서 관광객 유입이 많은 증도와 임자도를 가기 위한 필수 경유지라는 점이다. 여름이면 무수한 관광객이 오간다는 점을 활용하여 송도선착장의 수협위판장과 두류산의 두류단 등을 활성화 하여 관광객들이 해수욕장만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

- 원을 연계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도 선착장은 주변에 넓은 갯벌이 분포하고 갯벌에서 서식하는 짱뚱어를 이용하여 갯벌생태체험 공간과 짱뚱어 잡이, 시식회 등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 연계사와 태천리 노거수 당제는 전통 민속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당제를 복원하여 상품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면서 지도의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



# 지도



- 범례 -
- 자연자원
  - 해양문화자원
  - ▲ 신시문화자원
  - ◆ 유교문화자원
  - 쉼터문화자원